장편소설

룡새벌의 봄

리 주 천

문학예술출판사
주체101(2012)

1

실구름이 부드럽게 수놓아진 남빛하늘이 굽어보는 룍새벌을 가로지른 포전길을 따라 리병원 의사 홍현희가 걸어가고있었다. 미색작업복우에 왕진가방을 메고 평소에는 위생모밑에 꼼꼼히 밀어넣군 하던 숱많은 함함한 머리칼을 하늘색수건으로 가뜬하게 동여맨 그는 이따금 정겨운 눈길로 누런 벌을 휘둘러보군 하였다.

어디선가 선들바람이 향긋한 과일향기를 간간이 실어왔다. 잔잔한 옥천강물속에 거꾸로 비낀 옥련봉이며 외로운 그림자를 벌우에 끌며 너울너울 날아예는 해오라기며 저기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의 논배미사이 소로길로 명랑하게 웃고 떠들어대며 멀어지는 모습 그리고 벌언저리에 과일동산을 배경으로 오붓하게 모여앉은 아름다운 문화주택들의 아기자기한 풍경이 다 그의 생활에서 한시도 뗄수없이 소중한것으로 안겨왔다.

눈에 보이는 모든 정겨운 가을날의 류다른 정취가 오늘따라 그의 마음에 한결 차분히 안겨들어 기분은 금시라도 날듯이 상쾌해졌다.

오랜 도시생활이 몸에 푹 배인 현희는 자기가 불과 한해남짓한 사이에 이 고장에 그리도 쉬이 정들고 그리도 쉬이 익숙될줄은 미처 몰랐었다.

사실 금주리는 남편 김인혁에게나 현희에게 있어서 더없이 소중한 땅이였다. 여기는 남편의 남다른 어린시절이 흘러간 애틋한 고장이고 현희의 고향도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한편 학창시절 방학때마다 인혁이와 함께 정답게 거닐던 못내 그리운 잊지 못할 고장이였다.

이로 하여 그는 세월의 갈피속에 멀리 사라진 옛시절의 갖가지 추억을 밟으며 왕진의 길을 오갈적마다 저도 모르게 무엇인가 감미롭고 애모쁜 심정에 젖어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한해전까지만 하여도 현희의 생각은 오늘과 같지 못했었다. 대학졸업후 남편이 군당과 도당에서 사업하였으므로 도시생활에 젖어온 그

였던것이다.
남편 인혁이 문득 나라가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기 고향에 돌아가 금주땅을 훌륭히 꾸려보고싶다는 의향을 내비쳤을 때 현희는 선뜻 그 뜻을 따르지 못했다.
그러한 현희였지만 그는 남편이 실지로 금주리에 리당비서로 부임되자 자기의 마음속 우려와 이러저러한 타산을 즉시에 단념했었다. 더우기 적잖은 위안으로 된것은 하나밖에 없는 혈붙이인 동생이 이웃리에 있다는것과 남편과 쌍둥이처럼 자라 생활의 한 궤도우를 걸어온 조수환이 이곳 관리위원장으로 사업한다는것이였다. 그래서 현희는 남편이 이곳에 부임된 후 이내 세간뒤거두매를 해가지고 따라온것이였다.
정작 새로 와 살림을 펴고보니 혈육을 맞듯 하는 마을사람들의 다심한 정과 흙내 풍기는 아늑하고 차분한 생활환경이 곧 그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새 고장에 애착을 느끼게 하였다.
현희는 본래의 찬찬하고 부드러운 성미로 하여 사람들과 인차 친숙해졌으며 《홍선생》으로부터 《순이 엄마》로 친근하게 불리워지게 되였다.
금주땅에 와서 평온해진 현희의 마음을 휘저어놓은것은 마판진수렁 정리와 관련된 문제였다.
마판진수렁공사는 마치도 잠자던 호수에 난데없는 바위돌이 굴러떨어진듯 삽시에 온 농장을 마구 뒤흔들어놓았다.
마판진수렁은 록새벌 한쪽면에 흉터마냥 남아있는 적잖은 면적의 수렁구역이였다. 대략계산으로도 20정보가 넘는다고 하였다.
인혁이 이곳 리에 와서 첫눈에 거슬리는것이 그 진수렁이였는데 그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벌써 이 수렁판을 논으로 전변시킬 생각을 해왔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농한기에 접어들어 이 수렁판을 없앨 결심을 굳히게 되였다.
마판진수렁공사가 정식으로 확정되자 온 농장이 물끓듯 하며 각이한 반응을 일으켰다.
선군시대에 록새벌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공사, 전야의 흉터를 깡그리 메우고 수많은 농경지를 통짜로 얻는 실리있는 공사라며 신바람나서 당장이라도 무슨 일 칠것처럼 웅웅하는 청장년들이 있는가 하면 농장의 운명을 건 위험천만한 공사라고 우려하는 사람, 미타해하는 사

람, 애당초 머리를 흔드는 사람, 아무튼 가는데마다 이것이 큰 화제거리로 되였다.

사람들의 이렇듯 각이한 반응과 태도는 현희의 마음을 자못 착잡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몇해전에 관리위원장 조수환이 마판진수렁을 우습게 보고 접어들었다가 예상외의 거듭되는 참패에 그만 넋을 잃은 다음부터 단념한 공사였는데 새 당비서가 오면서 다시 제기된 문제였기때문이였다.

당시 조수환이 하면 농장앞에 나선 그 어떤 일이건 드팀없이 해제끼는 일손이 걸싼 완력형의 일군으로 군적으로도 널리 알려져있었다.

그랬던 그도 넋이 나가 단념한 공사를 이 고장에 아직 생소하고 농장일에 손이 선 남편이 하자고 발기했다는것이 현희에게는 너무나도 놀랍게 생각되였다.

현희에게는 혹시 이 공사를 기화로 하여 뿌리깊은 인연으로 각별해진 그들사이가 본의아니게 버그러지지나 않을가 하는 생각까지 생겼다.

조수환으로 말하면 자기와 인혁이간의 평생인연을 맺어주고 가정을 이루게 해준 잊지 못할 사람이기도 하였다. 이곳에 와서 정붙이고 사는 집도 그의 온 가정이 떨쳐나 장판도배도 말끔히 새로 하여 새집처럼 정성껏 꾸려주었었다. 조수환의 내외는 현희가 도병원에 있으면서 이내 따라오지 못한것때문에 이곳에서 합숙생활을 할 때에도 남편의 뒤바라지를 끔찍이 해주었다고 한다.

물론 농장일군들의 충분한 사전합의를 거쳐 공사를 하자고 결정하였을것이다. 그러면 관리위원장은 왜 자기가 실패의 고배를 맛보고 단념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견이 없이 순순히 동의했을가? 그것이 우선 현희의 마음에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현희는 어쩐지 오래동안 농장일이 몸에 밴 대틀인 조수환과 육체적준비가 따라서지 못할것 같은 남편사이에 조화롭지 못한 일들이 생기지 않을가 하는 우려가 생겼다.

이곳에 갓 왔을 때 아낙네들이 쉬쉬하던 말이 상기되였다.

《새로 온 리당비서가 관리위원장과 배짱이 맞을가. …》

사람들은 일손이 드세고 목청이 높다 해서 관리위원장 조수환을 확성기관리위원장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인혁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였다. 그는 남들의 제

나름의 평처럼 겉보기에는 아련할것 같지만 실지는 무슨 일이든 일단 결심하고 설계하면 그 어떤 수를 써서라도 기어코 끝장을 보고야마는 완강한 기질을 가지고있었다.

오늘 왕진을 나갔을 때 나많은 7작업반장은 자기의 건강치 못한 몸 상태를 한탄하며 안타까운 호소를 하였다.

《아마 농장적으루 나만큼 그놈의 마판진수렁때문에 간을 말리구 경난을 겪은 사람은 없을겁니다. 내 원래 1작업반장을 오래하면서 작업반 한가운데 틀고앉은 그 진수렁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왔수다. 그런데 리당비서가 그 원망스러운것을 정리할데 대한 큰 용단을 내리자 나는 자리에 누워서도 환성을 올렸댔지요. 사실은 내가 먼저 제기했어야 할텐데, 참…》

그는 이 공사를 절대다수의 농장원들이 좋아하며 적극 지지한다는것, 단지 관리위원장의 실패에서 얼이 뽑힌 일부 사람들이 도리질을 하고있다고 나무랐다.

현희에게는 그 말이 자기를 안심시키려는 말같았지만 고맙게 들리였다.

(오늘이 그이가 오겠다고 한 날인데…)

출장간 남편을 기다리며 현희는 발걸음을 빨리 했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도 좀처럼 마음을 가라앉힐수 없었다. 집에서 퍼그나 떨어진 청년작업반에 노상 나가 사는 딸 순이가 벗어놓고간 작업복의 터진 소매를 꿰매려 했으나 웬일인지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가끔 바느질손을 멈추고 바야흐로 어둠이 짙어가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오늘은 유별나게도 갈피없는 생각이 련속 꼬리를 물고 머리에 갈마들었다.

엊그제 출장간 아버지가 왔는가 하여 집에 들렸다가 하던 순이의 말이 귀에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엄마, 아버지의 발기가 얼마나 대단한건지 알아요? 알곡증산의 예비를 찾는데서 관건적인 공사래요. 우리 청년작업반은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벼가을 첫날계획부터 두배이상 넘쳐하기로 궐기했어요. …》

순이는 그때 문밖에서 발자국소리가 나지 않나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를 초조히 기다리다가 밤 9시가 되자 작업반에 나가 자겠다고 하면서 서둘러 떠났었다.

어쩌다 집에 들려도 감자를 껍질벗겨 자름자름 고르게 썰어 뉾남비안에 소복이 담아놓든가, 부뚜막이며 가시장을 알른알른 닦아놓고야 가군 하는 딸을 두고 이젠 다 컸구나 하는 후더운 생각과 함께 곁에서 하루밤 재우지 못하고 돌려보낸것이 어쩐지 알찌근하였다.

순이가 돌아간지 얼마 안되여 인심이 후한 조수환의 안해가 큼직한 싸리바구니에 다 자란 흰토끼 한마리를 넣어 안고와서 현희의 마음을 또 한번 휘저어놓았다.

《요새 리당비서의 얼굴이 축갔다구 별옥 아버지가 걱정하길래 곰이라두 만들어 몸보신하라구. …

신살림이나 같은데 불편한게 많을거예요. 별옥의 아버지는 내가 순이네한테 등한해할가봐 그저 잔소리라우. …》

무슨 영문인지 그 공사와 관련한 웅성웅성하는 분위기, 토끼곰이야기… 이것이 이상스럽게 한선우에서 돌이켜지며 현희의 마음을 든장질하였다.

(내 마음이 오늘 왜 이래질가. 애아버지를 위하는 지나친 위구때문일가.)

현희가 이렇듯 착잡한 생각에 잠겨있을 때 인혁이 불쑥 집에 들어섰다.

《인제야 오세요? 먼길에 고생하셨지요.》

현희는 인혁의 들가방을 받아 앉은책상우에 놓았다.

《고생은 무슨 고생, 사무실에 좀 들렸댔소.》

갸름한 얼굴에 느슨한 미소를 지으며 웃옷을 벗어 옷걸이에 걸던 인혁은 문득 책상모서리에 차곡차곡 쌓아둔 책에 눈길이 미쳤다.

《이건 무슨 책들이요? 으음, 순이가 왔던게구만.》

《왔댔어요. 아버지를 만나겠다구 기다리다가 갔지요.》

현희는 밥상을 차리며 말했다.

《걔가 무슨 타지방에 가서 살기라도 하는것처럼 말하오. 래일이라도 만나면 되는거지.》

《무엇때문인지 아버지를 꼭 만나야 할 일이 있다면서…》

《갑자기 무슨 일이게.》

《글쎄, 고 앙큼한것이 속을 줘야 알지요. 아버지한테 직접 말씀드릴 일이라면서 나한텐 비밀이라나요? 하여튼 당신은 애들을 잘두 키웠어요.

원, 언제나 아버지편이구… 어쩌면 고 깜찍스러운게 제 이모를 닮은것 같기두 하구.》

현희의 악의없는 지청구에는 쌍둥이 두 아들들을 군대에 내보내고나서 외동딸 순이를 의대에 보내려던 자기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한 알찌근함도 없지 않았다.

인혁은 《허허허.》하고 웃으며 책상앞에 다가앉아 책제목들을 훑어보았다. 기술서적도 있고 장편소설도 두어권 있었다. 맨 우의 책갈피속에는 또박또박 박아쓴 쪽지편지가 끼워있었다.

《명령! 어느 하루도 책보는 일을 번지지 마세요.》

인혁이 저녁상을 물리자 안해는 상을 거둔 후 부엌에서 싸리바구니를 들고 들어와 그앞에 놓았다.

《자, 보세요. 별옥이네가 보낸 토끼예요.》

《뭐, 토끼?》

인혁은 의문스러운 눈길로 안해를 피끗 쳐다보았다.

《당신이 몹시 상했다고 몸보신하라구 보낸거예요.》 현희는 다소 갈린 목소리로 말하였다. 《정말 끔찍한분들이예요. 가까운 친척이면 이에서 더하겠나요. 너무 신세만 지니 미안스러워요.》

인혁은 안해의 말을 들으며 바구니안의 토끼를 들여다보았다.

《그놈 우량종이군. 부둥부둥 살이 올라 뼈가 잡히지 않는군. … 사람두 참…》 하고 인혁은 목이 메여 말을 더 잇지 못했다.

현희는 바구니를 창밑에 옮겨놓았다.

잠시 무슨 생각에 잠겨 묵묵히 앉아있던 인혁은 움쭉 일어나 들가방을 열고 사업수첩갈피에서 공책크기만 한 사진 두장을 꺼내여 책상우에 나란히 놓았다.

《여보, 이걸 좀 보우. 삼룡리에서 가져온 사진이요. 얼마나 멋있소. 한장은 토지정리전 사진이고 다른것은 오늘의 삼룡리요. 마침 그곳에 토지정리전에 찍어둔 사진도 있더군.》

현희는 얼른 인혁의 곁에 다가앉아 그 사진들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삼룡벌의 두 사진은 너무나 대조적이였다.

한 사진은 벌가운데 스산하게 움푹 패운 수렁에 물이 고여 누덕누덕하고 벌가에 살림집들이 띠염띠염 널리여 살풍경스러운 인상을 주었다.

반대로 다른 사진에는 논벌이 장기판같이 네모반듯이 펼쳐지고 자로 그은듯 한 논두렁사이의 일매진 배미마다 푸른 벼숲이 융단처럼 무

연했다. 그리고 멀리 기복이 부드러운 야산변두리에 문화주택들이 규모있게 모여앉아있었다.

현희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인혁은 무척 감심해하는 안해의 옆얼굴을 흡족하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물론 수렁규모는 우리것보다 작았지만 정말 잘 정리했소! 나는 거기서 우리 금주리의 래일을 보았소. 금시 다 정리된 우리 농장벌에 푸른 벼바다가 남실남실 설레이는 풍경이 눈앞에 선히 그려지더란 말이요!》

《…》

《우리도 그새 많이 달라졌지. 하지만 우리에게는 할일이 더 많소.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대자연개조구상을 받들고 전국이 떨쳐나섰는데 우리는 어쩐지 우물거린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요. 조건에 눌리워 더 전진하지 못하구… 훌륭한 경험을 창조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배우러 다닌다는게 좀 창피한감도 없지 않지만 어찌겠소. … 배우는거야 창조를 위한 전제가 아니겠소. 직접 가보았으니 이런 자극도 받게 되는게 아니겠소. 우리 마판진수렁도 당장 없애버릴 결심이 굳어지구. …》

현희는 남편의 말에 공감하면서도 마판진수렁 없애는것 같은 엄청난 공사를 지내 수월하게 생각지 않는가 하는 우려와 걱정도 없지 않았다.

《여보, 삼룡리는 조건이 좋다는데 여기는 거기와 형편이 다르지 않나요. 그런데 당신생각에는 이번 공사가 그렇게 쉽게 될것 같아요?》

《세상에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어디 있겠소. 누구나 할수 있는 일보다 남들이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내는게 우리 일군들의 일본새고 투쟁방법이 아니겠소.》

《오랜 경력자로 알려진 관리위원장이 랑패를 보고 단념한 공사를 당신이 부득부득 주관해나서는게 어쩐지 걱정스럽고 두려워서 그래요. 공사때문에 어렸을 때 형제처럼 자란 당신과 관리위원장사이에 의가 날가봐 겁나요. 두사람사이에 의난다면 농장일이 버그러지는데로 이어질수도 있지 않나요.》

인혁은 안해의 말을 자못 심중하게 새겨들었다.

그는 입을 꾹 다물고 한참동안이나 침묵을 지키다가 가라앉은 목소

리로 진중하게 말하였다.

《물론 수환동무가 그때의 실패로 머리를 저을수도 있소. 하지만 부모의 피와 넋이 깃든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야 어데 가겠소. 너무 걱정마오. 나는 금주리사람들을 믿소. 그들도 제 손으로 제고장을 락원으로 꾸리려는 자각이 큰것만큼 이 공사를 얼마든지 해낼수 있소.》

현희는 남편의 립장에 수긍이 되면서도 막연한 불안은 덜리지 않았다.

2

마판진수렁이란 옥련봉줄기에 잇닿은 가마고개기슭의 마을굽도리로부터 멀리 옥천강까지 무연하게 펼쳐진 록새벌의 중간에서 옥천리쪽으로 얼마쯤 치우쳐 적잖은 면적을 차지하고 움푹 패인 수렁판이였다. 사철 누르끼레한 감탕물이 고여있는 수렁판은 마치 속이 곪아 문드러진 고름집처럼 험상궂었다.

대대로 버림받아온 이 수렁판은 험상궂은것만큼 괴이한 일화 또한 적지 않았다.

먼 옛날 농사군이 련 세해째 무더기비로 더 험해진 수렁의 피해를 입게 되자 무당의 꾀임대로 액막이제물을 쪽배에 가득 싣고 수렁복판에 들어가 제사를 지냈는데 뭍으로 돌아나오다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수렁에 첨벙 끌려들었다는 이야기며, 농장의 좌상줄에 속하는 채로인의 어린시절에 집짐승을 물어가려고 왔던 옥련봉호랑이가 마을사람들한테 쫓기다가 수렁판에 뛰여들어 어흥어흥 비명을 지르며 순식간에 빨리웠다는 이야기며…

이러나저러나 그 징그러운 수렁판은 록새벌의 면모를 흐리게 하는 흉한 흠집이였다.

지난 기간 금주리사람들은 드넓은 그 수렁구역이 아까와 좀 꾸둑꾸둑한 굽도리를 골라가며 논을 일구고 농장적으로 맨나중에 모내기를 하는 구역이라 해서 막판수렁구역이라고 일러오다가 언제부터인지 그저 부르기 쉽게 마판수렁구역, 마판진수렁이라 불러오게 되였다.

마판진수렁주변의 논은 종자를 바꾸어보고 늦종모를 내보아도 수확

고가 보잘것없었다.
인혁이 그립던 고향에 돌아왔을 때 첫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바로 그 마판진수렁이였다.
물론 그가 고향을 뜬 기간 태반이 밭이였던 록새벌이 거의나 규격논으로 변모되고 새로 지은 아담한 문화주택들이 즐비하게 늘어섰다. 면적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마판진수렁만이 옛날 그 모양새로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이였다.
인혁이 리당비서로 와보니 농장에는 소년시절과 중학시절에 친숙했던 사람들은 별반 없고 거의나 낯선 사람들이여서 그들부터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농장의 살림살이형편도 시원치 못했다. 그렇지만 일부 일군들은 더 부강한 래일을 설계할줄 몰랐고 사람들의 창조력을 불러일으킬 생각을 않고있었다.
인혁은 고향에 올 때의 욕망은 대단했으나 막상 일에 착수하고보니 난관이 크겠다는 생각과 내가 꽤 해낼수 있을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았다.
예상외로 자기에 대한 농장원들의 기대는 컸다. 부임되여오는 날에 있었던 가슴뜨거운 일들이 돌이켜졌다.
리당부터 찾아서 방금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였다. 별안간 밖에서 웅성웅성하는 말소리들이 나더니 인차 바쁜 걸음소리와 함께 《금전의 아들이 리당비서로 왔다구?…》하는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박춘선어머니였다. 젊었을 때부터 인혁의 어머니인 금전이 그리고 지금 관리위원장을 하는 수환의 어머니 봉선이와 함께 고향마을을 가꿔온 본토배기늙은이였다.
《어머니, 그새 안녕하셨습니까?》
춘선은 사무실에서 나와 이렇게 인사하는 인혁의 손을 잡고 한손으로 잔등을 쓰다듬으며 《옳구만. 올라면 벌써 왔어야지… 이 사람 정말 기쁘네.》 하고 너무나 반가와 어쩔줄을 몰라했다.
인혁은 춘선을 다정히 부축하여 마당가의 의자에 앉혔다.
《금전이 살아있다면 오죽이나 기뻐했을가. 봉선의 아들은 관리위원장으로 있어. 자네까지 리당비서로 왔으니 우리 금주리에 이제야 제주인들이 찾아든셈이지. …》
춘선은 옷고름으로 눈굽을 자근자근 눌렀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당의 신임에 보답하겠는지 걱정됩니다.》
《자넨 해낼거네. 모색도 어머니와 꼭같구… 자네를 보니 금시 금

전을 만난것만 같네.》
춘선은 또 눈물이 글썽했다.
《이젠 됐네. 자네와 수환이 서로 손을 잡구 농장을 이끌면 걸릴것이 뭐 있겠나. 그게 금전이나 봉선이들이 바라는것이기두 했지. …》
《어머니, 세 어머니중에 이제는 어머니 한분뿐인데 몸조리랑 잘하여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합니다. 어렸을 때처럼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마음대로 종아리를 쳐주십시오.》
인혁이 간곡한 어조로 말하였다.
옛 관리위원장의 아들이 리당비서로 왔다며 연줄연줄 찾아오던 나이지숙한 고향사람들의 기쁨어린 모습과 기대어린 눈빛들은 한시도 인혁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눈빛들은 어제날의 소중한 추억과 함께 많은것을 말해주었다.
그후 인혁은 하루도 건느지 않고 한나절은 작업반이나 분조들에 나가 초급일군, 농장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낯도 익히고 그들의 경험과 의견을 듣기도 하였다.
한번은 3작업반에 나가 농장원들과 함께 밭김을 맬 때였다.
키가 작달막하고 오달져보이는 서른살안팎의 작업반기술원이 호미를 들고와서 인혁의 옆이랑을 타고앉더니 별로 망설이는 기색도 없이 말을 건네는것이였다.
《리당비서동지, 내 한가지 의견을 말하랍니까?》
인혁은 흥미를 가지고 기술원을 쳐다보며 쾌히 응했다.
《어서 말하오.》
《왜 이전에는 알곡계획을 100프로 넘쳐수행하던 우리 농장이 지금은 뒤걸음질칩니까. 그래도 외부조건에만 빙자하고 문제시되는것이 없습니까?》
기술원은 알곡생산계획은 수행해도 그만, 수행하지 못해도 그만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두고 가슴아파하는 사람이 없다고 내놓고 말하였다.
《그래, 기술원동무는 어떻게 생각하오? 자기 의견과 무엇을 해결해야 하겠는지 생각나는대로 말해보오.》
인혁은 기대를 가지고 그의 얼굴에 정겨운 시선을 주었다.
《저야 뭐… 기술원의 립장에서 생각나는것을 말한다면…》
기술원은 두서없이 농장의 기술상태며 일군들의 관점문제 등 생각

되는것들을 이것저것 말했다.
인혁은 심중히 듣고있다가 호미자루를 놓고 웃도리주머니에서 손바닥만 한 수첩을 꺼내들고 무엇인가 써넣고있었다.
기술원은 그러는 인혁을 유심히 보며 시물시물 웃었다.
《왜 웃소? 내 얼굴에 뭐가 묻기라도 했소?》
《아, 아닙니다. 비서동지가… 제 말에서 무슨 참고라도 될게 있는것처럼 수첩에 적기에.》
그제야 인혁은 허허 웃으며 《그렇군. 나한테는 동무 말이 다 새롭고 귀중하오.》 하고 말하였다.
《그렇다구 저의 좁은 소견을 적어둘것까지야…》
《적을건 적어야지. 기억에는 한도가 있거던. 기술원동무, 후에 이 수첩을 척 펼치면 동무의 생각, 얼굴표정이며 심지어 목소리까지 이 글줄과 함께 되살아나서 나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될거란 말이요.》
기술원은 호기심에 사로잡혀 인혁의 말을 감심해 듣고있었다.
사실 인혁이한테는 소지품처럼 지참하고다니는 소도구들이 많았다.
농장원들의 이름을 적은 수첩, 경험기록, 토지관리수첩, 농업기술상식 등 여러개였다. 접이자도 늘 넣고다녔다. 그래서 인혁의 작업복호주머니는 항상 불룩해있었다.
사무탁에는 토양학, 농기계, 농장관리운영 등의 교재들과 과학기술통보, 사회주의선경을 소개한 화보들이 한옆에 쌓여있었다.
인혁은 영농공정추진을 위한 정치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항상 마판진수렁정리문제를 머리에 넣고 지냈다. 그것만 정리하면 부침땅면적이 늘어나 농업생산을 부쩍 높일수 있게 될뿐아니라 록새벌은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될것이다. 또 그렇게 되면 1작업반에서는 지금처럼 멀리 빙빙 에돌아다니지 않으면서도 농사일을 실속있게 해나갈수 있을것이다.
인혁이 마판진수렁을 결단코 없애버려야겠다고 결심을 가지게 된것은 지난 여름 전례없는 큰비에 수렁판에서 고인물이 넘어나 1작업반의 적지 않은 논을 삼켜버린 때부터였다. 시뻐연 황토물에 이삭밑까지 잠기운 수렁언저리의 논판들을 바라보는 순간 피가 꺼꾸로 솟구쳤다. 그 우환거리를 그냥 내쳐두고서는 알곡생산에서 막대한 후과를 면치 못할것이였다.
어느날 인혁은 수환의 방에서 그와 마주앉아 일부 작업반들이 당한

큰물피해를 가시기 위한 대책을 의논하였다. 그 뒤끝에 인혁은 이번 물란리를 놓고보아도 그렇고 어차피 마판진수령을 대담하게 정리해야 할것 같다는 의향을 내비치였다.

수환은 흠칫하며 대뜸 두눈이 휘둥그래지였다.

《아니, 뭐 마판진수령을 정리한다구?!》

《그렇소. 그런데 놀라긴 왜 그렇게 놀라는가.》

《놀라기야 뭘…》

수환은 례사롭게 응대하면서 일부러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인혁은 수환의 심리를 똑똑히 알고싶어 따지고들었다.

《뭐 마깝지 않은 인상이구만. 지난날 호된 쓴맛을 봤다더니 주저돼서 그러오?》

수환은 쓴웃음을 지을뿐 대답을 피하였다.

《지금 당의 대자연개조구상을 받들구 온 나라에 토지정리열풍이 일구 많은 단위에서 자체로 토지정리에 달라붙지 않았나. …》

마침내 수환이 무겁게 말을 꺼냈다.

《마땅히 우리도 해야지.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인데 우리라고 지난 기간 좀 해놓았다고 손을 옭아매구있을수야 없지 않소. 그러나 그 국가적인 토지정리야 까놓고말해서 기계군단으로 왁왁 내미는거구 우리야 거기에 보조를 맞출수 없지 않겠소. 해보세만 결코 조련치 않을걸. …》

수환은 미타해하면서도 별말없이 응해나섰다.

인혁은 그가 처음 마판진수령개간이라는 말에 놀란것은 모름지기 저로서는 수치로 묻어둔 급소를 느닷없이 찔리운것때문이였을거라고 넘겨짚었다.

워낙 수환은 대학졸업후 금주리 3작업반장으로 일하면서부터 《통뼈》, 《확성기》 등의 별명으로 불리우며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서 일을 걸싸게 해제껴 소문을 냈었다. 수십정보의 밭의 돌을 춰내고 논풀이를 하는데서도 반장으로서의 일본새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어떤 때는 홰불방망이를 들고 앞장에 서서 너무나 다불러대기에 사람들은 베차하면서도 대학졸업생인 힘장사반장의 내밀성에 경탄해마지 않았다고 한다.

일욕심이 크고 힘이 넘쳐나 세상에 못해낼 일 없을것 같아하던 수환은 관리위원장이 된 이듬해 마판진수령정리에 순 뚝심으로 달라붙

었다가 첫탕에 뜨락또르를 허궁 삼키우고말았다. 그 분풀이를 하듯 다음해에 또다시 인해전술을 썼으나 하마트면 인명사고까지 낼번 하고서는 그 수렁판이야말로 자기네 힘으로는 정복할수 없는 위험천만한 함정으로 단념해버리고말았다.

물론 이 수렁판정리는 말처럼 수월한 공사가 아니였다. 무려 20정보나 되는 수렁구역을 논벌과 가쯘히 수평되게 정리하려면 낮은 언덕 하나쯤은 통채로 허물어 메꾸어야 하는 방대한 공사였다. 거기에다 수렁밑창으로 물길을 뽑아 가까운 하천줄기에 잇대여놓아야 오랜 세월 고이고 썩은 구접지레한 물을 시루식으로 뽑아낼수 있었다.

공사가 원래 이를데없이 방대한것만큼 인혁은 농장원들속에 깊이 들어가 진지하게 의논하여 방도를 탐색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수환이와 함께 이 공사를 직접 체험한 경험자들은 하나같이 전률하였고 어떤 속대 약한 축들은 실패한 공사의 참상을 소문만으로 듣고서도 덩달아 겁을 먹었다. 마땅히 해야 한다는 축들도 공사량이 너무나도 엄청나다고 주춤거리였다.

그렇지만 오랜 제대군인들과 기운이 펄펄한 청년들의 굳건한 생각은 인혁의 결심에 불을 확 달아주었다.

몸집이 다부지고 머리 희끗희끗한 제대군인인 공예분조 윤분조장은 김매던 호미를 든채 손세를 써가며 《저 수렁판은 록새벌의 징그러운 종창이나 같지요. 저 볼꼴 사나운걸 당초 흔적없이 메워버리는 통이 큰 결단을 내리지 않고서는 천상 벼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없구 금주리도 버젓이 꾸릴수 없지요. 주저말고 냅다 밀어주시우.》 하고 절박하게 말하였다.

그의 곁에서 일하던 분조원들은 윤분조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긍정했다.

《나도 분조장동무 말에 동감입니다. 지금 아무리 조건이 어렵고 힘든 공사라두 우리가 합심하여 모든 힘을 깡그리 바친다면 못해낼 일이 뭐 있겠습니까. 문제는 끝장을 보고야마는 담력을 지닌 일군을 못만나 아직도 수렁판이 저 꼴로 남아있지요. 전투에서의 승패는 지휘관의 담력과 역할에 달려있다는 말이 그른데 없습니다.》

어느날 인혁은 진수렁의 피해를 그중 혹심하게 받고있다는 1작업반으로 나갔다.

첫눈에도 원기왕성해보이는 끼끗한 1작업반장 정장선이 넙죽한 손으로 수렁판을 통채로 덮어버리는 시늉을 해보이며 당장 일을 칠것처

럼 열을 올려 말하였다.

《비서동지, 저 수령판때문에 실지 골탕을 먹는건 우리 작업반입니다. 올장마때 보십시오. … 지난 기간 제긴들 안한줄 압니까. 귀에 박히게 했지요. 그런데 어디 이가 듭니까. 비서동지, 오늘 쪼물짝해가지고 이 공사를 외면하는건 부강조국건설대전에서 도피하는거나 같다고 봅니다.》

인혁은 그러는 정장선의 모습을 믿음에 찬 눈길로 바라보았다.

《동무가 옳게 말했소. 바로 그것이요. 한데 동문 왜 도피하는 립장에 서있었소?》

《아니, 제가 말입니까?》

《그렇소. 제기하는 사람 따로 있고 작전하는 사람이 따로 있겠소. 실천이 중요하지. 동무도 초급일군인데 못하겠으면 그만두라, 할 사람은 나서라 하고 전투조직사업을 할 배짱을 가지고 나선다면 오늘 이렇게 우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거요.》

《비서동지두 참, 일개 작업반장에 불과한 저를 너무 높이 세워주는것 같아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생각되는게 있습니다.》

《좋소, 그 생각되는것을 무르익히시오. 나도 생각을 굴려보겠소.》

인혁은 무슨 일에서나 주저를 모를것 같은 정장선을 만난것이 무척 기뻐서 그와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여졌다.

인혁은 다른 작업반들에 나가 농장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마판진수령에 대한 저마끔의 의견에 심중히 귀를 기울이였다.

그 과정에 인혁은 알곡증수의 예비를 마련할뿐아니라 래일을 볼줄 모르고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려는 일부 사람들의 낡은 일본새를 바로잡아주는 의미에서도 공사를 무조건 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였다.

리당위원들과 관리위원회 일군들의 전적인 지지속에 마판진수령을 없앨데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리당위원회에서는 곧 공사와 관련한 대책이 협의되고 끌끌한 청장년들로 돌격대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돌격대대장으로는 1작업반 반장 정장선이 임명되였다.

이제는 한해농사를 결속하면서 잘 준비하여 공사를 와닥닥 제끼는 문제가 중요하였다. 그러자면 일군들의 일본새에서부터 전환을 가져와야 했다.

관리위원장 조수환은 다른 의견없이 당조직의 결정을 받아물고 변함없이 목청을 높이고 아래사람들을 다불러댔다.

인혁은 불현듯 여기로 올 때 도의 한 일군이 하던 말이 머리에 떠올랐다.

《금주리에 가면 든든한 관리위원장이 있어 일하기 쉬울거요. 본시 사람이 걸걸하고 손탁이 세구 내밀성이 강하지요.》

인혁이 몇해전 도에서 만났을 때 수환은 둥실한 얼굴이 거뭇거뭇하고 수더분하여 흙내 풍기는 근실한 일군으로 인상깊었었다.

하지만 이번 금주리에 와서 만난 수환은 인상이 그때와 같지 않았다.

본래 반고수에 미끈하게 잘생긴 그의 얼굴은 부얼부얼해지고 진담인지 롱담인지 분간이 안 가는 흰소리로 말이 헤퍼진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가끔 사람들의 의견을 마치 로인이 안경너머로 한날 철부지들의 생각을 듣듯이 미묘한 웃음을 그리며 건성 듣는거며 일군들이 모인 자리에서 늘 주동이 되여 익살과 너털웃음으로 쉽사리 분위기를 전환시키는것이 진정이 아닌것으로 느껴지는것이다. 대학시절의 그의 익살은 순수 학우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것이였다면 지금의 익살은 어딘가 능청과 처세로 윤색된감이 들었다.

그것은 농장관리운영사업에서도 영향을 미치는듯싶었다.

지난 모내기철에 있은 일만 해도 그렇다.

농장에서 2계단모를 잘못 키워 모판자리에 낼 모가 퍼그나 모자랐다.

그런데 수환은 어느결에 옥천리에 가서 그밤으로 남은 모 몇달구지를 실어왔다. 그래서 바쁜 목을 슬쩍 넘겼으나 인혁은 모판관리를 면밀히 짜고들도록 잘 밀어주지 못한 자신들의 잘못을 사실대로 군에 보고하고 심각한 교훈을 찾으려고 했었다.

그렇지만 수환은 모내기실적료해를 나온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농산과장(그는 농장에 나오면 수환이와 늘 붙어돌아갔다.)에게 어느새 2계단모까지 충실히 키워 모판면적까지 말끔히 모를 내였다고 자랑삼아 보고해버리였다.

결과 군적인 모내기총화에서 금주협동농장이 모를 착실히 키워 모판자리까지 모내기를 선참 끝낸 단위의 하나로 평가받게 되였다.

멋모르고 총화에 참가한 인혁은 금시 모닥불을 뒤집어쓴듯 낯이 뜨거웠다.

그래서 그는 수환에게 《여보게, 그렇게 속이 들여다보이는 허풍을 치면 되겠나. 당적량심으로 봐도 그렇고 만일 후에 제기되여도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그러나.》 하고 친구지간사이로 격식없는 충고를 주었다.

《내 좀 슬쩍 넘긴건데 그쯤한 일은 례상사라네. 자네는 그런 일에 모른척 하게나. 뒤처리는 내가 다 소리 안나게 할테니.》

수환은 너털웃음을 지으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넘겼다.

그는 인혁이네가 이사오는 날도 땀을 뻘뻘 흘리며 이사짐을 날라주었었다.

그날 저녁 좀 거나해진 수환은 《담배두 안 피워, 술도 마시지 않는 자네같은 꼭자가 달같은 처와 아들딸 주런이 거느리고 금슬좋게 살게 된것두 다 이 조수환이때문인줄 알아야 해, 응… 그거야 잊지 않았을테지. …》 하고 희떱게 굴었다.

사실 인혁의 친어머니가 숨을 거둘 때 림종을 지켜주고 눈을 감겨드린것도 바로 수환이였다.

3

벼가을이 한창인 어느날 저녁 인혁은 2작업반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에서 당초급선전일군모임을 가지였다. 모임에는 선동원, 5호담당선전원, 학습강사, 강연강사들 그밖에 청년동맹초급일군들이 참가하였다.

가을걷이를 앞두고 이미전에 농장일군들과 초급일군들을 발동하여 작업반, 분조단위로 가을걷이 일정계획을 드팀없이 집행할데 대한 정치사업과 결의모임들을 일제히 진행했었다.

가을걷이를 빨리 끝내고 뒤따라 큰 공사를 벌려놓자면 대강 짐작에도 벼가을 하루의 실적을 전해의 거의 배로 올려야 할것 같았다. 인혁은 다시한번 벼가을전투에 불을 달기 위해서 긴급히 이 모임을 조직한것이였다.

그는 먼저 참가자들이 신안군 삼룡리에서 구해온 사진부터 돌려보

게 하였다. 출장길에서 돌아와 관리일군들에게는 이미 보여주었던 사진이였다.

그들은 변모된 농장을 찍은 사진을 보면서 저저마다 찬탄을 금치 못했다.

《야참, 멋있구나! 이건 완전히 바둑판이구나.》

《이거야말로 천지개벽인데!…》

《우리 마판진수렁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는가.》

《무슨 소리, 이보다 더 멋들어지게 만들어야지 이 정도에 머무르겠나.》

인혁은 다 보기를 기다렸다가 한마디 하였다.

《그래, 어떻소?》

한 선동원이 움쭉 일어나 《우리 저 마판진수렁정리공사를 지체말고 당장 해제끼고싶습니다.!》 하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자 다른 선동원이 벌떡 일어나 《우리가 나라의 대자연개조사업에서 선구자가 되지 못한것이 부끄럽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때 한 청년동맹초급일군이 주먹을 휘두르며 말했다.

《우리도 시급히 벼가을을 끝내고 저 마판진수렁공사에 달라붙읍시다. 이보다 더 번듯하게 해놓을수 있습니다!》

인혁은 바로 그 마판진수렁정리공사에 착수하자면 뭐니뭐니해도 벼가을속도를 지금의 곱절은 올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 비상한 전투에서 초급선전일군들이 마땅히 선봉이 될뿐아니라 작업과정에 한알의 낟알도 허실하지 않을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였다.

모임을 끝내면서 인혁은 별로 뜻있는 웃음을 짓고 모임참가자들을 하나하나 일별하였다.

《여기 모인 동무들은 군중앞에서 선전선동사업을 벌릴 때마다 누구나가 다 부강조국건설대전의 참전자, 위훈자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는데 내 하나 좀 물어봅시다.》

더러는 머리를 수긋하기도 하고 더러는 모임이 끝나는줄로 알고 옆사람과 히죽거리며 수군수군하다가 한순간 일제히 인혁의 얼굴에 눈길을 돌리였다.

《동무들이야 남들보다 꿈이 많은 초급일군들이 아니요. 그래, 멀지 않아 부강조국이 건설되면 우리 농촌은 과연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누가 이에 대해서 생동하게 말해볼 동무 없습니까?》
인혁의 느닷없는 질문에 장내는 금시 물뿌린듯 조용해졌다.
인혁이가 정작 이런 질문을 제기하자 누구에게나 뻔한 문제인것 같으면서도 선뜻 찍어서 답변하기가 아리숭한듯 웃기만 하였다.
이때 그중 나이지긋한 8작업반 녀성선동원이 남자처럼 굵은 성대로 론리를 세워 류창하게 말하였다.
《부유한 생활조건은 쌀로부터 마련되여야 하는만큼 농업생산을 부쩍 늘여서 온 록새벌에 쌀더미가 넘쳐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말에 축산반 선동원이 한마디 보태였다.
《거기에 축산도 발전시켜 말그대로 쌀풍년에 고기풍년까지 들고 모든게 흥하여야 세상에 부럼없이 될것 같습니다.》
인혁은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누군가를 눈으로 더듬어 찾았다.
《저기 1작업반 선동원 조별옥동무가 앉아있구만. 동무는 그렇게 강연제강 읽듯 하지 말고 생활적으로 말해보오.》
별옥은 중간쯤에 앉아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고있다가 갑자기 지명되였으나 덤비지 않고 일어나 침착하게 말하였다.
《그때 가면 우리도 로동계급처럼 제정된 시간안에 일을 말끔히 끝내고 새옷을 갈아입고 문화정서생활도 맘껏 할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돌연 그의 옆에 앉은 기계화작업반의 엉큼한 익살군인 총각선동원이 마치나 그런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기나 한듯 《거기에 좀 모자라는게 있습니다.》 하고 능청맞게 눈을 찡긋하며 말을 꺼냈다. 별옥은 얼른 자리에 앉았다.
《그건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들가운데서 누구든지 별옥동무의 세대주가 되겠는데…》
《어마나!》
별옥은 어처구니없는 말에 그만 눈이 휘둥그래지여 그의 옆구리를 찔렀다. 하지만 기계화반선동원은 꿈쩍도 하지 않고 하던 말을 계속했다.
《별옥동무가 옥동자를 척 품에 안고 꿈이 어린 눈빛으로 세대주와 나란히 어서 가요, 빨리 가요 하면서 악대가 품파라품파라하는 리문화회관이나 그림같은 옥천강가로 산보하는 생활도 첨부돼야 진짜로…》

순간 와— 하고 웃음보가 터졌다.

얼굴이 새빨개진 별옥은 모임중이라는것도 잊은듯 종주먹으로 청년의 넙적한 잔등을 소리나게 때려댔다.

《아이구, 동무의 장래를 말그림으로 보태주는데 왜 남의 사등뼈를 분질러놓으면서 그러오.》

그의 아부재기에 웃음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인혁이도 웃음을 머금고 장내가 조용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말을 계속하였다.

《그저 우스개말이 아니라고 생각하오. 실지가 그렇게 된단 말이요. 보시오, 동무들. 가까운 앞날에 그렇게 될 우리 생활이 머리속에 안겨오지 않소? 그때를 그려보는것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끓고 가슴이 설레이는데 우리가 가만 앉아있어서야 되겠소. 나나 동무들은 다 머지않아 그 변모된 땅에서 살게 될 주인이란 말이요. 미래를 꽃피울 주인구실을 하자는거요. 그렇지 않소?》

《그렇습니다.》

모두 흥이 나서 한결같이 힘있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그런 멋있는 고향땅을 우리자신들이 건설해야 합니다. 툭 찍어 말한다면 매개 분조가 다 제구실을 똑바로 하고 작업반들이 담당몫을 충분히 하면 우리 농장일이 스스로 잘됩니다.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혁신적으로 원만히 수행하면 되는것입니다.》

인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모두가 보다 선명한 표상을 가지게끔 설득력있는 말을 고르려고 생각을 굴리였다.

《그러면 우리 농장몫은 과연 무엇인가? 아까 8작업반 선동원동무도 말했지만 바로 저 마판진수렁을 메워 방대한 경지면적을 새로 얻고 정보당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여 록새벌에 쌀더미를 높이 쌓는겁니다. 그러자면 나나 동무들은 무엇을 하겠는가? 군중의 맨 앞장에서 저만이 아니라 농장원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는 불씨, 불길이 되는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농장은 농장대로, 매 사람은 매 사람대로 버젓하게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였다고 할수 있지요.》

이미 환히 알고있는 문제이면서도 자기앞에 부과된 몫을 새삼스럽게 절감하는듯 모두의 얼굴에 공명의 표정이 어리였다.

인혁은 말을 중등무이하고 누구인가를 눈으로 더듬었다.

인혁은 마침내 별옥에게 눈길이 이르자 말을 이었다.

《저 별옥동무 경우를 좀 보시오. 온 군을 놀래운 사실이지만 혼자서 천톤에 달하는 풀더미를 쌓지 않았소. 풀거름원천이 바른 록새벌에서 기어코 해냈거던. 그게 어디 간단하오? 남들은 겁을 잔뜩 먹구 가까이 갈념두 못하는 마판진수렁 감탕언저리에서 장풍, 뚝새풀, 쉽싸리, 물쑥을 비롯한 풀원천을 찾아냈구 감탕매닥질을 하면서 풀베기를 했소. 얼마나 대단하오. 심지어 집에 오가는 시간마저 절약하려구 선전실에서 잔적도 있었소.》

본시 수집음 잘 타는 별옥은 얼굴이 온통 앵두빛이 되여 머리를 푹 수그리였다. 모임때마다 자기만이 칭찬을 받는것이 오히려 거북하고 송구하여 그는 몸둘바를 몰라했다.

《선동원동무들, 그것뿐인줄 압니까?》

그 말에 모임참가자들은 일시에 얼굴을 들고 인혁의 입을 지켜보았다.

《오늘 조별옥동무는 이제 벼가을을 와닥닥 끝내구 낟알털기를 시작하는 차제로 나오는 북데기들을 몽땅 끌어내다 공사구역밖에 더미더미 쌓아놓고 생물활성퇴비를 생산할데 대한 발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인혁이 오늘 저녁 초급선전일군모임을 서둘러 조직하게 된 리유의 하나가 여기에도 있었다.

《왜 하필 퇴적장을 거기에 택했는가, 여기에 바로 묘안이 있습니다. 물 가까운 포전머리에 퇴적장을 정하면 빨리 썩일수 있고 또 퇴비를 실어내는 품도 썩 덜게 아니요.》

듣고보면 아주 단순한 리치인데 그의 생각을 앞지르지 못한 아쉬움과 부러운 기색이 선동원들의 얼굴마다 눈에 뜨이게 어리였다.

《동무들, 그래서 우리 초급선전일군들은 늘 사색하고 또 사색하라는겁니다. 바로 그런 속에서 낟알털기와 동시에 다음해농사차비를 제창 하는 식으로 계절을 앞당기고 래일을 앞당기는 기발한 묘안도 나오는겁니다. 이것은 결국 거름더미를 높여서 쌀더미를 높이려는 절절한 지향이 아니겠소.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앉아있는 많은 선동원동무들이 벌써부터 선군시대의 선동원답게 자기의 몫을 당당히 해내구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혁은 말을 끊고 청년들의 반응을 가늠하듯이 모임참가자들의 얼굴을 쭉 휘둘러보았다.

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씩씩하고 담찬 기백이 넘쳐있었다.

4

이른아침 인혁은 돌격대대장인 1작업반장 정장선을 데리고 공사구역쪽으로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다.

오늘 공사구역을 다시금 밟아보고 벼가을을 한껏 다그치도록 대책을 세우기 위해 날이 밝기도 전에 집을 나선것이였다.

바투 깎은 총이 센 머리에 얼굴이 길둥그렇고 체격도 끌끌한 정장선은 걸음이 날랜 인혁을 씨엉씨엉 따라걸었다.

진펄이 가까와지자 건조한 절기인데도 땅이 질척질척하고 길섶은 온통 물쑥, 쉽싸리 등이 엉킨 푸르죽죽하고 누런 풀덤불이여서 그들의 아래도리는 감간사이에 이슬에 휘적시여졌다.

아침해가 옥련봉마루에서 장바 한길이쯤 올리떠서야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마판진수렁구역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들이 공사구역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마판진수렁의 먼 저쪽기슭에 느리게 움직이는 누군가의 형체가 인차 눈에 띄였다. 자세히 보니 그는 누런 논벌을 우측에 끼고 수렁터의 둘레를 느릿느릿 돌고있었다.

《비서동지, 저 사람이 누굴가요? 우리 농장사람은 아닌것 같은데요.》

《글쎄…》

인혁은 먼 눈에도 키꼴이 후리후리하고 그 걷는 모양이 퍽 눈에 익은것 같으면서도 그게 누구였던지 선뜻 뇌리에 잡히지 않았다.

그때 정장선이 확신성있게 말하였다.

《아, 군당책임비서동집니다. 저 보십시오. 풀색작업복에 검정모자를 쓴거랑 활개를 젓지 않는 큰 걸음이랑 책임비서동지가 분명합니다.》

인혁에게도 정장선의 말을 듣고보니 대뜸 류순기책임비서라는것이 알렸다.

《음, 맞소. 반장동문 눈이 아주 밝구만.》

《비서동지, 관리위원장동지 목소리는 십리 가지만 제 눈은 십리를 봅니다.》

《그럴것 같소, 허허허…》
인혁은 정장선이와 헤여져 류순기쪽으로 부리나케 걸음을 다우쳤다.
류순기는 이슬에 젖어 번들거리는 목 긴 장화를 신고 마치 수렁터 둘레를 보폭으로 재이듯 성큼성큼 돌아보고있었다.
《책임비서동지, 안녕하십니까? 일찍 나오셨습니다.》
류순기는 인혁에게 우선우선한 얼굴을 돌리며 걸음을 멈추고 우뚝 섰다.
《인혁동무요? 지나다 좀 들렸소.》
《요즘 상당히 바쁘실텐데 어떻게?…》
그는 류순기가 옥천강발전소건설장에 나가 거의 살다싶이하고있다는걸 잘 알고있었다.
《아무리 바빠두 인혁이(그는 둘일 때에는 주로 이렇게 불렀다.)일이자 내 일인데. 허허… 어쩐지 오늘은 좀 밟아보구싶더군. 어서 걷기요.》
류순기는 주춤거리지 않고 앞장에 서서 묵묵히 진수렁구역을 돌았다.
하긴 지난 기간 여기 뙈기논을 정리할 때도 몇번 나와본 책임비서이다.
《인혁이, 노루등에 좀 올라가보지 않겠소?》
《예.》
류순기는 노루등쪽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면서 《인혁동문 시간을 내서 소문난 농장들에 가본다면서?》 하고 너부죽한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까지 지었다.
인혁은 언덕길로 책임비서를 따라걸으며 대답대신 시뭇이 웃었다.
《좋은 일이지. 그래, 삼룡리에 가본 소감은 어떻소?》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굉장한 공사를 해제낀 그곳 일군들이 막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루빨리 공사를 벌려야겠다는 조급증도 생기구요.》
《인혁동무의 일욕심은 여전하구만.》
《저야 아직 젊지 않습니까?》
《젊다? 하긴 나보다야 퍽 젊었지. …》
류순기는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가지런히 걷고있는 중키의 인혁의 아래우를 유심히 살피며 혼자소리처럼 말을 이었다.
《별스럽거던. 김인혁이 하면 지금의 인혁이 아니라 우리 군당에 처음 소환돼왔을 때의 모습이 앞선단 말이요.》

인혁은 따라웃으며 어줍게 응대하였다.
《아마 제 철없을 때의 어설픈 모양이 인상에 새겨졌던 모양입니다.》
《허허… 그럴지도 몰라. 난 지금두 몸에 꼭 맞는 단긴형검정양복에 눈빛같은 흰 목달개를 달고 처녀처럼 수줍음 잘 타던 인혁의 말쑥한 모습이 생동히 안겨온단 말이요. 어느덧 거뭇거뭇해진 얼굴에 어깨두 퍽 넓어진 중년일군이라. …》
인혁은 그윽한 회포에 젖은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였다.
그들은 어느덧 노루등마루에 올랐다.
류순기는 마른 풀섶에 펄석 앉으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였다. 그는 자기옆에 바투 앉은 인혁에게 담배를 한가치 내밀었다.
《전 안 피웁니다.》
《지금두 안 피우오?》 하고 류순기는 가치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타불을 켜달았다.
《그건 참 좋은 습성이요. 나두 끊는다 끊는다 하면서도 종시 못 끊었단 말이요.》
그는 담배 한모금 깊숙이 빨고는 연기를 후 내뿜으며 벌가운데 모지라진 함지박처럼 곪아빠진 마판진수렁에 이윽히 눈길을 주었다.
《여기서 내려다보니 더 험상스럽구만. 저 수득수득한 진수렁판만 통짜로 메꾸면 록새벌이 정말 멋들어지겠소.》
《예, 우스운 비유같지만 미인의 얼굴에 흉한 김같은 저 수렁을 없애지 않고서는 다른걸 아무리 비다듬는대야 금주땅의 면모가 도무지 살아날것 같지 못합니다.》
《허허, 미인얼굴의 흉한 김이라… 아주 그럴듯한 비유요.》 류순기는 인혁의 말을 되뇌였다. 《좌우간 인혁동무가 진짜 담이 큰 결심을 했소. 록새벌모습만 미인으로 변모되는게 아니라 토지를 수십정보나 공짜로 얻게 되니 이 얼마나 큰 리득이요.》
인혁은 머리를 짓숙이고 변명하듯 말하였다.
《저야 뭐… 농장원들의 의사를 따랐을뿐입니다.》
《물론 그랬을테지. 그러나 발기자가 있어야 그 의사들이 한데 묶어질게 아니겠소.》
류순기는 흡족한 표정으로 인혁을 바라보았다. 그는 불현듯 무슨 생

각이 떠올랐는지 생뚱같은 말을 불쑥 꺼내였다.
《인혁동무, 이제 우리 일어서는김에 제창 이 노루등을 짊어지여다 저 진수렁을 단숨에 메꾸어볼 생각은 없소?》
인혁은 어리뻥하여 그를 쳐다보다가 롱말로 알고 빙그레 웃었다.
《그럴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수 있다고 생각해야지.》
《?!》
《왜, 내 말이 동화같이 들리오? 허허허, 생각은 그렇게 크게 굴려야 한단 말이요. 물론 우리 둘의 힘으로야 어방도 없지. 하지만 록새벌에 대한 고향사람들의 그 애착심만 한덩어리가 되면 못해낼게 뭐가 있겠소. 이보다 더 큰 산두 능히 허물지. 그렇잖소?》
인혁은 그제야 책임비서의 말에 깨도가 된듯 《네, 그렇습니다.》하고 공감하였다.
류순기는 잠시 록새벌을 내려다보다가 자못 심중한 어조로 말하였다.
《인혁이, 나두 오늘 정작 공사를 앞두고 돌아보니 솔직히 일이 헐치 않겠소. 게다가 한번 혼을 뽑은 공사여서 결코 만만치 않을거요.》
그는 담배를 몇모금 빨다가 후 내뿜으며 진중하게 말을 이었다.
《자연의 암초, 사상적암초 다 각오해야 하오. 토지정리를 국가에서 해줄것만 바라지 말고 지방들에서 자체의 힘으로 하기 위한 결심을 가지는것이 중요하오. 그런데 이 공사의 원동력은 무엇이겠소. 토지정리를 하면서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는 사업에 진심을 바치는거요. 사람들의 정신적힘을 발동하면 두려울것두, 못해낼것두 하나 없소.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거던. 당일군 몇몇사람의 힘으로는 어방두 없소. 농장의 모든 일군들이 진심으로 군중의 정신력을 최대한 폭발시키기 위한 사업에 떨쳐나서도록 잘 이끌어야 하겠소.》
《예, 명심하겠습니다.》
인혁은 류순기의 말을 심중히 새겨들었다. 참으로 심금을 울리는 말이였다.
류순기가 돌아간 후 인혁은 1작업반 농장원들과 어울려 마판진수렁 주변논에서 한겻은 좋이 손싸게 벼베기를 하였다.
인혁의 옆에서 벼베기에 여념이 없던 정장선은 낫질을 멈추더니 불쑥 말을 걸었다.
《비서동지, 공사를 돌격식으로 와짝 내밀려면 기술력량부터 잘 꾸

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혁은 그를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기술력량이라니? 기술력량이야 마련된거구 토지건설기술설계도 추진하고있질 않소.》
《그렇지만 련달아 시공조직설계도 해야겠지요. 또 농장원들에게 신심을 주려면 전경도도 그려붙여야겠지요. 그리고 대장간을 지으려면 강판마름질도 미리 해야겠지요?》
인혁은 그만 어리뻥해졌다.
장선은 공사의 준비공정을 앞질러가며 웅근 목소리로 흥에 겨워 이야기하였다.
《허허, 1반장에게는 군급책임일군과 견줄만 한 틀과 재력이 갖춰져있소.》
장선은 인혁의 롱에는 하등 개의치 않고 자기의 절박한 생각을 마저 터놓았다.
《비서동지, 내 안타까와서 하는 말입니다. 왜 농장일군들은 설계와 제작에서 펄쩍 나는 한정길동무를 외면합니까?》
《한정길?!》
《거 있지 않습니까. 5작업반 기술원을 하다가 농약건으로 무보수로동을 하는…》
인혁은 그제야 깨도가 된듯 《아, 알겠소. 내 미처 그 생각까지는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장선은 그런 재목을 념두에 두지 않는데 대한 불만스러운 눈길로 인혁을 쳐다보며 열을 올려 말하였다.
《비서동지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농장에서 지금 요긴하게 쓰는 4마력원동기에 의한 약제분무기며 고주파발생기, 수동프레스, 비알곡먹이종합분쇄기, 이동식만능분쇄기들은 오래전에 국가발명권을 받은건데 그건 모두 그 동무가 창안제작한겁니다.》
인혁은 처음 듣는 말이여서 그만 얼떨해졌다.
《그뿐인줄 압니까. 그의 손이 한번 간 제작품은 전문공장제품만치 정교합니다. 강판 다루는 솜씬 또 어떻구요. 무슨 조화인지 나같은것들은 15키로그람짜리 메로 죽을 힘내기를 해도 못 펴는 강판도 그가 직각자로 재며 몇번 조기고 쇠짝지발로 제끼고 하면 엿가락같이 고분고분해지고 마치 다림질한것처럼 반반해진단 말입니다. 그런 보배

덩이를 그저 로력자로 파묻어두면 되겠습니까. …》
인혁은 머리가 멩해졌다. 자기 사업의 허점을 장선은 예리하게 투시한것이였다.
(그런데 관리위원장은 왜 여직껏 한정길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말도 없었을가?…)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기술력량을 동원하기 위한 협의회때 그의 이름을 얼핏 들은것 같기도 했다. 그랬다, 누군가 한정길을 인입시키자는 말을 피뜩 꺼냈다가 아무 반응도 없는 수환의 눈치를 흘끔 보고는 더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더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은 일이 떠올랐다.
장선은 얼마전에 한정길을 만났던 이야기를 하였다. 돌격대대장인 장선이 공사준비가 저으기 걱정되여 우정 그를 찾아가 방조를 청했으나 자기는 그 일에 비치지 않겠노라고 딱 자르더라는것이였다.
《〈그러루한 일에 계속 비치다가 과오까지 범한 내가 두번다시 그런 전철을 밟겠나. 로동단련을 하면서까지 주제넘게 농장적인 큰일에 나서고싶지 않네.〉 이러질 않겠습니까. 비서동지, 공사준비를 다 그치자면 한정길동무를 꼭 인입시켜야 합니다.》
그날 오후 인혁은 낫을 꽁무니에 찌르고 5작업반에 나갔다.
논틀길에서 만난 5작업반장 정순실은 밑도끝도없이 어리광조로 《리당비서동지, 난 막 안타까와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말하는것이였다.
《허허… 5반장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난사는 난사로군.》
순실은 방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다.
《글쎄 지난 모내기때두 비서동지가 4작업반을 담당하시더니 우리반을 허양 떨구고 1등 하잖나요. 그래 속상했는데 가을걷이까지 또 담당하시면…》
《아따, 그게 걱정거리라면야 내 5반에 지원포를 꽝꽝 쏴주겠으니 1등자리를 쟁취해보우.》
순실은 그 큰 몸으로 냉큼 뛰염을 하며 인혁의 팔을 덥석 잡아흔들었다.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아니문, 이 비서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것 같소?》
인혁은 부지중 코마루가 찡해졌다.
(그 승벽은 여전하군.)

문득 남들이 정순실을 두고 《울보반장》이라고 하던 말이 떠올라 속으로 웃었다.

20대의 처녀반장때 순실은 자기 반이 앞서지 못하면 포전에 풀썩 주저앉아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짜군 했다고 한다. 누가 옆에서 반원들이 다 보고있다고 조용히 귀띔하면 《보면 뭐래요. 반을 앞세우지 못하는게 무슨 반장이나요. …》 하며 그냥 눈물을 짰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어떻게나 극성스러웠던지 작업반을 모내기, 김매기, 가을걷이 등 경쟁에서 번번이 첫자리에 추켜올렸다고 한다.

지금도 사람들은 나이지긋한 그를 가끔 울보반장이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인정이 무르고 수더분하여 정겹게 대하며 따르고있었다. …

순실은 당비서의 말을 들으며 한정길이 일하는 포전쪽으로 걸어갔다.

《비서동지, 우리 기술원동무를 그저 로력자로 묻혀두긴 정말 아깝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모판부식토대용으로 우리 지방에 흔한 초무연탄을 쓸수 있게 연구한것두 바로 그 동문데 그만 본의아닌 사고를 저지르고…》

《아, 그렇소?!》

인혁이도 전에 초무연탄연구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다. 그 사람이 바로 한정길이라는 말에 그는 저으기 놀랐다.

한정길의 작업장에 이르자 순실은 걸음을 멈추며 말했다.

《비서동지, 저 동뭅니다.》

한정길은 웃몸을 깊숙이 구부리고 걸싸게 벼를 베고있었다. 낫날이 해빛에 눈부시게 번뜩이고 벼이삭들은 그의 뒤덜미를 후려칠듯 휘감겼다풀렸다 하며 와슬렁와슬렁 물결쳤다.

그의 일솜씨에 탄복한 인혁은 순실이더러 가보라고 눈짓하고는 꽁무니에서 낫을 뽑아들고 논판에 들어섰다. 인혁은 저만치 앞선 그를 바싹 따르려고 낫질을 부지런히 하였다.

한돌이를 다 베고난 인혁은 서느러운 바람에 땀을 들이는 한정길의 옆에 가앉았다.

인혁은 남다른 고뇌를 겪고있을 한정길이 어쩐지 몸도 체소하고 소심하며 주눅이 든 사람일거라고 짐작했었다. 그런데 정작 만나보니 의외로 멀끔하고 다소 구부정하기는 하나 키꼴이 후리후리하며 차돌같은 가쯘한 이발과 리지적인 눈을 가진 매력적인 사람이였다.

《한정길동무, 내 여기에 온지는 오랜데 이제야 인사를 나누게 되

여 안됐소.》

그는 펄쩍 뛰며 《비서동지, 무슨 말씀을… 이렇게 찾아주신것만두 고마운데.》 하고 어줍게 몸둘바를 몰라했다.

《아니요. 내 일하는 방법이 서툴다보니 초무연탄을 연구한 유명한 사람이 곁에 있는것두 오늘에야 알았단 말이요.》

인혁은 초면인 그의 앞에서 자기를 반성하는 투로 말했다.

《비서동지, 말씀을 낮추십시오. 제같은게 유명하다니요. 그저 소박한 착상을 도입해봤을뿐인데요 뭐. …》 하고 바빠하며 얼굴을 붉히였다.

그것은 그가 매우 순박한 사람이라는것을 알수 있게 하였다.

《아니요!》 하고 인혁은 단연히 한정길의 겸양을 부정하며 정색한 어조로 말했다. 《비록 작은것이지만 사회에 이바지하려는 정신을 가지고 탐구하여 성공하는 그것이 유명하지 다른게 유명이겠소. 유명해도 요란하게 유명하지.》

바람받이의 마디마디 휘여든 뽕나무가 일매지게 늘어선 수로뚝너머에서 무르익은 가을향취가 풍겨오고 농장원들의 활기어린 목소리, 웃음소리가 류달리 정답게 흘러왔다.

인혁은 목에 흰수건을 걸친채 수굿하고 앉아있는 그를 무등 대견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성미도 서글서글해보여 대번에 친숙감이 느껴졌다. 더구나 그가 도안의 모든 농장들에서 모판부식토로 널리 리용하는 초무연탄을 연구한 당자여서 더더욱 의젓하고 기품이 있어보였다. 도안의 흔하디 흔한 초무연탄을 농장의 특성에 맞게 실용적으로 쓸 생각을 하고 연구도입했다는것은 사실상 대단한것이였다.

일부 편협한 일군들은 그의 연구를 시답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농장에 진출해왔으면 착실하여 맡은 일에 전심할 대신 전문연구사들도 관심하지 않는 문제에 머리를 쓰구 들떠서 돌아친다느니, 오를수 없는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막연한 일감을 붙들고 수년세월을 허탕치는것 같다느니 하며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들이 일군들가운데 있었다고 한다.

그런 속에서도 한정길은 주눅이 들기는커녕 대용부식토연구에 근기있게 몰두하여 마침내 보란듯이 성공하였다는것이다.

인혁은 그를 번쩍 안아올리고 세상을 향하여 《왜 이렇듯 귀중한 보

배덩이를 아직 모르고있소!》 하고 웨치고싶었다. 아니, 당장 그를 업고 온 금주리를 한바퀴 휭 돌고싶은 심정이였다.

《한정길동무, 동무처럼 기술에 능한 일군이 이번 공사에 당장 필요하오. 내 불찰로 동무를 공사에 미리 인입시키지 못했소.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찾아왔소.》

공사에 대한 말이 나오자 별안간 그의 낯빛이 심중해졌다.

장선의 말을 듣고온 인혁인지라 그가 공사에 발을 선뜻 들여놓기 주저한다는것을 순간적으로 직감하였다.

《솔직히 내가 동무대신 벼를 베는 한이 있더라도 동무를 당장 데려가고픈 심정이란 말이요.》

한정길은 한동안 덤덤히 앉아 쑥꼬챙이로 작업신발에 발린 진흙을 긁어내다가 너무 소탈하고 허물없이 구는 인혁에게 마음이 끌렸던지 시원스레 자기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비서동지, 저라구 왜 록새별사람인데 그 공사를 외면하겠습니까. 전에 일부 사람들이 필요할 땐 련속 불러대다가 한번 파오딱지가 붙자 알던 사람같지 않게 거들떠보지도 않더군요. 그에 대한 반발심이라 할가, 며칠전에 장선반장이 왔을 때 제가 너무했던것 같습니다.》 하고 그는 먼 논벌에 눈을 주었다가 말을 이었다.

《그새 나도 좀 생각해봤습니다. 수렁지정리가 지금 한창 좋은 계절입니다. 우선 다음영농공정이 없거던요. 그러니 시간적제약을 받지 않는데다 땅도 누기도가 22프로 정도이고… 좀 약점이라면 봄철보다 해가 짧아서 작업시간이 길지 못한건데 낟알을 걷어들이는 차제로 로력을 집중하면 땅이 얼기 전에 능률을 부쩍 올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인혁은 그가 내심으로 공사때문에 머리를 많이 쓰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그것이 고마왔다.

《비서동지도 파악하셨겠지만 원래 이 벌의 기반암이 고생대 흰 바위와 돌비늘짜개바위 등으로 조성됐는데 그 기계적조성이 치밀해서 물이 잘 스며들지 못하고 바람갈이가 잘 안됩니다. …》

인혁은 그의 해박한 지식에 내심 혀를 내둘렀다. 과연 초무연탄을 연구할만 한 재사였다.

《웅뎅이만 해두 수십개구, 물량만도 가량없습니다. 그걸 메꾸자면 밑물도 뽑아야 하는데 벌써 비서동지가 수렁밑물을 얼마 떨어진

하천쪽으로 뽑을 묘안을 착상했다두만요. 사실 그게 제일 급선무같습니다. …》

농업대학졸업생으로서 토양학에 조예가 깊은 인혁이도 그의 다방면적인 박식에 재삼 감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인혁은 사뭇 흥분된 마음으로 벼를 베며 그와 허물없는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저물녘에야 자리를 떴다.

인혁은 금시 하늘을 날듯 한 기분이였다. 그렇듯 보물같은 인재를 비로소 알게 된것이 큰 행운처럼 느껴졌다.

5

옥천리는 금주리의 이웃농장이다. 여기서 오늘 지구별 두벌농사보여주기작업이 진행되게 된다.

시범작업을 보기 위하여 옥천리에 발을 들여놓을 때부터 정장선은 이상하게 가슴이 설레였다. 옥천리 기계화반 처녀작업반장의 모습이 떠올라서였다.

이름은 홍현실, 크고 억실억실한 눈, 건강미가 넘치는 몸매, 담담한 얼굴표정… 후에 알았지만 그는 금주리 리당비서인 인혁의 처제라고 한다.

…정장선이 그 처녀를 처음으로 알게 된것은 몇해전 도뜨락또르운전수열성자회의때였다.

그 회의에서 정장선과 홍현실은 경험토론을 하였는데 도일보에 그들의 토론내용과 사진이 나란히 실리게 되였다.

정장선은 그때 자기가 한 일보다 고향땅을 기계로 농사짓는 락원으로 꽃피워가려는 처녀의 토론에 몹시 감동되였으며 그로 하여 자기와 함께 한지면에 사진찍힌 처녀가 남같이 여겨지지 않았다.

신문속의 자기와 처녀를 정신없이 들여다보던 나이많은 총각인 정장선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처녀와 자기를 이어주는 어떤 류다른 인연이 아닐가 하는 생각에까지 미치게 되였다.

정장선은 도일보사로 가서 자기들을 사진찍어준 그 기자에게 사진

을 두장 깨워달라고 부탁하였다. 자기와 현실을 나란히 놓고 하나의 사진으로 만들어달라고 하였다.

장선은 기자에게서 받은, 새하얀 인화지에 찍힌 사진 두장을 남몰래 간직하였다.

그는 사진 한장은 자기가 간수하고 한장은 처녀에게 꼭 전해주고싶었다. 그러나 사진만을 가지고 무턱대고 처녀를 찾아갈수는 없었다.

옥천리에는 그와 함께 제대된 동무들이 있었다.

그들을 만나러 왔다가 들렸다면 처녀도 그다지 의혹을 가질것 같지 않았다. 나와 영 모르는 처지도 아니다. 열성자회의기간 만나 서로 경험도 나누고 고향땅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릴 리상도 꽃피웠다. 미래의 꿈을 키우며 정을 나눈것도 사실이다.

마침내 장선은 결심하고 홍현실을 찾아갔다.

장선이 녀성운전수합숙모퉁이에 이르자 나들문이며 창문들이 활짝 열린 합숙안에서 까르르 하는 처녀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웃음소리가 인차 잦아들며 희열에 떠 무슨 이야기를 하고있는 현실의 은근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또 장선을 주저하게 만들고 오금이 굳어지게 했다.

그때 나들문밖으로 나서던 몸매 날씬한 처녀가 흠칫 놀라며 《누구를 찾아오셨는지?…》 하고 나직이 물었다.

장선은 얼결에 《홍현실반장동무 있습니까?》 하고 낮은 음성으로 물었다.

그 처녀가 서둘러 도로 문지방을 넘어서자 별안간 웃음소리와 말소리 딱 멎더니 창문가에 네댓명의 처녀들 얼굴이 일시에 나타났다.

장선은 우정 대범해보이려고 처녀들의 얼굴을 꺼리낌없이 맞받아보았다. 그러자 처녀들은 목을 움츠리며 벽가에 비켜서서 서로 등뒤에 얼굴을 감추고 장선을 살며시 엿보았다.

잠시후 홍현실이 걷어올린 옷소매를 내리며 밝은 얼굴로 나왔다.

《반장동무, 안녕하십니까?》 하고 장선은 짐짓 활기를 내여 먼저 인사말을 꺼냈다.

현실은 뜻밖인듯 다소 당황한 낯빛을 지으며 반색하였다.

《아이, 안녕하세요? 정장선동지였군요.》

창문가에는 또다시 네댓명 처녀들의 얼굴이 불쑥 나타났다. 그들의 명랑한 얼굴에 호기심이 어려있었다.

《모내기전투도 끝났는데 좀 쉬지들 않습니까?》
《이렇게 쉬지요 뭐… 호실장판을 하댔답니다.》
현실은 한창 공사중인 울타리모서리를 꺾어 호젓한 소로길로 발길을 돌렸다.
장선은 단둘이서 걷는것이 어색한듯 사방을 둘러보며 말을 걸었다.
《일판을 크게 벌렸습니다. 모든 건물을 개건할 잡도리같군요.》
《호호… 그저 욕망뿐이지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역시 현실동무 솜씨답습니다. 현실동무의 소행이 신문에 또 실렸더군요.》
《아이참, 뭘 그다지나… 전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현실은 얼굴을 살짝 붉히며 화제를 돌렸다. 《요즘 어지간히 바쁘실텐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 동무들을 만날 일이 좀 있어서 왔던길에…》
《아, 그래요. …》
《현실동무한테 사진을 주려고 들렸댔습니다.》
《사진?!…》
현실은 놀라운 눈으로 장선을 쳐다보았다.
장선은 회색샤쯔 아래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며 열적게 말하였다.
《신문에 났던 사진을 기자동무한테 부탁해서 크게 깨운겁니다.》
현실은 별안간 천진한 소녀처럼 명랑해지며 장선의 손에서 봉투를 나꾸채듯 뽑았다. 그는 얼른 봉투를 뜯으려다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손을 멈추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는가요?》
현실은 우선우선한 얼굴로 물었다.
그의 스스럼없는 물음에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든 장선은 일부러 《그야 뭐 우리가 서로 알게 된 뜻깊은 사진인데…》 하고 례사롭게 말하였다. 그러나 다음순간 장선은 《뜻깊은》이라는 말은 미리 꺼내지 말아야 했을걸 하는 후회가 들었다.
여기서 이야기는 어색하게 동강이 났다.
현실은 미묘한 표정으로 무슨 생각에 잠긴듯 고개를 숙인채 잠자코 걸었다.
장선은 뜻깊다는 그 말에서 그가 자기의 엉큼한 속심을 눈치채게 한

게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들어 자신이 민망스러워졌다.
서름서름한 침묵에 조바심이 더 난 장선은 용기를 내여 먼저 입을 열었다.
《사실 나는 뜨락또르운전수열성자회의때 동무의 불같은 토론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과연 나와 뜻이 맞는 동무구나!… 솔직히 현실동무와 한번 겨루며 고향땅을 선군조국의 한 모습으로 꽃피우고싶은 충동이 있었다고 할가요. …》
그러나 현실은 고개를 다소곳한채 자기의 말을 별로 탐탁하게 듣는것 같지 않았다. 문득 그가 자기의 속생각을 유치하게 여기지나 않나 하는 생각이 들자 별안간 자신이 자존심도 체면도 없는 용렬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의 침묵은 장선의 속에 불이 일게 하였다.
언덕너머 가까운 학교에서 풍금소리와 학생들의 노래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이윽고 현실은 상그레 미소를 머금고 담담한 어조로 말을 꺼냈다.
《정장선동지, 남의 토론에 감동을 받거나 신문에 사진이 함께 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닐가요?》
《물론 그렇지요. 하지만 같은 토론을 들으면서도 남달리 특별한 공감을 받거나 신문에 실린 사진을 두고 각별히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게 아닐가요?》
그 말에 현실은 별안간 활기를 거두고 랭담하다 할만치 얼굴표정이 담담해졌다. 한편 매양 명랑하던 그가 한순간에 심란해하는것을 보자 장선은 어쩐지 마음이 언짢아졌다.
장선은 이왕 자기 마음의 뜻을 드러낸바에는 그앞에 자신을 숨김없이 터놓고싶었다.
《나는 솔직히 현실동무를 알게 된 후 동무와 깊이 사귀고싶었고.》
《그렇지만 나는 아직 장선동지를 잘 모르고 장선동지도 저를 깊이 모르지 않나요.》
《아, 그거야 현실동무의 그 훌륭한 경험토론과 신문에 실리는 소행자료만으로도 능히…》
《그 경험토론이나 소행자료가 생활의 전부가 아니지 않나요.》
현실은 억실억실한 눈길로 장선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때 처녀의 얼굴에 피여오르던 미묘한 웃음…
장선에게는 두벌농사보여주기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자꾸 그날의 처

녀의 미소어린 표정이 얼른거리였다.
어떻게든 옥천리에 왔던김에 현실을 다시 만나고싶었다.
마침 옥천리기계화반에 토지정리에 아주 능률적인 새형의 창안품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고 한다. 그것을 보고 가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았다.
(에라, 뽕도 따고 님도 볼겸…) 하는 생각이 들자 저절로 얼굴이 붉어진다.
장선은 보여주기작업이 끝나기 바쁘게 더 생각할 사이없이 기계화작업반으로 향했다.
오늘따라 작업반구내는 별로 조용하였다.
그는 이 구석, 저 구석을 스적스적 돌아보기 시작하였다. 그도 이곳 기계화작업반에서 2중3대혁명붉은기작업반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크게 벌린다는 소문을 들었었다.
우선 미색담장부터가 도련을 쳐 네모지게 테두른듯 산뜻한 모양으로 첫눈에 안겨왔다. 새로 지은 서른칸은 남아 돼보이는 일매진 차고며 갖가지 부속품을 종류별로 당반에 칸칸이 장비한 창고도 더없이 알뜰했다. 더우기 일식으로 갖추어진 작업실의 그쯘한 설비들은 눈이 부시게 알른알른하였다.
장선은 그만 입을 딱 벌리였다.
장선은 제대된 해 바로 여기에 와본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의 어설프던 흔적은 가뭇없게 일신되였다. 불현듯 그는 옥천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이 남먼저 부강조국건설의 지름길을 달리고있다는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그는 자기도 마판진수렁공사를 시급히 끝내여 모든 포전들을 알뜰히 가꾸고 결의목표에 반영한대로 작업반을 3대혁명붉은기작업반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자각과 초조감으로 속에 불이 이는듯 하였다.
아까부터 저쪽에서 뜨락또르정비에 골몰하고있던 두 처녀는 그제야 일손을 멈추고 가까이 다가오는 청년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들은 희멀쑥한 청년이 낯설지 않는것 같으면서도 딱히 누구였던지 생각되지 않는 모양이였다.
《누구니?》
《글쎄… 정말 미남이다 얘, 혹시 우리 반장 만나러 온게 아닐가?》
《저렇게 멋진 총각이라면야 반장과 짝이 기울지 않지 뭐.》

《너는 못하는 소리 없구나.》
《호호…》
그들이 웃는 소리를 듣고 장선이 얼핏 얼굴을 돌리자 두 처녀는 황황히 눈길을 거두고 정비에 골몰하는척 했다.
비위살이 좋은 장선은 그들한테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수고들 합니다. 나는 금주리사람인데…》
금주리라는 말에 그만 몸매 날씬한 처녀가 동실한 얼굴을 반짝 들고 장선의 아래우를 번개같이 훑어보더니 《잠간 기다려주세요.》 하고 담장밖으로 날렵하게 반달음쳐갔다.
때마침 기사장한테 갔던 현실이 작업반입구에 막 들어서다가 몸매 날씬한 처녀와 마주쳤다.
《반장동지! 왔어요.》
처녀는 설레발치며 밑도끝도 없이 이렇게 말하였다.
《왔다니? 누가?》
《금주리에서… 그 있잖아요. …》
《누구라구?》
처녀는 오동통한 운전수와 헤벌쭉거리며 말을 건네고있는 장선을 가리켰다.
《저기 있잖아요.》
그는 장선에게 다가가 먼저 인사말을 건네였다.
《장선반장동지였군요. 그새 안녕하셨어요?》
운전수처녀와 이야기를 주고받던 장선은 얼굴을 돌리며 반가운 기색을 지었다.
《안녕하십니까. 참 오래간만입니다.》
《오늘 시범작업 보러 오셨댔군요.》
《예, 왔던김에 좀 배우러 들렸습니다.》
어린 처녀들앞이여서 그러는지 희떠운 그답지 않게 점잔을 부리는것이 도리여 별스러웠다.
《호호 참, 농산반장이 우리한테야 뭘 배우러 왔겠나요. …》
《아니요.》 하고 장선은 정색하여 말하였다. 《정말 상상외로 훌륭히 꾸렸습니다.》
현실은 자못 진중한 표정으로 말하는 그를 새삼스럽게 쳐다보았다.
《사실 우린 진수렁공사를 벌려놓았는데 시일이 긴박하니 어깨가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난해 〈천리마〉호뜨락또르에 삽날과 운토기랑 달구 토지정리한 경험을 듣고싶어 들렸지요. …》

그러나 현실에게는 그가 토지정리의 초보적인 문제를 과장해서 둘러대는 그 용건이 곧이 들리지 않았다. 그가 우정 들린 심정에 넉넉히 짐작이 갔으나 모른척 하고 방그레 웃으며 농기계창고와 지난해 창안제작한 기계들을 보여주면서 작업경험도 저저이 들려주었다.

현실의 친절한 설명을 다 듣고난 장선은 이제와서 구태여 그를 만나고싶어 온 심정을 내비치기가 좀 어색하였다. 어쩐지 자기의 어리숭한 마련없는 행동이 멋적고 맹랑하게 생각되였다. 그는 현실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스적스적 작업반구내를 벗어났다.

둘은 인적이 드문 논사이길로 묵묵히 걸었다.

장선은 평소에 반주를 쳐줄만 한 너스레군이 곁에 붙어있으면 익살도 부리고 롱말도 곧잘 하군 하였으나 막상 처녀와 둘이서 호젓한 길을 걷고보니 공연히 몸가짐이 부자연스러워지고 속생각도 털어놓지 못하게 됨을 느꼈다.

《현실동무, 사실 경쟁은 내편에서 먼저 호소했지만 지금은 내가 멀리 뒤떨어진셈이요.》

《호호.》 오늘은 별스럽게 꽂꽂한 그의 말투가 일부러스럽게 들려 현실은 방긋이 웃으며 《그런 말 마세요. 장선동지는 굉장한 공사를 책임진 돌격대대장 아니나요.》 하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현실동문 벌써 귀중한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오늘 와보길 참 잘했지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저 혼자 으쓱해하는 빈말쟁이가 될번 했단 말입니다.》

《호호… 지내 과장하지 마세요. 우리 옥천리사람들은 날로 변모되며 큰걸음을 내딛는 금주리를 몹시 부러워들 한답니다.》

현실은 잠시 말을 끊고 다소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그때는 묻지 못했댔는데… 어떻게 우리 둘의 사진을 크게 깨워 저한테까지 줄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였나요?》

《엉뚱한 생각?…》 장선은 난데없는 물음의 뜻을 깨닫지 못한듯 잠간 뻥해있다가 《허허허, 거 뭐랄가… 내 마음의 움직임이라 할지…》 하고 허거프게 웃었다.

《마음의 움직임… 단순하면서도 뜻있는 표현이구만요. 하다면 어떻게 되여 장선동지는 고향땅을 더욱 아름답게 꾸리는 그런 큰 공

사의 앞채를 메게 되였나요?》

《현실동무, 우리 청춘들의 진정한 행복과 삶의 보람이 무엇이겠습니까!》

장선은 다감한 어조로 이렇게 말꼭지를 떼고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계속하였다.

《내 군사복무할 때였지요. 우리 훈련장 바로 옆에 저 옥련봉같이 높고 물매 급한 철산고지가 있었습니다. 땅크로 그 철산고지를 점령할수 없다는 기존관념을 버리고 우리는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훈련을 벌렸지요. 저쯤한 고지조차 점령하지 못하고서야 어찌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라고 할수 있겠는가! 우리의 심장은 이렇게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훈련도 벌리고 지형조건도 타산한 후 우리는 지휘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사면을 톺아오르기 시작했지요. 정말 땅크가 아슬아슬한 비탈면을 극복할 땐 금방 천길벼랑밑으로 곤두박힐것만 같은 아찌아찌한 순간 조국이 보고있다,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지켜보신다는 번개치는 생각이 우리에게 담력과 용맹을 주더군요. 우리 승조는 끝내 철산봉마루에 올랐지요. 순간 와! 환성이 메아리쳤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철산고지를 정복하였습니다!〉 심장의 보고를 올리는 그때의 희열! 우리는 격정의 눈물을 걷잡을수 없었습니다. …》

그는 그때의 그 격정이 북받쳐오르는듯 눈굽을 축축히 적시였다.

현실은 그 이야기를 뜨거운것을 삼키며 들었다.

《우리 리당비서동지가 마판진수렁정리공사를 제기했을 때 나는 마치 철산고지정복을 결심했을 때와 다름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들이 할수 없다는것을 결사의 각오로 해내는데 청춘의 참다운 긍지와 보람이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이거 내 말이 지내 길어진게 아닙니까?》

장선은 말을 멈추고 현실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아니예요, 괜찮아요. 훌륭한 이야기는 절대로 지루하게 들리지 않는답니다.》

《그렇습니까? 참… 아까 나보고 어떻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했는가고 물었지요?》

《그래요. 하지만 그 물음에야 대답하지 않았나요.》

《…》

장선은 무엇을 음미하는듯 잠자코 있다가 저으기 가라앉은 목소리

로 말하였다.

《내 전번 만났을 때에도 말했지만 솔직히 현실동무의 그처럼 훌륭한 소행에 나는 그만 온넋을 통채로 빼앗겼다 할가요. 당의 뜻대로 한생을 바쳐 고향땅을 가꾸고 우리 생활을 꽃피우는데서 청춘의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는 그 비상한 각오, 불같은 청춘의 열정! 바로 그것이 내 마음의 도화선이 되였다 할런지. …》

현실은 금주리포전으로 멀리 잇달린 그늘진 언덕굽이로 멀어져가는 장선의 뒤모습을 정겨운 눈길로 오래오래 바래였다.

불현듯 그의 눈앞에는 봉투안에 있는 새하얀 종이로 차곡차곡 접어싼 사진—꽃목걸이를 목에 걸고 상그레 웃는 자기와 그곁에 역시 목에 꽃목걸이를 건, 흐뭇한 미소어린 름름한 정장선의 모습이, 사진뒤면에 멋을 부려 쓴 《우리 언제나 당의 뜻을 활짝 꽃피우며 한길을 걸읍시다!(정장선)》이라는 글발이 삼삼히 밟혀왔다.

현실은 정작 그와 헤여지고보니 웬일인지 마음이 허전하고 알찌근해졌다.

사실 현실은 그 사진을 받은 이후 정장선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었다.

후리후리한 키꼴에 열정이 이글이글한 끼끗한 청년, 어쩌다 군회의때나 길가에서 우연히 만나면 일부러 대범한 티를 내려고 하면서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티없이 순진한 인간, 그는 농장의 그중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 남먼저 어깨를 들이미는 성실한 초급일군이였다. 구태여 흠이라면 배짱이 지나쳐 일부 웃사람들의 곱지 못한 눈총을 받고있다는것이였다.

그러나 현실에게는 그것이 도리여 남한테 무작정 굽어들기를 싫어하는 사내다운 기질로 리해되였다. 그것이 사랑의 눈먼 감정때문일가? 이런 생각이 몰래 들 때마다 현실은 속으로 슬며시 놀라군 했다.

(무슨 새빠진 생각이람. …)

그후 정장선은 현실의 마음속에 점점 뚜렷한 모습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언제인가는 할머니밖에 없는 그의 집안래력을 알게 되였는데 그것으로 해서 현실은 더욱 그한테로 기울어지는 마음을 어쩔수 없었다.

현실이도 세상에 없는 어머니를 못내 그리며 셈이 든 까닭인지 그의 지나온 시절과 자신을 때없이 결부시켜보게 되는 애틋한 그 무엇

이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 서로의 마음속에서는 딱히 무어라 이름할수 없는 감미롭고 부드러운 싹이 스스로 움트고 자랐었다.

현실은 그것을 고이 간직하고싶었다. 또 고이 간직하고싶은것만큼 겉에 드러날가봐 은근히 두렵기도 하였다.

6

기름문제때문에 도에 갔다가 닷새만에 빈손으로 돌아온 관리위원장 조수환은 출근하는 길로 관리위원회일군들을 자기 방에 모이게 하였다. 그간의 사업총화를 위해서였다.

그는 떵떵거리며 호기있게 떠났다가 허탕치고 돌아와서 사람들을 대할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지 않았다. 여직껏 그가 장담하고 나선 일은 거의 튄적이 없었다. 그런데 예상외로 이번 일이 꼬이기만 하였다.

(이럴줄 알았더라면 인혁의 말대로 차라리 떠나지 말았어야 하는건데…)

그는 후회가 막심했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까짓거 이 수환의 수완이 딸려서가 아니라 형편이 막부득이해서 그렇게 된걸 어쩐단 말인가.…) 하며 자신을 위안도 해보았다. 하지만 속은 결코 편안치 않고 불끈불끈하는 울기를 누를수 없었다.

오늘 아침엔 별스럽게 전화가 자주 걸려와 모임이 자주 끊기군 하였다.

전화종이 또 귀따갑게 울렸다.

《내 수환이요.》하고 그는 시끄러워하는 표정을 짓고 송수화기를 들었으나 곧 태도를 바꾸었다.

《경영위원장동지, 안녕하십니까? 예, 일이 좀 우습게 됐습니다.》

《관리위원장동무, 기름형편이 그전과 같은줄 알우? 딴주머니를 쳐다볼 생각은 말구 빨리 가을걷이를 다그쳐야겠소. 공사준비도 같이 내밀려면 여간 아니겠는데.》

《위원장동지.》하고 그는 익숙된 습관대로 옆턱과 꺾쇠뼈사이에 송수화기를 끼우고 상대가 마주 앉아있기라도 한듯 두손으로 벼베기

를 하는 시늉까지 해보이며 말을 이었다.
《아무 념려마십시오. 까짓거, 총돌격전을 벌려서 남먼저 와짝 끌어들이고있습니다. 예, 아무려문요. 우리야 한다면 하는거지요. …》
수환은 상대방이 전화를 끊은것을 확인하고야 조용히 송수화기를 놓았다. 울기가 올라 그의 둥실둥실한 얼굴은 불그레해졌다.
미처 숨돌릴 사이도 없이 또 전화종이 귀청따갑게 울렸다.
《예, 수환입니다. 누구? 계획부원? 여기 다 모였는데…》
《위원장동지, 벼가을실적이 요즘 썩 좋은 편이 못됩니다. 큰 공살 벌리려면 매일 실적이 다른 농장의 배는 돼도 바쁠텐데요.》
《그래서 급히 대책하려고 모인중이요. 알겠소.》
그는 송수화기를 든채 손세를 써가며 《보우, 고양이 소대가리 맡은것 같은 그 공사때문에 가을걷이독촉이 불같소. 순간두 어물거릴새 없단 말이요.》하고는 누름판을 연거퍼 누르며 교환을 찾았다.
《교환, 거 빨리 작업반들을 찾아서 나오는 차례루 대라구, 음…》
그는 탁에 놓인 가을걷이실적집계자료를 들여다보며 거쉰 목소리로 따졌다.
《내 없는새 창고장까지 다 동원시켜 한두개작업반씩 맡겼다는데 왜 실적은 이 모양이요?》
관리위원회 일군들은 머리를 수굿하고 침묵을 지켰다.
《로동부원동무.》
《예.》
목은 앙바틈하지만 날파람 있어보이는 로동부원이 일어섰다.
《동무야 일솜씨두 꼼꼼하구 완력두 있는데 왜 담당한 7작업반 실적이 망끌이요. 원인이 뭐요?》
로동부원은 공연히 숱진 바투깎은 머리칼을 헛손질하며 머뭇머뭇 대답하였다.
《물론 내 책임이 큰데… 지금 반장은 앓아서 출근을 못하다보니…》
이때 전화종이 급히 울렸다.
수환은 송수화기를 시들하게 들었다.
《뭐? 마침 7작업반이구만. 유진섭동무요? 수고야 뭐… 그런데 벼베기가 왜 이 모양이요. 반기술원은 새로 돼, 유동무밖에 주인이 있소. 글쎄 알만 한데 동무처럼 마음 용해가지군 안돼. 아, 작업반좌상인 동무가 시퍼렇게 있으면서 뒤끄리라니 말이 되는가. 내 긴말을 할

짬이 없는데 냅다 다몰아대란 말이요, 엉?》
수환은 바른팔에 힘을 주어 내뻗치며 손바닥으로 힘껏 내미는 시늉을 했다.
그는 송수화기를 놓고 로동부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래서?》
로동부원은 다시 일어나 또 말이 끊길가봐 그러는지 서둘렀다.
《전반장때는 늘 앞서더랬는데 그후 반장된 사람은 골골 앓는 형편이고 유진섭동무가 대신 반장사업까지 보는데 모두가 제뿔뿔이 되는 통에…》
《제뿔뿔이라니? 로력조직사업이 걸렸다는거요, 합심이 잘 안된다는 소리요?》
수환은 큰 얼굴을 번쩍 들었다.
《말하자면 둘다 걸린셈이지요. 전에는 일손이 걸싼 진혜정과 김서분동무들이 승벽내기로 작업능률을 올리며 반을 끌다싶이했는데 웬일인지 지금은 진혜정동무가 유진섭동무와 잔뜩 틀려 건성건성 일하니 김서분동무도 손맥을 놓았지 또 유동무는 원래 속대가 약하다보니…》
순간 수환은 골살을 찡그리며 증이 나서 대중없이 볼멘 소리로 말했다.
《진혜정이 코코에 말썽이군. 농장일 뚜꺼먹는것도 식은죽 먹기루 여기질 않나, 남편이 살아있을 땐 그 그늘에서 제노라더니 이젠 본색이 드러난셈이지. 그러니 어리무던한 유동무같은 호인이 속깨나 썩을수밖에… 당장 어느 손탁 센 작업반장밑에 보내서 버릇을 뚝 떼버리던가 무슨 마련을 봐야지. …》
로동부원이 한마디 더 튕겨주었다.
《그래서 어제두 리당비서동지가 7작업반에 나가 반원들과 같이 벼베기를 하였습니다.》
이때 또 전화종이 울렸다.
수환은 송수화기를 귀찮게 들었다.
《3작업반이요? 반장동무, 왜 벼베기실적이 중간에서 어름거리오?》
진혜정이때문에 신경이 곤두선 그의 말투가 어지간히 거칠었다.
《여보, 3작업반이야 농장적으로 논풀이때두 선두에 섰던 반인데 중간축에서 어물거린다는게 말이 되는가. …》
모임참가자들은 지루한듯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거나 창밖에 무료한 눈길을 던지였다.

《보우, 형편이 이런 판이요. 우리 관리위원회 일군들이 맡은 반들에 나가 와짝와짝 내밀어야 하겠소. 고삐를 단단히 죄란 말이요. …》

사업총화를 끝낸 수환은 나들문구석에서 큼직한 낫을 찾아 뒤꽁무니에 찌른 다음 밖에 나섰다.

우선 오늘은 리당비서를 만나 할말은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부비서가 일러주는대로 1작업반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머리에는 늦은 봄부터 마가을까지 늘 쓰고다니는 전이 처진 왕골모자가 얹혀있고 그 장대한 몸을 감싸고있는 진회색작업복은 겨드랑이, 허리, 가랭이부분에만 원색이 얼룩지게 약간 남아있을뿐 어깨며 잔등이며 무릎부분은 바래여 희끗희끗했다. 아직도 바지혼솔에는 모내기때 튕긴 감탕방울자리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장딴지까지 오는 사출장화만은 아주 생생한것이였다. 그것은 그의 발에 맞는 장화가 없어 장마철에도 질적질적한 두렁길을 매생이같은 작업신을 신고 지척거리며 다니는것을 눈여겨본 인혁이가 신발공장에 특별히 주문하여 구해준 특호장화였다.

한번은 인혁이 그가 너무 색바랜 작업복을 마치 제복처럼 입고다니는것이 민망하여 《여보게, 맨 살이 다 드러나야 그 알량한 의상을 바꿀려나.》하고 롱말을 했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이 걸작이였다.

《이게 어째서. 그래, 조수환이가 매미처럼 허물벗이를 해야 좋을것 같은가.》하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넘겼다.

사실 그러한 차림새는 누구에게나 첫눈에 흙내, 땀내풍기는 인상을 짙게 주었다. 그래서 벗기를 아수해하는지도 모른다. …

수환은 느릿느릿 팔자걸음을 옮겨놓았다. 그가 꽁무니에 엇비듬하게 찌른 큼직한 낫은 마치 장난감처럼 보였다.

건들바람이 향긋한 들냄새를 날라오는 벌에 막상 나서고보니 그는 고작 한댓새 자리를 뜬것이 퍼그나 오랜것처럼 생각되였다.

그는 논머리에 우뚝 서서 먼눈으로 농장원들속에 작업모를 꾹 박아쓰고 흰 목수건을 목에 걸친 인혁을 쉽게 알아보았다. 수환은 곧장 그한테 가고싶었으나 늦게 논판에 들어선것이 멋적어 주춤거렸다. 차라리 쉬는참에 그와 따로 만나기로 하고 수환은 반대켠에서 벼를 베려고 하였다.

그는 뒤꽁무니에서 긴 낫가락을 뽑아들고 밤새움을 한것같지 않게

재빠른 솜씨로 벼를 썩썩 베기 시작하였다. 잠간동안에 논판 한구석이 휑뎅그렁해졌다.
어느새 알아보고 인혁이 낫을 쥔채 스적스적 다가왔다.
《돌아왔구만. 수고했소.》
수환은 벼베기에 옴해 모르고있다가 흠칫하고 긴 허리를 폈다. 눈섭이 숱진 그의 검실검실해진 얼굴에 땀이 즐펀했다.
《허탕친게로군.》
《그렇게 됐소.》
수환은 걸마른 논두렁에 엉치를 붙이였다. 그는 옆주머니에서 담배갑을 꺼내여 한가치 뽑아물고 불을 붙여 달게 빨았다.
《그래 내 뭐라 했소. 꾹 박혀 빨리 여기 일이나 제끼자구.》
수환은 쓴표정을 지었다.
《할말이 없소. 내 이번처럼 허탕을 해보기도 처음이지만 무능을 느끼기도 처음이요.》
《왜 고양이뿔을 내놓고는 무엇이든 손에 쥘수 있다던 사람이…》
인혁은 그의 자만심을 건드리고싶어 능청스럽게 시까슬렀다.
《빈정거리지 마오, 그러지 않아두 낯가죽이 한꺼풀 벗기웠는데 자네가 또 한꺼풀 벗기겠나?》
인혁은 웃음을 거두고 정색하여 말하였다.
《그래서 내 하는 말이요. 달구지와 등짐으로라도 벼단꺼들이기를 다그치자는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고 부득부득 출장간것부터 자체총화해보게.》
수환은 입이 쓰거운듯 그 말에 대답을 피했다. 이윽고 그는 한결 기죽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내 이번에 도상사들을 모조리 돌아보면서… 생각되는게 많았소.》
《…》
《여보게 인혁이, 오늘은 옛친구의 심중한 타이름으로 여기고 명심해 듣게나. 솔직히 자네도 내 처지에 서면 생각이 복잡해질수 있지. 사실 욕망대로 안되는게 농사일이네. 코코에 제약을 받거던. 날씨나 절기 같은게 사람마음 알아준다던가. 내 요즘 아무리 생각을 곱씹어봐야 앞으로 공사까지 벌리다가는 필경 무슨 큰 봉변을 당하구말것 같네. 공사는 솔직히 국가과제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도 아니지 않나.》
《그러기에 벼가을을 다그쳐끝내고 총돌격하자는것이 아닌가.》

《한해농사를 지으면 한숨 돌릴것 같은가. 래년농사준비를 또 맞물려야 하네.》

《?!》

인혁은 놀랍게 수환의 침통한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미 론의되였고 또 그자신이 선선히 동의한 공사를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거들다니…)

인혁은 반응없는 그의 표표한 기색을 넌지시 살피다가 진중한 어조로 말하였다.

《다 아다십이 그 공사야 금주리의 래일을 위한 일이 아니요, 어느때든지 해야 하고.》

수환은 그만 자제력을 잃고 울컥하여 내밸듯 말하였다.

《그 래일이 당장 오늘을 크게 망칠것 같아 그러네. 랑패후 후회란 아무짝에두 소용없는거네.》

《그럼 관리위원장이 공사에 선뜻 응해나선것은 진심이 아니구 거짓이였다는거요? 그렇다면 왜 리당위원회에서 최종토의결정할 때 손을 들었소?》

수환은 그만 혀가 굳어졌다.

(이 친구 알짜 곧은목이로군. 사사로운 청도 받아들일줄 모르는…)

제풀에 열이 올라 담배대를 든 손이 경련일듯 후들거렸다.

《정 그렇다면 좋소. 내 더 말하지 않겠네. 자네 앞일이 념려되여서 한 말이였으니 아무렇게나 리해하게!》

그는 인혁의 입에서 또 다른 말이 나올가봐 꺼려하듯 먼저 자리에서 움쭉 일어났다.

수환은 자기의 안타까운 권고를 귀담아듣지 않는 그가 고깝기 그지없었다.

그는 지금껏 인혁이 연방 일판을 크게 벌려놓으려고 할 때 대틀로서의 체모를 잃지 않으려고 흔연히 받아들이군 했었다. 그러나 막상 실행하려면 무던히 숨가쁘고 걸음을 맞추기가 힘에 부치였다. 그렇다고 하여 아득바득하는 그의 불같은 열성을 외면할수 없었다.

사실 인혁이는 수환의 맘속에 항상 들어앉아있는 사람이였다.

전 리당비서가 종시 사회보장에 넘은 뒤부터 그는 자기와 손발을 맞추어 일할 사람이 리당비서로 부임되여오기를 은근히 바라고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중에는 인혁이란 사람도 들어있었다.

마침 인혁이 리당비서로 온다는 기별을 받고 그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그와만 손을 잡으면 만사가 쭉쭉 펴일것 같은 생각에 마음은 자못 흥겨워졌다.

한고향에서 태여나 걸음마를 뗄 때부터 함께 성장해온 그들간의 우정은 남달리 각별한것이였다.

인혁이 오는 날 그들은 어릴적 씨름터였던 옥천강가의 모래불에 나란히 퍼더버리고앉아서 꿈결같이 흘러간 옛시절을 감회깊이 추억하였었다.

그때 수환은 《인혁이, 이제부터 나는 자네만 믿겠네. 뒤에서 제구실 못하는 사람들이나 다불러대면서 틀구앉아있으면 되겠네.》하고 기대어린 말을 하였다.

《아니 이 사람, 날 무슨 몰이군으로 보나. 난 험난한 길을 먼저 헤치는 룡마가 되고싶네.》

인혁은 허구프게 웃었다.

그날 인혁은 깊은 감회에 잠겨 동요시절의 자취 력력한 농장을 돌아보았었다. 옥천강기슭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록새벌에 이르자 사철이 벌을 떠날줄 모르던 어머니의 그리운 모습이 눈에 밟혀와 인혁의 눈굽은 축축히 젖어들었다.

사실 그가 군당과 도당에서 사업할 때 금주협동농장은 도적으로 앞선 축이였고 수환은 군과 도에서 조직하는 회의나 궐기모임의 주석단에도 드문히 오르군 했었다.

그런데 금주리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차츰 군과 도의 기억속에서 삭막해지기 시작했다. 마치 화로에 이글거리던 잉걸불이 어느결에 사위여지는것과 흡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조수환을 의연히 난다긴다 하는 일군으로 인정하고있었다. 또 수환이 자신도 평가에 습관되여 이름날리던 때의 자부심을 놓지 않고있었다. 바로 그무렵에 김인혁이 리당비서로 부임되여온것이다.

인혁은 오자바람으로 그중 오래된 살림집들을 털어내고 보다 현대적인 문화주택으로 바꿔앉히는것으로써 사업을 시작하였다. 동시에 샘골에는 양어장을 만들어놓자고 하였다.

농촌건설쯤은 히쭉 웃고나서는 수환이였지만 그의 련이어 제기하는 엄청난 발기들에 두눈이 휘둥그래져 놀라와하면서도 (누구나 새로 부임되면 의례히 사업의욕이 북받치는 법이지.) 하는 생각으로 인혁의

열기에 적극 호응해나섰다.

그리하여 수환은 그와 손을 잡고 세멘트가 극히 바른 실정에 맞게 슬라크와 연재를 모아들이고 수만매의 천연스레트를 캐내여 한해동안에 세칸짜리 방과 목욕시설이 달린 수십동의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을 일떠세우고 양어장도 건설하였다. 인혁이 련이어 발기한 유치원건설은 어지간히 아름찼으나 그것 역시 단 50일동안에 보란듯이 일떠세울수 있었다.

허나 이번 공사는 그런것들과는 감히 대비할수 없으리만큼 방대한데다 한번 졸경을 치른 공사여서 아무래도 마음내키지 않았다. 그가 자기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그에게 사심없는 권고를 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옛정을 믿고 하는 자기의 절박한 호소를 그리도 대수로와하지 않고 건성으로 대하는것이 어쩐지 섭섭하고 야속하였다.

날이 감에 따라 그와 보조를 맞추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꾸역꾸역 머리에 차올랐다.

마판진수령공사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함정으로 되는지 가늠해보려고도 안하는것 같았다. 더우기 자신부터 겪게 될 아름찬 고초같은것은 념두에도 없이 벽도 문이라고 내미는 격이라고 수환은 한탄하였다.

한편 인혁은 요즘 제몸을 여러쪽으로 가르고싶은 심정이였다. 그러한 경황에도 그의 마음을 지꿎게 파고드는것은 7작업반 농장원 진혜정의 문제였다. 수환이 골치거리라고 했고 부비서도 그가 작업반의 공기를 흐리게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하였다. 심지어 관리위원회 일군들속에서는 진혜정을 당분간만이라도 3작업반장과 같이 손탁이 센 반장밑에 보내여 제멋대로 놀아나는 덜된버릇을 뚝 떼버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있었다.

진혜정… 얼마전 농장원총회때 회관엽 구석자리에 곧은 자세로 다소곳이 앉아있던 그의 수심어린 얼굴표정이 눈앞에 밟혀왔다. 그 수심어린 다소곳한 모습은 어쩐지 측은한 심정을 자아냈다.

(사람이 원래부터 말썽군일수야 없지 않은가. …)

남편을 잃은지 오래되지 않고 아들을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 그, 한때 로력혁신자이며 선동원이였던 그가 무엇때문에, 무슨 까닭에 오늘은 사람들속에서 골치거리로, 비난거리로 되고있는가. 그에는 필경 그 어떤 말 못할 숨은 곡절이 있으리라는 예감이 갈마들었다.

인혁은 어느날 오후 진혜정을 만나기 위하여 7작업반에 나갔다.
7작업반을 담당한 로동부원이 드세게 다몰아대느라고 하지만 경쟁도표에는 10개 농산작업반가운데서 겨우 일곱번째 순위에 머물고 있었다.
인혁은 벼베기 쉴참에 농장원들과 초간하게 떨어진 논머리에서 진혜정과 따로 만났다.
밤색작업복에 목짧은 남빛장화를 신은 몸매날씬한 진혜정은 흰 머리수건을 벗으며 머리를 숙여보였다. 그는 갸름한 얼굴에 시답지 않은 표정을 짓고 인혁의 옆에 공간을 두고 앉았다. 그는 먼발치에 농장원들이 보이는데서 리당비서가 자기를 만나주는것이 그닥 달갑지 않은듯 몸을 잔뜩 외로 꼬고 애꿎은 흙덩이만 줌으로 부스러뜨렸다.
해오라기 한마리 너울너울 날아와 어수선한 논두렁우로 한가하게 거닐고있었다.
인혁은 자기를 쌀쌀하게 대하는 그한테 무슨 말부터 꺼내는것이 좋을지 몰라 잠간 망설이였다.
《진혜정동무, 벌써 만나보았어야 했을걸 내 등한하다나니 비로소 오늘에야… 참 안됐소.》
《안될게 있습니까. 리당비서동지야 할일도 많으실텐데 저같은것까지야 뭐…》하고 혜정은 얼굴을 모로 돌린채 차겁게 말하였다.
(마음속에 무슨 멍이 단단히 들었군.)
인혁은 피끗 그가 한번 앵돌아지면 그 누구의 말도 귀등으로 들을뿐아니라 당세포비서와도 잔뜩 덧나 속을 꽁지고있는 덜된 녀자라고 혹평하던 수환의 이지러진 말이 상기되였다. 그러나 인혁에게는 웬일인지 그의 마음속 멍이 결코 그자신의 탈같지 않은감이 들었다.
《진혜정동무, 우리 리당이라든가 일군들에 대해서 속에 품고있는 생각이 있으면 툭 털어놓고 말해보우. 눈치를 보지 말구…》
인혁은 유순한 어조로 선선히 말하였다.
《초급일군들을 통해 다 알구 오셨겠는데 내 말이 무슨 필요하겠나요. 다 아시겠지만 나라는 녀잔 원래 그래요. 남들의 골치거리구 정해놓은 우환거리지요 뭐.》
혜정이 매정스럽게 딱 잘라 말하는것이였다.
《허허… 나는 혜정동무의 의견이랑 생각이랑 듣고싶어왔지 어떤 결함이나 캐러 오진 않았단 말이요.》

《처음에야 다 그렇게들 말하지요. 금시 진정을 줄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제 정작 남편을 잃고 지내보니 자기 아니면 다 남남이예요.》

혜정은 상대방이 무안할 지경으로 매몰스럽게 인혁의 말을 나꾸채며 말하였다. 그 순간 혜정의 눈구석에 눈물이 가득 고이는것을 인혁은 놓치지 않았다.

《작업반이란 하나의 큰 가정이고 모두는 한식솔이나 다름없는데 남남으로 생각해서야 되겠소. 가령 반원들이 저마끔 저한테 리로울 생각만 한다면 단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구 반일이 또 어떻게 잘돼나가겠소.》

《작업반이 단합되구 반일이 잘되고 못되는거야 반을 책임진 사람들한테 달린거지 저같은 사람때문인가요?》

혜정은 가시돋힌 말을 내쏘듯 하였다.

이때에야 비로소 인혁은 자신이 진혜정에 대한 자세한 파악이 없이 조급하게 만나 가뜩이나 언 감정을 오히려 덧궂혀놓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뜨끔으로 자료적인 진혜정만을 알았지 산 진혜정을 몰랐던 자신의 실수를 절감했다. 결국 그와의 담화는 더이상 이을수 없었다.

잔등이 가려운 사람의 발등을 긁어주는 식의 담화, 사랑없는 교양은 한갖 가소로운 공담에 지나지 않는것이였다. 더우기 남편을 잃은 설음이 가시지 않은 그를 더 자극하고싶지 않았다.

진혜정이 인혁에게 인사를 하고 헤여지는것을 먼발치에서 본 세포비서 유진섭이 꺼꺼부정하고 느릿느릿 다가왔다. 그는 기름하고 어리무던해보이는 얼굴에 어줍은 표정을 지으며 《비서동지, 안됐습니다. 제가 당원들을 잘 이끌지 못하다보니 이 바쁜 철에…》하고 혜정이가 리당비서앞에서도 그 독스러운 버릇대로 무모하게 행동했으리라고 짐작되는지 매우 거북해하였다.

《사람을 파악하는 일보다 더 바쁜 일이 뭐 있겠소. 동무나 나나 농장원들과의 사업에 너무 등한해온것 같소.》

인혁은 다른 내색은 않고 유진섭과 함께 논판에 들어서며 물었다.

《세포비서동무생각에는 혜정동무가 왜 저 지경이 된것 같소?》

유진섭은 머밀머밀하다가 《나도 딱히… 원래는 아주 명랑한 동무였는데 남편을 불시 잃은 다음부터… 전전해에 혼자 살기가 외로와 법동에 있는 친정아버지를 모시러 갔댔는데 날자보다 한주일이나 더 늦어진것때문에 관리위원장동지한테 되게 닥달질 받은것 같습니다. … 묻

는 말에 속시원히 대답을 합니까, 그렇다 해서 의견을 말합니까. 말하자면 답답이형으로 돼가지요.》

《답답이형? 그거 새로 창조된 말이구만. 여보, 세포비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되겠소?》

인혁은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유진섭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싫은 소리를 할줄 모르는 호인이라는 수환의 말을 자주 들었던탓인지 유진섭에 대한 새로운 인상은 맺고끊는 멋이 없이 그저 어수룩한 것이였다.

유진섭은 같이 벼를 베면서 진혜정이 처녀때 자급비료도 혼자서 한해에 1 000톤이상 생산한 모범선동원이였고 한번은 군당에서 조직한 회의시간을 어기지 않으려고 갑자기 큰물진 옥천강에 서슴없이 뛰여든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당조직이 제정한 모범선동원경험토론회 참가시간을 한초도 어기지 않으려고 무섭게 사품치는 홍수에 제잡담 뛰여들어 황토물속에 삼키웠다 솟구쳤다 하며 5리아래의 대안기슭에 기어이 닿고야말았다는 진혜정의 모습이, 온통 물참봉이 되여 군당에 이르러서야 픽 쓰러졌다는 그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였다.

(그렇게도 성실했던 녀자가 왜 저렇게 변했을가?…)

인혁은 그가 분명 새 리당비서도 자기 가슴에 멍이 지게 한 일군들과 똑같은 류의 사람으로 넘겨짚은게 틀림없으리라는데 생각이 이르게 되였다.

아까 그가 《처음에야 다 그렇게들 말하지요. 금시 진정을 줄것처럼 말입니다.…》라고 하던 말이 그것을 명백히 시사해주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를 설다룬 사람은 누구며 더우기 그의 가슴에 멍이 들게 한 장본인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7

수환은 긴 낫가락을 꽁무니에 찌른 행장그대로 3작업반쪽으로 스적스적 걸었다. 오늘은 흐릿한 날씨마저 자기의 흐리터분한 기분을 더 잡쳐놓는것만 같았다.

흐린 날씨처럼 그의 기분상태를 흐리게 하는것은 인혁이에 대한 생각때문이였다. 인혁은 일이 바쁠수록 관리위원회사업에 대하여 더 깊이 파고들었고 관리일군들의 역할과 관련하여 요구성을 높였다. 그는 자기가 도에 출장갔다가 헛물켜고 돌아온것도 스쳐보내지 않고 문제를 세워 비판했었다.

일군이라면 그래도 고삐를 조이는 때도 있고 늦추는 멋도 있어야지 아무 일에서든지 에누리가 없는 인혁의 꼬장꼬장한 성미가 그의 비위를 어지간히 상하게 했다.

워낙 수환은 관리위원장으로서의 사업미립이 일정하게 튼 다음부터는 지난 기간 저 혼자 걸어안고 씨름하던 시시콜콜한 내부사업을 계획부원에게 밀어맡기고 현장을 분주히 나돌았다.

그는 회의나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는외에는 위원회에 거의 들리지 않고 나가있는 작업반에서 전화로 하루사업을 계획부원의 보고를 받는 식으로 일해왔었다. 그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허랑한 방법에 인이 박히면서 차차 자지레한 수자타산이나 머리를 쥐여짜야 하는것과 같은 성가신 일감에는 손을 대고싶지 않아 고분고분한 계획부원 렴지춘이한테 도맡겨버렸다.

그러나 인혁이 온 다음부터는 매일같이 저녁쯤이면 부득불 관리위원회에 들리지 않을수 없었다. 하루 사업정형, 다음날 작업공정맞물림을 매일 토론할것을 요구하기때문이였다. 그러지 않아도 무슨 일이나 지나칠 정도로 직심스레 파고드는 그앞에서 의례 환히 꿰뚫고있어야 할 단순한 영농기술적문제에 대하여 얼빤한 말을 하다가 멋적은 꼴을 당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이런 생각에 묻혀 걷는 사이에 어느덧 3작업반 벼가을전투장에 다달았다.

벼가을을 부리나케 다그치고있던 농장원들은 자기네 옛 반장이였던 수환을 보자 저마끔 청하였다.

《관리위원장동지, 여기로 오십시오.》

《아닙니다. 내곁으로 오십시오.》

그들은 서로 싱갱이질을 하며 조르다싶이 수환을 저들곁에 끌려고 하였다.

침울하던 수환의 기분은 대뜸 밝아졌다. 그는 못이기는척 하고 농장원들 중간쯤에 공평하게 자리를 정하였다.

남들은 대여섯이랑을 탔으나 수환은 긴 다리를 콤파스모양 쩍 벌리고 여라문이랑을 타며 소말뚝같은 팔로 낫질을 해댔다.

옛 작업반원들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특히 녀성농장원들속에서 《관리위원장동지의 구성진 노래를 들은지 오래외다.》하고 누군가 첫꼭지를 떼자 그에 가락맞추어 《건드러지게 좀 한곡조 뽑으십시오.》, 《경제선동이라구 생각하고 벌을 한바탕 울려보십시오.》 하고 이구동성으로 독촉했다.

《이 사람들 일하면서도 노래야? 휴식시간에 하기요. 모두들 지정곡을 들고 나오시오.》

수환은 그들의 성화가 싫지 않은듯 허리를 펴고 반원들을 둘러보았다.

《그럼 휴식시간에 꼭 들려주어야 합니다. 다른 작업반으로 달아뺄 생각은 애초에 거두는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 봐라. 내 노래 한곡조 못 불러 달아빼? 그러지 말고 동무들이나 일하면서도 발성련습을 해두라구—》

정말 농장원들은 휴식참에 관리위원장의 노래를 받아내고야말았다.

《자— 관리위원장동지의 노래가 우리 기세에 날개를 달아줄겁니다.》

《거 누군지 말 잘했다. 그럼 한곡조 부르슈.》

나이지숙한 농장원까지 반주를 쳐주어 수환은 별수없이 한곡조 불렀다.

뻐꾹새가 노래하는 곳
사랑하는 내 고향일세
로동으로 행복을 열고
로동으로 꽃이 피는곳
…

마치도 마이크에 대고 부르듯이 성량이 풍만한 노래소리는 온 벌에 울려퍼졌다.

다른 작업반 농장원들도 낫질을 멈추고 멀리서들 히죽거리며 바라보았다. 저쪽에서 누군가가 《잘 넘어간다!》 하고 반죽을 쳤다.

목청도 시원시원하거니와 노래가락이 또한 건드러져 작업반원들은 흥에 겨워 다시금 일에 달라붙었다.

본시 수환은 노래도 명창이지만 기분이 좋아지면 그 장대한 몸으로 유연하게 춤도 아주 잘 추었다.
여하튼 그 어떤 장소이든 그가 섞이면 즐거운 웃음소리 그칠새 없었다. 남들이 흔히 주고받는 별치 않은 이야기거리도 일단 수환의 입에 오르면 어떻게 윤색되는지 사람들이 배를 그러쥐고 웃지 않을수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수환은 활량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 팔방미인이라는 소리도 들었다.
수환은 3작업반에 잠시 들렸다가 인차 1작업반으로 넘어갈 작정이였으나 그만 발목을 잡히여 오전 한나절은 놓여나지 못하고 오후에야 떠났다.
당장 찬비라도 뿌릴듯이 하늘은 더 우중충해지고 누기진 바람도 한결 심술스러워졌다.
느적느적한 걸음으로 1작업반 탈곡장가까이에 다달은 수환은 그만 아연실색하였다. 가뜩이나 요새 날씨가 매일같이 을씨년스러운데 눅눅해진 벼단들을 그대로 날라들여 쌓고있는 판이였다.
1작업반 로력에다 청년작업반에서 절반 떼여보낸 지원로력까지 합치여 공사구역주변의 벼를 베는 차제로 벌써 흠썩 끌어들이지 않았는가!
성이 독같이 오른 수환의 웅근 목소리가 별안간 뢰성처럼 터졌다.
《정신들 있어? 누기찬 벼단들을 탈곡장안에 무작정 끌어들이면 어떡하자는거야, 엉? 정신들이 쏙 빠졌군, 당장 중지하라구!》
정장선이 급히 수환에게 다가왔다.
《관리위원장동지, 공사준비를 빨리 다그쳐야겠구 또 비두 당장 올것 같구 해서…》
《아무리 바쁘다구 바늘허리에 실매여 쓰겠어? 그래 동무가 조직사업을 이렇게 미욱하게 했어?》
《예.》
장선의 목소리는 매우 도담하고도 태연하였다.
그에 화가 더 동한 수환은 키가 훤칠한 장선을 독이 오른 눈으로 흘겨보다가 《작업반장이라는게 그만한 물계도 몰라. 내 아침에 기상관측소에 알아봤소. 오늘래일 당장은 비가 오지 않소. 도루 내다 쌓으라구!》하고 호통을 쳤다.
농장원들속에 섞이여 지게로 벼단을 나르던 인혁은 듣다못해 《관리위원장동무, 작업반장을 괜히 욱박지르지 마오. 내 미처 기상상태

를 알아보지 못하다나니 그렇게 하라구 시킨거요.》 하고 지게를 벗어놓으며 성큼성큼 걸어왔다.
농장원들은 어찌할바를 몰라 엉거주춤해있었다.
인혁은 곧 반장에게 몸을 돌리며 《작업반장동무, 우리가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댔는데 관리위원장동무 말대로 왁 달라붙어 벼단들을 도루 끌어내다 탈곡장주변에 동으로 가려쌓게 하기요.》 하고 차분한 어조로 말하였다.
《알았습니다.》
장선은 군대식으로 대답하고 삑 돌아서서 씨엉씨엉 걸어가며 농장원들더러 빨리 서둘라고 독촉했다.
농장원들은 수환이와 인혁의 눈치를 슬금슬금 번갈아살피다가 벼단운반에 왁 달라붙었다.
농장원들속에 인혁이가 끼여있으리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수환은 안됐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딩딩한 표정은 바꾸지 않았다. 그는 농장원들이 모두 작업에 붙기를 잠간 기다렸다가 인혁의 곁에 스적스적 다가와 슬그머니 그의 옆구리를 건드리였다. 그리고는 탈곡장을 등지고 뒤로 돌아서 한걸음 먼저 내짚었다. 그것은 자리를 좀 피하자는 뜻이였다.
수환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자네 조직한걸 모르고 작업반장한테 너무 큰소리를 쳐서 안됐네. 마치 빗대구 한것처럼 됐구만.》 하고 인혁의 옹색한 립장을 생각해주는것처럼 석쉼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안될게 있나. 잘못을 제때 바로잡길 잘했지. 비가 당장 오는것도 아닌데 채 마르지 않은 벼단들을 탈곡장안에 껴들이는건 좋지 않지. 관리위원장이 날씨조건까지 알아보며 일을 처리하는건 옳은 처사요.》
인혁은 아무 내색없이 자기 생각을 그대로 말했다. 그는 다소 열적은 표정으로 덤덤히 서있었다. 수환의 요구가 백번 옳고 적절하게 바로잡아준것도 좋은 일이였다. 하지만 1작업반장이 애매한 봉변을 당하게 한 일은 어쩐지 마음에 걸리였다.
하지만 인혁은 수환의 행동을 다 긍정하는것은 아니였다.
일군들이 일하느라면 간혹 본의아닌 착오를 일으킬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시정시키고 따끔한 충고쯤 주어도 될 일인데 와락 화를 내며 모욕적인 말로 무참하게 욱박지르는 행동은 책임일군으로서 지내

무리하다고 생각되였다.

수환은 덤덤히 걷고있는 인혁의 표정을 힐끗 살피며 어딘가 자만심이 풍기는 경험자연한 투로 말하였다.

《공사가 바쁘다구 해서 자네까지 앞장에 나서서 이렇게 너무 다몰아대다간 자네두, 사람들두 쓰러지기 쉽네. 농사일이야 띠염띠염 걸어도 황소걸음이 낫지, 또 안전하구. 지금처럼 지내 성급하게 서두르다간 오히려 일을 그르칠수 있네.》

인혁은 그 말에 정신이 바싹 가다듬어졌다.

(뭐, 황소걸음이 낫고 안전하다…)

인혁에게는 어쩐지 그 말이 공사에 대한 자기와 상반되는 립장을 듣기 좋게 변형시켜 구슬리는 말로 들리였다.

그의 립장은 결국 지금까지 황소걸음을 하던 기존테두리안에서 평탄한 길로 말썽없이 무난히 걷기를 바라는것이 아닌가.

인혁은 탈곡장에 되돌아가 자기 지게를 찾았다.

그가 지게를 막 지려는 참이였다.

《순이 아버지!》 하고 뒤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불렀다. 그 부름소리가 어찌나 친근미있고 부드러웠던지 인혁은 얼른 몸을 뒤로 돌렸다. 뜻밖에도 그는 별옥이였다.

《음, 별옥이구나.》

자기를 쳐다보는 그의 타원형의 얼굴표정은 상긋이 웃고있으나 그류다른 새별눈에는 약간의 물기가 반짝이고있었다. 그는 방금 벼단을 나르며 멀리서 지켜보다가 달려온듯 숨소리가 가빴다.

《순이 아버지, 념려마세요. 우리들이 지금 왁 달라붙어 막 끌어내고있어요.》

별옥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될것 같은 이 말을 남기고 홱 돌아서서 눈굽을 손등으로 찍으며 탈곡장끝으로 반달음을 쳐갔다.

순간 인혁은 가슴이 얼얼해났다.

조수환의 딸 별옥은 여적 집안에서 자기더러 순이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밖에서는 깍듯이 《리당비서동지》로만 불러왔었다. 그러던 그가 오늘은 별스럽게 남들앞에서 《순이 아버지》로 부른다.

(내가 방금전에 자기 아버지한테서 무안을 당하는게 보기 딱하고 민망스러워 하는 위로의 뜻에서일가, 아니면 아버지를 대신하여 량해를 바라는 애틋한 마음에서일가?)

인혁은 속으로 생각을 굴리였다.
아무튼 그 맑은 눈구석에 얼핏 스치던 물기는 마치도 그의 안타까운 마음의 온기처럼 느껴져 인혁의 가슴을 찡 울리였다.
흔히 사람들은 별옥이라면 입이 무겁고 웃는것도 생각해보고서야 웃는 새침데기로 알고있었다. 그러나 인혁은 호들갑스러운 티 전혀 없고 침착하여 스물두살나이보다 더 숙성해보일뿐아니라 말보다 늘 실천이 앞서는 별옥에게서 말없는 고무를 받고있었다.
별옥의 깊은 속내를 딱히 모르는 사람들은 그가 집가까이에 있는 2작업반에 적을 두지 않고 일부러 10리나 되는 1작업반에 다니는것은 단지 어머니와 한작업반에서 같이 일하기 거북하기때문이라고 제딴의 추측들을 했다. 또 어떤 축들은 그가 군대에 나간 남동생을 친동생같이 각별히 사랑해준 1작업반장의 밑에서 일하고싶기때문일거라고들 적당히 짐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였다.
인혁은 그가 마판진수렁터와 린접한 1작업반에서도 굳이 1분조에 적을 두게 된 속깊은 사연을 전부터 잘 알고있었다. 그것은 그 1분조포전이 바로 전시 별옥의 할머니가 꽃나이에 미제공중비적들의 기총탄에 맞아 피로 물들여진 포전이였던것이다.
그한테는 인혁에게도 없는 한장의 사진이 있었다. 그 사진은 꼭같이 흰저고리와 깜장치마에 흰 머리수건을 쓰고 잔등에는 온통 풀위장을 한 당시 《세 자매 보잡이명수》로 소문이 자자했던 애젊은 김봉선, 리금전, 박춘선 등이 어깨나란히 찍은 사진이였다.
배경에는 적기의 폭탄파편에 줄기의 중둥이 뭉청 잘린 느티나무가지에 걸린 포탄깍지종과 좀 뒤에 가대기를 멘 소들이 우두머니 서있었다.
금주리에 와서 별옥의 이러한 기특한 속마음을 알게 된 인혁은 무척 감동되였었다.
마치도 전전세대의 혈맥이 그 사진 한장을 통하여 후세에 고스란히 이어져 그의 심장에서 생생하게 맥박치고있는듯싶었다.
또 실지 별옥은 그 훌륭한 세대의 후손답게 농장일을 착실히 하고 있었다.
어찌보면 별옥은 한때 도적인 모범선동원이였던 처녀시절의 진혜정과 너무나도 방불한데가 있었다.

8

수리반원들은 공사장에서 한눈에 바라보이는 두둑한 위치에 전주대만 한 4개의 기둥을 세우느라고 이른아침부터 역사질을 하였다.

모두들 달라붙어 복작거리며 바람벽크기와 맞먹는 대형전경도를 게시하자 역사질을 하던 사람들과 벼가을하러 가던 농장원들은 일시에 《히야!》 하고 탄성을 터뜨렸다.

전경도에는 마판진수렁자리에 무연한 논벌이 바둑판처럼 그려지고 그 한가운데로는 길이 시원히 뻗어있었다. 때마침 해돋이여서 해빛반사에 전경도의 파란 논판에서 초록빛벼포기들이 금시 남실남실 춤을 추듯 그려져있었다.

인혁은 흡족하여 입이 벌어졌다. 공사소문을 듣고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정작 전경도를 보더니 흥분을 걷잡지 못하였다.

인혁은 이렇듯 감화력이 큰 전경도를 하나 더 만들어 관리위원회앞에도 게시할 계획이였다. 그는 문득 정장선이가 한정길은 전문화가 찜쪄먹게 그림솜씨도 여간 아니라던 말이 상기되였다.

(역시 재사야!)

인혁이 전경도앞에서 발길을 떼지 못하고있을 때 누군가 순이가 찾아와 기다린다고 귀띔해주었다.

인혁은 급히 얼굴을 돌렸다. 가설창고모퉁이에 순이가 초조히 서있었다. 바삐 달음쳐온듯 손수건으로 얼굴의 땀을 연방 찍어내고있었다.

인혁은 심상치 않은 예감이 들어 《웬일이냐, 갑자기…》 하고 빠른걸음으로 다가가며 물었다.

순이는 숨을 할싹거리며 말했다.

《아버지, 선초가 오늘 아침 군병원에 실려갔어요.》

《선초가? 어떻게 돼서?》

인혁은 와뜰 놀라며 다우쳐물었다. 선초가 한정길의 딸이라는것을 인혁이도 안다.

《갑자기 배를 안고 딩구는게 아니겠어요. 마침 청년작업반에 나가

있던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기사장동지가 차에 태우고 곧장 군병원으로 갔지요 뭐. 그래 방금 전화로 알아보니 급성충수염이여서 벌써 수술했대요. 지금 엄마두 왕진 가서 없구 그래서…》
인혁은 불현듯 순이와 쌍둥이처럼 붙어다니던 목이 상큼하고 수심기어린듯 한 선초의 아련한 모습이 눈에 밟혀왔다.
마침 제때에 손을 썼으니 다행이다. 그 소식을 남먼저 알려준 순이가 기특했다.
인혁은 손수건을 꺼내 순이의 도두룩한 이마에 송글송글 맺히는 땀을 닦아주었다.
《아이참, 아버지두…》
순이는 사람들 보는데서 쑥스러운듯 아버지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며 눈을 곱게 흘기였다.
인혁은 오래간만에 순이를 만난김에 언제인가 늦도록 기다리다가 돌아간 까닭을 알고싶어 가설창고옆에 가지런히 앉았다.
벼가을을 방금 끝낸 논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여올랐다. 농장원들은 우정 가던 길을 에돌아 전경도구경을 하며 왁작거렸다.
인혁은 발가우리해진 순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다.
《순이야, 네가 아버지한테만 꼭 하고싶은 말이 뭐였지?》
《아버지, 내가 아무 청이나 해두 욕하지 않지요?》
《무슨 청인지 들어봐야 욕하든 칭찬하든 할게 아니냐.》
그러자 순이는 아이때처럼 아버지의 무릎을 잡아흔들며 응석기어린 투로 말했다.
《으응, 청을 들어주신다는 담보없인 말 안할테야.》
《허허, 할수 없군. 담보할수밖에. 그래, 뭔데?》
《그건 선초문제야요.》
《뭐, 선초?》
《네. 지금쯤 미리 말해놓아야 한다기에… 아버지, 선초를 다음해엔 꼭 농업대학에 보내주세요, 네?》
《?!…》
인혁은 순이의 난데없는 청에 그만 어리뻥해졌다.
《선촌 정말 똑똑한 애예요. 중학교 전기간 최우등생이고요. 또 얼마나 일 잘하고 마음고운지 몰라요. 아버지, 그렇게 해주시지요. 네?…》
그제야 인혁은 순이가 어머니에게조차 이야기하지 않은것이 무엇인

지 알게 되였다.

《원래 선촌 대학추천을 받았지만 엄마가 1년나마 병원에 입원하고있었으니 어떡해요. 아버진 그때 무보수로동을 하고 동자질할 사람도 없지. 그래 할수없이 제가 농장에 진출할 때 따라나선거예요.》

인혁은 한정길의 안해가 오래동안 입원생활을 한다는 말이 새삼스럽게 들리였다. 그는 순이의 갸륵한 생각에 가슴이 찌르르했다. 자기는 대학에 갈 생각을 안하면서도 동무 생각부터 먼저 하는게 얼마나 기특한 일인가.

인혁이 막내동이 순이를 각별히 대견하게 여기게 된것은 그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즉시 남먼저 청년작업반에 자원진출한 때부터였다.

워낙 인혁은 순이를 어자어자하며 키웠다. 인혁은 순이에게만은 큰소리 한번 치지 않고 그의 요구라면 그 어떤것이든 무엇이나 들어주었다.

지금 최전연에서 복무하는 쌍둥이형제가 중학교 다닐 때 순이는 두 오빠의 일거일동을 꼼꼼하게 살펴두었다가 아버지한테 매일같이 지지콜콜이 일러바치군 했다. 그래서 가끔 책망을 듣군 하던 두 형제는 고자쟁이동생에게 은근히 도끼눈길을 보내며 한번 혼내워주려고 벼르면서도 종내 입대하는 날까지 귀염둥이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처제인 현실이 한집안에서 살 때 인혁은 그를 군중으로 삼고 아리숭한 문제들을 던져보고 그의 조언을 허심히 받아들이군 했다면 현실이 따로 난 후부터는 순이를 그 위치에 세웠다. 현실이와 순이는 너무나도 서로 비슷한데가 있었다. 차이점을 애써 찾는다면 현실은 사려깊고 당돌한 반면에 순이는 직판내기라는것이였다.

또 순이는 아버지의 기억창고이기도 했다.

혹 지난 일들, 사람들의 이름이 잘 기억되지 않아 물으면 순이는 시간, 장소, 특징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기억해내군 하였다.

그런데 순이로 하여 한번은 조용하던 집안에 소동이 일고 내외간에 전쟁이 일번 하였다.

그날은 농장휴식날이여서 인혁이도 오후에는 집에 있었다. 그가 웃방에서 독서에 열중하고있는데 마당에서 타박타박 순이의 잰 걸음소리가 들리더니 아래방 문이 벌컥 열리였다.

안해는 순이를 무척 기다린듯 정지문을 열고 부엌칸에서 올라왔다.

《엄마, 난 오늘 선생님들과 전교학생들의 열렬한 축하를 받았다.》

그 말에 인혁이도 인차 사이문을 열고 아래방에 내려왔다.

안해는 동자질하던 젖은 손을 앞치마에 씻으며 기대어린 눈길로 기쁨을 참지 못하는 순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뭘 잘했기에… 최우등 한게구나!》

《호호, 엄마두. 최우등이야 정해논게 아니나요. 그보다도 내가 우리 농장에 자원진출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꽃목걸이도 걸어주고 막 박수도 받고…》

순간 현희의 낯색이 확 달라졌다.

《뭐? 자원진출? 대학시험은 그만두구?》

《네. 엄마, 난 오늘 얼마나 기쁜지 몰라, 라라라…》

순이는 전교의 축하를 받던 기분이 사라지지 않은듯 방안을 춤추듯 한바퀴 돌며 코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만해!》

현희는 저도 모르게 큰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인혁이까지 흠칫 놀랬다.

순이는 웃음을 싹 거두고 눈이 휘둥그래서 어머니의 이그러진 얼굴을 놀랍게 쳐다보았다.

《기가 막혀서. 내 너를 의학대학에 추천받게 하려구 얼마나 품들였는지 알기나 해. 어미 말은 귀등으로 듣더니 끝내…》

현희는 울화를 새기지 못하여 숨소리까지 가빠졌다.

어리둥절했던 인혁은 그제야 깨도가 되여 입을 열었다.

《여보, 뭘 그다지나 그러우. 전교적인 축하받은 애보구 당신만은 왜 그러우.》

어느결에 아버지곁에 다가와앉은 순이는 울가망이 되여 《난 어머니도 기뻐하구 축하해줄줄 알았는데…》 하고 말끝을 맺지 못했다.

《넌 입 다물어. 어미 생각은 눈곱만치도 하지 않는것.》

현희의 얼굴은 험악하게 이그러져있었다.

《여보, 애가 반드시 의대에 가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소. 대학공부야 일하면서 하면 되는거구. 이 애의 결심이 얼마나 자랑스럽소.》

인혁은 안해의 마음을 눅쳐주려고 말하였다.

《그만해요. 당신은 자기생각밖에 몰라요. 이 애만은 의학공부 시켜 의사가 되게 하자는게 뭐 나빠요?》

현희는 자기의 꿈이 깨여진것을 몹시 분해하였다. 순이는 그런 어머니한테 바투 다가앉아 목에 감기며 《엄마, 난 앞으로 일하면서 대

학공부를 할래요. 그래 엄말 기쁘게 해드릴게…》하고 애원했다.
그러나 현희는 《시끄럽게 굴지 말아.》 하고 딸을 팔굽으로 콱 밀쳤다. 그 서슬에 순이는 하마트면 뒤로 벌렁 나자빠질번 했다.
순이는 그만 눈물이 그렁하여 구원을 바라듯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순간 인혁은 분기가 욱 치밀었으나 꾹 참고 나직한 어조로 순이에게 물었다.
《순이야, 네가 어떻게 의대추천두 마다하구 그런 결심을 하게 됐느냐?》
《아버지, 그게 뭐 큰 결심이나요. 아버진 말끝마다 미래를 꽃피우는건 너희들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고향을 아름답게 꾸리는데 한몫 하고 대학공부도 하면 좋지 않아요. 리당비서의 딸이니 더욱 그렇지 않겠나요.》
지금껏 한날 철부지로 여겨왔던 순이의 내심깊은 말이 마디마디 인혁의 심금을 울렸었다.
안해도 그 말에는 반응없이 잠자코있었었다. …
그러한 순이가 오늘 선초의 장래까지 부탁하다니!
순이는 선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아버진 선초의 고충을 다 모르실거예요. 아버지 일로 해서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몰라요. 자기는 언제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아버지의 딸이 돼보겠느냐고까지 했어요. 그런데다 엄마마저 입원생활을 하니 선초마음이 어떻겠어요.》
인혁은 순이를 돌려보낸 후 착잡한 심경에 사로잡혀있었다. 선초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아버지의 딸이 되여보고싶어한다는 말이 무거운 추처럼 마음에 매달렸다.
순이 아니라면 오늘 선초가 군병원에 실려가 수술받은 사실도 모를번 했다. 왜 생명과 관련한 문제가 즉시에 보고되지 않는가. 어느 작업반의 종합탈곡기가 고장났다거나 가을걷이계획을 몇프로 미달했다는것과 같은것은 그시로 보고되지만 어느 농장원의 일신상 문제같은것은 애초에 관심밖에 있는것 같다.
한 농장원이 수술받는것과 같은 중한 문제가 차요시 되다니… 인혁은 곧 전화로 리병원을 찾았다.
마침 현희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 선초가 군병원에서 충수염수술 받은걸 알고있소?》

《네, 방금전에 련락을 받았어요.》
현희의 직업적인 태연한 어조에 그만 화가 동했다.
《당신은 도대체 뭘하는 사람이요? 군병원 련락을 받고서야 알게 되다니. 제 담당구역에 수술환자가 난것두 모르는게 무슨 의사요, 의사!》
오늘 속이 언짢아 안해에게 울컥 화를 냈다.
《아니, 화는 왜 내세요?》
마른벼락같은 소리에 현희도 가만있지 않았다.
《왕진 나간새에 벌어진 일을 내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리병원엔 알리지도 않고 경영위원회 기사장동지가 차에 태워가질 않았나요.》
인혁은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다. 사실 리병원 잘못은 없지 않은가. 대답이 궁해진 그는 검진을 착실히 하라는 추궁을 한다음 송수화기를 덜컥 놓았다. 그리고는 제풀에 당치않게 화를 낸것이 싱거워 허허 하고 혼자 웃었다.
한편 현희는 남편의 터무니없는 역증에 어처구니가 없었다.
(요즘 순이 아버지가 왜 걸핏하면 저럴가?)
좀전 의무실에 들어와 의사로부터 선초가 수술을 순조롭게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벼락같은 남편의 전화를 받은것이였다. 그런 사정은 아랑곳않고 화를 내는 남편이 야속하였다.
얼마전에도 병원난방문제때문에 례사롭게 한마디 꺼냈다가 오늘처럼 면박당한 일이 있었다.
《그만큼 관리위원회에서랑 품을 들여 병원을 꾸려주었으면 이젠 제 발루 걷도록 하오. 자기 단위는 자기 힘으로 꾸리느라고 불이 붙은걸 보지 못하오? 원장은 뭘하구 당신은 어떻게 되여 그런 문제를 들고다니오?…》
현희는 남편의 처사에 마음이 내려가지 않아 한동안 궁싯거렸지만 이내 생각을 다잡았다.
(농장일때문이구나. 오죽 속상했으면 그랬을가?)
온 농장의 크고작은 일을 걷어안고 시름많은 남편에게 공순하게 대하지 못한것이 마음에 걸리기까지 하였다.
이때 또 전화종이 다급히 울렸다.
현희는 얼른 송수화기를 들었다.
《순이 어머니요? 나요.》

현희는 그 걸걸한 목소리를 듣고도 관리위원장임을 제꺽 알았다. 또 자기를 순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남자는 유독 그뿐이였다.

《안녕하세요? 일전에 도에 출장가셨다더니…》 하고 현희는 반색하며 말하였다.

《순이 어머니, 내 이번 출장길에 현실의 멋있는 신랑감을 하나 골랐소.》

그 말에 현희는 그만 귀가 번쩍 틔여서 다우쳐물었다.

《우리 현실의 신랑감을요?》

《멋있는 신랑감이요. 도인민위원회 박국장의 썩 손아래동생인데… 전화로는 다 말 못하겠는데 한번 만나 이야기해주겠소. 이 조수환이 아니면 누가 그런 기막힌 대상을 고르겠소. 그러니 현실의 문제는 나한테 전적으로 맏기우.》

현희의 기분은 한순간 홱 달라졌다.

(우리 현실의 신랑감을 고르다니?!)

그는 가슴이 마구 활랑거렸다. 그 일때문에 여직껏 속을 태웠는데 뜻밖에 쉽게 풀리게 된것이 마치도 꿈만같이 생각되였다.

현희는 동생의 배우자문제로 하여 무던히도 윈심을 써왔었다.

9

《이 덜된 녀석들, 금시 일을 시작했는데 여기선 아직 신선놀음이야?》

옥천강발전소입구에 들어서던 군당책임비서 류순기는 으슥진 곳에서 울리는 뢰성같은 고함소리에 깜짝 놀라 흠칠하고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소리난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순간 그는 더더욱 놀랐다. 그 고함소리의 임자는 다름아닌 군인민위원회 위원장을 하던 강욱이였던것이다. 나이가 많아 일손을 놓았지만 지금도 군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하고있어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위원장동지》라고 불렀다.

체구가 우람찬 강욱은 저바로 구석진 버들방천에 퍼더앉아 무슨 이야기판을 벌리고있는 몇명의 젊은 사람들을 닦아세우는중이였다.

한 청년의 우스개소리에 정신이 팔려 다른 젊은이들은 강욱의 고함소리에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강욱을 등지고 잘망스럽게 앉은 작달막한 청년이 눈도 돌리지 않고 《좀 있으면 돼요. 듣던 얘기야 마저 들어야지요.》하고 셈평좋게 말을 하였다.

순간 강욱은 《냉큼 일어서지들 못할가?》하고 발을 구르며 그들가까이로 다가갔다.

그제야 청년들은 덴겁하여 화닥닥 뛰쳐일어나 꽁지빳빳하게 산지사방으로 도망쳤다.

강욱은 《허허허.》하고 혼자 너그러이 웃었다.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류순기는 웃음이 나오는것을 참으며 강욱이 가까이로 다가갔다.

몸을 굽히고 흩어지는 청년들을 바라보고있던 강욱은 류순기를 알아보고 어줍은 미소를 지었다.

(이 나살이나 건사한게 주책머리없이 책임비서가 보고있은줄도 모르고 큰소리를 쳤군.)

《책임비서동무두 다 보았겠수다?》

그는 가까이 다가오는 류순기에게 게면쩍어하며 말하였다.

《그런걸 못 보면 되나요.》 하고 류순기는 소리내여 웃었다. 《역시 아바이가 그녀석들의 버릇을 보기 좋게 떼주는군요.》

강욱은 얼굴이 불깃해지며 《허허…》 하고 허거프게 웃었다.

강욱은 매일같이 발전소건설장에 나오는 류순기와 함께 마무리작업을 하는 아찔하게 높아진 언제를 흡족하게 바라보며 언덕길을 씨엉씨엉 올랐다. 끌끌한 장정들처럼 늘 목고채도 메고 망짝만 한 돌도 배허벅에 붙이고 힘들지 않게 나르는 강욱은 걸음새도 시원스러웠다.

건설자들은 강욱이와 류순기가 나타나자 모두 일어서서 저마끔 굽석굽석 인사를 하였다.

먼저 강욱을 알아본 체격이 듬직하고 진중해보이는 청년이 다가와 공손히 인사를 하면서 《위원장동지, 저희들 오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만 이야기판을 벌리다가…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채심하겠습니다.》 하고 시원시원 사죄했다.

강욱은 느슨한 미소를 지으며 그 청년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였다. 옆에 서있던 류순기가 그 모습을 바라보다 한마디 하였다.

《동무네 휴식을 충분히 하지 말라는건 아니요. 쉴참에는 쉬더라도 일할 때에야 제꺽 일어나야지. 로동과 휴식은 한계가 명백해야 한단 말이요. 그렇지 않소?》

그는 돌격대원들을 휘— 둘러보았다.

《옳습니다.》 하고 돌격대원들은 힘있게 대답했다.

강욱이는 허허 웃으며 류순기와 함께 돌격대원들의 름름한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았다.

강욱은 마디굵고 험해진 손으로 목에 걸친 수건을 벗겨 이마에 즐펀한 땀을 대충 닦았다. 그의 작업모밑언저리의 머리칼은 희끗희끗했으나 작업복소매에 가리운 굵은 팔뚝이며 바위등같은 억센 어깨와 정기넘치는 눈은 그를 한결 원기왕성해보이게 했다.

류순기는 강욱에게 담배를 권하며 입을 열었다.

《위원장동지는 늘 봐야 청년들과 똑같이 힘내기를 하신다는데 뒤에서 일처리나 보아주십시오. 나이는 속이지 못합니다.》

《글쎄 우리 로친두 늙은게 지내 극성을 부린다고 귀아프게 잔소리지요. 하지만 내 몸상태야 내가 잘 아니 걱정말아주시우.》

류순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심중하게 말을 꺼내였다.

《위원장동지가 이 발전소건설은 다 끝난거나 같은데 마판진수렁공사장에 자리를 옮겨야겠다고 했다는게 사실입니까?》

《예, 진수렁공사에 좀 비쳐볼가 해서 그랬지요.》

《그 공산 여간 난공사가 아닌데다 외지에 나가서 생활해야 하는데 어떻게 젊은이들을 따라다니겠습니까. 군에서 공사를 도와줄 대책도 토론하고있으니 위원장동지는 너무 무리하게 일하지 마십시오.》

류순기는 이번만은 그의 의견에 동의할수 없었다. 여직껏 강욱은 늘 땀에 잔등이 흥건히 젖은 작업복을 별반 갈아입을 겨를도 없이 이 공사장에서 저 공사장으로 자원하여 련속 자리를 옮겨왔었다. 그때마다 류순기는 귀중한 혁명선배를 지내 혹사시키는것만 같아 그것이 늘 마음에 걸리였었다.

《그곳 돌격대력량도 그쯘하고 군의 력량도 돌리겠으니 위원장동지는 준공기일도 얼마 안 남은 여기에 그냥 남아서 뒤일을 보아주도록 하십시오.》

잠시 응답이 없이 담배를 피우던 강욱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책임비서동무, 나두 이젠 나이도 어지간히 들고보니 두루 생각되

는게 많습니다. 사실 나는 마판진수렁땅을 정리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요. 내 경영위원장을 할적에도 조상대대로 버려둔 몹쓸 수렁판이라구 당초 거들떠보지 않았구 한때 조수환동무가 량패를 보구 물러앉을 때에두 속수무책으로 내쳐두었지요. 헌데 이번에 그 엄청난 공사를 기어이 제힘으로 해낼 용단을 내린걸 보면 리당비서가 진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일하려는 참일군이 적실하다는 생각이 가슴을 치더군요.

책임비서동무, 지난날 내 사업의 빈구석도 보상하는겸 그 지대형편에 좀 밝은 내가 적은 힘이나마 보태고싶어 내린 결심입니다.》

류순기는 그가 이렇듯 심중한 생각을 품고있는줄 몰랐던지라 강욱의 말을 무겁게 새겨들었다.

강욱은 채 타지 않은 담배를 블로크장에 비벼끄며 계속 말하였다.

《우리 수령님의 평생로고를 생각하면 내 젊은 나이를 헛산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 아직 뼈마디가 성성하니 무엇으로든지 보탬하려는 이 늙은이의 심정을 리해해주시우.》

류순기는 그의 절절한 말에 감동되여 눈시울이 불깃해졌다.

해방후 토지개혁때에는 리민청위원장, 전시에는 남진의 선두에서 락동강을 건넜던 분대장, 리인민위원장, 전후에는 군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이어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군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력임해온 그는 황평군의 로혁명가이며 모든 눈부신 변혁의 증견자이기도 했다. 군이 걸어온 먼길은 그의 한생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었다.

골짜기의 강굽이에 짙은 그늘을 지은 해가 어느덧 먼 산너머로 뉘엿뉘엿 저물어가고있었다.

10

인혁은 작업반별 벼가을실적총화모임에 참가하였다가 밤이 이슥하여 리당에 들리였다.

부비서가 누구인가의 전화를 받고있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비서동진 노상 벌에 나가 살고있습

니다. …》
부비서는 전화를 마치더니 인혁이 방에 들어선것을 알고 내용을 알려주었다.
《군당책임비서동지 전홥니다. 공사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큰것 같습니다. 급선무는 군중의 힘을 최대로 발동하기 위한 묘술을 찾아내는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우리 공사를 도와주겠는데 강욱동지가 먼저 공사장에 나오겠다고 자진하여 나섰답니다.》
인혁은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강욱위원장동지가? 그 년세에 종시…》
《…》
《군의 한 기둥이나 같은분이 도우러 나온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요.》
인혁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강욱동지는 지난 시기 우리 어머니나 관리위원장동무 어머니 그리고 박춘선어머니랑 함께 전시식량생산전투에 참가한 귀중한분이요. 이를테면 불비속에서 록새벌을 가꾼 소중한 추억을 간직한분이라고 할가. … 앞으로 생활상 불편이 없게 잘 돌봐드립시다.》
《응당 그래야지요.》
《참 부비서동무, 한선초의 수술뒤의 경과가 어떤지 좀 알아보았소?》
《네, 리병원에서 그러는데 경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젠 바깥출입도 하는 정도랍니다.》
인혁은 자기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하지만 한정길동무의 집안일은 어쩐지 꼬이는것만 같소. 한정길동무가 웬만한 사람같으면 일이 손에 잡히겠소. 진짜 용커던.》
요즘 인혁은 한정길을 처음 만나던 때의 일과 선초에 대한 순이의 말이 번갈아 머리속에 갈마들어 마음이 무척 괴로왔었다.
말하자면 한정길이 당한 화는 나중에 그의 안해에게까지 미치였다. 그의 안해는 전교적으로 그중 실력이 높은 교원이였다. 그런데 남편이 농약사고를 저지른 후 너무도 상심한 나머지 교재원을 꾸리다가 우연한 실수로 상한 허리증때문에 오래동안 병원생활을 하고있었다. 모두들 그를 병원침대에 그냥 눕혀두기는 아까운 교육자라고 하였다.
바로 지금의 형편에서 그의 안해와 딸의 일을 돕는것이 곧 한정길

을 진짜로 돕는 길이였다.

《부비서동무, 아무래도 내가 선초의 면회를 가봐야 할것 같소. 매번 한정길동무한테 요긴한 일감들만 밀말기면서두 그의 가정형편에 너무나 관심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인혁은 다음날 청년작업반 반장을 데리고 이른새벽에 면회를 떠났다.

인혁은 군병원에 지내 이르게 온것 같아 마당에서 한참동안 지체하다가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지자 곧바로 입원실로 향했다.

선초는 침대우에 베개를 두세개 고이고 엇비스듬히 앉아있었다. 그는 뜻밖에 꾸레미를 든 자기네 작업반장과 함께 리당비서가 호실에 불쑥 들어서는것을 보고 그만 깜짝 놀라하였다.

《어마나, 리당비서동지가!…》

말끝을 맺지 못하고 일어서려는 선초를 인혁은 어느새에 가볍게 눌러앉히였다.

《선초야, 그래 좀 어떻냐. 수술자리가 아프지 않니? 미처 관심을 못하다나니 네가 군병원에 와 수술받은것두 늦게야 알았댔구나.》

《이젠 다 나았습니다.》

선초는 너무도 송구하여 몸둘바를 몰라했다.

얼마후 딸의 호실에 리당비서가 왔다는것을 알고 한쪽손으로 허리를 짚은 선초의 어머니 윤옥경이 들어섰다. 그는 딸보다 먼저 군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였다.

《리당비서동지!》 하고 옥경은 목이 메인듯 말을 더 잇지 못하였다.

《선초 어머니, 좀 어떻습니까? 그새 내 좀 등한해서 와보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더 바쁘실텐데 신새벽에 그 먼길을…》

옥경에게는 리당비서가 자기들의 병문안까지 하러 와준것이 여간만 고맙게 생각되지 않았다. 그의 두눈에는 눈물이 핑 고였다.

《선초 어머니한테도 들리려댔는데 마침입니다. 어서 여기 와 앉으십시오.》

청년작업반장이 인혁의 안해가 꼼꼼히 싸보낸 보꾸레미를 끌렀다.

금시 솥에서 쪄낸것처럼 김이 문문 피여오르는 흰 찹쌀떡이 소랭이안에 무득했다.

인혁은 각근하게 권하였다.
《수술후엔 찹쌀떡이 좋다길래… 식기 전에 들게 하려구 반장동무와 함께 자전거를 부지런히 몰아대느라 했는데… 자 선초야, 어서 들렴. 선생두 어서…》
작업반장이 저가락에 찍어주는 떡을 받아든 선초는 흑! 하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인혁은 정작 병원에 와보니 자책감이 더 컸다. 모녀가 이처럼 병원생활을 하고있으니 홀아비나 다름없는 한정길에게 말 못하는 고충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그런데도 그를 재간둥이라 하여 무거운 일감만 연거퍼 맡겨오다니… 일군으로서의 초보적인 도리도 지키지 못한 자신이 여간만 죄스럽지 않았다.
《옥경선생, 이제라도 우리가 선초 아버지를 잘 돕겠으니 집안걱정이랑 아예 말구 병치료에 전심해야 하겠습니다. 다들 선생의 병을 몹시 걱정하고있습니다.》
인혁은 옥경모녀에게 치료를 성의껏 받아 빨리 회복되라고 거듭 당부하며 병원문을 나섰다.
그러나 인혁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운 상태였다.
구봉산기슭에 자리잡은 병원뜨락에서 읍과 금주리의 갈림목이 한눈에 빤히 내려다보였다.
윤옥경은 이윽토록 읍거리를 차츰 벗어나는 인혁이와 약간 구부정한 청년작업반장의 뒤모습을 먼눈으로 바래우고있었다. 왜서인지 그들은 자전거를 끌고 지척지척 걷고있었다.
(왜 자전거에 오르지 않을가. 혹시 내 헤픈 눈물을 보인탓에 시름겨워서일가?…)
더구나 요즘은 곱절 몸을 뺄 겨를이 없을 리당비서에게 자기 한가정의 문제로 하여 덧시름을 끼치는것이 무척 미안하고 송구스러웠다.
언제인가 한번은 쉬는날도 아닌데 간호원이 《옥경선생님, 면회입니다.》 하고 알려주었다.
(면회? 농장 쉬는날도 아닌데 누가?…)
옥경은 면회자는 틀림없이 선초일거라고 짐작했었다. 그런데 전혀 뜻밖에도 중키에 몸매가 호리호리한 중년쯤 돼보이는 사람이 부드러운 웃음을 지으며 원장과 함께 입원실에 조용히 들어서는것이였다.
《윤옥경선생이지요. 군에 회의 왔던길에 들렸습니다. 그래 병은 좀

차도가 있습니까?》
옥경은 리당비서를 알아보고 황망히 일어나려다가 그만 동통이 심하여 이불등에 몸을 반쯤 기대여앉고말았다.
리당비서의 전혀 틀스럽지 않은 몸가짐과 다심한 어조, 온화한 표정에서 확 풍겨오는 따뜻한 인정미는 그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겼었다.
더구나 그가 가져온 향긋한 과일구럭을 보면서 옥경은 부지중 목이 메고 눈시울이 젖어들었다.
한데 오늘 또다시 이른새벽부터 왕복 40리길을 걷다니… 인혁의 사심없는 진정은 그들모녀를 종시 울리고야만것이였다.
옥경은 인혁이와 청년작업반장의 아스무레한 모습이 굽인돌이에 가리워질 때까지 하염없는 눈길로 바래였다.
오늘따라 별로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힐수가 없었다. 더우기 자기모녀가 입원을 하니 온 농장에 소문을 내고 부담거리가 된것 같아 막 죄스럽고 안타까왔다.
하루빨리 추서서 학교에 돌아가고싶었다. 별안간 학교가 몹시 그립고 학생들이 보고싶어졌다.
입원기간 번갈아 면회오던 선생들과 학생들, 더우기는 정순실과 진혜정이 오늘은 별스레 보고싶어졌다.
요즈음은 정순실의 발길이 뜸해졌다. 아마 가을걷이전투때문이리라. 이제 공사가 벌어지면 더 뜸해지겠지. … 진혜정도 역시 그와 다를바 없겠지. …
더우기 남편앞에 죄스러운 마음은 이루 말할수 없었다. 그리운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자 피를 끓게 하던 정순실의 말이 새삼스럽게 상기되였다.
《옥경선생, 리당비서동지는 참으로 세심한 일군이여서 선초 아버지의 초무연탄연구성과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 막 업구다니구싶다나. 아마 뜻이 같으면 마음도 통하구 리해두 깊은가봐. …》
정순실은 그의 생활과 뗄수 없는 존재였다. 그들의 가정을 이루게 한것도 바로 그였다.
농장일을 하면서도 초무연탄연구에 전심하는 그리도 끼끗한 한정길에 대한 자기의 호기심을 눈치채고 《옥경선생이 우리 기술원을 맘에

둔게 아니야?》라고 할 때 옥경은 《아이참, 누가 들으면 큰 변날 소리를…》 하고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다.

《호호, 변은 무슨 변, 사랑변밖에 더 날게 있어. 난 사람을 허투루 보지 않어.》 하고 한정길의 장점만 귀에 잔뜩 불어넣던 일이며 시치미를 떼고 떠보듯이 곧잘 짓군 하던 그의 능청스러운 눈길이며가 오늘은 유난스럽게 눈에 삼삼히 밟혀왔다.

오늘 왜 자꾸 생각이 많아질가. …

해종일 그립기만 하고 보고싶은것뿐이였다.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급히 자리를 툭 털고 일어나고싶은 조바심을 어쩌지 못했다.

11

인혁은 새벽닭이 첫 홰를 치는 소리에 벌떡 자리를 차고일어났다. 창밖은 아직도 어둑어둑하였다.

요즈음은 해가 짧아지고 밤이 길어진게 막 원망스러울 지경으로 안타까왔다.

《아니, 또 벌써 일나가려고 그러세요?》

잠귀밝은 안해는 잠결에 물었다.

인혁은 아무 대꾸없이 머리맡에 미리 놓아둔 작업복을 손더듬하여 부스럭거리며 입기 시작하였다.

《채 밝지도 않은 새벽에 누가 벌써 벌에 나와있을라구 매일같이 그리 극성이예요.》

《어쩌겠소. 벌려놓은 일 많으니 잠이 통 오지 않는걸… 두눈이 멀뚱멀뚱해서 답답하게 누워있느니 차라리 벌에 나가 벼 한줌이라두 더 베는게 마음 편하지.》

안해는 일어나앉아 또 걱정스럽게 말하였다.

《여보, 하루이틀 하고말 일도 아닌데 몸이 견뎌내겠어요. 어제 밤엔 앓음소리까지 내던데… 오늘만이라도 밝은 담에 나가시면 안돼요? 그러다 도중에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쩔려구.》

안해의 잦은 걱정도 이제는 귀찮아 슬그머니 일어나 몰래 나가려고 했으나 잠귀밝은 안해에게 또 걸리고만것이다. 사실 그는 안해의 걱정스러운 심정을 모르지 않았다. 아닌게아니라 어제도 논머리에 앉았다가 불쑥 일어서려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무수한 금빛반점들이 반디불마냥 반득이다가 사라지군 했다. 그는 어질거려서 도로 주저앉아 잠시 안정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인혁은 의사인 안해의 직업적인 이러한 감각을 속일수 없었다.

그는 낫을 찾아들고 문밖에 나섰다. 찬기운이 축축한 등골에 으스스하게 스며들어 몸이 오싹해졌다.

록새벌을 자욱히 덮은 안개장막이 희미하게 바라보였다. 어제 온 농장원들이 벌을 덮고 땅거미질무렵까지 벼를 베낸 공사구역은 한결 더 어둡고 침침해보였다.

인혁에게는 사람들이 아직 깨여나지 않은 어뜩새벽에 집을 나서서 안개에 고요히 잠긴 마을을 돌아 아늑한 포전에서 새벽빛을 맞는것이 이제는 하나의 일과로 되였다.

그가 눅눅한 안개를 휘휘 저으며 스적스적 공사구역어구에 이르렀을 때였다. 고요한 가까운 벌에서 난데없이 버석버석하는 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어찌 들으면 들짐승이 마른 벼숲을 헤집는 소리같기도 하고 달리 들으면 황소 새김질소리같기도 했다. 인혁은 어쩐지 마음이 선뜩하고 바싹 긴장해졌다.

그는 버석버석하는 소리가 나는쪽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어슴푸레한 새벽에 자기보다 먼저 벌에 나올 사람은 있을상싶지 않았다. 그렇다면 착각일가? 그래서 발소리를 죽이고 귀를 강구며 유심히 살펴보니 안개자욱한 공사장어방에서 석석 낫질을 하는 희끗한 사람의 형체가 바라보였다.

그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던 그는 무춤 걸음을 멈추었다.

천만뜻밖에도 그는 흰 수건을 머리에 쓴 녀인이 아닌가. 혼자서 벼베기에 여념이 없었다.

인혁은 그를 놀래우지 않으려고 멀리서부터 인기척을 내며 느슨한 목소리로 물었다.

《거 누구요?》

순간 그 녀인은 흠칫 몸을 떨며 놀라는것 같더니 낫질을 멈추고 허리를 쭉 펴는것이였다.

뜻밖에도 그 녀인은 다름아닌 7작업반 김서분이였다.
《아니, 리당비서동지였군요. 그런걸…》
《아니, 날두 채 밝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일찍 나왔습니까? 짐승이라도 만나면…》
《호호, 전 스무해나 이슬털며 다녀두 여태 여우 한놈 본적 없습니다.》
《과연 소문이 짜한 왕서분이답군.》
《아이참, 비서동지도 롱담을 다 하시네.》
그는 처녀처럼 수집어하며 얼굴을 살짝 붉히였다.
《아, 남들이 다 그렇게 부르는데 나라고 왜 그렇게 못 불러보겠소, 허허허.》
인혁은 가슴이 훈훈해졌다. 그는 늘쌍 꽁무니에 비스듬히 찌르고 다니는 낫을 제꺽 뽑아들고 성큼 논판에 들어섰다.
금주리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김서분을 애정담아 《왕서분》이라고 불렀다. 이제는 그 왕서분이 아주 그의 본명처럼 되여버렸다. 어떤 사람들은 남달리 일욕심이 굴뚝같은 그를 이악쟁이라고도 불렀다. 6작업반장인 왁새다리남편은 안해가 자기 작업반도 아닌 이웃 7작업반에 적을 두고 너무 이악을 부리는것을 그닥 좋게 여기지 않았다.
얼마나 이악쟁이였으면 매해 제일 높은 가동일에 로력공수도 그중 많이 벌겠는가. 그가 1년을 하루같이 닭목을 쥐고있다가 그 누구보다 먼저 새벽일손을 잡지 않으면 몸살이 나게 서분해한다고 하여 그를 왕서분으로 부르게 되였다고 한다. 이를테면 왕서분은 별명이라기보다 그에 대한 애칭이였다.
《왕서분동무.》
《호호. … 또 그러시네.》
《그 이름 얼마나 좋소, 일욕심에서도 으뜸이라는 뜻인데. 그래 조반은 누가 짓소?》
《시어머니가 정정하십니다.》
《그래두 집안에서야 주부의 손이 미칠 구석이 많겠는데…》
《그때문에 세대주가 잔뜩 찌뿌둥해서 도끼눈을 하고있지요. 내가 6작업반이 아니라 7작업반에 속한게 괜히 심술 난거지요 뭐.》
《안해가 7작업반 농장원인걸 다행으로 여겨야지. 만일 서분동무가 6작업반 소속이라면 한집안농장원이 하루같이 꼭두새벽에 일나

가야겠는데 반장자신이 늑장부릴수야 없잖겠소.》

《듣구보니 정말 그렇군요.》 하고 그는 여적 한번도 그렇게 남편한테 들이대보지 못한게 저으기 후회나는모양 미리 그랬더라면 찍소리 못했을거라고 했다.

《어쨌든 동무는 정말 용소.》

《용할게 뭐 있습니까. 난 솔직히 한걸음이라도 남의 뒤에 서는것이 죽기보다 싫습니다. 일감이 막 밀릴 때면 밤이라는게 왜 생겼을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까지 듭니다.》

그 말에 인혁은 문득 낫질을 멈추었다. 그리고 김서분을 놀랍게 쳐다보았다.

서분은 자기가 지내 발딱하게 심중의 소리를 한것 같아 더 세괃게 낫질을 해댔다. 낫질이 어찌나 결싼지 인혁이조차 따라가기 어지간히 베찼다.

서분은 인혁의 입에서 자기에 대한 말이 더 나올가봐 저어하듯 아까 나누던 남편이야기에 화제를 이었다.

《원래 우리 반장이 난사람이여서 논지경을 사이에 둔 6반쯤은 우습게 알고 자꾸 뗼궈버리니 우리 세대주가 속이 바질바질 끓을만도 하지요.》

《전 7반장이 대단한 일군이였다더군.》

《네.》

서분의 눈굽에 눈물이 고이는듯싶었다.

그는 얼굴을 모로 돌리며 넌지시 옷섶으로 눈굽을 훔쳤다.

《그 반장이 바로 진혜정의 남편이댔는데 지금두 다들 잊지 못해하고있습니다.》

서분은 계속 말하였다.

《정말 1년내내 반장의 잔등이 마를새 없었답니다. 그러니 토질이 꼭같은 6반은 그렇지 못했는데 우리 반은 매해 웅근소출을 내였지요. 사람들은 그 비결이 반장이 땀으로 땅을 걸구는데 있다고들 했지요. 그땐 막 성수들 나했답니다.》

서분은 터진김에 전 반장의 자랑을 거침없이 펴놓았다.

7작업반은 매해 농업생산이 앞서다보니 분배몫이 늘어나 모든 가정들에서 새로운 세간을 일식으로 갖추게 되였다. 일은 억척스럽게 내밀면서도 인정이 헤픈 반장을 반원들은 진심으로 따랐다. 그렇게도

억대우갈던 반장이 논머리에서 숨을 거둘 때 온 반원들은 가슴을 치며 오열을 터뜨렸다.

한편 인혁은 김서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책감에 사로잡혔다. 지난 년간총화때 전 반장을 못 잊어하는 농장원들의 눈물겨운 토론을 들으면서도 반원들이 그를 잊지 못해하는 까닭과 그 감정을 자세히 파고들지 못한것이였다.

작업반원들의 심정이 하나같이 이럴진대 그의 안해인 진혜정의 애모쁜 심정이야 구태여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러한 심정도, 앵돌아진 사연도 헤아리지 못하고 진혜정을 만났던 생각을 하면 낯이 뜨거워졌다.

《참, 듣자니 전에 김서분동무가 진혜정동무와 승벽내기로 일하며 반을 이끌었다던데…》

《그러지 않아도 전번날 비서동지가 혜정이를 만나는걸 보고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사인 끔찍했답니다.》

그는 진혜정에 대한 말이 나오기를 바란듯이 이렇게 말했다.

《비서동지, 전 지금 진혜정이 몇몇 일군들의 억울한 미움을 받고 있는게 진짜 가슴아픕니다.》

《억울한 미움이라니? 내 듣기에는 진혜정동무가 말썽을 일으킨다던데.》

그 말에 서분은 동그스름한 얼굴을 번쩍 쳐들었다. 그는 저으기 안타까운듯 낫질을 멈추고 담담한 어조로 혜정을 두둔했다.

《리당비서동지, 그건 혜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걸만 보구 허투루 돌리는 말입니다. 물론 성미가 좀 모진축이여서 한번 옥맺히면 풀기 힘들어하는건 사실이예요. 그렇지만 그의 서러운 마음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일군이 어디 쉽습니까. 지난번 일도 그렇지요. 남편을 잃고 의지할데 없어 법동에서 몸이 불편한 친정아버지를 모셔오느라구 며칠 늦은걸 가지구 불같은 때 며칠씩 농장일을 뚜꺼먹는 심보면 차라리 짐보따리 싸갖구 가라구 관리위원장이 그런다면서 세포비서까지 야단을 치니 그의 마음이 오죽했겠나요. …》

그날 밤 혜정은 서분에게 억울한 심정을 눈물로 하소했었다. 그의 말을 눈물을 흘리며 듣던 서분은 더는 참을수 없어 분연히 일어나 제잡담 소낙비 억수로 쏟아지는 캄캄한 어둠속으로 번개같이 뛰쳐나갔다. 단숨에 관리위원회에 달려간 그는 무작정 관리위원장방에 불쑥 들

어섰다.
서분은 가쁜숨을 톺으며 앞뒤를 가림없이 들이댔다.
《관리위원장동지, 어쩌면 그럴수 있나요. 가뜩이나 설음많은 진혜정한테 어쩌문 그리두 모질구 그리두 가혹할수 있어요?》
수환은 그제야 짐작된듯이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투박하게 내뱉았다.
《그래 동문 지금 나한테 뭘 말하자는거요?》
《법동에 갔던 일 말이예요. 그게 어디 혜정의 잘못만이나요, 사정이 정 불가피해서 그렇게 된걸 가지구…》
《그만하오!》
수환은 그의 말을 무작정 중등무이시켰다.
《동무가 뭐길래 오지랖넓게 나서서 춤추는거야, 엉? 일에서 소문내는 왕서분인줄 알았더니 올려받치는데서두 왕서분이군. 진혜정과 어쩌면 그렇게 쌍둥이같아.》
《사람을 함부로 모욕하지 말아요!》
서분은 무언가 더 들이대고싶었으나 말이 막혀 어쩌지 못하고 홱 돌아섰다.
사실상 이것은 성미가 이를데없이 참한 서분이로서는 놀랄만 한 성격적폭발이였다. …
서분은 하던 말을 이었다.
《본래 자기를 변호하는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혜정은 그걸 속에 꽁지구 새기느라고 묻는 말에나 마지못해 대답하는 안타깨비가 돼버렸지요.》
인혁은 그가 불편한 아버지를 모셔왔다는 말은 이미 들었었다. 이야기의 전말을 미루어보면 자기가 오기 직전에 있은 일이였다.
그런데 전번 만났을 때 유진섭은 왜 이 사실을 지나가는 말처럼 슬쩍 넘기며 그의 흠만 들추는걸가. 더구나 유진섭은 전 반장과 보통사이가 아니였다고 하지 않는가. 어쩐지 그들사이에 필경 그 어떤 곡절이 있을것만 같이 여겨졌다.
《내 짐작에는 혜정동무에게 그밖에 무슨 옥맺힌 사연이 있을것 같은데 서분동무 생각에는 어떻소?》
《비서동지, 우리 녀자들은 남자들과 달라 무슨 시름이 있으면 속에 꽁져두고 혼자 앓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는 어느 초봄에 있은 일을 자기도 들었다고 하면서 이야기해주었다.

어느날 오후 황평역에 가서 화학비료를 하차할 긴급과제가 불의에 떨어졌다.

다른 농장원들은 강냉이씨붙임준비와 벼종자싹틔우기에 붙고 마을가까이에서는 다만 유진섭과 그의 안해, 진혜정이 거름운반을 하고 있었다. 언제 사람들을 먼 작업장에서 불러들이고 어찌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유진섭은 무작정 안해와 진혜정을 데리고 서둘러 지름길을 탔다.

어둑어둑해져서야 부리나케 하차작업을 끝낸 그들이 되돌아섰을 때에는 그믐이여서 사위는 지척을 모르게 캄캄해졌다. 그러나 밤길에 익숙된 그들은 발부리에 눈이 달린듯 돌투성이의 지름길을 씨엉씨엉 걸었다.

어느덧 어둠속에 꿈틀거리는 구렝이같이 섬찍한 옥천강여울목에 다달았다. 홍수때 처녀시절의 진혜정이 회의시간을 지키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뛰여들었던 강이였다.

지금은 하류로 5리쯤 내려가면 세멘트다리가 있었으나 사람들은 한걸음이라도 덜려고 겨울철은 얼음을 타고 봄가을철은 이 여울목 징검다리로 조심조심 건너다니였다.

저물기 전에 마을에 닿을 생각에만 옴해 유진섭은 부득불 제가 앞서서 라이타불을 번쩍거리며 띠염띠염 놓은 징검돌을 골라짚기 시작했다. 그의 꽁무니에 바싹 붙은 안해는 흉내내듯이 남편이 딛는 징검돌을 따라짚을수 있었다.

그러나 뒤에 선 진혜정은 반디불같은 라이타불빛이 반장안해의 몸에 아주 가리워 강물우의 징검돌을 도저히 따라짚을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한두개의 돌을 건너짚어보려다가 그만 단념하고 도로 강가에 오뚝 서고말았다.

그는 유진섭이 자기 안해를 건늬여주고는 의례히 되돌아와서 자기한테도 라이타불을 비쳐주리라고 믿었다. 그래서 캄캄한 강녘에서 그들이 빨리 건느기만 초조히 지켜보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부부는 순식간에 강녘을 벗어나 어둠속에 잠기는것이였다.

한순간 혜정은 머리가 뗑해지고 그만 설음이 왈칵 북받쳐올랐다. 캄캄한 어둠, 사방으로 마구 옥죄이는듯 한 숨막히는 적막, 별안간 더 소란해진것 같은 강물결의 스산한 소음… 더럭 무섭증이 났다. 마치

도 자기만이 꿈속에 홀로 서있는듯 했다.
그는 금시 튀여나올듯 후둑후둑 뛰는 가슴을 애써 진정하며 발더듬으로 징검돌을 가까스로 옮겨짚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몸을 다잡지 못하고 물때에 미끄러져 강물에 풍덩 어푸러졌다.
순간 이른봄의 차디찬 강물에 뼈속까지 얼어들었다. …
밤이 이슥해서야 온통 물주머니가 되여 텅빈 집에 들어선 혜정은 설음이 걷잡을수없이 북받쳐올랐다. 그는 불꺼진 차디찬 방바닥에 푹 쓰러져 울음을 터뜨렸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제집 드나들듯 하며 금시 살이라도 베여줄것 같이 살틀하게 굴던 유진섭이며 그의 안해가 이제는 홀몸이 된 자기를 업수이 보는것 같은 생각에 그는 뜬눈으로 새우다싶이 하였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혜정은 유진섭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였으며 그와의 접촉을 우정 피하게 되였다. 또 그 누구한테 서럽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설분을 토할 혈육 하나 없는것을 탓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법동에 사는 친정아버지를 모셔다 함께 의지해 살기로 작정한것이였다.
인혁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외로운 사람일수록 곡해는 흔히 례사롭고 미세한 감정에서 시작되며 그로 하여 버그러진 인간관계를 순조롭게 풀기가 조련치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혜정이 남편과 각별하였다는 유진섭에게 여직껏 이러한 서러운 속내를 터놓지 않았을뿐아니라 아예 등을 돌린것을 보면 남편을 잃은 다음부터 그와 마음의 담을 높이 쌓은것 같다. 그에 징검다리에서의 별치 않은 일까지 겹친것이 아닌가.
제반 사연은 유진섭의 강마른 가슴속에 마음의 열쇠인 진심이 없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었다.

12

인혁은 낮시간을 공사준비로 분주한 현장에서 보냈다.
그는 저물녘에 7작업반 마을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우선 법동에서 온 진혜정의 아버지를 만나보고싶었다.

지난해 과수원 앞둔덕에 새로 일떠세운 마을 앞줄에 있는 진혜정의 집 문패에는 《박경직》이라는 전 7작업반장이름이 또렷이 씌여있었다.

뜰안에는 새노랗게 익은 감알들이 장식한것처럼 조롱조롱 매달린 네댓그루의 잎마른 감나무가 있었다.

집안은 빈집처럼 괴괴하였다. 인혁은 마당에 넘어진 비자루를 바람벽구석에 세워놓으며 은근한 목소리로 주인을 찾았다.

《계십니까?》

《게 누구시오?》하는 석쉼한 대답이 들린지 한참 지나서야 갱핏한 상고머리로인이 앉은걸음으로 방문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 리당비섭니다.》 하고 인혁은 깍듯이 인사를 하였다.

《어이구, 어서 들어오시우. 제일 바쁘신 어른이 우리 집엘 다…》

《아버님 와계시는 소식은 이미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늦게 찾아와뵙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아니웨다. 무슨 그런 말씀을… 어서 들어오시우.》

로인은 겸양하게 긴팔을 휘저으며 인혁이 방에 들어서기를 기다리다가 자리를 권했다.

인혁은 벽에 걸린 사진액틀에 먼저 눈길이 갔다. 진혜정이 처녀시절에 방긋이 웃으며 인민군대 입대기념으로 찍은 사진, 결혼식사진, 아들의 첫돌사진, 군복입은 름름한 아들을 가운데 세우고 행복에 겨워 찍은 사진… 그 사진들에는 혜정의 행복하고 단란하던 지난 생활이 함축되여있었다.

가구며 집안살림은 검소했으나 장판은 금시 기름흐르듯 광택이 나고 어느 구석이나 알뜰한 주부의 손길이 엿보였다. 본래 진혜정의 남편이 작업반장을 할 때 반원들의 살림에 무척 관심이 컸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그의 집에는 값진 가구 하나 없고 너무나 검소하였다.

진로인이 먼저 말을 꺼내였다.

《내 육신이 잘 말을 듣지 않아 딸애 동자손도 거들어주지 못하구 괜히 말동무나 되여주지요. 애가 애비라두 곁에 있어달라고 하도 조르길래…》 하고 진로인은 불편한 다리를 짚어보였다.

《옛날 총상자리가 아직두 말썽이지요.》

로인의 잘 쓰지 못하는 구부정한 왼다리대퇴골부위는 벌에 쏘인듯

벌겋게 부어있었다.

인혁은 안해가 의사이면서 전쟁로병의 이런 병고를 여적 모르고있은것이 죄송스러웠다.

진로인은 벽을 짚고 힘들게 일어나 조심스럽게 벽장으로 다가가더니 자그마한 나무함을 꺼내였다. 그는 함뚜껑을 열고 명주천에 차곡차곡 감싼것을 풀었다. 그속에서 족자비슷한 무명천이 나왔다.

《이건 우리 아버지가 가보로 보관해온겁니다.》

긴 무명천에는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의 은혜로 옥답 3 000평 분여받음. 1946년 3월 농민 진창세.》라는 붓글발이 달필로 씌여져있었다.

《해방전에 방석만 한 땅뙈기도 없어 춫구이로 간신히 입에 풀칠하던 아버지가 우리 장군님의 하해같은 은덕으루 옥답을 분여받고는 한해를 꼬박 벌에 붙어살면서 풍작을 거두었지요. 그래 군적인 첫번째 다수확농민이 돼서 애국미도 선참 헌납하구요. 전쟁이 일자 아버지는 이걸 내보이며 네 장군님의 은덕을 한시두 잊지 말고 우리 명줄을 끊으려는 미국놈들이 이 땅에 단 한치도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전선으로 내 등을 떠밀었지요. 헌데 지금은 이 지경이 됐으니…》

《아닙니다. 아버님세대가 피흘려 지킨 땅에서 오늘 우리가 맘껏 농사짓고 행복을 누리는게 아닙니까. 우리 수령님께서는 아버님같이 피흘려 싸운 전세대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진로인은 인혁의 간곡한 말을 진중하게 듣다가 감심한 어조로 말하였다.

《말씀만 들어두 고맙습니다. 내 그래서 나라를 위한 일에 하나라도 보탬을 주는 일을 해야겠는데… 아무 하는 일없이 편안히 지내자니 하루하루가 그저 죄스럽지요.》

전쟁로병의 고결한 심정이 눈물겹도록 인혁의 가슴을 울리였다. 이것이 바로 전세대들의 참다운 의리이고 깨끗한 량심이 아닌가!

한편 작업장뒤거두매를 하고 여느 날과 같이 마당에 들어서던 혜정은 손님이 온 기미를 채고 지게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와 부뚜막에 살풋이 앉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손님은 리당비서가 아닌가! 혜정은 별안간 가슴이 활랑거리였다.

좀처럼 목청을 돋구는 일 없고 인정미있는 일군이라고들 다 말하는데 자기는 지난날 너무 매정스럽게 군것 같아 민망스럽고 낯이 뜨거워났다. 오늘도 혜정은 김서분의 곁에서 해종일 벼가을을 같이하면서 그가 당비서를 만났던 이야기를 듣고 생각되는 점이 많았다. 리당비서가 그처럼 다심한 일군이라는것도 잘 알게 되였다.

그런데 그 리당비서가 의외에도 자기 집에 와있지 않은가.

아버지의 말소리가 들렸다.

《걔가 남편잃은 설음두 큰데다 나란게 알쭌히 덧짐이 되다보니 그 고달픔이 조련하겠소만 그걸루 남들 눈밖에 나지 말아야 할터인데… 아무튼 비서어른이 료량해서 잘 이끌어주시우.》

혜정은 잠자코 엿듣는것이 도리에 어긋나는것 같아 조용히 사이문을 열고 방에 들어서며 인사말을 하였다.

《비서동지가 오신줄 몰랐습니다.》

《혜정동무가 왔구만.》

인혁은 반색하며 말하였다.

《몸이 불편한 아버님도 계신데 좀 일찍 들어올걸 그랬소.》

《저 애가 집에 들어서는 시간이 이맘때지요.》

워낙 오늘 밤 유진섭이까지 만날 작정을 했던 인혁은 더 눌러있으면 공연히 페를 끼칠것 같아 긴요한 몇마디의 이야기를 나누고나서 이내 일어섰다.

진로인도 혜정이도 저녁을 함께 들고가야지 그냥 뜨면 주인의 도리가 어찌 되느냐고 무가내로 막아나섰다.

그러나 인혁은 이밤으로 처리할 중요한 일이 있어 그러니 후에 꼭 다시 오겠노라고 하며 집을 나섰다.

인혁은 진혜정의 가정을 오늘에야 비로소 방문한 자책감에 사로잡혀 작업반선전실쪽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마을길을 벗어날 때 언뜻 저발치의 어둑컴컴한 탈곡장주변에서 인기척이 났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와스삭거리는 소음과 함께 움씰움씰하는 꺼뭇한 형체가 희미하게 안겨왔다.

인혁은 소리쳤다.

《누구요? 거기서 뭘하우?》

《접니다. 유진섭입니다.》

인혁은 그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7작업반 당세포비서 유진섭은 메고 들고오던 벼단들을 서둘러 탈곡장바닥에 놓으며 긴 허리를 폈다. 탈곡장안에는 벼단이 무둑히 쌓여있었다.
《진섭동무, 수고합니다. 그런데 왜 어두운데 혼자서 일합니까?》
《비꽃이 좀 떨어지길래…》
《작업반원들은 왜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거 뭐 퇴근한 사람들을 다시 불러내기두 멋하구 또 밤에 불러내면 좋아들 합니까.》
《좋아 안하다니? 실지가 그렇소 아니면 동무의 추측이요?》
얼결에 제 생각을 내비쳤다가 인혁이 엄하게 따져묻자 그는 그만 대답이 막혀버렸다.
《유진섭동무, 빨리 가서 작업반원들을 당장 불러내오. 제 낟알건사를 싫어할 농장원이 어디 있겠소.》
인혁은 멀어져가는 유진섭의 구부정한 뒤모습을 보며 어떤 불의의 과제가 제기되면 사람들을 불러내기 딱하여 저혼자 수걱수걱 해치우기가 일쑤라던 남들의 말을 상기하였다.
어리무던하다는 말까지 듣는 마음 후한 그가 왜 진혜정이와는 얼음벽을 쌓고있는것일가?…
어느새 작업반원들은 앞을 다투어 달려나왔다. 그들은 열이 올라 떠들썩하며 눈깜박할 사이에 탈곡장주변논에 촘촘하던 동가리들을 말끔히 헐어들이였다. 농장원들은 이내 돌아들갔다.
그제야 올듯말듯 망설이던 비도 줄기가 굵어지며 탈곡장함석지붕우에 후둑후둑 떨어졌다.
인혁은 유진섭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 딱딱하게 이야기를 나눌것없이 제창 탈곡장에 마주앉았다.
인혁은 먼저 벼짚우에 엉치를 붙이고앉아 자기의 동정을 살피며 어지간히 긴장하여 서있는 유진섭에게 옆에 와 앉으라고 자리를 권하였다.
그가 앉자 인혁은 담배를 권했다.
《진섭동무, 한대 피우겠소?》
인혁은 안 피우면서도 늘 담배쌈지를 건사하고 다녔다.
《전 원래 피우지 않습니다.》
《마침이로군. 탈곡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되여있는걸 망각하

고 내 과오를 범할번 했구만!》
인혁은 담배쌈지를 도로 안주머니에 넣으며 허허 소리내여 웃었다.
잠시 서름한 공간이 흘렀다. 이따금 야음을 타고 맥빠진 먼 우뢰소리와 개짖는 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쭈룩쭈룩 내리는 비소리는 더욱 적막감을 자아냈다.
인혁은 유진섭의 기름한 옆얼굴을 바라보며 은근한 어조로 말을 꺼냈다.
《작업반장이 그냥 자리에 누워있으니 반장사업도 할래, 당세포비서사업도 할래 수고가 더 많으리라고 보우.》
그 말에 그는 몸둘바를 몰라하며 송구해하였다.
《수고랄게 있습니까. 저야 뭐 별루…》
《그새 내 진섭동무를 잘 돕지 못했소.》 하고 인혁은 말을 계속했다.
《내 하나 물읍시다. 말꼬리를 잡고 따지는건 아닌데 오늘같은 정황에서 사람들을 불러내면 좋아 안한다는게 사실이요?》
진섭은 자기 얼굴을 똑바로 지켜보는 인혁의 눈길을 피할수 없었던지 어줍게 웃었다.
《원래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진섭동무, 자기 추측을 사실처럼 말해버릇하고 남들도 제 마음같겠거니 함부로 속단하면 되겠소? 그건 사람들을 믿지 않기때문이요. 보우, 실지 기세들이 어떤가. 만일 그들이 동무의 그런 속생각을 알게 되면 뭐라고들 하겠소.》
유진섭은 고개를 떨구었다.
《보아하니 동무는 진혜정동무와의 사업도 잘하는것 같지 않소.》
진혜정의 말이 나오자 그는 즉석에 태도를 바꾸었다.
《비서동지, 전번에 만나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는 원래 성미가 괴벽한 녀잡니다. 앵돌아져 영 곁을 안 주니 난들 별방법이 있습니까. 남들이 뭐라는지 압니까. 남편이 없으니 본심이 드러난거라구 합니다.》
인혁은 숨가쁘게 다우쳐물었다.
《그 동무의 본심이라는건 뭐구 남들이란건 대체 누구누구요?》
진섭은 별안간 인혁의 표정이 심각해지는걸 눈치채고 그만 입을 다물었다.

혜정의 다루기 힘든 성미를 립증하려고 얼결에 어방짐작으로 둘러댄 말이 실언으로 되였다는것을 느끼고 그는 대답을 피했다.

담화는 여기서 한참동안 동강이 났다.

《동무가 말하는 남들이란 누구들을 념두에 두었는지 모르겠소만 동무는 자신의 사업을 놓고 돌이켜볼것이 많다고 보오.》

《예?!》

《내 듣기에 동무가 아무한테나 다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이 돌던데 그 좋다는 말의 리면에는 무엇이 깔려있소? 그렇다면 혜정동무한테만은 왜 그렇지 못하우? 동무는 전 반장과의 사이가 각별하였다는데…》

경우에 몰린 그는 인혁의 말끄리에서 마침내 구실을 찾은듯 입을 열었다.

《솔직히 나는 박경직반장의 낯을 봐서두 돕는껏 도왔습니다. 땔감도 선참 보장해주었구 새집들이때도 그중 위치좋은 집을 골라줬구.》

《그게 혹시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요?》

《예?!》

그는 말뜻을 몰라 뗑해져 인혁을 쳐다보았다.

《남들의 눈이 두려워 그런게 아닌가 말이요.》

《그런건…》

《그렇지 않다면 왜 지금은 그렇지 못하오? 그래 동무는 그때 반장의 안해인 진혜정동무와의 관계에서 가책되는게 없소?》

《전 별루…》

그는 희미한 어둠속에서 인혁의 침중한 낯빛을 일별하고 슬그머니 눈길을 피했다. 오늘은 어쩐지 인혁의 잡도리가 만만찮게 느껴졌다.

《아버지때문에 한주일이나 늦어진 문제로 정신이 들게 비판한것밖에는…관리위원장동지도 그렇게 닦아세웠구.》

《비판할거야 응당 해야지. 그러나 비판에 앞서 늦게 된 피치 못할 사정과 그래서 안타까왔던 그의 심정부터 먼저 헤아렸어야지. 그래서 당세포비서가 아니겠소. 같은 말도 설득력있게 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리해할 때까지 타일러 시정시켜주기도 하고… 그런 인정미가 동무한텐 부족한것 같소.》

《…》

《그래 동문 그와 인간적인 측면에서 마음 찔리는데가 없소?》

유진섭은 그의 묻는 뜻을 몰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인혁은 구태여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다. 평소에 진혜정의 문제를 두고 마음써오지 않은 그의 입에서 신통한 대답이 나올리 만무하였다.

《내 옛말을 하나 하겠소.》

진섭은 인혁의 표정을 조심히 살피며 긴장해있었다. 인혁은 시침을 뚝 따고 느릿느릿 이야기를 시작했다.

《해빙기가 방금 지난 어느날 한 일군이 자기 안해와 홀몸이 된 한 녀성을 데리고 철도역에서 비료를 부리고 막 돌아서는데 이른봄이라 그만 날이 갑자기 저물어 캄캄해졌소. 그래서 부득불 지름길을 타다보니 별수없이 여울목징검다리를 건느게 됐단 말이요. 그런데 글쎄 그 일군은 자기 안해에게만 라이타불을 비쳐주어 디뚝거리는 징검다리를 건느게 한 다음에는 뒤를 한번 돌따볼념도 않구 저희들 부부끼리 슬쩍 가버리지 않았겠소. …》

그 옛말이 바로 자기를 두고 하는 말임을 즉감한 유진섭은 그만 가슴이 뜨끔하여 인혁의 옆얼굴을 흘낏 바라보았다. 그 사실을 새 리당비서가 안다는것이 사뭇 놀라운 모양이였다.

그러거나말거나 인혁은 먼 소리를 하듯 주근주근 계속하였다.

《그 라이타불로 자기두 비쳐주리라구 믿구 강녘에 오도카니 서있던 뒤따르던 녀성은 너무 아연하여 어쩔바를 몰라하며 어둠속에서 허둥거리다가 그만 징검돌을 헛짚고 차디찬 강물속에 넘어지고말았소. 진섭동무, 좀 생각해보우. 그 찬물에 온통 물참봉이 돼가지구 캄캄한 밤길을 울면서 걸어온 그 녀성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겠소.》

유진섭은 모닥불을 뒤집어쓴듯 얼굴이 홧홧 달았다. 금시 등골이 짜릿짜릿해지고 량심의 한꺼풀을 발기우는듯 한 부끄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는 애당초 잊어버리고만 별찮은 그 문제가 이렇듯 심중하게 옛말로 번져질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다.

사실 그날 밤 안해는 호젓한 밤길에서 문득 전부터 의합이 잘되지 않던 맏딸 혼처문제를 꺼내였다. 그 골치거리를 놓고 잔뜩 심사가 틀린데다가 빨리 집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에만 옴했던 유진섭은 진혜정이 뒤따르는것쯤은 안중에도 없었다.

막상 인혁의 말을 새겨듣고보니 그는 심각한 자기 실책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인혁의 이야기는 그 마디마디가 가슴을 짜릿짜릿하게 들쑤시였다.

《동무는 저 리당비서가 별찮은 지난 일을 왜 끄집어내는가고 생각할수도 있소. 하지만 흔히 그런 별찮은것때문에 사람들사이가 그르쳐지거나 옹이지는 일이 생긴다구 보오. 좀 생각해보시오. 그가 자기 누이나 친혈육이라면 그렇게 했겠소? 물론 나두 그날 밤 동무한테 그에게 마음을 못 돌릴 무슨 절박한 사정이 있었으리라고 짐작은 하오. 하지만 동무는 당세포비서요.》

인혁은 그밤의 정상이 떠오르는지 목단추를 끌렀다. 그는 괴로운듯 한숨을 길게 내쉬였다.

《동무, 어쩌면 그럴수 있는가. 인간으로서, 일군으로서 말이요. 그날 밤 그는 동무의 진심이란 주머니를 들여다보았던거요. 인간감정이란 그렇게 복잡하구 또 민감한것이요.》

유진섭은 기척없이 고개를 떨구고 앉아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였다. 아니,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사람과의 사업이 오죽 어렵고 중요하면 어버이수령님께서 백첩의 약을 써야 할 병에 아흔아홉첩을 쓰구 한첩을 마저 쓰지 않아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것처럼 사람을 교양개조하는 사업도 이와 마찬가지로 끝장을 볼 때까지 인내성있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겠습니까.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우리가 아흔아홉번 웃는 얼굴로 대하다가 한번 신경질을 부리면 공든 탑이 무너질수 있습니다. 동문 혜정동무한테 그처럼 서러운 원망을 품게 하구두 그의 속마음에 눈길을 돌릴 대신에 그의 사람됨됨을 속단하며 혹평까지 했으니 그가 덧나게 될수밖에 있소.》

유진섭은 푹 수그렸던 머리를 무겁게 들며 마침내 입을 열었다.

《말을 듣구보니 내가 혜정동무의 마음을 리해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철늦은 비는 좌락좌락 소리치며 내렸다. 탈곡장처마에서 떨어지는 락수물소리는 오히려 인혁의 답답증을 한층더 자아냈다. 격한 심정을 누르듯이 잠시 입을 다물었던 인혁은 말을 이었다.

《물론 동무가 작업반원들의 앞장에 서서 제몸을 아끼지 않는다는걸 나두 알고있소. 일군은 마땅히 그렇게 실천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야지.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건 사람모두의 마음을 이끄는거요. 그 비결이 뭐겠소. 남들이 동무의 진심에 공감되는거라구 생각하오. 한데 남의 고달픔쯤은 제 고뿔만큼두 여기지 않으니 누가 따르겠소.》

《…》

《그런데 말이요, 동무가 혜정동무는 랭대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좋게 대하고 싫은소리 한마디 안한다는데 사실이요? 그렇다면 거기에 더 문제가 있지 않소.》

진섭은 고개를 못 들고 말문이 막힌듯 입을 다물고있었다.

인혁은 사람들속에서 진섭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것을 념두에 두고 비친 말이였는데 진섭은 대번에 자신의 일본새를 돌이켜보게 되였다.

먼저 뇌리를 치는것은 관리위원장 조수환이와의 관계이다.

사실 그는 조수환에게서 싫은소리 한번 들은적 없었고 자기 또한 그한테 기분 거슬리는 말 한마디 한적 없다.

보기에 헌걸스럽고 대범한 수환은 웬간한 문제따위는 슬쩍 넘겨버리고 오랜 친구라며 허물없이 굴기때문에 그를 어렵지 않게 대했다. 그가 자기를 생각해주는것만큼 그에 대하여 남다른 호감을 품고있던 유진섭은 그가 좋다면 좋은것으로, 그가 나쁘다면 나쁜것으로 그와 생각을 맞추었었다.

일군들과의 관계, 작업반원들과의 관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문제에 내포되여있는 자기 결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 마당에서 진섭은 진땀을 뺐다.

인혁은 허리를 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섭은 그가 떠나려는 기미를 채고 《비서동지, 좀 기다려주십시오. 내 얼른 달려가서 우산하구 손전지를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탈곡장밖으로 뛰쳐나가려는것을 인혁은 굳이 말렸다.

《괜찮소. 이까짓 비가 뭐 대수겠소.》

그는 의미있는 말을 남기고 성큼성큼 비속에 나섰다.

13

잔뜩 찌프리고 때없이 벌을 적시며 지지리 간을 말리던 원망스러운 하늘이 기이하게도 하루밤새에 씻은듯 맑아졌다.

그리도 또릿또릿하게 빛나던 별들이 희미해지다가 자취를 감추자 해

가 벌쭉 웃으며 솟아올랐다. 그 눈부신 해빛에 우중충하던 옥련봉도 일순 선명해지고 옥천강의 흐리흐리해진 물면도 쪽빛물 들었다.
인혁은 아침밥을 드는둥마는둥하고 다급히 가을걷이전투장에 나갔다가 반나절후에 공사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록새벌은 온통 불이 붙었다. 구질거리던 귀찮은 비때문에 밀진 일을 대번에 봉창하려는듯 온 농장원들이 남은 벼베기와 함께 벼단꺼들이기를 불이 번쩍 일게 해제끼고있었다.
먼저 벼단을 말끔히 끌어들인 공사구역주변에는 어느새 여러동의 가설건물들이 주런이 일떠섰다.
청년 여라문명이 쉴참에 큰 구경거리라도 생긴것처럼 가설건물구역으로 줄레줄레 모여들어 저마끔 건물마다 써붙인 명판을 소리내여 읽었다.
《이동수리소》, 《작업도구창고》, 《휴계실》, 《사무실》…
청년들은 문이 열려있는 휴계실에 머리를 들이밀었다.
정장선이 저 혼자 넓은 판대기우에 도배지를 펴놓고 풀솔질을 해서는 벽에 반듯하게 바르고있었다.
이때 벼단운반에서 맨나중에 손을 뗀 별옥이 공사장가설건물쪽으로 할싹거리며 달려왔다. 그는 청년들이 잔뜩 머리를 들이밀고 기웃거리는 짬으로 장선이 혼자 도배하는것이 눈에 뜨이자 붐비는 나들문으로 바람같이 새여들어갔다.
《반장동지, 인주십시오.》하고 그는 얼른 장선의 손에서 풀솔을 넘겨받아쥐고 날렵하게 도배지에 풀칠을 하였다. 그의 땀에 흥건하게 젖은 회색작업복잔등과 남색머리수건에는 몇오리의 짚검불이 묻어있었다.
장선은 별옥이 재빠른 솜씨로 풀칠하는 족족 도배지를 날라다 큰 손바닥으로 바르기를 하고는 이어 헝겊으로 자근자근 눌러 주름없이 착 달라붙게 하였다. 그의 솜씨 역시 재면서도 알뜰했다. 그 솜씨를 홀린듯 바라보던 싱검둥이 마선기가 《대장동지, 아주 살림방을 꾸리고 제창 여기서 잔치상까지 받으렵니까.》하고 시까스르자 다른 청년이 《그러기 말이야. 한겨울동안 쓸 가설건물인데…》하고 깃을 달았다.
장선의 대답이 걸작이였다.
《부러워 말라구. 내 지금 마선기의 신방을 꾸리는중이라구.》
그 말에 와 웃어들댔다. 마선기는 얼굴이 벌거우리해졌다.

이때 그들뒤에 와 서있던 인혁은 그 싱겁둥이의 뒤통수를 건드리였다.

《하루를 살아두 이렇게 제집같이 꾸려야 해.》

청년들은 인혁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서며 꾸벅꾸벅 인사를 했다.

《어떤 환경에서든 정상생활궤도에서 탈선하지 말아야 해. 그게 바로 래일의 희망을 안고 자신만만하게 사는거야.》

《알겠습니다, 비서동지. 우리 그 생활궤도에서 탈선되지 않기 위해 왁 달라붙어 도배를 하겠습니다.》

《아니, 벼단운반에 지장되지 않을가.》

《아닙니다. 몽땅 달라붙으면 쉬는참에라도 끝낼수 있습니다.》

휴계실도배로 북적거리는 가운데 한 애어린 처녀가 하얀 편지 한장을 손에 들고 사붓이 나타났다. 그는 머리를 갸웃거리며 누군가를 찾았다.

《별옥동무, 편지…》

풀칠을 마치고 어수선한 방바닥을 거두던 별옥은 얼굴을 반짝 쳐들었다.

《우편통신원이 왔댔나?》

《네, 방금전에.》

별옥은 서둘러 마른 걸레에 손을 닦고는 다시금 손을 바지슬기에 문지르며 편지를 받았다.

그 순간 사내스러운 우둥퉁한 처녀가 번개같이 별옥의 손에서 그 편지를 홱 나꾸어챘다.

별옥은 의례히 당해오는 일인듯 《넌 또…》하고 그를 밉지 않게 흘기며 상그레 웃었다.

우둥퉁한 처녀는 한두발자국 물러나 역시 번개같은 눈길로 겉봉에서 주소이름부터 찾았다. 그러나 그는 군사우편대호가 첫눈에 뜨이자 《음, 또 별우구나.》하고 짐짓 실망의 표정을 지으며 편지를 도로 내밀었다.

《호호, 애두. 별우 아니면 나한테 편지 올데가 있나 뭐…》

호기심많은 처녀들은 마치 자기한테 오는 기별이라도 있는듯이 별옥을 빙 에워쌌다.

편지를 들고온 처녀가 《정말 별옥동무는 남달라. 달이 멀다하게 동생하구 편지가 오가구…》하고 입을 열었다.

나이가 좀 들어보이는 얼굴이 둥실한 처녀가 《얘, 별옥동무는 동생이 군대나갈 때 다섯정거장이나 따라가며 바래우기까지 했단다. 얼마나 극성이게.》 하고 더 보태였다.

이때 처녀들속에서 누군가가 《별옥동무네 오누이는 진짜 비둘기오누이라니까.》하고 부러워했다.

《얘들두… 동생편지 받은걸 가지구 뭘 그러니. 그럼 내 동생의 편지를 함께 읽어보자꾸나!》

별옥이 비밀도 아닌 동생편지를 들고 논두렁에 앉자 처녀들도 그의 두리에 반원을 그리며 바투 다가앉았다.

별옥은 《그리운 누나, 안녕하세요?…》하고 입안소리로 읽다가 집안의 문안대목은 슬쩍 넘기였다.

《…누나, 나는 지금 평북땅 토지정리전투장에서 이 편지를 써요.》

처녀들은 별안간 웅성거리였다.

《뭐, 토지정리전투장…》

《평북땅에서도 토지정리로 불이 붙었구나!》

《얘, 빨리 읽어라!》

《쉿!…》

처녀들의 이구동성의 말소리는 잦아들고 별옥이 편지 읽는 소리만 또랑또랑 울렸다.

《누나,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펼치신 토지정리구상에 따라 지금 토지정리전투에 힘차게 돌입했어요.

불도젤의 억센 삽날로 두둑한 땅을 대패질하듯 평지로 만들고 제가닥으로 뻗은 논두렁들은 통밀이하여 논배미들을 규격포전으로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거창하고 보람찬 전투인지 누나는 모를거예요. 우리에게는 낮과 밤이 따로 없어요. 누나, 내 고향 룍새벌의 마판진수렁도 정리한다지요! 그 소식을 편지에서 읽고 전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그것만 정리되면 사랑하는 고향은 참으로 멋지게 변모되겠지요. 그날이 선하게 그려져요. 누나, 우리 서로 경쟁을 하자요. 나는 평북땅에서, 누나는 룍새벌에서 승리의 기발을 경쟁적으로 꽂아나가자요. …》

편지를 읽는 별옥의 가슴은 격정으로 벅차올랐다.

오늘따라 동생이 더 그립고 그가 말하는 전투장으로 달려가고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 장쾌한 전투장면을 귀로 듣기보다 제 눈으로 실지 보고싶었다.

한편 동생의 경쟁호소까지 접하게 되자 공사에 하루빨리 몸을 적시고싶은 마음이 불일듯 했다. 한시 급히 벼단을 모조리 꺼들이고 공사에 뛰여들어 정말 동생과 경쟁을 벌리고싶었다.

아까 편지를 들고온 처녀도 별옥이와 같은 심정인듯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는 언제면 공사에 붙게 될가? 별옥의 동생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초조해져요.》

《글쎄말이야. 사실 마판진수령이야 우리 작업반거나 같지 않니. 우리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것 같구나. …》

얼굴이 둥실한 처녀도 걱정스럽게 말하였다.

하여튼 별우의 편지가 그들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킨것만은 사실이였다.

이때 잠자코 있던 우둥퉁한 처녀가 별안간 틀진 자세를 해가지고 연설조로 말하였다.

《녀성돌격대원동무들! 모두 기세를 올립시다. 벼단꺼들이기에서도 앞장에 서구 저 괴물을 메꾸는데서두 선봉이 되구. 그래서 저 괴물터우에 옥토벌을 척 펼쳐놓구서 쌀더미를 옥련봉높이만큼 쌓아놓은 다음 저.》 하고 별옥을 손짓으로 가리키며 《저 기수를 따라 우리 작업반, 우리 분조가 진군길의 앞장에 서잔 말이요!》

그의 익살이 슴밴 말에 호응하듯 처녀들은 박수까지 쳤다.

요즘 인혁은 벼탈곡전투를 장악추진하면서 공사의 조련찮은 준비작업을 따라세우느라 련일 경황없이 드바삐 지냈다.

그러던 어느날, 그가 자리를 뜬 사이에 마판진수령횡단도로부설에 41호뜨락또르를 들여세우는 문제를 놓고 돌격대원들속에서 물의가 일었다.

조수환의 참혹한 실패를 념두에 둔 축들은 수령밑창까지 다 언 다음(사실상 혹한에도 밑창까지 어는 일은 없었다.) 사달이 없게 하자거니, 딴 축들은 갈수기겠다, 밑물도 얼마간 찐것만큼 더 공론말고 들이밀자거니 의견들이 많았다. 한편 그런 배심도 없이 수령메꿀 용단은 어떻게 내렸는가, 손로동으로 아물대다가는 알맞는 철을 다 놓치고말것이라는등 만만치 않은 주장들도 분분하여 장선이는 그만 난처해졌다. 리당비서만 곁에 있어도 즉석에 흑백이 갈라졌을것이였다. 그런데 인혁은 공교롭게도 군당에 들렸다가 토지건설사업소에 머물고있었다.

무슨 문제든 즉석에서 처리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장선은 곧장 현장사무실로 달려가 군토지건설사업소에 전화를 걸어 리당비서를 찾았다.
《비서동지, 제 장선입니다. 마판진수렁복판 작업도로를 뽑을 자리에 뜨락또르를 들여세워보려고 합니다.》
인혁은 그 말에 펄쩍 뛰였다.
《정신들 있소? 그 함정에 벌써 뜨락또르를 들이밀다니?!》
《비서동지, 밀물도 그만하면 거의 찐것 같구 땅도 꾸둑꾸둑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욱욱합니다.》
그래도 인혁은 믿지 않았다.
《모를 소리요. 지금상태로는 뜨락또르중량을 절대 못 받소. 너무 조급하게 굴지 말고 관리일군들과도 잘 토론해보오.》
장선은 서로 주장들이 엇갈리는것도 있지만 들여세우자는 절대다수 의견들이 강경하다는 설명을 간곡하게 하였다.
《비서동지, 중량을 떠받들게끔 바퀴에 덧신을 큼직하게 해신기자고 합니다. 한초가 새로운데 주저말고 당장 들이밀자고들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인혁은 무슨 생각에 잠긴듯 한동안 아무 응대도 없었다.
《비서동지, 제가 이미 8작업반에 나가있는 변부위원장동지를 만나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장선은 행정일군들의 사전동의없이는 리당비서가 단독결심을 절대 앞세우지 않으리라는것을 미리 간파하고 변부위원장한테 떼를 쓰다싶이 하여 끝내 동의를 받았던것이다.
《대장동무, 정 그렇다면 다시한번 심중히 토론하고 실수없이 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드시오.》
《알았습니다! 리당비서동지…》
장선은 생억지다싶이 하여 인혁의 동의까지 얻자 승기가 올라 달려왔다.
《어떻게 됐습니까?》
《리당비서동지가 동의했습니까?》
《승인받은게구만!》
맥을 놓고 수굿이 앉아있던 돌격대원들은 장선의 승세를 보더니 저마끔 물었다.
《됐네! 동의받았네!》

장선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기 바쁘게 《야!》 합성과 함께 《자, 불이 번쩍나게 다그치세.》 하는 웨침소리가 청년들의 기세를 돋구었다.
더러 주저하는 축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머리를 기웃거리며 덤덤해하였다.
그때 대장간에서 이 소식을 들은 채아바이가 얼굴빛이 새까맣게 질려가지고 달려와 갑작소동을 일으켰다.
《아니, 자네들 도대체 정신들이 쑥 빠지지 않았나, 응? 무슨 참변을 당할려구 저 무서운 아가리에 뜨락또 들이밀어? 당장 걷어치우라구!》
채아바이는 그 작은 눈망울이 금시 튀여나올듯 휘둥그래져 소리소리 질렀다.
장선은 씩 웃으며 《아바이, 마음 놓으십시오. 그래서 큼직한 쇠바퀴랑 달지 않았습니까.》하고 범상하게 말하였다.
《그 잘난 세바퀴구 네바퀴구 내 안된다면 안되는줄 알게. 옛날에 호랑이두 꿀꺽 삼켜버렸다는 진수렁에 그 무쇠바위같은걸 들이밀다니, 환장들 했나.》
《채아바이!》
《글쎄 당장 그만두라는데두!…》
채아바이가 너무도 기급해하는 서슬에 속대 약한 운전수는 그만 지레 겁을 먹고 주춤거렸다.
장선은 채아바이의 타이름에는 하등 개의치 않고 운전수더러 빨리 운전대를 잡으라고 독촉했다.
그러나 운전수는 얼친것처럼 멍해서 움직일념을 안했다.
《여, 돌격대장인 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질 않나. 뭘 그렇게 담이 작아가지구 그래. 빨리 오르라구.》
그랬지만 운전수는 머리를 수굿하고 서서 얼굴에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장선은 경멸의 눈초리로 운전수를 쏘아보다가 결김에 씽 운전칸에 날아올랐다. 그리고 운전대를 잡은 다음 뜨락또르를 수렁판모퉁이에 들여세우기 시작하였다.
본래 이 진수렁판은 갈수기에 겉면은 그리 질척해보이지 않아도 일단 짐이 실리면 천천히 빨아들이는 무시무시한 괴물같은 성질이 있었다.
운전수의 진저리나는 비겁성에 결이 잔뜩 오른 장선은 입을 꾹 다

물고 표식을 따라 뜨락또르를 조심스럽게 몰았다.
　공사장은 일시에 숨을 멈춘듯 조용해졌다.
　돌격대원들은 모두 손에 땀을 쥐고 숨소리 하나없이 위태위태한 눈길로 뜨락또르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공사장에는 오직 퉁당거리는 뜨락또르동음만이 울려퍼지고있었다.
　장선이는 운전칸에 날아오를 때의 자신만만하던 기세와는 달리 뜨락또르를 퍼그나 조심히 몰았다.
　그는 정작 진수렁에 들어서서야 자기의 행동이 어쩐지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어 사뭇 긴장하여 헛눈 한번 팔지 않고 앞만을 주시했다.
　아니나다를가 여나문발자국 될가말가한 거리를 지났을가 하는 찰나! 뜨락또르 뒤꽁무니가 서서히 내려앉는듯싶더니 미처 볼 겨를도 없이 차체가 통짜로 수렁창에 푹 빠져들었다.
　《아뿔싸! 종내 뜨락똘 잡는군!》
　채아바이가 무릎을 탁 치며 새된 비명을 질렀다.
　마치 수렁우에 뜨락또르가 있었다는것을 표식해주기라도 하듯 지붕만이 가까스로 남아있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무서운 사태앞에 황급해난 돌격대원들은 《악!》 비명을 지르며 와—악 달려나가다가 무엇에 찔린듯 무춤하고 일시에 멈춰섰다. 당황망조한 그들은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 헤덤비며 벅적 떠들어댔다.
　《저걸 어찌나…》
　《대장동무—》
　《반장동무우—》
　이때 수렁물에 그대로 잠겼던 장선이 감탕투성이가 되여 운전칸옆으로 솟아나왔다. 그리고는 기슭으로 헤여나왔다.
　돌격대원들은 왁— 달려들어 장선의 팔을 붙잡아끌어올리고 어떤 돌격대원들은 물바께쯔들을 급히 들고 달려와 장선에게 마구 물을 들부었다. 그리고는 즉시 옷을 갈아입히려고 장선을 서둘러 휴계실로 데리고갔다.
　힘이 억척같은 철마도 일단 진수렁에 삼키우자 움쩍을 못하는 한낱 무쇠덩이에 불과했다.
　언제 보고받았는지 조수환이 얼굴빛이 거멓게 질리여 반달음을 쳐왔다. 그는 뜨락또르형체는 보이지 않고 지붕만 남은 수렁창을 억이

막혀 지켜보았다.
그는 혼자소리로 중얼거리였다.
《한다는짓들이란…》
고양이손도 빌리고싶은 때 뜨락또르를 진수렁에 처넣다니! 벼단을 등짐으로 꺼들이면서도 공사에 더 신경을 써 잘 정비해보내준 뜨락또르를 이 지경 만들다니! 수환은 성이 독같이 올랐다.
정말 분통이 터질노릇이였다.
(내 이럴줄 알았어. 그래서 목이 터지도록 말렸는데도 종시 귀넘어 듣더니…)
수환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으나 많은 사람들앞이여서 꾹 눌러 참았다.
마치도 이 사태가 자기가 실패한 그 쓴걸음을 되밟으며 난감한 곡절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같아 속이 자못 언짢았다.
그날 밤 관리위원회의 총화모임에서는 뜨락또르사고문제가 위주로 신랄하게 비판되였다.
총화모임공기는 전례없이 팽팽하였다. 정장선은 얼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었다. 한참동안 실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수환의 확성기청이 무겁게 짓눌린 침묵을 깨뜨렸다.
《장선동무, 이젠 어쩔셈이요, 엉?》
그는 위엄을 돋구듯 큼직한 쇠재털이를 탕 사무탁에 옮겨놓으며 열기를 올렸다.
《그래 동무가 뜨락또 대신해서 최뚝깎기를 하겠는가, 운토기를 끌겠는가, 엉? 어디 좀 말해보란 말이요.》
《어떤 수를 쓰든지 끌어내여 모레까지는 원상대로 해놓겠습니다.》
《끌어낸다?! 뭘루? 배기통숨구멍까지 감탕이 찼겠는데 어떻게 끌어내? 직승기루?》
그 말에 누군가 킥 하며 웃음소리를 냈다.
《저렇게들 철딱서니 없으니까 그런 놀음을 하지… 그래 동무 눈엔 뜨락또르가 제 장난감같이 보이는가, 죽을 죄를 짓구두 도무지 일을 저지른 사람같지 않구만.》
이때 인혁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다.
문소리에 초급일군들은 돌따보며 엉거주춤 허리를 들었다가 도로 앉았다.

인혁은 방안의 팽팽한 공기를 직감한듯 천천히 창문밑 의자에 가 수환과 모로 꺾어앉았다.

그는 군에서 돌아오자마자 사고정형을 보고받고 서둘러 들어선것이였다.

수환은 청을 돋구며 말을 계속하였다.

《동무는 일개 운전수가 아니라 작업반장이구 돌격대장이야, 엉? 현장에 리당비서동무두 없는 때에 무슨 밸통으로 그런 망동을 부렸는가 말이야, 중뿔나게. 엉?…》

그때까지 찍소리 못하고 잠자코 있던 장선의 얼굴에 울기가 확 타올랐다. 언제인가도 관리위원장은 이 공사의 발기를 쌍수를 들어 지지해나서는 자기더러 중뿔나게 나서서 남들한테까지 키질을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은 일이 있었다. 속이 확 뒤집혔다. 그는 자제력을 잃고말았다.

《위원장동지, 과오는 심중히 검토비판받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뿔나게 나선다는 말씀의 본질은 뭡니까. 꺽하면…》

이때 렴지춘이 말틈에 끼여들었다.

《반장동무, 위원장동지가 제기된 문제를 놓고 비판하는데 뭘 잘했다고 반발이요?》

《상급에 대한 태도가 불손했다면 고칩시다. 그렇지만 우리 일군들이 공사에 대한 립장만은 명백했으면 합니다. 중뿔나게 논다는 말은 내 한두번만 듣는게 아닌데 그래 그 말이 안될 일에 눈꼴시게 나서서 춤춘다는 뜻이 아닙니까?》

수환은 그만 화가 동하여 그의 말허리를 뭉텅 잘랐다.

《여, 동무! 이제 보니 동문 결각질하는 버릇을 아직 못 뗐구만, 엉? 그래 여게 공사를 달가와 안하는 사람이 대체 누구요? 바로 그렇게 말하는게 중뿔난거란 말이요, 엉? 운전수를 제껴놓구 뛰여드는것두 중뿔난거구. 하나하나 튕겨줘야 알겠는가.》

그는 쓰거운 표정을 짓고 침울한 낯빛으로 앉아있는 인혁을 넌지시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인혁이 자네도 속이 매우 쓰릴테지. 보라구, 자네가 한팔처럼 믿는 돌격대장 꼴이 과연 어떤가. 그가 지금 얼마나 어망처망한 일을 저질러놓았는가. 아마 자네가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넋을 잃었을거네. 자네 저런 녀석들을 믿구 일을 벌려놓더니 보게, 첫시작부터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가. 앞으로 무슨 변인들 안 생기겠나. 두고보게. 자네도 앞으로 내 걷던 길 그대로 따라걷다가는 필경 패자의 쓴맛을

보게 될거네.)

수환의 눈앞에는 문득 소학교시절 마판진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사색이 된 얼굴로 자기를 찾던 인혁의 모습이 삼삼히 떠올랐다.

원래 마판진수렁구역이 위험천만하기때문에 부모들은 아이들이 그리로 얼씬하지 못하게 엄격히 단속했었다. 그런데 본시 장난이 세찼던 수환은 어느날 인혁을 꼬드겨 마판진수렁에 가물치잡으러 갔었다. 덜렁거리는 수환이였지만 진수렁에 들어서려면 긴 장대가 있어야 한다던 어른들의 말이 피끗 생각나 자기 키의 세곱이 넘는 장대기를 하나 얻어메고 앞장섰다.

그런데 자기가 신발을 벗는새에 인혁이가 먼저 수렁판초입에 들어서다가 순식간에 수렁에 빨려들기 시작했다. 그만 기겁하여 얼굴빛이 까맣게 질린 인혁은 《수환아.》하고 울음섞인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가슴이 덜컹 내려앉은 수환은 제잡담 수렁에 뛰여들려다가 피뜩 장대기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급급히 장대기를 가져다 허둥거리며 한쪽끝을 인혁에게 내밀며 《인혁아, 꼭 잡아라ㅡ》 하고 소리를 내질렀다. 겨드랑밑까지 수렁에 빨려들던 인혁은 이를 사려물고 가까스로 장대기끝을 두손으로 꼭 움켜잡았다. 덩지크고 힘꼴이나 쓰는 수환이도 수렁기슭에 두발을 죽기로 뻗치고 《인혁아, 꼭 잡아라ㅡ 놓치면 죽는다!》 하고 숨막히는 소리를 지르며 악을 썼다.

간난신고끝에 온몸에 감탕범벅이 된 인혁을 가까스로 수렁에서 끌어낼수 있었다. …

수환은 수십년전의 아득한 일이 왜 별안간 떠올랐는지 자기로서도 모를 일이였다.

(오늘사고가 그때의 일과 일치한데 있기때문일가?…)

14

안개인지 구름인지 뿌옷하게 서린 서쪽산마루에 희미한 해가 어설프게 걸리고 음산한 저녁바람은 어둠을 재촉하고있었다.

지칠대로 지친 돌격대원들은 최뚝우에 아무렇게나 퍼더버리고 앉아

있었다.
수령판의 걸쭉한 감탕물이 뜨락또르운전칸 지붕우에서 굼실거리며 청년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통나무며 바줄,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켰지만 인력으로는 뜨락또르를 꺼내는 수가 없었다.
장선은 궁지에 빠져들었다. 공사를 지연시키게 되고 리당비서 인혁을 난처하게 만든 자신이 저주로왔다.
(리당비서동지가 그렇게도 우려하는걸 내가 제멋대로 행동하여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그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허둥거릴 때 문득 옥천리기계화작업반에서 본 불도젤이 생각났다.
불도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기계화반은 여기서 멀기도 했지만 지금 불도젤들이 다른데 나가 작업한다고 했지.
옥천리기계화작업반으로 가자. 여기서 가깝기도 하거니와 반장을 만나면 모르는척 할수 없다.
(내 왜 그 생각을 못했담.)
장선은 무작정 옥천리로 줄달음쳤다.
마침 마당에 나와 무엇인가 손질하던 홍현실은 숨이 턱에 닿아 불쑥 나타난 장선의 그늘진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도록 놀랐다. 한순간 그는 섬찍한 생각이 앞서 선자리에서 굳어졌다.
그는 헤덤비며 설명하는 장선의 말을 가려들으며 얼굴에 아연해하는 빛을 띠였다.
《그래 다른 사고는 더 없었나요?》 하고 현실은 다급하게 물었다.
장선은 놀라는 현실의 근심어린 눈에서 눈길을 떼며 기죽은 목소리로 변명하였다.
《일은 그렇게 된겁니다. 전적으로 내 잘못이지요.… 처벌은 내가 받는다 해도 당장 뜨락또르를 꺼내는것이 문제입니다.》
현실은 자기도 모르게 호― 한숨을 쉬였다. 다음순간 장선의 얼굴에서 자기에 대한 기대를 읽은 현실은 《잠간만 기다려주세요.》하고는 급히 사무실로 달려갔다. 그는 전화로 관리위원회의 승낙을 받은 다음 즉시 불도젤운전수를 불러 과업을 주는것이였다.
《불도젤을 가지고 어서 떠나세요. 나도 뒤따라가겠어요.》
현실이 장선에게로 돌아서며 말했다.

잠시후 마당에서 둔탁한 소음과 함께 배기가스의 동그라미를 무수히 날리더니 무한궤도를 삐거덕거리며 육중한 불도젤이 다가왔다.

장선은 목멘 소리로 《현실동무, 정말 고맙소.》 하고 말하며 운전수옆에 올라앉았다.

장선의 촉급해하는 심정이 현실의 마음에 그대로 옮아간듯 그는 운전수더러 빨리 떠나라고 독촉했다. 그래도 마음 놓이지 않는듯 걸음을 뗀 불도젤이 제대로 가는가 갈림목까지 나와 살펴보았다.

현실은 마치도 회오리바람이 마음속을 휩쓸고 지나가버린것처럼 한동안 허탈감에 사로잡혀있었다.

자기를 굳이 믿고 허둥거리며 달려온 그의 심정이 어쩐지 측은하게 생각되였다. 하던 일을 끝내고 자기도 빨리 따라가 운전수와 함께 뜨락또르를 꺼내는 일을 도와주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불도젤은 둔탁한 동음을 울리며 마판진수렁변두리에 들어섰다. 그 요란스러운 동음은 뜨락또르구출작업장우에 무겁게 드리웠던 침울한 정적을 순식간에 가셔주었다.

막막한 심정이 되여 맥을 놓고 퍼더버리고앉아있던 돌격대원들은 불도젤동음에 놀라 일제히 시선을 그리로 돌렸다. 돌부리를 타고넘는 무한궤도의 아츠러운 소리와 함께 불도젤이 작업장으로 육박해오자 처음엔 모두들 어리둥절해졌다. 이때 불도젤운전칸에서 장선이 웃몸을 쑥 내밀며 팔을 휘저어서야 돌격대원들은 벌떡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돌격대원들은 일시에 와— 하고 마주 달려갔다.

장선은 운전칸에서 훌쩍 뛰여내렸다.

돌격대원들은 삽시에 불도젤을 에워싸고 고맙다는 인사말도 하고 운전수의 손을 잡아흔들기도 하며 담배도 권했다.

불도젤의 출현은 작업장분위기를 급변시켰다. 모두들 기세충천하여 서두르기 시작했다.

운전수가 담배 한대 피우는 사이에 돌격대원들은 재빠른 솜씨로 뜨락또르와 불도젤에 쇠바줄을 맞걸었다. 불도젤이 용을 썼다.

돌격대원들은 감탕속에 뛰여들어 헤염치다싶이 하며 뜨락또르를 밀어냈다. 감탕의 미끄럼힘에 의해 기슭까지는 순조롭게 나왔으나 뚝우로 끌어올리는 일이 힘들었다.

쇠바줄이 끊어져나가고 숨죽은 뜨락또르는 도로 밀려나고… 간난

신고의 전투가 벌어졌다.
용을 쓰는 불도젤, 바줄을 우에서 당기는 사람들, 고임목을 받치며 뜨락또르동체를 떠받들어 미는 사람들로 작업장은 그대로 결사전을 방불케 하였다.
그때 현실이 나타나 불도젤운전수를 도와 뜨락또르를 끌어올리는데 한몫 한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긴장한 전투속에서 장선이와 한두번 눈길교감을 했을뿐이였다.
천만신고하여 마침내 뜨락또르를 감탕속에서 끌어냈다..
감탕에 잔뜩 매닥질이 된 뜨락또르몰골은 말이 아니였다. 그래도 다행이였다.
뜨락또르를 구원한 기쁨으로 작업장은 한동안 흥성이였다.

41호를 건져낸 후에도 인혁의 마음은 편안치 않았다. 가뜩이나 적잖은 사람들이 우려하던 공사의 첫걸음에서 그토록 엄청난 사고가 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더구나 장선을 두고 생각이 많아졌다.
그처럼 숫지고 성실하게 보아온 인간이 엄청난 일을 저지를수 있는가.
언젠가 그의 할머니 박춘선이 해주던 말이 귀에 생생했다.
《장선이녀석은 일욕심은 타고났다우. 글쎄 제대돼서 뜨락또르를 몰 때 모내기철이면 너무 극성을 부려 이 늙은게 아침저녁으로 밥구럭을 들구 따라다녔다우. 한번은 논두렁우에 심평좋게 네활개를 펴구 누워선 드렁드렁 코를 고는게 아니겠수. 내 너무 어이없어 〈원 녀석두, 감기들겠다. 이러다간 온 록새벌논두렁이 다 네 잠자리루 되구말겠구나.〉하구 기가 차서 웃고말았다우. …》
그러면서도 박춘선은 손자가 대견하여 떡판같은 그의 잔등을 아이때처럼 애정담아 쓸어주군 하였다.
인혁은 장선을 초급일군들가운데서 첫손가락에 꼽아왔다. 그만큼 장선이 믿음이 가는 청년이였던것이다.
사실 장선은 제대되여오면서도 마을에 들어서는 길로 집으로가 아니라 관리위원회를 먼저 찾았다.
관리위원회에서 무슨 모임인가 하고 나오던 농장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제대배낭을 멘 름름한 장선의 모습을 보면서 반가와 어쩔줄 몰라했다.
《이게 누군가, 대추나무집 손자구만. 에그, 끌끌하게 번지기두 했

네.》

《박춘선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가. …》

저마끔 그를 붙안고 한마디씩 하였다.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얼마전에 저세상사람이 되였다는 말은 차마 입밖에 내지들 못하고 야속한 눈물만 지었다고 한다.

인혁은 금주리에 와서 이렇듯 눈물겨운 이야기를 전해들으며 장선에 대한 보다 애틋한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장선을 아이적부터 남달리 사랑해온데도 있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는 그한테 애중한 마음이 더 쏠리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런데 수환이는 장선을 달리 보는것이였다. 아무때나 장선이라면 분별력이 없는 풋내기초급일군으로 취급하였다.

언제인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이 참가한 생산총화모임에서 그가 수환에게 의견을 제기한것이 그를 잘못 보게 된 계기로 되였다고 한다. 그때부터 장선은 골받이군으로 점찍히우고 수환의 눈밖에 나게 되였다는것이였다.

인혁이 장선이네 집을 방문하였을 때 장선의 할머니 춘선은 인혁의 손을 잡고 눈물이 글썽하여 당부했었다.

《이 사람 인혁이, 손주녀석을 단단히 이끌어주게. 하필 그 사람하구 덧날건 뭐람. 그편이야 간부구 나이루두 웃사람인데 우리 장선이가 후레자식처럼 놀지 않게 잘 이끌어주게나.》

인혁은 춘선을 안심시켰다.

《어머니, 장선은 농장의 기둥감입니다. 념려마십시오.》

《그렇지만 그가 어디 순이 아버지같을가. 사람은 신칙시키기탓인데… 수환이 그 사람도 마음이 내키지 않는지 우리 집에 발길이 점점 떠지는데 어쩐지 사람이 그전같질 않네.》

《어머니, 명심하구 잘 돕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과단성 없는 행동때문에 일이 크게 번져졌으니 어떤 수습대책이 필요할것인가.

인혁은 번거로운 상념에 잡혀 2작업반으로 간다는것이 4작업반쪽 길에 접어들어 한참동안 걷다가야 《허허…》웃으며 걸음을 되돌렸다.

그는 탈곡장앞에서 2작업반장을 만났다. 서글서글하고 붙임성이 좋은 2작업반장은 어느때나 자기의 생각을 거침없이 터놓는 안팎이 따로 없는 일군이였다.

《비서동지, 이번에 1반장이 뜻밖의 사고를 친것두 결국 일욕심때문이였지요. 우리 반장들의 생각들도 그러합니다. 그날 그가 결기를 누르지 못한것두 그릇된것을 보고 참아내지 못하는 곧은 성미때문으로 봐야지요.》

인혁은 장선의 속내를 꿰뚫어보는듯이 말하는 2작업반장의 눈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장점을 귀중히 여기는 일군의 눈이란 대체로 그러하였다.

그럴수록 인혁은 그날 장선의 제기를 심중히 대하지 못한 회오가 다시금 마음을 괴롭혔다.

심각한 교훈이였다. 그는 작업반들의 탈곡정형을 돌아보면서도 이래저래 마음이 가볍지 못했다.

인혁이 작업반들을 돌아보고 사무실에 들어와 피곤에 몰려 잠시 눈을 감고 앉아있는데 《똑, 똑!》 문두드리는 손기척이 나는것 같았다. 인혁은 자신이 착각을 했나 하면서도 문쪽에 귀를 기울였다.

잠시후 누군가 다시 문을 똑똑 두드리였다.

《들어오시오!》

인혁은 누가 자기를 지켜보는듯 한 륙감을 느끼며 얼굴을 들었다. 순간 그는 어리둥절해졌다.

순이가 방그레 웃으며 문가에 서있지 않는가?!

눈앞에 그려보던 장선이며 수환은 어디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순이가 오뚝 서있을가?…

《리당비서동지, 군중관점을 바로세워야 하겠습니다.》

순이는 어른말투를 흉내내며 말했다.

《그렇게 문을 두드리는데두 대답않구… 들어와 서있는데두 그냥 코만 고시구… 호호호.》

인혁은 그제야 자기가 그 어떤 환각에 사로잡혀있었다는것을 의식했다.

《아버진 몹시 피곤하신가봐.》

《네가 어떻게 갑자기…》

《내가 오문 안되나요 뭐.… 초저녁부터 눈이 빠지게 기다려두 집에 안 들어오시길래 아버지두 보고싶구 내가 골라드린 책이랑 보시나 검열도 할겸.》

《허허…》

《참 아버지, 군대나간 박충일오빠의 소식을 들었어요?》
《박충일?》
어디서 들은 이름 같기도 하고 낯선 이름 같기도 했다.
《거 있잖아요. 7작업반장을 하던…》
《아하, 그러니 진혜정의 아들 말이지?》
《예, 맞아요. 글쎄 얼마전에 중대에 오신 아버지장군님께 자기들이 준비한 예술소조공연도 보여드리구 장군님을 모시고 기념촬영도 했대요. 우리 청년작업반동무들은 모두 자기 경사처럼 기뻐하고 부러워들 해요!》
인혁은 귀가 번쩍 티여 다우쳐물었다.
《너희들은 그 소식을 어디서 들었니?》
《어제 선초가 어머니면회 갔댔는데 며칠전에 혜정어머니가 충일오빠의 편지를 들구 막 달려왔다질 않아요. 그 어머닌 너무 기뻐서 막 눈물 흘리며 어쩔줄을 모르더래요. 선초도 자기 어머니한테 가져온 편지를 보았대요.》
그는 막내가 진짜 소식통은 소식통이라고 내심 탄복했다.
일순 허전했던 마음이 개운해짐을 의식했다.
아들소식을 알리려고 20리길을 달려가 윤옥경과 기쁨을 함께 나눈것을 보면 김서분의 말대로 그들관계가 매우 자별하다는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였다.
그는 어쩐지 순이가 기특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닝큼 안아올렸다.
순이는 다급하게 소리질렀다.
《어마나, 아버지… 내가 아직 5살잡이에서 벗어나지 못한것으로 보지 않아요.》
순이는 인혁의 어깨를 주먹으로 다듬이질했다.
인혁이가 내려놓자 순이는 깔깔 웃어대며 《아버지두, 오늘은 웬일이야요, 별스럽게. …》 하고 눈을 곱게 흘기였다.
인혁은 순이의 어리광을 받으며 좀더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싶었지만 오늘중에 처리해야 할 일때문에 그럴수 없었다. 그가 등을 떠밀자 순이는 다짐을 받았다.
《아버지, 인차 뒤따라와야 해요. 알겠어요? 내가 기다린다는걸 잊지 마세요.》
순이는 문득 생각이 난듯이 돌따서며 물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시지 않아요?》

《무슨 날인가구?…》

인혁은 순이가 손가락으로 짚는 벽에 걸린 달력날자를 보고서야(아, 그랬댔군.) 하고 은근히 놀랐다. 안해의 생일이였다. 내가 그걸 잊다니?!…

다음날 아침 인혁은 장선을 데리고 공사장에서 노루등까지의 구간을 밟아보기 시작했다.

인혁은 묵묵히 뒤따르는 그를 돌따보며 《그래, 인제는 좀 정신을 차렸나?》하고 선선히 말하였다.

장선은 자책감이 어려있는것 같으면서도 주저없이 대답하였다.

《학질을 뗐습니다.》

《학질을 뗐다? 하하…》

인혁이 시름을 잊은듯 호탕하게 웃자 장선이도 덩달아 웃었다.

《장선이, 이 공사를 하루라도 앞당기고싶은 불같은 마음이 누군들 없겠나.

그런데 첫걸음에 뜨락똘부터 덜컥 잡았으니 위원장동무가 노발대발할만두 하거던. 그건 리해해야 돼.》

《예, 저도… 정말이지 할말이 없습니다.》

《한때 이 공사에 얼을 뽑히구 두려워하는 사람들두 있는 때에 끔찍한 사고를 냈으니 그들의 기를 또 꺾은게 문제란 말이요.》

인혁은 이렇듯 심중한 말을 하면서도 무조건 설치해야 할 소철레루 위치를 가늠해보고있었다.

《그날 왜 위원장동무에게 올리받쳤소?》

《너무 흥분했던김에 그만…》

《너무 흥분했다? 왜 흥분했댔소?》

장선은 숨을 크게 내쉬며 천천히 자기 마음을 툭 털어놓았다.

《사실 중뿔나다거니, 우쭐해졌다거니 하는 말들이 몹시 마음에 거슬렸습니다. 너까짓것들이 쭐렁거리며 나서야 무슨 일을 치겠느냐는 소리가 격분스럽더란 말입니다.》

《의견이 있으면 공명정대하게 제기해야지 순간을 못 참아 올리받는 식으로 도전하면 서로 감정만 악화시킬뿐이고 얻을건 아무것도 없지.》

인혁은 잠간 서서 땀을 들이며 한숨을 돌리였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하더구만.》

인혁은 능청스러운 눈길로 그를 떠보듯 쳐다보았다.

그는 서슴없이 자기 속생각을 툭 빠개놓았다.

《비서동지앞에서 뭘 숨기겠습니까. 전 사실 잘못을 알고 속으로 뉘우치면 되는거지 즉석에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을 번지기가 죽기보다 싫습니다. 비굴하다 할지, 자존심이 상한다고 할지. …》

인혁은 그 말에 눈이 휘둥그래져 웃으며 말을 계속했다.

《하하… 그래. 이제 보니 정장선의 속대가 여간 아니군. 하지만 동지들앞에서 또 옳은 일앞에서는 자기를 낮출줄도 알아야 하는거요. 그것은 비굴이 아니라 강의한 의지의 표현이란 말이요.》

《비서동지말을 듣고보니 난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딱 리해되지 않는게 있습니다.》

《뭐요?》

《인민군대에서는 명령이면 오직 결사관철 하나밖에 모르는데 일부 농장일군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당에서 토지정리는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구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이라고 하면서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었는데 우리 일군들은 조직의 결정을 받아안았으면 〈알았습니다!〉하고 무조건 집행해야지 무슨 구실이 필요합니까!…》

《옳소! 바로 말했소!》

인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하였다. 장선이와 같은 이렇듯 신념이 투철한 사람들이 있는 한 공사는 문제없으리라는 신심이 솟구쳤다.

15

인혁이 리당사무실을 나서려는데 누구인가 자박자박 가까이 걸어오고있었다. 그는 뜻밖에 진혜정이였다.

인혁은 깍듯이 인사를 하는 진혜정을 보고 반색을 하며 《진혜정동무구만. 아침 일찌기 웬일이요?》 하고 물었다.

《비서동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렇소?! 내 마침 8작업반쪽으로 나가려는 참인데.》 하고 인혁은 작업신발끈을 조이며 말하였다.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눕시다.》

인혁은 자주빛수건으로 머리를 살며시 동여매고 회색작업복을 가뜬하게 입은 진혜정이와 나란히 큰길에 나섰다.

혜정은 갸름한 얼굴을 발깃하게 붉히며 머밀머밀 말을 꺼냈다.

《사실 저는 비서동지를 대할 면목이 없습니다. 저를 많이 욕하셨겠지요. 전 원래 속이 좁은 녀자랍니다.》

《허허, 욕벌이를 할 사람 같으면 관리위원회게시판에 진혜정이라는 석자 이름이 대문짝같이 나붙었겠소, 원…》

그 말에 혜정의 밝은 얼굴은 또 발가우리해졌다.

7작업반에 나가 처음 만날 때 그처럼 범접하기 힘들던 그에게 이런 말도 꺼리낌없이 할수 있게 된것이 인혁이로서는 그저 놀랍고 기뻤다.

전과 달리 생기가 넘친 진혜정의 싱싱한 모습을 눈여겨보면서 사람들이 진심을 감득하면 스스로 본래의 순수한 제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것을 느끼게 되였다.

혜정은 작업복호주머니에서 소중히 간수했던 편지를 꺼내더니 수집어하며 인혁에게 조심히 내밀었다.

《이건 우리 충일이한테서 온 편집니다. 벌써 보여드려야 했을걸 제 생각이 짧다보니…》

인혁은 그 편지를 소중히 받아들었다.

《혜정동무, 경사요. 혜정동무 가정만이 아니라 온 농장의 큰 경사지요. 나두 요즘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직접 장군님을 뵈온것처럼 흥분을 걷잡을수 없더란 말입니다.》

인혁은 그 편지를 웃도리 안주머니에 정히 간수하였다.

《그간 혜정동문 마음고생이 컸겠는데 내가 제구실을 못하다보니 잘 돕지 못했습니다. 내 편지를 품놓고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에 진혜정은 저으기 당황해하며 《아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속이 좁고 트이지 못한탓에 일군들의 속을 무던히 태웠지요 뭐.》 하고 고개를 숙이였다.

그들은 7작업반쪽으로 쭉 뻗은 큰길로 천천히 걸었다. 인혁은 그

의 말을 부정하듯 근엄한 어조로 말하였다.
《그건 혜정동무의 속이 좁은탓도 아닙니다. 우리 일군들이 일을 잘 못하는데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혜정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앞이 뿌예졌다.
《요즘 혜정동무가 남들의 앞장에서 탈곡실적을 올리니 모두들 어찌나 기뻐하는지 내 가슴이 다 찡해지더란 말이요.》
혜정은 별로 실적을 올린것도 없이 그 말을 듣는것이 쑥스러운듯 얼굴을 붉혔다.
《비서동지, 전 지금도 비서동지가 처음 만나러 오셨을 때 너무 푸접없이 군 생각을 하면 막 부끄럽고 괴롭습니다.》
인혁은 7작업반탈곡장쪽에서 간간이 들려오는 벼종합탈곡기의 동음을 가늠하며 입을 열었다.
《혜정동무, 무슨 괴로움이 있으면 당조직부터 찾아야 하오. 지난 일이긴 하지만 마음속에 옹친 생각을 터놓지 않은건 당조직과 간격을 두고있는게 아니겠소. 솔직히 조직앞에서야 꺼릴것두 부끄러울것두 없지 않소. 말하기 거북하다구 속에 그냥 감추면 괴로울건 자기밖에 없단 말이요. 나두 그때문제를 두구 자신을 심각히 돌이켜보았소. 조직책임자가 미덥지 못했으니 속을 터놓기를 꺼렸을게 아니요.》
《아, 아닙니다. 그건 제가 옹졸했던탓에…》
진혜정은 황황히 그의 말을 부정하였다.
인혁은 잠간 말을 끊었다가 숨을 크게 내쉬며 계속했다.
《원래 동무야 유능한 선동원이구 로력혁신자가 아니였소. 난 그때처럼 꼭 되길 바라오. 그전처럼 김서분동무와 서로 겨루며 걸싼 일솜씨를 보인다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요. 그래야 포전에서 순직한 남편앞에, 군사복무를 잘하는 아들앞에 자랑스럽고 떳떳하지 않겠소! 어떻소, 혜정동무?》
진혜정은 그의 진정이 넘치는 다심한 충고에 어지간히 감동된듯 격정에 넘친 어조로 말하였다.
《비서동지,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옳게 살지 못했는데 꼭 고쳐나가겠습니다.》
진혜정은 자책에 잠겨 8작업반쪽으로 멀어져가는 리당비서의 뒤모습을 바라보았다.

16

수환은 공사로력조절문제를 협의하려고 출근길에 리당에 들리였다.

그런데 인혁은 매우 언짢은 기색으로 앉아있었다. 인혁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모습은 처음이였다.

사실 그는 4작업반에서 방금전에 제기해온 문제로 하여 심한 불쾌감을 걷잡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어제 거기에 나와있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농산과장이 사무장과 농장일군 여럿이 있는데서 이곳 책임일군들의 일처리가 여무지지 못하다거니, 이번사고가 소홀히 넘길 문제가 아닌데도 1작업반장에 대한 처리가 관대하다느니 하면서 엄중한 과오를 범한 사람을 그렇게 어루만져가지고서야 어떻게 그의 막돼먹은 버릇을 고쳐주겠느냐고 시비를 걸었다는것이였다.

워낙 농산과장은 가끔 농장에 나오면 그 누구도 안중에 두지 않고 거드름스럽게 처신하기때문에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보고 인혁이도 그의 사람됨됨을 두고 생각해오던터였다. 그런데 그가 농장의 한 초급일군처리문제를 두고 원칙적선에 서지 못하고 시비하는 식으로 나와서야 되겠는가. 더구나 장선에 대한 그의 시비가 어딘가 모르게 수환의 투와 근사한것이 인혁을 불쾌하게 만든것이였다.

수환은 의아스럽게 인혁을 쳐다보며 먼저 말문을 열었다.

《왜 그러나, 무슨 일 있었나?》

《위원장동무(그는 첫마디부터 공식적인 투로 말했다.), 대체 군농산과장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이야 우리 농장 작업반장출신으로서 능력자이고 경험많은 일군이지. 그런데 그건 왜 갑자기 묻소?》

수환은 그들사이에 그 무슨 수나롭지 못한 일이 있은것으로 짐작하며 시답지 않게 응대하였다.

《그 사람이 1반장처리가 유하다느니, 엄중시해야 할 대상을 어루

만진다느니 하면서 일하려는 열의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탕탕 한다는데 사실이요?》

《별걸 다 가지고 신경쓰누만. 아, 농산과장이야 우리 농장 담당이구 사고는 비밀두 아닌데 지도단위일군이 그런 말쯤이야 할수도 있지 않겠소.》

그 말에 속이 확 뒤집힌 인혁은 《그럼 그 사람의 말인즉 위원장동무의 립장도 대변했다는 소리겠소?!》 하며 힐문하였다.

《여보, 너무 딱딱스레 그러지 말구려. 그래, 장선이란 사람이 한두마디 비판에 제 버릇 고칠 사람이요? 아니…》

인혁은 장선에 대한 그의 험담이 시작될것 같아 툭 잘랐다.

《위원장동무, 사업원칙을 놓고 흐지부지하면 되겠소. 위원장동무도 리당위원으로서 그 동무에 대한 처리문제에 동의하지 않았소.》

수환은 놀라운 눈길로 인혁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만하시오. 그러지 않아두 일군들이 책임이 두려워서 장선반장문제를 어물쩍 넘긴다구 한다는데.》

《그 일군들이란 곧 수환이란 사람이겠지. 이제 와서 숨박곡질이 무슨 필요있겠소.》

이때 손기척을 내며 계획부원이 조심히 문을 열고 인혁에게 군협동농장경영위원장이 수환을 전화로 찾는다고 알리였다.

낯빛이 시퍼래서 인혁의 말을 듣고있던 수환은 자리를 피할 구실이 생긴게 다행스럽기라도 한듯 움쭉 일어나 휭 나가버렸다.

인혁은 농산과장의 푼수없는 시비와 수환의 불쾌한 거동으로 하여 어지간히 속이 뒤틀렸으나 인차 자신을 수습하고 일에 달라붙었다. 요즘 사처에 탐색하는 소철레루를 구할 방도에 머리를 쓰기 시작했다.

한순간 전혀 생각밖이였던 덕산골이 번개같이 뇌리를 쳤다. 그토록 막막하던 방도가 순간에 탁 트이는듯싶었다. 가슴이 진정할줄 모르고 활랑거렸다.

덕산골은 소학교때 무슨 일로인가 어머니를 따라 매생이로 옥천강을 건너가본 곳이였다. 그 기억의 실마리를 더듬으니 썩 전에 덕산골 산림이 무성했을 때 소철레루를 놓고 끌차로 통나무를 실어냈고 림지가 동났을 때는 천연스레트를 날랐다는 이야기가 연줄 머리에 떠올랐다.

인혁은 금시 나래돋쳐 서둘러 떠났다. 본시 걸음날랜 그는 오금에 자개바람일게 걸음을 다우쳐 단숨에 20리나 되는 덕산골에 당도했다.
그는 한숨 돌리려고 걸음을 잠간 멈추었다. 온 잔등은 땀에 푹 젖어 선득선득했다.
먼 숲속에서 산비둘기의 궁상맞은 울음소리가 쓸쓸한 고적을 자아냈다. 순간 공연한 헛걸음이 아닐가 하는 위구감이 들었다. 그 위구감은 서둘러 소철레루를 찾고싶은 조급한 욕망이 제지시켰다. 있으리라는 기대와 희망이 더 우세를 차지하는가싶었다.
별안간 가까운 골안에서 《꿔정―꿩―》하는 장끼의 다급한 울음소리에 인혁은 소스라쳐 놀랐다.
그가 비좁은 으슥한 골안으로 한참 걷는데 얼핏 억새덤불속에 묻힌 녹쓴 레루끄트머리가 눈에 띄였다. 그는 번개같이 꿇어앉으며 두손으로 억새덤불을 마구 헤집었다. 마침 그속에서 황동같은 소철레루가 드러났다. 그는 막 환성을 지르고싶었다.
《됐구나!》 하고 혼자 웨쳤다. 가슴이 마구 널뛰듯 했다. 세심히 더듬어보니 침목도 아직 형체를 보존하고있어 꽤 씀직하였다.
혼자 싱글벙글하며 철길을 따라 한적한 골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던 그는 그만 무춤하고 선자리에 굳어졌다.
저 바로 철길굽이 바위등에 웬 사람이 앉아있는것이였다. 가슴이 털렁 내려앉았다.
(저 사람도 이 레루를 탐내여 한발 앞질러온게 아닐가?…)
그때 촉기빠른 그 거쿨진 사나이가 인혁의 쪽으로 얼굴을 휙 돌렸다.
그와 눈길이 마주치자 인혁은 흠칫하며 어리둥절해졌다. 천만뜻밖에도 강욱이 아닌가!
《위원장동지가 어떻게?!…》
강욱이도 무척 놀라면서 어리둥절해하였다.
《아니, 리당비서동무는 어떻게?!…》
서로 입을 벌린채 한동안 어리뻥하여 마주보기만 하였다.
강욱은 가까이 다가온 인혁의 팔을 덥석 잡아 옆자리에 앉히며 빙그레 웃었다.
《보아하니 리당비서동무두 이 레루때문에 온것 같군 그래?》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허허, 그 얼굴에 다 씌여있단 말이요. 노상 분주한 리당비서가 그게 아니면 이 텅빈 심심골안에 산책하러 왔겠소. 안 그렇소?》

《예, 그런데 위원장동지는 어떻게?…》

강욱은 늙은이답지 않게 씨물씨물하며 짐짓 롱을 걸었다.

《맞춰보구려.》

《공사때문에 우리한테 오신다는 련락을 받기는 했는데 여기야…》

강욱은 노상 시물거리며 이리로 오게 된 경위를 우선우선한 목소리로 들려주었다.

《내 공사장에 나올바 하군 빈손으로 훌렁 들어서기가 좀 별날것 같더군. 그래 소철레루가 있음직 한데를 탐문해서 리당비서를 깜짝 놀래우자던노릇이 그만…》

그는 짐짓 그 갑작수가 틘게 아쉬운듯 맹랑한 표정을 지었다.

《허허…》

인혁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 소탈한 그와 마주앉으면 자연 흥심이 동하였다.

《그런데 왜 하필 리당비서가 바쁜 걸음을 하오? 그것도 혼자서.》

《모두가 바쁜데 일손이 변변치 못한 내가 이런 걸음을 해야지요. 이 실정을 내가 잘 알기도 하구요.》

오늘 아침부터 두루 마음이 언짢았던 인혁은 겸허하게 말하였다.

《일손이 변변치 못하다니? 듣자니 리당비서가 농사일에도 펄 난다던데?》

《그건 다 뜬소립니다.》

《원래 그 농장 4작업반이 맨 뒤끄리던 반인데 비서동무가 말아가지구 앞선에 세우지 않았소.》

《원래 4반은 한배미가 1 500평되게 두부모처럼 정리된 논배미만도 20여개나 되지 않습니까. 조건이 좋아서였지요.》

강욱은 인혁이가 모내는기계의 속도와 가동시간, 논배미 한돌기시간이며 한정보에 대한 회전수, 모춤소요량과 수송조건에 이르기까지 과학적타산밑에 작업반모내기사업을 지도했다는것을 알고 있었다.

《역시 불비속에서 보탑을 잡았던 리금전의 아들답소.》

《위원장동지, 전 아직 멀었습니다.》

《멀다니? 전에는 그 좋은 조건에서도 뒤떨어졌던 반을 대뜸 첫자리계렬에 올리세우구 알곡두 정당 평균 1톤이나 더 증수할걸 예견한다니 어디 간단하오?》

인혁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제 농사물계를 안대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나를 따라 앞으로!〉 하자니 몰라서는 안되겠기에 좀 익혀오는 길이지요.》

강욱은 그의 무릎을 탁 쳤다.

《과연 옳은 말이요. 그런 각오가 귀중하거던.》

인혁은 그와 함께 여러해전까지도 천연스레트를 캐던 뚜장덕굽이까지 밟아보았다. 그런데 뚜장덕주차장에는 틀목이 삭았거나 찌그러진 대차가 6대나 남아있었다.

인혁은 너무도 흡족하여 또한번 환성을 올렸다.

《정말 오늘 소득이 대단합니다!》

온 농장은 쇠물처럼 이글이글 끓어번졌다.

농장안의 모든 소달구지들은 소철레루, 침목, 대차들을 싣고 20리길에 늘어섰다.

소철레루운반은 단 사흘, 낮과 밤에 와닥닥 끝내였다.

한편 삭도탑시설을 담당한 수리반도 소철레루부설속도가 뒤질세라 나무삭도탑을 세운다, 삭도바가지를 만든다, 쇠바줄수리와 활차를 모아들인다 하며 법석 끓었다.

그중 역시 꽁무니에 불이 달린것은 대장간이였다. 레루못과 꺾쇠따위들을 벼림질하는 대장간의 가락맞는 야무진 마치소리와 멎을줄 모르는 둔중한 메질소리가 록새벌의 억센 박동처럼 온 금주땅을 진감하며 쾅쾅 울리였다.

이렇듯 타번지는 기세에 몸을 잠근 강욱이도 청춘의 활력이 막 차넘치는듯 했다.

책임비서도 그랬고 인혁이도 강욱이더러 공사의 지휘부에 틀고앉아 돌격대원들에게 조언이나 주고 뒤처리를 맡아달라고 했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

강욱은 인혁의 간곡한 권고도 뿌리치고 얼기 전에 그중 서둘러야 할 뻘물길석축공사장에 노상 붙어살았다.

17

…해빛은 유난히 눈부시였다. 하늘은 금방 닦아놓은듯 끝없이 맑고도 푸르렀다. 파란 옷을 떨쳐입은 옥련봉의 줄기마다 가지각색 꽃들이 다투어 피여났다.

옥련봉밑굽이를 감도는 옥천강은 마판진수렁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푸른 융단처럼 늠실거리는 벼바다 펼쳐진 바둑판같은 록새벌을 다정히 휘감고 춤추듯이 흘러흐른다.

인혁이도 농장원들도 온통 가마고개로 떨쳐올랐다. 그렇게도 한량없이 그리웁고 뵈옵고싶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금주리에 오신것이다!

인혁은 그지없이 기쁘기도 하고 혹 미흡한 구석이라도 있지 않을가 하여 가슴이 옥죄이기도 했다.

장군님께서는 가마고개등마루에 높이 서시여 록새벌을 이윽토록 굽어보시다가 맨 선참 어푸러질듯 숨이 턱에 닿아 달려와 인사를 올리는 인혁을 품어주시며 등을 다정히 두드려주시였다.

장군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인혁이며 돌격대원들을 매우 대견하게 바라보시였다.

인혁은 자꾸만 가슴이 달아오르고 눈시울이 적셔져 무슨 말씀을 어떻게 올려야 할지 활랑거리는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융단을 펼쳐놓은듯 푸르싱싱하게 자라는 록새벌의 벼바다와 노루등자리옆의 현대적인 양어장 그리고 기복이 부드러운 산기슭을 따라 일매지게 들어앉은 문화주택마을이며 마을변두리에 열매 주렁지는 과일동산을 흐뭇한 눈길로 바라보시였다.

이때 한정길이 윤옥경의 손목을 잡고 달려오고 뒤미처 정장선과 홍현실, 진혜정, 조별옥, 순이, 선초도 달려왔다.

인혁은 가슴속에 솟구치는 격정을 걷잡을수 없었다. …

어디선가 아슴푸레 귀청을 자극하는 소리가 안타깝게 들려왔다. (그것은 전화종소리였다.)

이어 또 웅성웅성하는 소음이 들릴듯말듯 바람결같이 잦아들면서

《리당비서동지, 리당비서동지!》하고 누군가가 자기 몸을 조심스럽게 흔드는것이 감촉되였다.
인혁은 드디여 눈을 떴다.
《리당비서동지, 몹시 피곤하신것 같습니다. 이 찬데서 쉬다가 감기들면 어쩌실려구…》
인혁은 이렇게 말하며 어줍게 서있는 수리반장의 기름한 얼굴을 보고서야 자기가 현장사무실에 누워있다는것을 깨달았다.
(꿈이였구나!) 하고 인혁은 속으로 웅얼거렸다. 영광과 행복의 절정이였던 꿈에서 깬것이 아수하고 야속하였다.
(사람들두… 좀 있다가 깨울노릇이지!)
인혁은 사무탁우에 놓인 한폭의 전경도에 눈길을 박았다. 앞으로 차례로 일떠세울 두개 작업반마을의 전경도였다. 그것은 방금전 꿈에서 본 마을들의 황홀한 전경과 신통히도 같은것이였다. 아마도 마음속에 내내 그리던 전경이여서 그대로 꿈에 비쳐진 모양이였다.
인혁은 그처럼 행복한 꿈속에서 장군님께 보여드린 금주리의 모습을 닮게 하자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과 함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사색하고 또 사색하며 뛰고 또 뛰여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슴을 불태웠다.

오랜 신고끝에 마침내 마판진수렁 횡단도로가 부설되고 소철레루와 손삭도가 설치되여 부리나케 가동되자 흙운반실적은 부쩍 오르기 시작하였다.
인혁이 밀차를 밀고 수렁판언저리에 막 들어섰을 때였다. 휴식참이여서 흙운반작업을 한바탕 해제낀 돌격대원들이 흙더미들에 널려앉아 웃으며 떠들썩하고있었다. 그중에서도 채아바이의 목소리가 유독 쟁쟁하게 울리였다. 그는 이번 돌격대를 뭇는다는 소식을 알고는 자기도 총결사전에 참전하려는데 나이가 무슨 조건부냐고 제편에서 으르며 강짜를 부려 입대한것으로 유명해졌다.
원래 수리반 기능공이였던 그는 걸늙고 몸집도 체소했다. 하지만 겉보기와는 달리 책임성이 매우 높고 제 앞처리를 깨끗이 하는건 말할것 없고 젊은 사람들의 서툰 일손을 보고는 참지 못하고 그시그시 바로잡아주어 청년들의 존경의 대상으로 되였다.
그는 이야기판에서도 주동이 되였다. 지금도 그는 무엇때문인지 청년들과 한창 싱갱이질을 하고있었다.

인혁은 그 흥을 깨치고싶지 않아 슬그머니 뒤전에 가 앉았다.
《그러게 공살 래년 봄까지 끌게 있나. 그까짓거 이왕 내친김에 동장군이 달려들기 전에 와락 해제끼고볼노릇이지.》
체통이 채아바이의 세배나 돼보이는 뜨락또르운전수가 코웃음을 치며 빈정거렸다.
《맘같으문야 하늘의 별인들 못 딸가요, 원. 덮어놓고 헤덤비다간 또 코구멍에 감탕찜질 당해요. 난관은 이제부터란 말예요.》
《저녀석, 신통히 관리위원장 말본새 닮았군. 그 체통은 뒀다 뭘해. 이런 때 체통값을 해야지. 강심을 먹구 한다면 하는거지 지레 겁먹구 벌벌 떠는거야 갈데 없는 팔삭둥이지. …》
《앉아서 큰소리쳐도 전번 뜨락또르빨릴 땐 제일먼저 아부재길 치는게 아바이더군요.》
《에끼 이녀석, 내 이래뵈두 자네나이땐 씨름경기에서 공룡만 한 황소상을 탄 전적이 있어. 이제라두 한판 붙어보자나?》
《아바이두 참… 사람 웃기지 말라요.》
《하하하…》
체통이 큰 청년의 말을 이어받기라도 한듯 폭소가 터졌다.
인혁이도 웃다가 채아바이의 편을 들어주었다.
《아바이, 젊은 시절에 범잡은 이야기나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이 동무들이 어쩌지 못할겁니다.》
채아바이는 흡족한듯 수염없는 턱을 어루쓸었다. 그는 담배를 달게 빨며 눈을 쪼프린채 이야기를 펼쳤다.
돌격대원들은 구미가 동하여 바싹 좁혀앉았다.
《범잡은 이야긴 뒀다 하구 진짜씨름군 이야기를 하나 하지요. 해방전에 황평, 연성일대에 제노라고 뻐기는 장수봉이라는 힘장사가 있었지.》
채아바이는 예까지 말하고 담배를 련속 빨며 사람들의 간을 말리다가 말을 이었다.
《그는 우람찬 체구와 힘을 믿고 씨름경기장들을 찾아다니며 힘 절반, 위협 절반으로 씨름에서 이겨 소 한짝씩 상을 받아 두들겨처먹구는 또 다른 씨름판으로 떠돌이하며 사는 알건달패당의 두목이였지.》
…한번은 힘장사 장수봉이가 제 패당을 거느리고 황평씨름판에 불쑥 나타났다.

당시 공설운동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몸집이 우람찬 장수봉이 경기장복판에 바위처럼 버티고 나서자 구경군들은 삽시에 웅성웅성했다.

비교씨름경기에서 상대들을 말랑말랑한 햇송아지처럼 모조리 멧다꼰져버린 그는 이번에도 1등상은 위불없이 제거라고 뽐내듯 거만하게 두손을 허리에 짚고 아름드리기둥같은 두다리를 쩍 벌리고 서서 경멸의 눈찌로 구경군들을 일별하였다. 마치 어느 누구건 나와 맞설자는 당장 나서보라는 자만심이 잔뜩 내풍겼다.

오늘판도 시시껄렁해지는가부다 하는 때에 난데없이 몸매는 호리호리하나 어깨며 팔근육이 끈으로 조여맨듯 울퉁불퉁한 청년이 태연하게 장수봉한테로 마주 걸어나왔다. 구경군들의 눈길은 일시에 그 청년에게 확 쏠리였다. 그러나 어느 한다하는 씨름군은 장수봉의 손아귀에 슬개골이 통짜로 뽑히웠다는 소문이 자자하던 때라 흡사 갈색곰과 풋강아지 맞선것 같은 꼬락서니를 보고 구경군들은 대뜸 실망해버렸다. 사람들은 그 청년은 온전치 못한 얼간이거나 쓸개빠진 풋씨름군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며 어처구니없이 지켜보았다.

서로 샅바를 잡은 후 심판원이 두 씨름군의 잔등을 툭 치자 관중의 예상은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한순간에 뒤집혔다.

장수봉은 배지개로 청년을 허궁 떠올렸으나 청년은 상대방의 사타구니에 다리를 갈구리같이 탁 감아붙이고 한팔로 그의 하마같은 상체를 세괃게 뒤로 내밀었다.

장수봉은 중심을 잃은듯 어쩌지 못하고 후려넘기려다 도로 내려놓았다. 장수봉의 코김에도 날려 넘어질것 같던 청년이 버티여내자 마침내 군중은 와—하고 환성을 질렀다.

다음순간 관중이 미처 눈여겨볼새도 없이 공중제비로 모래판에 먼저 어깨를 박은것은 장수봉이였다. 상대방의 힘을 역리용하는 전술에 얼떨떨해지고 패자의 창피를 당한 장수봉은 쓴웃음을 지으며 모래를 털고 일어나자바람 샅바를 걸치며 즉각 도전했다. 만용을 부려서라도 패자의 창피를 면해보려는 수작이였다.

과연 희한한 구경거리였다.

두번째 경기에서는 싱겁게도 그 청년이 먼저 한손을 모래판에 대였다.

얼렁뚱땅수로 2회전은 슬쩍 이겼으나 3회전에서는 벌써 자신을 잃은 장수봉이 모래판을 빙빙 돌며 다시 맞서볼 엄두를 못 냈다. 그러

자 두목의 속심을 알아챈 그의 패당들이 씨름판에 나와 그 청년을 향해 뭐라고들 수작질을 하였다. 필경 그 청년에게 양보를 구걸하는 수작질이라는것이 눈에 뜨이게 알렸다.
구경군들은 그만 기분잡치여 장수봉패당들에게 조소를 보냈다.
그 청년은 토목공사 로동자로서 팔뚝이 쇠방망이같은데다 씨름묘기를 다 터득하여 불의적인 역습으로 상대방의 중심력을 분산시킬줄 알았다.
청년의 막강한 힘과 재주를 인정하고 속대꺾인 장수봉은 하찮은 명예나마 보존해보려고 가소롭게 빌붙었다.
《젊은이, 내 자네의 힘앞에 두손 들었네. 난 이젠 늙었지. 오늘로 씨름계에서 물러나 은거하려네. 한판 더 겨룬대야 내 패할건 뻔한데 어찌겠나. 내 체면 봐주게. 이번판에 져주면 1등상은 곱게 넘겨주겠네. 자네의 씨름전망이야 창창하지 않은가. …》
장수봉의 험상궂은 짝패들은 짜고든듯 자기네 두령의 명예는 당신에게 달려있다고 하면서 저들의견을 공순히 안 따르면 무사치 못하리라는 암시로 위협까지 하였다.
어리석고 속대 약한 그 청년은 장수봉에 대한 동정심과 패당의 험악한 기세, 1등상을 그대로 넘겨준다는 달달한 말에 넘어 져주기로 응낙하였다.
그리하여 3판경기는 장수봉의 우승으로 끝나버렸다.
관중들은 분격하여 그 청년을 좀쓰레기같은 미물이라고들 욕설을 퍼부으며 흩어지기 시작했다.
드디여 텅 비여가는 운동장에서는 시상식이 초라하게 거행되였다.
1등을 한 장수봉은 하마같은 유들유들한 몸집을 소잔등에 무겁게 올려놓고 패당들에게 에워싸인채 도망치고말았다.
상을 넘겨주겠다던 약속은 헌신짝처럼 집어던지고 멀리 사라지는 장수봉의 징글맞은 뒤덜미만 바라보던 청년은 그제야 억이 막혀하였다. …
《내 조그말 때 있은 일이지만 지금두 눈에 선하네. 새겨보면 아무리 힘장사구 재주가 뛰여나두 사람 돼먹기탓이라네.》
아바이가 이야기를 아퀴짓자 재미있게 듣고있던 젊은이들중에서 또 체통 큰 청년이 걸고들었다.
《좀 긴감은 있지만 지루하지 않게 들었습니다만 아바인 거기서 무엇을 교훈주자는겁니까?》

《정신이 온전치 못한 인간은 미물이나 다름없다는거야! 장수봉을 보게. 꾀가 없어 씨름에서 지게 되니 제 리속에만 눈이 어두워 야비한데다가 비굴해지기까지 하구 힘과 꾀를 겸비했지만 청년은 물욕이 있는데다가 일신상의 위험이 두려워 얼간이가 되지 않았나. 그런걸 교훈삼아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기여할수 있는 힘을 키우구 지혜를 쌓으라는거야!》

《그러구보니 아바인 우릴 대비교양하자구 그 이야길 펼쳤구만요.》

《우리가 아니라 자네같은 사람들을 념두에 둔거야. 뭐, 하늘의 별을 못 따와? 코구멍에 감탕칠 당할가봐 어드래?》

순간 사람들속에서 폭소가 터졌다. 채아바이를 시까스르던 청년은 얼굴이 벌개서 쩔쩔매고 처녀들은 그 모습이 우스워서 배를 그러안고 돌아갔다.

인혁이도 아바이의 말을 재미있게 듣고 청년들과 더불어 웃었지만 생각은 깊어졌다.

채아바이의 분석이 놀라왔다. 노상 젊은이들틈에 끼워 롱으로 흥취나 돋구는줄로 알았댔는데 이제 보니 그의 이야기속에 생활의 진리가 있었다.

하찮은 이야기이지만 거기에 신통한 의미를 담아 얼마나 젊은이들에게 옳은 넋을 심어주는것인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생활적인 정치사업인가.

더구나 모두들 일이 힘에 부치여 맥을 놓고 퍼더앉아있을 때 사람들의 흥을 돋구어준 그가 은근히 고맙게 생각되였다.

아무튼 그 흥취의 덕인지 돌격대원들은 여느때의 갑절로 열을 올리고 희희락락하며 일자리를 푹푹 내였다.

인혁이도 허리띠를 바싹 조이고 돌격대원들의 앞장에서 밀차를 씨엉씨엉 밀었다.

×

강욱은 요즘 바지가랭이를 허벅다리까지 걷어올리고 물길에 들어서서 청년들에게 석축묘기를 시범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며 바쁘게 지냈다.

어느날 수환은 강욱이 찬물에 다리를 잠그고 청년들이 섬겨주는 돌

로 석축하는것을 보고 펄쩍 뛰였다.

《위원장동지, 우리를 욕먹히려구 그럽니까? 어서 나오십시오. 감기들겠습니다.》

《괜찮소.》하고 강욱은 돌을 꼼꼼히 쌓으면서 돌따보지도 않고 심드렁하게 대꾸하였다.

《그만하구 얼른 나오십시오. 나많은분이 정 이러시면 우리 립장이 딱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때라구 물에 들어서서…》

강욱은 실없는 군걱정이 몹시 귀찮은듯 그의 말허리를 툭 잘랐다.

《관리위원장동무, 나때문에 립장이 딱하구 뭐구가 있소? 나두 일을 하자구 온 사람인데… 공연한 걱정일랑 말구 위원장두 다리를 걷구 좀 들어서구려.》

어쩔수없이 조수환이도 발을 벗고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며 흙물에 들어섰다. 순간 얼음같이 차디찬 물에 금시 정갱이뼈가 에이듯이 막 저려들었다. 그는 너무 참아내기 급해서 얼른 도로 뛰쳐나오고싶었으나 강욱이도 끄떡 안하는데 난들 못 견디랴 하고 마비된듯 한 둔한 다리를 가까스로 옮겨디디며 막돌을 들어날랐다.

수환은 본래 일손이 능란하고 걸싸다. 그는 들쑹날쑹한 돌들을 묘기있게 귀를 맞물리며 표식된 한구간씩 마무리해나갔다.

강욱은 제가닥으로 생겨먹은 막돌로 마치 석공이 다듬질해쌓듯 하는 수환의 기묘한 석축솜씨에 내심으로 감탄하였다.

(일솜씨가 저리도 여물은 일군이 왜 지금은 농장일에 몸적시기를 꺼려할가?)

남들의 의견에 귀기울이지 않고 대답이 헤프며 흰소리로 한몫 보는 일군이라는 농장원들의 뒤말이 강욱의 귀에도 와닿았던것이다.

그는 금주리에 와서 인혁이와 수환의 서로 다른 모습을 보고 은근히 놀랐다. 인혁은 늘 농장원들이나 돌격대원들과 친숙하게 일하며 그들의 열의를 발동하여 영농사업과 어려운 공사를 빈틈없이 밀고나간다면 수환은 그 어떤 문제든 자기를 기준삼아 보고 대수롭지 않게 처리해나가고있었다.

강욱에게는 한때 숯불마냥 이글거리던 그가 점차 사위여가는 재불이 된것처럼 느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만 한 공적있는 일군이 군안에는 없는듯이 우쭐렁대며 남들을 하찮게 눈아래로 본다는 여론이 옳을수 있다고 그는 생각하게 되였다.

한때 농장사업을 아귀세게 걷어쥐고 독판치기를 하며 완력으로 한몫 보던 그 버릇도 가끔 머리를 들었다.

(어제날 성과의 그루터기에서 살아난 자만도취, 자화자찬, 자고자대… 이것이 저 사람 병집의 근원이 아닐가?…)

한편 강욱은 뻘물길공사에 관심하면서 인혁이가 록새벌밀창으로 시루처럼 수렁판 고인물을 뽑아 하천에 잇대이는 담대한 묘안을 착안한것이 과연 신통하다고 거듭 탄복하였다.

여적 금주리에 여러번 책임일군들이 바뀌였으나 인혁이처럼 지긋지긋한 진수렁을 한꺼번에 메꾸어버릴 큰 용단을 내리고 직접 묘안을 내놓은 사람은 없었다.

몇해전에 조수환이 이러루한 잡도리를 했다지만 그것은 공사의 돌파구인 고인물을 미리 뽑을 묘안도, 착실한 작전도 없이 무작정 우격다짐으로 해제껴보려다 주저앉고만데 불과했었다.

강욱의 다난한 인생체험에 의하면 원래 평가에 습관되고 비판을 덜받고 일해온 일군은 남들의 첫눈에 쉽게 뜨일 손쉬운 일거리에는 선뜻 나서지만 말할수없이 고되고 자기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그렇듯 엄청난 일에서는 몸을 사리기 일쑤라는것이다.

《관리위원장동무, 우리 한대 태우고 하세.》

강욱은 흙물에 대충 손을 씻고 뚝우에 올라섰다. 조수환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해주고싶은것이 있어서였다.

음산한 재빛하늘가로 기러기떼가 가물가물 멀어져가고있었다.

18

점심시간이면 국수칸은 의례히 녀인들로 붐비였다. 박춘선은 좀 늦어 강냉이자루를 들고 국수칸에 조용히 들어섰다.

일부러 뒤줄에 말없이 서있는 춘선을 어느결에 알아본 김서분이 얼른 그의 강냉이자루를 받아놓으며 제가 먼저 받은 국수를 그에게 넘겨주었다.

《아니, 이러지 말라구. 나야 바쁜 사람두 아닌데…》하고 춘선은

미안스러워 굳이 사양하였다.
그러나 서분은 각근한 어조로 《할머니, 저도 잠간 기다리면 돼요.》하고 국수꾸레미를 그냥 춘선의 보자기에 싸주었다. 춘선은 서분의 갸륵한 마음에 가슴이 뭉클했다.
녀인들은 춘선을 보더니 귀가 솔게 또 저마끔 한마디씩 했다.
《할머니, 손주며느린 대체 언제 맞으시려우?》
《장선반장이야 일에서 억척이지, 게다가 인물 잘났겠다. 그러니 며느리감을 너무 추리는게 아니예요?》
《그렇게 놓구보면 이 고장 처녀들은 마음에 없는 모양이구만.》
《무슨 실없는 소리, 그 총각의 속에 들어가보기라두 했수?》
《호호… 안 들어가본들 늙은 총각 시침따는 본심을 짐작 못할가.》
춘선은 쪽걸상에 잠시 걸터앉아 내내 받는 성가심을 그저 들을만 해하였다. 기실 남들의 이러한 뒤말들이 모두 장선이를 돋보이게 하는 소리들이 아닌가.
아무말없이 듣고만 있던 나이지숙한 녀인이 다른 녀자들의 말을 일축해버렸다.
《제발 모르면 가만들 있구려. 우리 장선반장한테는 꽃같은 배필이 다 점찍혀져있어요. 정해둔 처녀 없다면 무슨 불구라구 숱한 처녀들을 곁에 두구서두 장갈 안 들겠수.》
그 말에 녀인들은 일시에 호기심이 동하여 그한테 눈길을 모았다.
《꽃같은 배필이라니, 그게 누구요?》
《약속했다면야 비밀로 될것도 없지 뭐. …》
나이지숙한 녀인은 방그레 웃는 얼굴로 춘선의 눈치를 살짝 살피고나서 《옥천리기계화반에 있대요.》하는 말을 남기고는 국수소랭이를 난딱 들고 나갔다.
순간 옥천리기계화반소리를 던지고 나가는 녀인의 뒤모습을 놀랍게 바라보는 녀자가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아무말없이 녀인들속에 섞여있던 홍현희였다. 그는 남들의 눈이 아니라면 방금 나간 녀인을 붙들고 자세히 캐물었을것이다.
그 말이 춘선에게는 별로 새롭지 않았다. 이미 그러루한 소문을 들어온것이다.
춘선은 국수꾸레미를 들고 문밖에 나섰다.
그가 한참동안 걷는데 누구인가가 《장선 할머니! 같이 가요.》하

고 소리쳤다.
춘선이 국수꾸레미를 왼손에 옮겨쥐며 돌아보니 옆집녀인이였다. 옆집에 살면서 긴긴 겨울밤에는 말동무가 되여주고 춘선이 어디 갈 때는 우정이라도 길동무가 되여주는 40줄의 무던한 녀인이였다.
그는 춘선을 재게 따라잡더니 《장선 할머니, 할머니를 보기만 하면 모두들 다사스럽게 굴어두 바른소리 하나 없어요.》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을 던졌다.
춘선은 의아한 눈길로 녀인의 복스러운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니, 그건 무슨 말인가?》
《이자 옥천리기계화반소리를 하는데 그게 헛소문이예요.》
《헛소문이라니? 철범 엄만 뭘 좀 얻어들은 말 있나?》
춘선은 헛소문이라는 말에 속이 뜨끔했으나 내색을 않고 이렇게 물었다.
《할머니, 학교마을 백로인을 알지요?》
《그야 알다마다…》
《그 로인의 사촌동생이 도국장을 하는데 그 사람 썩 아래동생이 옥천리기계화반장의 신랑이 된대요.》
《그게 실말인가? 모를 소린데…》
춘선은 가슴이 덜컹했으나 그가 잘못 알고 옮기는 말이기를 은근히 바라며 뜨직하게 물었다.
《예, 우리 농장 관리위원장이 그 국장과 친구지간이라던지… 아마 그래 관리위원장이 나서서 소개했다나요. 신랑감이 대학연구산데다 인물체격두 빠진데 없구 이제 박사가 된대요.》
《어이구나 박사감이라… 뭐, 관리위원장이 나섰다구?》
《원 아시면서두… 관리위원장이야 리당비서의 어머니 무릎우에서 자라지 않았나요. 그러니 이런 일에 발벗구 나서게 됐지요!》
(수환이 인혁이와 현희의 연분을 맺어주더니 현희 동생일에까지 삐칠 심산인가?!…)
춘선은 가슴이 답답해왔다.
무엇보다도 그 일에 조수환이 나섰다는것이 어쩐지 께름하였다.
인혁이 어머니를 잃기 전까지는 춘선이네와 가깝게 지냈고 또 방학때 내려와 한집안식구처럼 보내다 가군 하였지만 대학졸업후 군과 도에서 생활하면서부터는 거의 거래가 없었다. 그래서 인혁의 처제인 홍

현실이도 외따로 생활하는것만큼 별로 접촉이 없었다. 춘선이자체가 도일보에 손자와 함께 실린 사진을 보고 알게 된 처녀였다. 그즈음해서 장선이와 현실이가 좋게 지낸다는 풍문이 돌기 시작한것이다.

장선이와 현실의 사진이 신문에 났을적에도 입바른 아낙네들은 신통히 오누이같다거니 인물곱고 일잘하는 처녀가 손자와 함께 신문에까지 났는데 손자며느리감을 따로 고를게 있느냐거니 하며 수군거렸다. 장선의 눈치를 봐도 그 처녀한테 마음이 가있는것 같아 춘선은 이미 그쪽으로 관심을 돌리고있는중이였다.

(결국 장선의 혼사문제에도 조수환이 장애를 논단 말이지. …)

평소에 장선을 곱게 보지 않는데다 이번 사고로 더 아니꼽게 보는 수환이 이번에는 현실과의 혼사문제에까지 끼여들다니? 마치 수환이 코코에 나서서 장선의 일을 별스럽게 비트는것 같은 생각으로 춘선은 야속함을 금할수가 없었다.

한편 현실이켠이 가정적으로나 용모, 하는 일이 자기 손자보다 나은것 같아 어쩐지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고있지 않았는가 하는 허무한 생각까지 들었다. 그러면서도 혹시 옆집녀인의 말이 헛소문이였으면 하는 애달픈 심정도 없지 않았다.

실지로 현실은 똑똑하기 이를데 없고 뛰여난 일솜씨로 하여 신문에도 여러번 소개되였다고 한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산다는 그를 손자며느리로 맞아들이고싶은 간절한 마음은 아무래도 꺼질것 같지 못했다.

한편 현희는 의무실에 돌아와서도 마음을 도무지 진정할수 없었다.

대상자문제를 꺼내려 할적마다 야릇하게 딴전을 부리던 동생의 얼굴이 유표하게 떠올랐다. 언니의 안타까운 조바심에 아랑곳하지 않는것도 기실은 장선이때문일거라는 두려운 의심이 괴롭게 밀물쳐왔다. 현희는 속이 바질바질 끓어올랐다.

그는 이미 조용한 기회에 수환으로부터 전화로 못다한 말을 귀가 솔깃해서 상세히 들었었다.

그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면서 실력이 높아 장래가 촉망되는 농업대학 연구사인데다 용모도 아주 끼끗하다고 했다. 아버지는 같은 대학의 교수, 박사이고 어머니는 도인민병원 과장이며 맏형인 도인민위원회 국장은 수환과 막역한 사이라고 했다. 집안이 뜨르르하고 더우기 그 청년의 어머니가 자기와 같은 의료일군이라는데 현희의 마음이 더 바싹 동했다.

이처럼 속이 한창 달아오른 때에 현실의 배필이 정장선이라는 날벼락같은 말을 들은것이였다.

하지만 다음순간 리성이 머리를 들며 만약 그것이 사실인 경우 서뿔리 나섰다가 예상외의 후과가 빚어질것 같은 두려움이 마음을 짓눌렀다.

현실이와 장선의 관계를 아직은 똑똑히 알지도 못하지 않는가. 잘 모르는 일에 신경을 쓸것까지야 없지 않는가.

그렇다고 하여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싶지도 않았다. 문제를 빨리 성숙시켜 일단 락착을 지어야 안심할수 있을것 같았다.

현희는 벼탈곡과 공사로 온 농장이 불붙고있는 때에 우정 동생한테 들리기도 뭣하여 현실이 오기만을 조바심이 나 기다리였다.

어느날 때마침 현실이 집에 들리였다.

휴식일이여서 어쩌다 순이도 와있었다.

순이는 현실의 발자욱소리를 듣고도 《이모!》하고 총알같이 달려나가 그에게 매달려 어린애처럼 깡충깡충 뛰기까지 하였다.

현희는 막상 동생의 물기어린듯 한 시원한 눈길과 마주치자 그렇게 별러온 마음도 스스로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일이 다 글러질것만 같아 마음이 촉박해졌다.

현희는 그러한 기색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고 동생과 다정히 마주앉아 그새 그립던 정을 나누며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 대상자문제를 자연스럽게 꺼내려고 하였다. 그러자면 먼저 순이부터 현실의 곁에서 떼버려야 했다.

《얘 순이야, 너 좀 웃방에 올라가있으려마.》

어머니의 어줍은 말에서 순이는 무엇을 직감한 모양 얼핏 눈을 맞추고는 입을 삐쭉해보이며 웃방으로 올라갔다. 사이문은 꼭 닫지 않았다.

현실은 언니의 전에없이 담담한 기색을 은근히 살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현실아, 그래 네 문제는 도대체 어찌할셈이냐?…》

현실은 별로 대단치 않은 문제인데 잡도리가 좀 엄엄하다는 식으로 생그레 웃음을 지어보였다.

《언니두 참… 만나기만 하면 그런 소릴… 오늘은요, 제발 그 문젠 뒤두고 그새 밀린 이야기나 실컷 나누자요, 네?》

현실은 짐짓 시침을 따고 딴전을 부렸지만 사실은 정장선과의 문제를 조용히 의논하고싶어 일부러 찾아온것이였다.

언제인가는 어차피 알게 될 일을 마치 술래잡기하듯 더이상 속에 숨겨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다.

《얘, 눈감고 아웅 말어. 네 아무리 대수롭지 않은척 하지만 그 문제때문에 맘쓴다는게 얼굴에 알려. 내 오늘 들은 말이 있어서 그러는데 너와 장선이란 사람의 관계가 물망에 올랐더구나!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나도 모르고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실처럼 말하더구나!》

언니의 입에서 느닷없이 장선의 이름이 튀여나오자 현실의 얼굴은 금시 빨갛게 물들었다.

이왕 정장선의 말이 나온김에 더 숨겨둘 필요를 느끼지 않아 현실은 담박한 어조로 반문하였다.

《언니,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뭐? 사실이라면? 네 입에서 그런 말이…》

현희는 그만 아연해진 표정을 띠고 동생을 놀랍게 쳐다보았다. 현희는 떠도는 말이 설마 몇몇 입이 헤픈 아낙네들이 지레짐작으로 퍼치는 헛소문이기를 바랐었다. 그러나 현실의 태도를 보니 근거없는 소리가 아닌것 같았다. 아니, 자기와 장선이와의 관계는 이미 정해진거니 구태여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로 현실의 말이 가슴에 마쳐왔다.

순간 그는 떡심이 풀려 더 말이 나가지 않았다.

어이없기도 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올린 희망의 낟가리가 한순간 무너져내리는것 같았다. 남편이 이러한 내막을 알게 된다면 두말없이 현실의 편에 설것이다.

현희는 자기가 외토리된것 같은 허무한 생각을 금할수 없었다.

그렇다고 하여 일이 제멋대로 돼가도록 방임해둘수는 없었다. 그는 현실이로 하여금 이 기회에 장선을 아주 단념하게끔 오금을 단단히 박아놓으려고 마음먹었다.

《그 사람하군 안된다. 훌륭한 신랑감들이 얼마든지 나서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을 마음에 둘건 뭐야. 너 좀 깊이 새겨보렴. 너도 부모없이 자라, 그 사람도 그렇게 자라… 그 사람 겉은 멀쑥하지만 관리위원장과도 잔뜩 덧나있지. 거칠구 우둘렁거리는 성미하구 남한테 굽어들기 싫어하는 네 성미와 대체 의합이 될것 같니? 너야 뭐가 부족하니? 네가 그 자리에 그냥 눌러있겠다고 고집만 부리지 않았어두 지금쯤 군경영위원회에 소환되였을거다. 물론 네 결심에 달린거지만 그 사람때문에 네 앞길이 트일것 같지 않아 그런다.》

현희는 속이 바작바작 타들어 두서없이 말을 늘어놓았다.
현실이 자기의 그토록 안타까운 심정에는 하등 반응없이 도고하게 앉아있는 품이 마치도 《언니, 실컷 말해보라구요. 아무리 그래도 내 마음은 움직이지 못하고말거예요.》라고 하는것 같았다. 그것이 더 약을 올렸다. 자기의 말을 고분고분 따르던 어제날의 동생이 아니였다. 동생과 조용히 마주앉아 그처럼 그쯘한 연구사와의 혼약문제를 의논하자던 일이 처음부터 비틀리자 현희는 속이 확 뒤집혔다.
붙는 불에 키질하듯 순이마저 사이문을 빠금히 열고 어머니를 나무람했다.
《엄만 왜 장선아저씨를 그렇게 좋지 않게 보나요, 이모나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아버지도 믿고 내세우는 반장 아니나요?》
《네까짓게 뭘 안다고 참견질이야!》
동생에 대한 불만에 키질하는 순이의 말을 밀막으려 했으나 그는 한수 더 떠서 옹알거린다.
《엄마, 청년동맹원의 말도 좀 들으라요. 엄마생각이 잘못된걸 알면서도 가만있을수 없잖아요.》
순이는 말을 내뱉고는 사이문을 꼭 닫았다.
잠시 어성버성한 침묵이 흘렀다.
현희는 꺼질듯 한숨을 내쉬며 좀 가라앉은 목소리로 잘라말했다.
《난 너한테 사랑을 강요하는게 아니야. 또 네 대상자를 내가 물색해두었다고 해두 당사자는 너구 어디까지나 네가 결심할 일이 아니냐. 하지만 장선반장은 그만둬라. 난 언니로서 네가 잘되길 바래서 하는 말이야.》
그들 자매간은 이야기를 더 끌수 없었다. 직일간호원이 달려와 환자가 생겼다고 알리는것이였다. 현희는 급급히 자리를 떴다.
현실은 아무 대꾸도 없이 언니의 말을 듣기만 했지만 그의 의향을 따르지 못하는것이 가슴아팠다.
그는 어머니나 다름없는 언니를 무척 사랑하고 존경해마지 않았다. 혹 집안에 어떤 언짢은 일이 생겨도 언니를 리해하려고 애써왔으며 늘 언니마음을 기쁘게만 해주고싶은 그였다.
예나 지금이나 자기에 대한 언니의 사랑은 지극하다. 자기의 배우자문제에 그토록 왼심을 쓰는것도 바로 그때문이다. 그에게는 언니의 그 마음이 눈물겹도록 고마왔다. 하지만 정장선을 단념하라는 그 강

경한 요구만은 그대로 받아들일수 없었다.

현실은 그 누가 배우자를 정해준다거나 초면에 마주 세우는것과 같은 일은 애당초 질색이였다.

사랑이란 말은 사업과 생활과정에 스스로 파악하고 심장이 움직여 선택되는것이지 그 누구의 알선이나 일방적인 요구로 맺어질수는 없지 않는가. 어림짐작으로 알선을 받는것과 같은 그러한 방법은 일종의 모욕으로 느끼는 그였다.

(언니는 장선동무를 왜 그리도 신통치 않은 사람으로 볼가? 무슨 일에든 몸을 아끼지 않고 뛰여들고 일에 성실하면 되지 무엇이 그리 탐탁치 않아 그럴가.)

현실은 장선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항변할수도 없고 또 자기 마음을 그대로 다 언니앞에 털어놓지도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속을 태우고있었다.

그는 이제 와서 언니의 간곡하고도 완강한 요구에 응할수 없는 자신이 민망하기 그지없었다. 정장선이와의 관계문제를 언니와 달리하게 되는 자기를 부정하려고도 해보았지만 그럴수록 그에게로 더 끌리는 마음을 어쩔수 없었다.

19

《비서동지, 힘들지 않습니까?》

인혁이와 함께 들고가는 들것의 뒤채를 잡은 돌격대원이 헐씩거리며 말을 걸었다.

《왜, 힘드나?》

힘꼴이 세보이는 돌격대원은 지척지척 뒤따르면서도 《아, 아닙니다. 비서동지가 힘들것 같아서…》하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티를 보이려 했다.

인혁은 그가 힘겨워하는것 같아 한숨 쉴가 하는데 마침 휴식나팔소리가 울렸다.

《우리도 좀 쉬기요.》

인혁은 들것을 놓고 그와 가까이 앉았다.
돌격대원은 벙어리장갑등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며 말했다.
《비서동진 체격이 크지 않는데두 만만찮습니다.》
《허허, 이 동무 사람볼줄 모르누만. 내 이래뵈두 강동무에 대겠나.》
인혁은 짐짓 눙치며 응수했다.
《비서동지야 몸도 호리호리한데 어디 힘쓸데나 있습니까, 강단은 있어보이긴 하지만. … 우리들한테 힘을 주느라구 일부러 이겨내는 거겠지요.》
돌격대원은 씩 웃었다.
사실 인혁은 힘들었다. 노루등마루에서 흙을 넘치게 실은 들것을 들고 상차장이 있는 밑굽까지 두세번만 오르내려도 등골로 땀이 줄줄 흘렀다.
그는 오늘 어뜩새벽부터 이 젊은 강동무와 짝을 뭇고 흙을 나르느라고 온몸이 노근해졌다. 아래도리가 저절로 후들후들 떨릴 때에도 그는 앞채를 멘 자기가 비칠거리면 안될것 같아 안깐힘을 쓰며 반달음을 했던것이다.
《솔직히 나두 힘드오. 강동무도 마찬가지겠지.》
《비서동지,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 마판진수령자리에 벼바다가 설레일 생각을 하면 힘이 솟습니다. 어쩐지 요즘은 생각을 해두 그 생각이고 꿈을 꾸어도 그 꿈입니다.》
인혁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터갈라진 큰손을 힘있게 잡았다.
《옳소! 바로 그거요. 그게 희망이구 미래에 대한 갈망이지. 그래서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보람을 느끼는게 아니겠소. 고향이란 선군조국의 한부분인데 그에 자신을 바치는것이 없다면 그게 무슨 참다운 삶이겠소. 또 제손으로 고향땅을 번듯하게 꾸려놓지 않고 어떻게 부강해질 조국에서 살 자격을 갖출수 있겠소. 희망, 미래, 꿈, 얼마나 아름다운것이요.》
강동무도 그 말에 무척 감흥을 받은듯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바로 그겁니다. 다른 동무들도 꿈많은분이라고 하더니 이제보니 리당비서동진 진짜 시인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생각을 단마디로 멋있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뭐 그렇게 비행기 태울것까지야 있겠소. 동무네 생각이나 내 생각이 다 같아서 그런거지.》
인혁이 노루등을 타고앉아 마판진수령쪽을 내려다보느라니 불현

듯 류순기가 노루등을 통짜로 짊어지어다 저 수령터를 한꺼번에 메꾸어볼 생각이 없는가고 하던 말이 상기되였다.

그것은 대중의 억척같은 정신적힘을 믿는 배심이 커야 한다는 뜻이였다. 그는 아직 그러한 큰 배심으로 일을 제끼지 못하는것 같아 조바심이 났다. 실지로 공사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진척되고있었으나 도무지 성차지 않았다.

마가을 짧은 해는 어느덧 뉘엿뉘엿 지고있었다.

인혁은 오후에도 강동무와 들것짝이 되여 등골이 뻐근하도록 흙을 부리나케 날랐다. 저물녘에는 기진맥진하여 두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애써 내색하지 않았다.

그때 인혁에게는 먼발치에서 돌격대원들이 일제히 질통을 지고 최뚝을 허문 흙을 억척스럽게 나르고있는것이 눈에 띄였다. 그는 잠시 허리를 펴고 상차장주변에서 그쪽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마치 맨 앞장에 선 사람이 잡아끌기라도 하듯 질통부대가 그의 뒤를 따라 돌격서렬처럼 왁왁 줄기차게 웅뎅이쪽으로 돌입하는것이였다.

서쪽하늘가에는 붉은 노을이 서서히 사라져가고있었다. 날이 어슬어슬해지면서 바람은 한결 잠풍했으나 젖은 등골은 으슬으슬했다.

인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왕성한 기세에 끌리여 그리로 발걸음을 옮겼다.

질통부대 작업장으로 스적스적 걸어가던 인혁은 무춤하고 멈춰섰다. 선두에서 흥그럽게 이끄는 사람은 의외로 한정길이였던것이다.

(아니, 한동무가 어떻게?…)

키가 성큼하고 등이 다소 구부정한 그가 흙짐을 지고 잰 걸음으로 장바 한길이쯤 앞서고 돌격대원들은 마치 그와 겨루듯이 부리나케 따라 움직이였다.

인혁은 그가 왜 불도젤식삽날제작을 그만두고 별안간 질통을 지였을가 생각하며 자기도 서둘러 질통을 하나 얻어지고 한정길을 부지런히 따라잡았다.

《한정길동무, 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한정길은 곁에 다가와 옆구리를 건드리는 인혁에게 차돌같이 가쯘한 이발을 드러내보이며 히뭇이 웃었다.

《비서동지, 그저 땀을 한번 흠뻑 흘려보고싶어 그럽니다.》하고 그는 흙을 남먼저 부린 다음 흙무지쪽으로 씨엉씨엉 걸음을 옮겼다.

그의 서글서글한 얼굴과 활기로 보아 별다른 일은 없은것 같은데 갑자기 질통부대에 뛰여든것이 아무래도 의문스러웠다.

이내 작업이 끝나고 모두들 법석 떠들며 작업장을 떠나간 다음 현장에는 마치도 미리 약속이나 있은것처럼 인혁이와 한정길만이 남았다.

별안간 공사장이 텅 비자 날씨는 더욱 음산해지는것 같았다.

인혁이 모닥불을 피우려고 서둘러 검불을 그러모으기 시작하자 한정길이도 그에 달라붙었다.

인혁은 검불우에 삭정이며 마구 파헤쳐진 잘잘한 나무뿌리들을 주어다 두둑하게 쌓아놓고 가랑잎에 라이타불을 켜달았다. 가랑잎에 불이 거불거불 당기더니 이어 불길이 확 타번지였다.

《한동무, 이리 가까이 와앉소. 축축해진 잔등에 갑자기 찬기를 쐬면 감기들기 쉽소. 불곁에서 천천히 땀을 들여야지.》

인혁은 모닥불곁에 질통을 뒤집어놓고 깔고앉았다. 그는 역시 질통을 깔고 마주앉는, 아직도 땀기가 번들거리는 한정길의 헐끔한 얼굴을 빙그레 웃으며 바라보았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흙운반에 나섰소?》

《비서동지, 전 원래 들끓는 돌격대원들속에 섞이여 뼈마디가 시큰하도록 일하는게 소원입니다.》

《그런 일이야 아무나 할수 있지만 동무 하는 일은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지 않소. 그렇잖소?》

《솔직히 말해서 그깟 강판을 다루는것쯤으로는 성차지 않습니다. 욕심같아선 이 일, 저 일 다 그러안고 뛰고싶은 심정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였다.

《전 어제 성성해진 몸으로 퇴원한 집사람을 보고 정말 많은걸 생각하게 되였습니다.》

《아니, 선초 어머니가 퇴원했소? 거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구만.》

《예.》

《으음, 이젠 됐구만. 그새 서로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겠소.》

큰 시름이 풀리고 저으기 안도감을 느끼였다.

《비서동지도 잘 아시겠지만 저한테는 사실 집사람이 안해이면서 누이이고 어머니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잘못으로 집사람이 그렇게 되구 선초마저 입원하게 되였을 때 나는 정말 막막했댔습니다.》

《그랬을테지.》

《그러나 퇴원한 집사람한테서 입원기간의 일들을 들으면서 나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한정길의 눈에 눈물이 핑 괴여올라 불빛에 번뜩이였다.

눈굽이 달아오른 인혁이도 그만 목이 메여 헛기침을 하였다.

《내 한정길동무 가정에 미리부터 관심을 돌려야 하는건데 안됐소. 량해하오.》

한정길은 불에 덴듯 펄쩍 뛰였다.

《아, 아닙니다. 비서동지가 우리 집 일때문에 많이 속썩였다는걸 제 모르는것이 아닙니다. 로동단련을 하는 저를 도와주려고 애쓰신거랑 죄다 알고있습니다.》

《허허, 그거야 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요. 본분에 따르는 사업의 일환이라고 하겠는지.》

《하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일하지는 못하지요. 금주리에서 살아오면서도 적지 않은것을 체험했습니다. 사실 어떤 일군들은…》

인혁의 눈치를 살피며 그가 물었다.

《비서동지, 아무 말이나 해도 일없겠습니까?》

《일없지 않으면… 내가 문제시할것 같아 그러오? 이제 보니 정길동무한테도 자기 보신이 있다?!》

《자기 보신이라니요?》

《그럼 뭣때문에 할말 , 안할말 경우를 따지오? 그게 진심이 아니라 보신의 울타리라는거요. 무엇이든지 속에 품고있는것이 없이 사는 사람이 진국이고 량심적인 사람이요. 물론 정길동무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되기에 이런 말을 하는거요.》

《그럼 말하겠습니다. 어떤 일군은 웃동을 벗어제끼구 일에 막 몸을 잠그면서 농사일도 추켜세우구 국토건설에서두 들썩 소문을 냈지만 평가를 받은 다음부터는 팔짱을 턱 지르고 앉아 공로의 밑천으로 재세하며 살아갑니다. 그 본심이 뭐겠습니까? 휘장에 가리워진 리기심이 아니겠습니까?》

인혁은 그의 의미가 짙은 말을 심중히 새겨들었다.

《또 어떤 일군은 첫 사업으로 농장원들의 가정도 방문하고 남의 불행두 동정하구 그래서 사람들의 환심도 사지요. 하지만 후에 결정적으로 나서주어야 할 일이 제기되면 외면하는 그런 일군도 있습니다.》

인혁은 그의 말이 리해되여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가 자기자신과 관련되는 문제이지만 누구를 념두에 두고 하는 말인지 알수 있었고 더구나 심중의 말을 다 그대로 하는것이 믿음을 더해주는것이였다.

자기자신에 대하여서도 돌이켜보게 되였다. 돌이켜보고 스스로 자신의 사업과 생활을 다듬어나가는것도 일군의 품성이 아니겠는가.

20

조수환은 여느때보다 퍽 늦게야 관리위원회로 돌아오고있었다.

렴지춘은 마당에 나와 소풍을 하면서 습관대로 담배연기의 동그라미를 그리며 어슬렁거리다가 수환을 마중하였다.

《오늘은 어떻게 늦었습니다.》

《뭐, 다른게 없었나?》

수환은 묻는 말에 응대없이 퉁명스럽게 말머리를 돌렸다. 그것은 군에서 별다른 지시나 무슨 추궁 같은것이 없었느냐는 뜻이였다.

《뭐, 별로 다른게…》하고 지춘은 탈곡실적때문에 닥달받는다는 말을 하려다가 수환의 푸르딩딩한 표정을 피끗 곁눈질해보고 입을 다물었다. 오늘은 별로 그의 기분상태가 저조해보이고 어깨도 좀 처진듯 한감을 주었다. 긁어부스럼이라고 이런 때에는 그의 부아를 돋굴수 있는 말은 일체 삼가하는것이 좋았다.

수환은 다른 날 같으면 지춘에게 더 말을 시켜보련만 그럴 기분이 없어 제창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버렸다.

오늘 그에게는 그럴만 한 일이 있었다.

한낮이 기울무렵 대평리에 나가있던 군경영위원회 위원장이 오던 길에 탈곡실적이 낮은 몇개 반과 공사장을 돌아보고 길에서 만난 수환을 되게 닦아세운것이였다.

《…가을걷이이후 큰 공사를 벌려놓았다고 해서 이렇게 탈곡을 질질 끌어서 되겠소? 다른데선 다 끝냈는데 동무넨 왜 이 모양이요?》

키가 앙바틈한 경영위원장은 수환의 거쿨진 모양을 못미더운 눈길로 치떠보았다.

《위원장동지, 구실같지만 청장년로력은 공사에 붙이다보니…》
수환은 볼부은 소리를 하였다.
《동무, 그걸 구실로 삼으면 되겠소? 원래 공사를 벌릴 때 농장원들이 돌격대원들 몫까지 두몫, 세몫 하겠다고 한 결의가 그럼 빈소리였단 말이요? 또 군에서도 끌끌한 로력을 보내주지 않았소.》
《…》
《내 보건대 탈곡이 늦어지는 원인이 머리수가 아니라 로력관리를 깐지지 못하게 하는데 있소. 우선 관리위원장자체가 현장에 지그시 붙어 지휘해야지 이 반에 가면 저 반에 갔대, 저 반에 가면 또 다른 반에 갔대… 관리위원장 만나는데 그렇게 품이 들어서야 되겠느냐 말이요.》
수환은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씁쓸한 표정으로 들었다.
《아직은 여기 일에 손이 설수 있는 리당비서동무가 그 방대한 공사를 말아안고 바삐 뛰는데 경험많은 동무가 탈곡실적으루 적극 뒤받침을 하는게 도리가 아니요? 다시는 공사가 탈곡결속과 래년농사차비 준비지연의 구실로 되지 않게 일을 착실히 해야겠소.》
경영위원장의 추궁에 수환은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대중없는 불만이 지꿎게 머리를 쳐들었다. 남한테서 싫은소리를 들으니 금시 살이 내리는것만 같았다.
의자에 제빠듬하고 앉아 애꿎은 줄담배질만 하던 그는 계획부원을 불렀다.
갱핏한 렴지춘은 방안의 자욱한 담배연기속에서 수환의 기색을 넌지시 살피며 들어섰다.
《왜 탈곡실적들이 이 모양이요? 래년에 가서야 탈곡 끝냈다는 보고를 하려고 하오?》
탈곡실적이 그 모양인것이 마치나 계획부원의 탓인것처럼 역증내여 물었다.
지춘은 그제야 그의 딩딩한 기색이 바로 그것때문이였다는 깨도가 되였다.
《이거야 어디 탈곡을 빨리 끝내게 되여있습니까? 나도 그때문에 군지령에서 별 추궁을 다 받았습니다.》하고 지춘이도 볼부은 소리로 응수했다.
그 말에 수환은 큰 얼굴을 번쩍 들었다.
《군지령에서 뭐랬게?》

《뭐, 군내 스무나무개 농장중에서 난다긴다하던 금주리가 거부기 걸음을 한다느니, 잘한다고 내세워주니까 잔뜩 우쭐해서 자만병에 걸린것 같다느니…》

수환은 군지령원에게서까지 그따위 비난을 받게 되자 속이 또 부걱부걱 괴여올랐다. 거부기걸음이니, 자만병이니 하는 입뽀족한 말들이 비수처럼 명치끝을 찔렀다.

수환은 쓰거운 표정을 지으며 《그 량반들 책상머리에 앉아 말재간만 늘어가누만. 이 자리에 내려와 앉아보래, 그런 삐뚤어진 소리가 나오나. 그건 그렇구, 이 복새판에서두 5반, 7반, 8반서껀 탈곡을 다 끝냈는데 다른 반들은 왜 팔다리가 짧대? 뭉개기만 하구…》

그 어떤 결함이든 전후형편을 가림없이 추궁부터 앞세우는 수환의 목소리는 퍽 높았다.

《아, 그 반들에서야 리당비서동지가 공사일을 보면서도 직접 발벗고 앞장에 나서니…》하고 지춘은 말끄리를 흐리며 저기압인 수환의 눈치를 살피다가 말을 이었다.

《비서동지가 7작업반에 줄창 나가 말썽군이던 진혜정과 같은 농장원들도 불러일으키고 함께 탈곡도 하며 이끌어준탓이겠지요. 족답기로 벼를 털어내는데 참 볼만 하더군요.》

지춘은 수환의 낯색이 금시 변하는걸 본 모양 입을 다물었다.

미상불 수환은 지춘의 말을 들으며 속이 따끔 찔렸다. 한 보름전에 탈곡이 늦어지는것을 알게 된 인혁은 그더러 자기가 3개 작업반의 탈곡을 와짝 추켜세우겠으니 나머지 작업반들의 탈곡은 관리위원장 당신이 내밀라고 했었다. 인혁은 낮동안은 농장원들과 함께 탈곡을 다우치고 밤에는 공사장에서 밤새움을 하다싶이 하였다.

수환은 이 사실도 매 작업반실적을 매일 종합하는 계획부원을 통해서야 알게 되였다.

인혁이 맡은 반들로 보면 반장이 돌격대장인 1작업반, 기술원 한정길이 속한 5작업반, 로동행정규률이 그중 문란했던 7작업반이였다.

수환은 7작업반의 탈곡실적이 예상외로 쑥쑥 뻗어오르는데는 진혜정의 역할이 크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의 갑작열성이 얼마 가겠는지는 두고봐야 알 일이지만 여하튼 선동원때의 열성이 되살아난것만은 사실이였다.

하긴 의사인 현희가 진로인의 창상치료에 최선을 다하고있으니 진

혜정의 열의가 급격히 높아질만도 하다고 생각되였다.
지춘은 골치가 아픈듯 이마살을 찌프리며 말을 이었다.
《위원장동지, 아무리 로력예비를 짜내야 더 나올데는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농장이 군의 말밥에 오르게 된것도 솔직히 공사때문이 아닙니까. 제 짧은 소견에도 단번치기로 하지 말고 몇해로 계획하고 주근주근 해도 될 일같은데…》
수환은 내심으로 그의 생각에 공감이 갔으나 짐짓 퉁명스럽게 그의 말을 툭 잘랐다.
《됐어. 그런 뒤공론은 쓸데없어!》
지춘은 좀 누그러지는 수환의 기분상태를 놓치지 않고 자기 주장을 세워보았다.
《지금철에야 노루등이 시루떡같아 능률이 부쩍 오를수 있지요. 그러나 앞으로 땅이 콩크리트처럼 얼어붙으면 곡괭이따위로는 어방도 없지요. 아마 300마력불도젤을 들이민대두 삽날을 텅텅 튕겨버릴겁니다.》
《여보, 안된다는 타령 제발 그만두지 못하겠소?》
수환은 듣다못해 별안간 왈칵 화를 내였다.
지춘은 수환의 찡그리는 이마살을 힐끔 쳐다보고 머쓱해서 좀 서있다가 나가버렸다.
사실 수환의 느닷없이 큰 언성은 지춘이한테보다 자신에게 내는 화였다. 이제 와서 공사가 어쩌느니마느니 하는따위의 필요없는 공론은 다만 그의 머리를 어지럽게 할뿐이였다. 그보다도 그처럼 방대한 공사로 하여 그 어떤 과중한 짐이 자기의 어깨우에 짊어지우게 될것 같아 속이 켕기고 두려워났다.

21

푸실푸실 내리는 이해의 첫눈도 먼산을 배경으로 아롱져보이고 겨울의 찬 기운도 포근하게만 안겨들었다.
진혜정은 줄곧 울렁거리는 가슴을 도저히 진정할수가 없었다. 그는 오늘 농산 제7작업반장으로 임명받았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잊었다. 녀인의 그윽한 눈은 함초롬히 젖어있었으나 광채로운 눈빛은 잃지 않은듯싶었다.

(충일의 아버지가 이 소식을 알수 있다면…)

다른 작업반도 아닌 7작업반, 사랑하는 남편이 섰던 바로 그 위치에 자기가 서게 된것이 더없이 기뻤다. 뜻밖의 신임에 기쁨과 흥분을 걷잡을수 없을수록 남편이 사무치게 그리워졌다. 그 그리움은 남편처럼 일하여 당의 정치적신임에 반드시 보답하리라는 의지와 열망으로 가슴을 끓게 하였다. 온 하늘을 가득 채운 흰솜같이 포근해보이는 눈송이들도 자기를 축복해주는 꽃보라인양싶었다.

혜정은 걸음도 가벼이 첫 굽인돌이를 벗어나자 한 녀인이 초간한 거리를 두고 총총히 앞서가고있다는것을 알았다. 까만 솜저고리에 눈빛같이 흰 긴 목도리를 느슨하게 감은 약간 기울사 한 그의 뒤모습이 퍽 눈에 익었다. 자세히 눈여겨보니 윤옥경이였다.

《옥경선생!》 하고 혜정은 반가와 소리치며 그에게로 달려갔다.

옥경은 홱 돌아서며 《아이, 난 또 누구라구!》 하고 눈빛을 반짝 빛내이면서 반색하였다. 차분한 바람결에 옥경의 해맑은 얼굴은 처녀처럼 발가우리해지고 드러난 고붓한 앞머리칼에 흰눈송이가 붙어있었다.

《옥경선생은 어데 갔댔어요?》

《도교육국에서 조직한 교육방법연구토론회에 갔다오는 길이예요.》

윤옥경은 군적으로도 손꼽히는 모범교원이였다. 그가 가르치는 학생가운데서는 전국수학학과목경연에서 1등을 하여 교원들을 놀래운 사실도 있었다.

그는 전에없이 밝고 생기에 넘치는 혜정에게 의미있는 미소를 지어보이며 은근히 물었다.

《그런데 충일이 어머닌?》

촉기가 빠른 옥경은 그의 신상에 그 어떤 변화를 느끼고 물었으나 혜정은 시침을 따고 《나두 뭐랄가… 영농방법연구토론회에 갔댔지뭐. …》 하고 방긋이 웃었다.

《뭐, 영농방법연구토론? 호호, 충일의 어머닌 지금 거짓말을 하지요. 그 눈이 다 말해주고있는데두…》

《옥경선생, 난 오늘 당의 신임에 의해서 7작업반장으로 임명받았어요.》

《그래요?!》하고 옥경은 그의 두손을 나꾸채듯 꼭 감싸쥐였다. 《축하해요. 충일의 아버지 자리에 서게 됐군요. 정말 기뻐요!》

한순간 옥경의 그린듯 아름다운 눈에 대뜸 경탄의 빛이 어렸다.

《어쩐지 충일의 어머니 얼굴을 보고 무슨 기쁜 일이 있는것 같다 했더니, 정말 잘됐어요.》

혜정은 자기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하는 옥경에게 나직이 말했다.

《한번 일을 잘해보리라는 결심이 생기면서도 근심되는군요. 당의 신임에 뜻대로 보답해낼수 있겠는지…》

《충일의 어머니야 드러난 반장감이지요 뭐. 빠진데 있나요? 농대 졸업생이겠다, 유명짜한 선동원이였겠다, 로력혁신자이구 일솜씨 깐지겠다. …》

옥경에게도 혜정의 흥분이 옮아간듯 소녀처럼 명랑하게 내리엮었다.

《이것 보지, 잔뜩 풍선에 태우는걸.》

혜정은 아이들처럼 옥경의 잔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웃었다. 그 웃음은 제나름의 그늘을 안고 지지리 랭가슴을 앓던 두 녀인의 행복에 겨운 꽃떨기같은 웃음이였다.

그들이 옥련봉이 손에 잡힐듯 바라보이는 굽인돌이에 이르렀을 때에는 눈이 멎고 멀쩡해진 하늘에서 해빛이 눈부시게 쏟아지고있었다.

밋밋한 등성길을 오르며 흰눈을 배경으로 펼쳐진 아득한 록새벌을 굽어보던 혜정은 문득 남편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졌다.

세해전 논두렁에 쓰러진 남편이 자기 무릎을 베고 《여보, 난 흙깔이를 채 못 끝내구 가오. 당신을… 꼭… 믿소.》하고 남긴 마지막당부가 귀가에 쟁쟁하였다. 순간 가슴속깊이에서 뜨거운것이 확 치받치며 또다시 눈물이 눈시울을 적시였다.

옥경은 그의 젖은 눈을 지켜보며 조용히 말했다.

《충일의 아버지 생각에 그러지요?》

《으응. …》

《충일이네를 모두들 부러워했댔지요. 그런 귀중한분을…》

옥경은 이 기쁜 날 그의 아픈 마음의 상처를 헤집을가봐 저어하는듯 말끄리를 흐리였다.

그의 말이 옳았다. 그들부부간의 사랑은 각별했었다.

병사시절 전투소보원이였던 혜정의 남편은 그림솜씨가 남달리 능했었다. 그는 결혼하기 전부터 선동원인 혜정을 도와 속보에 모범적인

작업반원들의 인물속사까지 해주군 했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있었다.
농장원들은 포전머리의 속보판앞에 우르르 모여들어서는 《어쩌문 저렇게 신통히두 꼭 같을가, 원.》, 《얘, 저 옥분이 좀 봐. 사진보다두 더 또렷해.》, 《우리 선동원이 언제 저리두 기딱막힌 그림재간을 가졌수.》 하고들 저마끔 혀를 내둘렀다. 모두가 그의 그림솜씨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그 비밀은 마침내 그들이 결혼식을 하는 날 드러나게 되였었다. …
혜정은 리병원을 가까이 하며 부지런히 걸었다. 요즘 아버지가 입원해있었던것이다.
그가 아버지의 입원실 호실앞에 이르렀을 때 안에서 유쾌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손기척을 하고 나들문을 조용히 열었다. 방안에서는 훈훈한 기운이 혜정의 얼굴에 확 안겨들었다. 바깥에서 방금 들어서는 그의 눈에 아버지의 얼굴륜곽은 어렴풋이 알렸으나 침대우에 아버지와 마주 걸터앉은 사람은 누구인지 알리지 않았다. 아버지가 먼저 반겨주었다.
《지금 오는 길이냐?》
《예.》
그제서야 아버지와 마주앉은 사람이 뜻밖에도 유진섭이라는것을 알았다. 혜정은 전에없이 다정히 인사를 하였다.
《혜정동무, 축하합니다.》 유진섭은 밝은 얼굴로 이렇게 말한 다음 아버지쪽에 대고 《그럼 제 대기실에 나가있겠습니다.》 하고 미처 말릴 사이도 없이 자리를 피해주었다.
《아버지, 저에게 7반 반장일을 보라는군요.》
《알구있다. 리당비서랑 여기 와있다가 좀전에야 돌아갔다. 유진섭비서도 내 오늘 퇴원하는걸 어떻게 알구 먼저 와있댔다.》
《퇴원하다니요?! 아직도 다리가 성하지 못한데 어떻게 퇴원한다고 그러세요?》
《이젠 수술자리두 다 아물구 간호원 부축이 없이두 지팽이로 바깥출입을 하지 않니.》
《그래두 아버지, 지팽이없이 걸을수 있을 때까지야 그냥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겠나요?》
혜정은 아버지의 퇴원을 고집스럽게 반대하였다.
《아니다, 총상자리가 다 낫구보니 침상에 누워있는게 더 베차다.

리당비서와 변부위원장이 먼 공사장에서 엇갈아 찾아와서 이마두 짚어보구 자리까지 관심해주지, 현희선생은 거의 붙어있질 않나, 유동무도 이틀이 멀다하게 와서 돌보지. 그러니 너무도 송구스럽고 미안해서 더는 누워 못 견디겠구나. 다리에 강직온거야 하루이틀에 고쳐질것두 아닌게구 해서 집에서 운동료법으로 주근주근 고치려구 결심했다.》

사실 진로인이 퇴원할 의향을 비치자 병원선생들이며 인혁은 두말못하게 펄쩍 뛰였었다. 진로인이 정 간곡하게 사정을 해서야 현희가 3～4일에 한번씩 왕진하는 조건부로 퇴원을 허락받은것이였다.

진로인은 한참동안 무슨 생각에 잠겨있더니 《혜정아, 네 이젠 유동무를 더 나무람 말어라. 내 지내보니 사람이 진국이더라. 며칠전에 와서 진정을 터놓더구나.》하고는 목메인 기침을 하였다.

《그래요?!》

《〈제가 그간 혜정동무의 심정을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진심으로 돕지 못했습니다. 속이 좁다보니 저때문에 옥맺힌 마음을 달리 해석하고 곁을 안 주었으니 혜정동무 설음이 오죽 컸겠습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두 경직반장과 친밀하던 정이야 어디 가겠습니까.〉라구 하더구나.》

혜정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지였다. 지난 기간 그를 원망하며 앵돌아졌던 일을 돌이켜보면 미안한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여직껏 자기가 유진섭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한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를 괴롭혀온것만 같은 자책감으로 마음이 알찌근해졌다.

자기가 일나간 사이에 유진섭이 아버지를 달구지에 태워 리병원에 입원시키고 세면도구를 비롯한 필수사품까지 일식으로 갖추어드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인사말 한마디없이 지내왔다. 그의 소행에 코마루가 찡해오면서도 한편으로는 병주고 약주는 식으로 한날 얕은 인심을 베푸는것으로 느껴지기도 했기때문이였다.

요즘 공사장에서 리당비서의 말을 듣고서야 자신의 지나친 선입감과 옥생각을 뉘우치게 되였었다.

그날 인혁은 푸근한 목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사람이 설음이 크면 곡해가 생길수 있는데 징검다리를 건느던 그 밤에도 그들부부끼리 의합이 맞지 않는 딸혼처문제때문에 옥신각신하다나니 혜정동무한테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것 같소. 좋게 보면 늘 다니던 밤길이니 의당 따라오려니 생각할수도 있었겠구… 물론 덜퉁한

건 유동무고—》

그때 혜정은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자기는 그러한 경우를 바꾸어놓고 생각해본 일이 한번도 없었던것이다.

인혁을 만난 이후 그는 유진섭을 마주 대하기가 별로 쑥스럽고 미안한감이 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 딸보다도 더 자주 아버지의 병문안을 왔댔다고 하지 않는가.

오늘도 아버지의 퇴원을 도우려고 벌써 와서 기다리고있다고 했지.

현희를 비롯한 의사들과 병원일군들은 유진섭의 부축을 받으며 퇴원하는 진로인을 큰길까지 바래워주었다.

유진섭은 진로인의 팔을 끼고 앞에서 천천히 걷고 혜정은 사품꾸레미를 들고 그뒤를 따랐다.

진로인의 기력은 훨씬 좋아졌다. 일어서지도 못하던 아버지가 부축을 받으면서라도 걷게 된것이 그저 꿈만 같았다.

혜정은 가슴이 뻐근해지고 눈시울이 달아올라 연송 두눈을 삼박거리였다.

22

박춘선의 생일날이였다.

인혁은 일을 마치고 농장에 나와있는 강욱과 함께 딸 순이를 앞세우고 춘선의 집에 찾아갔다.

문지방을 넘어서기 전에 인혁은 《어머니! 인혁이 왔습니다.》하고 안에 대고 소리쳤다.

삐걱! 문이 열리고 춘선의 얼굴이 밖을 훑는다.

《아이구, 순이 아버지가 왔구만. 순이도 오고… 가만, 이거 위원장동지 아니시우!》

《강욱이도 곁붙어 왔습니다. 그새 잘있었소?》

《잘있다뿐이겠나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순이 아버지두, 순이두 서있지만 말구 빨리 들어오려무나.》

춘선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대며 수선을 떨었다.

춘선은 순이가 《할머니.》하고 내미는 비닐구럭을 보고 《아니, 뭘

또 이렇게 들구서…》하고 얼른 받아 부엌부뚜막에 놓았다.
《위원장동지, 어서 들어와앉으십시오.》춘선은 강욱을 방안에 맞아들이며 반가와 어쩔줄 몰라했다. 《이 막살림집에 위원장동지가 다 오시다니 꿈만 같습니다.》
강욱은 감회가 깊은듯 《춘선동무나 나나 함께 늙어온 동기간인데 내 미처 찾아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하고 푸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시 미군놈들을 족치며 락동강을 건넜던 강욱은 부상을 입고 고향에 돌아와 치료를 받았으며 전후 리인민위원장을 하다가 군인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소환되였었다. 그러고보면 그들은 다난한 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해온 오랜 혁명동지사이였다.
춘선이 부엌일이 안심찮아 슬며시 일어서는것을 인혁이 손을 잡아끌어앉히였다.
《어머니, 순이가 동자질은 자기 에미 못지 않게 한답니다.》
춘선은 그냥 앉아있기 거북하여 안절부절하다가 변명 비슷이 말하였다.
《내 되려 이렇게 폐를 끼친다구야… 글쎄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알았지만 까짓거 하고 아무 준비도 안했습니다.》
단출한 집안을 찬찬히 살펴보던 강욱은 궁금한듯 문득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손자며느린 언제 맞으려구 아직두 적적하게 동자질이요?》
춘선은 자기의 안타까운 생각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 녀석이 벌써 서른고개를 넘겼는데 내 하두 속이 달아 넌 색시감이 있니, 없니 하구 따져물어두 천상 히물히물하며 벙어리시늉만 한다니까요.》
《히물히물한다는건 점찍어둔 색시감이 어디 있다는건데…》하고 강욱은 머리를 가볍게 끄덕이였다.
《장선이야 하나 빠진데 없는 미끈한 총각인데 속에 엉큼한 궁냥이 다 있겠지요.》
인혁이 한술 더 떴다.
《글쎄, 내 짐작도 그렇긴 한데… 이젠 그저 증손자라도 안아보구파 감질이 난다니까요.》
강욱은 그 말에 동감인듯 깃을 달았다.
《허허, 나두 환갑전에는 두벌자식이 귀해서 오금을 못쓰는 늙은이

를 보면 못나게두 늙은 행셀 피운다구 나무랬댔는데 정작 제 손자가 생기니 그냥 안구다니구싶더라니까요. 그래, 춘선동문 무슨 기미라두 챈게 없소?》

《글쎄, 수군수군 떠도는 말이 옥천리처녀라는…》 하고 춘선은 강욱의 궁금한 물음에 대답을 피할수 없어 지나가는 말처럼 얼추 한마디 했다.

《옥천리?!》

강욱은 그가 하필 옥천리처녀를 기웃거리는것이 별스럽다는듯 고개를 기웃거렸다.

《거기 기계화반장하구 가끔 만나는걸 보았다는 말들이 있었지요. 지금은 아마…》

춘선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강욱의 화제에 끌려들어 그만 말실수를 했다고 깨달은 모양 얼핏 인혁의 눈치를 살피였다.

《그 기계화반장이야 일솜씨 뛰여나구 인물도 절색이지. … 나도 그 반장을 좀 아오. 가만, 인혁비서의 처동생되는 처녀 아니요?》

강욱의 말에 인혁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아니, 우리 현실이하구? 언제 그런 사이였단 말인가!)

인혁은 얼굴에 놀라운 표정을 담았다.

이때 강욱은 잊었던듯 문득 《가만, 조수환동무가 왜 여적 오지 않소?》 하고 인혁을 쳐다보았다.

《내가 너무 서두르다나니 미처 알리지 못했습니다.》'

《알리구 말구가 있겠소. 이런 날을 잊으면 도리가 아니지.》

강욱은 이런 자리에 수환이 빠지는것을 저으기 놀랍게 여기였다.

그때 춘선은 더 듣기 거북한듯 빠개놓고 말하였다.

《내 주책머리없이 잔소리를 좀 했더니 그게 싫은지 차츰 발길이 떠지더군요.》

《잔소리가 싫어서 그런다? 아, 잔소리라는거야 일 잘하라는 잔소리겠지 일 그르치라는 잔소리겠소.》

강욱은 쓴맛을 본듯 입을 다시였다.

본래 과묵한 강욱이였지만 춘선이와 오래간만에 만나니 감회가 새로운듯 내심의 이야기를 펼쳐놓고싶어하였다.

인혁에게는 오늘 강욱이와 함께 오길 참 잘하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욱은 감회에 젖은 진중한 목소리로 말을 계속하였다.

《지금 군관을 하는 내 막내아들이 조그마할 때 너무 장난에만 정신팔려있길래 한번은 회초리로 종아릴 치면서 이 녀석, 네 나이때 이 아버진 공부는 고사하고 짚신을 끌고 눈물을 흘리며 숯짐을 졌다. 세월이 좋아져서 네 녀석들은 꽃방석우에 앉았는데두 공부조차 안하니 이게 된 일이냐구 욕을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아버진 밤낮 그 잔소린데 우리가 이제 또 짚신을 신을 일 있겠나요, 아버지때처럼 학교가는 애들을 부러워할 일이 또 있겠나요, 이러질 않겠소. 억이 막히더란 말이요. 이런 애녀석들이 부모들의 옛 처지를 잊지 않구 나라의 은덕을 알구 공부를 착실히 하도록 키우는데 정말 오만공수가 들었소. 가만, 이거 생일집에 와서 이야기가 별난데로 뻗는다. …》

강욱은 수환으로부터 시작된 말이 자기 자식 키우던 이야기에로 번져가 별스러운 생각이 들었는지 느슨히 웃으며 인혁이며 춘선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지 않았다면 언제 그런 말을 들어보겠습니까. 다 귀중한 말씀들입니다.》

인혁은 자못 감심한 어조로 말하였다.

이때 순이가 방안에 들어와 구석에 세워둔 두리반을 방가운데 가져다놓고 빠르게 드나들며 상차림을 했다.

《새각시같던 저 녀성보잡이명수가 어언간 황혼기라… 정말 세월이 빠르오.》

강욱은 다시금 지난날의 감회를 더듬었다.

《내 전상자병원에서 나와 여기 인민위원장으로 임명받았을 때 사람들이 거기 가면 멋진 세자매 보잡이명수가 있다길래 진짜 한피줄을 타고난 세자맨줄 알았다니까요. 이 춘선동무며 금전동무며 봉선동무… 실지 만나보니 인물들은 또 얼마나 환했겠소. 마주서서 제눈으로 보면서도 세자매로 혼돈할 지경이였지요. 허허…》

《정말 세자매같이 지냈지요. 셋이 마음도 합치고 힘을 합치니 못해낼 일이 없더군요.》

강욱의 추억담에 춘선의 회포도 깊어졌다. 강욱이 말을 계속했다.

《그땐 정말 죽기를 각오하구 일을 했지요. 낮이면 소잔등에 위장을 시켜 보탑을 잡구 밤이면 멀찌감치 홰불방망이를 꽂구 일손을 다그쳤지요. 〈모든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던 때였지요.》

좌중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였다.

상을 차리고난 순이도 행주치마에 손을 닦으며 춘선의 뒤에 나부시 앉아 강욱의 말을 들었다.

《지금 다들 살아있다면 이렇게 모여앉아 그때를 감회롭게 회고하련만 그 팔팔하던 봉선동문 분통하게두 전승을 눈앞에 두구…》

인혁이도 어머니에게서 조수환의 어머니 봉선의 절통한 최후에 대하여 들었었다.

인혁의 어머니 리금전은 봉선이와 함께 전시알곡생산투쟁에도 앞장섰고 전선원호사업에도 헌신했지만 전후 도농업협동조합열성자회의때에는 봉선이 희생되고 회의에는 금전이 혼자 참가했었다.

회의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되였는데 리금전은 회의휴식시간에 수령님을 뵈옵는 영광을 지니였었다.

수령님께서는 그때 전시 농촌을 지켜 잘 싸운 녀성농민들을 만나주시였는데 그이께서는 리금전의 험해진 손을 만져보시면서 남자들의 손보다 더 험해졌다고, 남자들을 대신하여 우리 녀성들이 정말 수고했다고 치하해주시면서 남성들이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지어왔고 함께 일하던 녀성들이 다 잘 있는가고 어버이심정으로 물어주시였다.

그때 리금전은 눈물이 글썽해서 수령님의 물으심에 이내 대답을 못드리였다.

《일을 많이 한 동무이니 눈물도 많구만! 그래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라도 있소?》

《장군님, 그런것이 아닙니다. 너무 감격스러우니… 사실은 같이 보잡이로 있던 김봉선동무가 적들의 폭격에 잘못되였습니다. 언제나 장군님을 뵈올 꿈을 안고 굳세게 살아온 동무입니다.》

《그렇습니까! 전쟁에 우린 훌륭한 녀성혁명가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못다한 일을 해주고 그들의 념원도 꽃피워줍시다.》

《고맙습니다, 장군님! 제가 그만 주책없이.》

금전은 눈물을 닦으며 수령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였다.

(봉선이도 살아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어버이장군님을 만나뵈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녀성혁명가! 얼마나 값높은 칭호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 평범한 우리 녀성들을 혁명가로 불러주시고 크나큰 신임과 한없는 은정을 다 베풀어주신다. …

인혁은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어머니로부터 여러번 들었다. 하지만 그 사연을 강욱이한테서 들은 까닭인지 여느때없이 가슴속에서 뜨거운것이 소용돌이치고 눈시울은 달아올랐다.

인혁은 춘선의 생일이나 축하해주자던 소박한 자리가 이렇듯 숭고하고 뜻깊은 좌석으로 되리라고는 예상 못했었다.

인혁은 밤이 퍽 깊어서야 춘선의 집을 나섰다. 그는 강욱을 합숙까지 바래워주고 고요한 밤길을 순이와 단둘이 걸었다.

인혁은 문득 현실의 말이 났을 때 춘선의 얼굴에 얼핏 스치던 심상치 않은 기색에서 느낀 의혹을 순이한테 묻고싶어졌다. 이모라면 오금을 못쓰는 순이가 그 내막을 모를리 없을것 같았다.

《순이야, 넌 이모하구 장선반장관계를 전부터 알고있었니?》

《아버지, 그건 왜 갑자기 묻나요?》

《글쎄 내 오늘 짐작되는게 있어 그런다.》

순이는 어둠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할깃 치떠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하였다.

《알고있었지만 아버지한텐 말씀드릴수 없었어요.》

《그건 어째서?》

인혁은 대뜸 짚이는데가 있어 마음을 바싹 조였다.

령리한 순이는 지금 자기 말 한마디가 아버지기분상태를 어떻게 만들가 저어되는듯 입을 꾹 다물었다. 인혁이도 조바심을 누르며 그의 대답을 독촉하지 않았다. 순이의 자박자박 걷는 가벼운 발자욱소리만이 호젓한 침묵을 건드리였다.

순이는 아버지가 말은 없지만 자기의 대답을 기다린다는것을 느끼며 또 한동안 망설이며 걷다가 마침내 입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건… 저 뭐랄가, 혹시 아버지와 엄마사이에 마찰이라두…》

《마찰?!》

순이는 걸음을 딱 멈추고 희미한 어둠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살짝 치떠보며 말하였다.

《아버지, 혹시 엄마가 장선아저씨를 좋게 보지 않아두 성내지 않지요? 그것부터 약속하자요!》

《응, 그러마.》

《이모를 딸처럼 키운 엄마의 심정도 깊이 헤아려보셔야 해요. 엄마가 그 아저씨를 반대하는건 본심이 아니라 그 뭐랄가 이모장래를 위

해서라나…》
인혁은 마음이 무거웠다. 한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세대주가 모르다니…
(하다면 그들관계를 훼방놓고 춘선의 마음에 그늘을 던져준 장본인이 다름아닌 안해였단 말인가?!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왜 남편에게조차 아무런 말을 안했을가?)
인혁은 안해에 대한 불만으로 속이 편안치 않았다.
하기야 자기는 현실을 키우는데 품 한자루 들인게 없다. 다만 그가 중학교때부터 농전을 졸업할동안 한가솔로 생활한것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현실이와 관련한 문제는 전적으로 안해의 요구와 당사자의 결심에 따르는것이였다.
더우기 사랑문제는 어느 일방의 강요나 직권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인혁이 순이를 앞세우고 집에 들어서자 안해는 손질하던 딸애의 작업복을 한옆에 밀어놓으며 《왜 이리 늦었어요?》하고 걱정스레 물었다.
《생일집을 다녀오는게 그렇지. 위원장동지랑 어찌다 함께 갔는데 인츰 자리를 뜨게 되지 않더구만.》
아래목에는 흰 상보를 씌운 밥상이 놓여있었다. 솥에서는 토장국이 끓는지 구수한 냄새가 방안에 흘러들었다.
《엄만 생일집 간 사람들이 굶구 올가봐 아직까지 식사두 안하고 기다리세요?》
순이는 응석조로 어머니를 나무라며 작은 솥에서 국그릇을 얼른 꺼내고는 두손가락으로 귀뿌리를 잡았다.
《그만둬라. 끼때를 넘기니 먹고픈 생각 없다.》
순이가 저녁밥을 안 들면 자기가 엄마 입에 밥술을 떠넣을양으로 턱밑에 바투 다가앉자 현희는 할수없이 내키지 않는 수저를 들었다.
순이는 아버지의 동정을 살며시 살피며 웃방으로 올라갔다.
인혁은 오늘 밤은 넘기고 다음날 맑은 기분으로 안해와 의논해야 하겠으나 래일 첫새벽에 공사장에 나가야 하므로 부득불 이밤으로 속에 품고있는 말을 꺼내지 않을수 없었다.
《여보, 내 하나 묻기요. 현실의 대상자문제는 어떡하려구 생각하오?》
《그 말은 왜 갑자기 꺼내요?》
《허허… 갑자기 생각나길래 묻는건데 뭐 놀랄것까지야 있소.》

현희는 남편이 오늘 밤 무슨 말을 들은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거침없이 말하였다.

《당신이 그런 일에까지 참여할 겨를이 있겠어요. 마음놓으세요. 내다 알아 처리하지 않을라구요.》

《물론 제 동생문제니까 잘 처리하리라고 생각하오. 그런데 현실이하구 장선반장이 좋아지낸다는 말은 확실한 소문이요?》

인혁은 안해의 속심을 떠보려고 짐짓 모른척 하고 물었다.

《…》

현희는 대답을 피했다. 그는 헛바느질한 작업복소매깃을 뜯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이 지금껏 가정살림에 무관심해왔지만 나는 늘쌍 리해를 앞세웠구 당신의 뜻이라면 다 양보해왔어요. 하지만 동생문제만은 내 결심대로 하겠어요.》

인혁은 그가 동생문제를 놓고 곁에도 범접을 못하게 우정 담장을 올려쌓는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그 문제를 강요할 생각은 없소. 그러나 독선적인 결심이 상대방의 의기를 꺾는 경우에는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우.》

《당신은 솔직히 현실의 생각보다 리당비서의 체면때문에 그러시지요?》

《아니, 그깟 체면따위는 상관없소. 단지 그 문제때문에 진실한 사랑이 모욕당하구 춘선어머니와두 격지게 될가봐 걱정돼서 그러오.》

현희는 경우에 몰리게 된것을 느꼈는지 마침내 속내를 터놓았다.

《우리 자매가 부모의 따뜻한 정을 모르고 자란걸 당신두 알잖아요. 난 그 애만은 혈육이 그쯘한 집안에 들여보내고싶어 그래요. 그런데 정장선에게 뭐가 있어요. 게다가 당자는 농장간부들과도 잔뜩 엇났지…》

《농장간부들과 엇났다는건 대체 누구의 말이요?》

《다들 그러더군요.》

《다들?》

그는 안해가 그런 말 들고다니는 사람을 딱 짚기 난처하여 《다들》로 둘러대는것이라고 충분히 짐작됐다.

《그렇다면 당신은 현실의 대상을 어디에 정하려 하오?》

《농대연구사예요.》 하고 현희는 서슴지 않고 툭 빠개놓았다.

《농대연구사?…》

《별옥 아버지가 소개했는데 제대군인, 당원이구 인물체격두 쭉 빠

지구…》
인혁은 이 문제에 수환이 끼여든것이 몹시 놀라왔다. 물론 혈육과 다름없는 그들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와 장선의 사이에 쐐기를 박는 주동인물이 수환일것 같아 몹시 우려되였다.
《그렇다면 내 하나 묻기요. 나두 장선의 경우와 비슷하지 않았소. 그때 당신은 나한테 뭘 보고 시집을 왔댔소?》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내가 언니니까 현실이를 생각해서 그런거지 우리 관계문제는 왜 껴들면서 그래요? 당신두 그렇지, 그 애 일이 잘되면 좋지 나쁠건 뭐예요. 난 언니로서 장선반장한테 현실을 맡기고싶지 않아요. 좋은 대상자가 나선 이상…》
인혁은 안해의 리기적인 속심에 속이 뒤집혔다.
《말길수 없다… 당신은 지금이 어느때게 혈육이 그쯘하오, 뭐가 어떻소 한심한 소리를 하는거요? 그래 장선동무 아버지는 무엇을 위해 최전연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쳤소! 할아버지는 또 무엇을 위해 이 땅우에 붉은 피를 뿌렸소!…》
인혁은 억이 막혔다. 안해의 입에서 감히 그런 말이 나오다니?!… 인혁은 자제력을 잃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처럼 아름다운 처녀들이 특류영예군인들의 손발이 되구, 한생의 길동무로 되는 미덕을 두고 당신은 그래 받아들인 감정이 그게 다요? 당신은 그 훌륭한 처녀들이 꽃다운 청춘시절을 허망하게 보낸다고 생각하오? 천만에, 당에서 그처럼 귀중히 여기는 특류영예군인과 일생을 같이하는것을 청춘의 보람으로 여기기때문에 그것을 희생이 아니라 참다운 행복, 도리로 받아들이는 이 세상 가장 아름답고 매력있는 처녀들이란 말이요.
그런데 당신은 뜨르르한 가문과 명예가 차례질 대상에 현혹되다니?!…》
《…》
인혁은 그처럼 미덥던 안해가 이렇게도 저렬한 사람이였던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여지는듯 했다.
농장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한다고들 너나없이 칭찬하는 말들이 외피에 불과했단 말인가!
처녀시절에 자기를 사랑할 때에는 이를데없이 착하고 다심한 현희

였다. 자기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곡진했으면 《한우물들이》라는 어여쁜 별명까지 생겨났겠는가.

어느 여름때 현희가 준 만년필을 우물에 빠뜨리고 인혁이 온밤을 뜬눈으로 새울 때 그 연약한 몸으로 혼자서 드레박질을 하여 세길우물을 말끔히 퍼내고 기어코 만년필을 건져준 그였다.

그리하여 삽시에 동네방네 퍼진 이 한우물들이사연을 듣고 인혁은 놀라움과 함께 그에 대한 애틋한 정을 금치 못했었다. 인혁은 그 일을 두고두고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저릿저릿해지고 그에 대한 사랑이 더 열렬히 불타오르군 했었다.

그렇게도 샘갈이 맑고 순진하던 현희가 언제부터 저리도 달라졌는가!

그가 저 모양이 되여가도록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대체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

23

추위가 들이닥쳤다. 별안간 옥천강은 허옇게 얼음이 지고 노루등걸층은 바위등처럼 얼어버렸다.

수환은 오늘 4작업반에서 종자처리장 현대화의 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기술일군협의회를 소집하였다. 인혁은 도에 출장가고 없었는데 그도 오늘 협의회가 있다는것은 알고있었다.

농장안의 기술일군들은 종자처리장 현대화의 경험도 듣고 일일이 돌아본 다음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에 모였다.

해사하게 생긴 4작업반 기술원은 결그림을 짚어가며 차근차근 설명했다.

《… 이렇게 되면 로력도 절약하게 되고 귀중한 소금, 석탄 등을 절반으로 적게 쓰면서도 씨앗싹트기률을 3～4프로 높일수 있게 됩니다.》

작업반기술원들은 귀가 항아리만 해서 그의 설명을 들었다.

수환은 앉은책상우에 두팔굽을 올려놓고 어지간히 흡족한 표정으로 설명에 주의를 집중하고있는 기술원들을 쭉 둘러보았다.

그는 웅글고 석쉼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보란 말요, 얼마나 실리적이요. 모든 기술원들이 저 동무처럼 한가지씩이라두 이렇게 해보우. 공사에 기름짜듯 조절하는 로력예비두 당장 생길게구 말이요, 엉?》

그는 문득 말을 중둥무이하고 불만스러운 눈길로 기술원들을 일별하였다.

《그런데 어떤 작업반들은 망태기거던. 정온기가 정비돼있길 하나, 비중계가 마련돼있길 하나 엉? 물론 종자처리장정비까지는 적잖은 날자가 있소. 하지만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한단 말이요. 말타고 버선깁는 식으로 코앞에 딱 림박해서 들볶아치면 랑패보기 쉽단 말이요.》

수환은 제 말은 다 끝냈다는 암시로 기사장에게 얼굴을 돌렸다.

기사장은 종자처리장현대화를 위한 잡도리를 지금부터 잘할데 대한 문제와 당면한 기술실무적문제들을 상세하게 강조하였다.

수환은 기사장의 이야기에 또 줄을 달았다.

《이자 기사장동무두 강조했지만 아직두 어떤 동무들은 기술원의 위치와 사명을 자각하지 못하구 있단 말이요. 여기에 한정길동물 내놓군 다 참가했는데…》

이때 늦게 온 한정길은 《와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수환은 그제야 뒤구석에 앉은 한정길을 띄여보고 옆에 앉은 기사장을 돌아보았다.

《동문 부르지 않았는데 참가했구만.》

《그 동무야 부르지 않는다구 해서 이런 모임에 빠질 동무가 아니지요.》

수환은 기사장의 말을 무표정하게 듣고는 하던 말을 계속하였다.

《까놓구 말해서 동무네를 어느 관리일군에게 비하겠소. 가령 동무네가 한 공정 설치면 한해농사를 망칠수 있소. 저 한정길동무 왔으니 한마디 하겠소. 물론 저 동무가 수고하는건 온 농장이 다 아는거구. 하지만 한때 농약처릴 잘못한탓으루 몇정보나 되는 벼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았소. 사실 그때두 관대히 처리됐으니 망정이지, 엉? 그런데 씨앗처리야 그 정도에 비하겠는가. …》

그 말에 기술원들의 시선은 일시에 한정길에게 쏠렸다. 기술원들은 몸가짐이 의젓하고 능력있는 그를 누구나 선망하고있었다.

수환은 이때 나들문을 슬그머니 열고 들어서는 키꺽두룩한 기술원에게 눈길을 돌리였다.

《여보 6반기술원, 엊저녁에 선 비지를 먹었나. 왜 바깥출입이 그리 잦은가?》

와— 하고 웃음이 터졌다. 수환이 운영하는 모임에서는 종종 이렇게 웃음통이 터지군 했다.

《그러지 않아도 내 동무 소릴 하자던 참이야. 키가 구척되는 동무가 전전해에 정밀성, 고도의 정확성을 요하는 시간에 깜빡 졸면서 계기를 놓치는통에 그만 벼종자를 망치게 하지 않았소. 보우, 동무들의 위치가 어떤가, 엉? 아, 공업부문같은데서야 오작품을 내면 열백번 다시 만들수 있지만 농사란 한번 실패, 한번 오작이 옹근 한해농사를 망친단 말이요, 한해농사를… 이걸 명심해야 돼. 그러니 1년농사운명을 좌우하는 종자처리공정을 손톱눈만치라두 설쳐선 절대 안된단 말이요. 찍어말하면 목숨으로 담보해야 돼.》

그러면서 그는 종자처리장상태가 마음에 싸지 않은 몇개 반을 꼽았다.

《나는 말을 다 했는데 모였던김에 동무들두 할 소리가 있으면 해보구려.》

키꺽다리 6작업반기술원이 일어섰다.

《우리 6작업반에서도 4반처럼 종자처리장을 멋지게 해놓겠습니다.》

《여보, 남들이 다 하니 우리도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말이 앞서는게 아니요?》

《아닙니다. 한다면 하는거지요. 그런데 여러번 제기한바 있는 세멘트를 꼭 해결해주십시오.》

수환은 별안간 버럭 증을 내였다.

《왜 자꾸 보채면서 그래. 우는 아이 젖준다더라 하니까. 내 호주머니에 넣구다니며 안 주는가. 곧 풀어준다고 말하잖나. 저 동무의 나쁜 버릇이 뭔가. 이자 식으루 무슨 결의를 다지는체 하구는 항상 그 뒤끄리에 조건부를 내대는거야. 그건 그거구 6반은 왜 매해 알곡수확두 그 모양인가, 엉? 과학기술적요구는 줴버리구 강짜루 옹근소출을 꿈꾸면 되는가. 기술원들이란게 된서리맞은 호박잎처럼 후줄근해 그러지 말구 좀 갈개라구, 엉…》

수굿하고 서있던 6반기술원이 자리에 앉으며 《갈개라는건 뭐 보채라는 소리가 아닌가.》 하는 바람에 또 웃음이 터지고말았다.

그 웃음소리에 눈이 둥그래진 수환이 《잘들은 웃는다, 제앞처리나 잘하면서 웃으라구.》 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웃음소리는 한동안이 지

나서야 잦아들었다.

인혁은 도에서 회의를 마치고 며칠만에 돌아왔다.

그간 단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했다. 례년에 없이 갑자기 들이닥친 강추위로 공사장까지 마비되지 않았을가 하는 걱정으로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는 도착하는 즉시 서둘러 공사장으로 나갔다. 볼을 갈가리 찢는듯 한 칼바람이 새된 소리를 지르며 공사장을 당장 요정낼듯 태쳤다.

그러나 공사장은 예상외로 불도가니마냥 들끓었다.

장선이 벙어리장갑등으로 이마의 땀을 뻑 씻으며 반달음해왔다.

《언제 오셨습니까?》

《방금전에 왔소. 그새 많은 일 해제꼈구만!》

움츠러들기는커녕 더 맹렬한 기세로 전투를 벌리는 돌격대원들의 모습을 보니 힘이 생겼다.

《그래 한정길동무가 개조하는 언땅파는기계제작은 끝나가고있소?》

《당분간 중지했습니다.》

《뭐, 중지하다니?!》

《작업반에 도로 들어갔습니다.》

《작업반에는 왜 들어갔소?》

인혁은 어리둥절했다. 이 한시가 새로운 때 작업반에 들어가다니? 그럴수 있는가.

인혁은 장선을 데리고 대장간에 들어갔다. 불은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가 만들던 3대의 쐐기형언땅파는기계 산형강탑식골격이 쓸쓸하게 서있었다.

장선은 한정길이 다문 며칠만이라도 반에 좀 나가보겠다며 불시 자리를 뜬 일과 관리위원장이 몇해전에 그가 저지른 농약건을 거들어 비판하였다는 사실을 들려주었다.

(어느때 일을 아직 거들면서 그러는가? 그거야 묵은 상처를 헤집는 노릇이 아닌가.)

《종자처리장현대화문제가 론의되였다고 합니다. 4작업반에서 선코를 뗐다는데 그때문에 한동무도 충격이 컸던것 같습니다.》

한정길의 작업탁우에 놓인 작업일지가 인혁의 눈에 띄였다. 들추어보았다. 첫 페지에 결의같은 글을 요란한 수식사로 붙여 써놓았다.

《기술지식, 능력, 정신령역에서의 예비를 모조리 짜내여 기술혁신, 창의고안 및 제작에서 결사전! 공사기일을 최대한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자. 순직각오!》

(순직각오라?!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결심은 요란하군.)

그밑에는 또 무엇무엇을 한다는 기술혁신목표 비슷한것이 적혀있었다.

① 불도젤식삽날

② 쐐기형언땅파는기계

③ 새형의 수평정지기

④ 회전식써레의 능률제고문제

…

인혁은 갑자기 눈앞이 뿌예졌다. 뿌예진 눈앞에서 글줄은 사라지고 대신 서글픈 웃음이 비낀듯 한 한정길의 모습이 그려지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듯 했다.

《비서동지, 저는 포부를 높이 세워놓고 과오만 범하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전철은 밟지 않겠습니다.》

인혁은 속에서 불이 일었다. 금시 숨막힐듯 가슴이 답답하였다. 그를 당장 만나보지 않고서는 활랑거리는 마음을 좀처럼 가라앉히지 못할것 같아 급히 대장간을 나섰다.

×

(무슨 영문일가? 또 무슨 일이 생긴게 아닐가?)

한정길의 안해 옥경은 공사장에서 줄곧 밤새움을 하던 남편이 느닷없이 이틀째 작업반으로 나가는것이 어쩐지 미심쩍었다. 공사에서 한몫하라고 당조직에서 그처럼 믿고 내세워주는데 돌연 그것을 등지는 신의없는 인간이 될가봐 마음은 사뭇 불안해졌다.

《당신은 갑자기 웬일이예요. 공사가 한창인 때 반엔 왜 나가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일은 무슨 일, 반일이 마음에 걸려 며칠 좀.》

그 두리뭉실한 대답이 더더욱 조바심을 불러일으켰다.

《도에 가신 리당비서동지와 토론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야속해하시겠어요.》

《나두 다 생각이 있소. 하지만 제앞처리부터 잘해야 될게 아니요.

난 종자처리장현대화때문에 그러오. 우리 작업반이 물망에 올랐단 말이요. 아무리 관리위원회에서 직접 봐준대도 그것 역시 내가 할 일이란 말이요.》

옥경은 이제야 그의 결심이 리해된듯 더 말이 없었다.

사실 농기계기사인 남편은 남다른 능력자여서 농장적인 중요공사나 요긴한 일마다 의례 지목되였다. 그러다보니 해놓은 일이 많았고 따라서 제기되는 문제도 많았으며 일군들의 눈밖에 나는 경우도 있었다. 농약건이 그랬다. 이번에 작업반별로 진행되는 종자처리장현대화문제를 놓고봐도 한정길은 응당 공사에 동원되였으므로 그 일에 참가하지 않게 되여있는데 그 문제를 토론할 때 또 한정길의 지난 시기 과오가 헤집어졌다. 거기에 반발한것은 아니지만 정길은 이미부터 무르익혀오던 현대화도입문제를 해결하고싶어 작업반 종자처리장에 온것이다.

이때였다. 누구인가가 밖에서 주인을 찾았다.

《한정길동무 있습니까?》

너무나도 귀에 익은 목소리여서 그들내외는 동시에 뛰쳐일어나 《예!》 하고 문을 열었다.

《비서동지! 어서 오십시오. 언제 오셨습니까?》

한정길은 추위에 언 인혁을 서둘러 방에 맞아들이면서 반가와 어쩔줄 몰라했다.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옥경은 얼른 방안을 정돈하고 한정길은 그의 차디찬 손을 잡아 아래목에 이끌었다.

인혁은 집안의 명랑한 기운을 느끼고 저으기 안도감을 가졌다.

《비서동지, 도에 가신지 사나흘밖에 안되는데두 몇달이 지난것 같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으로 빨리 오고싶었소.》

인혁은 옥경의 아직 병색이 도는것 같은 몸자세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퇴원후에 불편하진 않습니까?》

《네, 이젠 정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고 옥경은 밝은 웃음을 지으며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갔다.

옥경은 남편때문에 인혁이 바쁜 걸음을 한것 같아 미안해하였다.

인혁은 은근한 목소리로 물었다.

《듣자니 작업반일을 본다더군.》
《좀 그렇게 됐습니다. 경우없는 행동인줄 알면서두…》
《그게 무슨 경우없는 행동이겠소. 그런데 문제는 왜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동하게 됐는가 하는 그거지요.》
한정길은 안해에게도 숨겨두었던 속내를 터놓았다.
《대체로 알고오셨겠지만 그날 4반이 먼저 현대화의 기발을 든걸 보구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다 관리위원장동지가 우리 5반 종자처리장상태가 그중 한심하다고 저를 빗대고 말하는것 같아 열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심은 훌륭하지만 두가지 일을 한꺼번에 내밀기가 쉽지 않을텐데… 결김에 내린 용단이 은을 낼수 있을가.》
《비서동지, 걱정마십시오. 언땅파는기계두 종자처리장현대화두 빠른 시일안에 다 해놓을 작정입니다.》
《모를 소리요. 차라리 한정길동물 공사에서 뚝 떼여 아주 들여보내던가 해야지.》
정길은 리당비서가 엄포를 놓는다는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결심을 완강히 납득시키려 들었다.
《솔직히 제 일이야 머리로 하는게 더 많지 않습니까. 유능한 창작가는 한 작품을 무르익히면서두 새 작품의 기틀을 동시에 성숙시킨다더군요.》
《정길동무한테 자화자찬이 있다?! 결심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기본이 아닐가.》
인혁은 그의 엉뚱한 궁냥에 마음이 끌려 긴장했던 낯색을 풀었다.
옥경이도 부엌에서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없는 웃음을 웃었다. 그전에는 볼수 없었던 그들의 관계다. 비서앞에서는 언제나 주눅이 들고 할말도 못하는 남편으로 여겨온 옥경이였다.
《비서동지, 오늘 신문에 새로운 용액에 의한 벼씨앗처리방법이 실렸더군요. 남먼저 도입해볼가 합니다.》
《그렇소? 그 결심도 좀 들어봅시다!》
비서의 공감하는 목소리!
저녁을 지으면서 옥경은 시종 가슴이 높뛰고 눈시울이 젖어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바로 한달전에 옥경은 남편과 함께 인혁을 만난적이 있었다. 그때

인혁은 원평제련소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지태진이라는 정길의 아버지 입당보증해준 로인을 만났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부부는 눈물을 머금고 인혁의 이야기를 들었다.

인연이란 우연한 기회에, 예견치 않았던 장소에서도 맺어지게 되는 듯싶었다. 인혁이 원평제련소에 간것은 완전히 다른 일때문이였지만 그곳 일군과 담화하는 과정에 한정길의 아버지에 대하여 알게 되였다. 한정길의 고향이 원평이며 그가 금주리에 자원진출해왔다는 것을 알고있는 인혁이 어떻게 되여 정길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였는데 그 일군이 신통히도 한정길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입당보증인이 누구라는것까지 알고있는것이 아닌가. 한정길의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었지만 입당보증인은 아직 살아있었다.

한정길의 아버지 입당보증인인 지태진은 로력영웅이였다. 그는 년로보장에 넘은지 이미 오랬으나 매일같이 제련소에 나와 로동자들의 일손을 깐깐하게 거들어주었다. 고령인데도 자세가 곧바르고 탄탄한 몸집에 혈기왕성한 그는 인혁을 친혈육을 만난것처럼 반가와하며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당시 제련소 부기사장이였던 한정길의 아버지는 제련소의 일부 생산공정을 기술적으로 더 완비하기 위한 사업을 책임지고 주야전투를 벌리던중 현장에서 순직하였다.

그는 일밖에 모르는 불같은 사람이였으며 실력가였다. 원래 사람이 고지식하고 사업의욕과 열의는 그 누구도 당할수 없었다.

그때에도 줄창 밤을 새우며 제 몸을 너무 혹사하여 일군들이 좀 쉬염쉬염하라고 여러번 권고도 해보았으나 하던 일은 끝장을 봐야지 한숨 돌리면 랑패를 볼수 있다고 하면서 손에서 일을 잠시도 놓지 않았다. 그는 쓰러지는 순간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고 맡은 기술적과제수행에 깡그리 힘과 지혜를 바치였다.

지태진로인은 한정길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였다.

《그는 명실공히 당의 기초축성시기 참다운 일군으로 살았지요. 내 비록 한동무의 입당보증인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가 당원은 어떻게 살며 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보여준 량심의 본보기구 말없는 길잡이였지요. 나는 지금두 운명직전까지도 기술혁신의 성과에 기쁨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던 그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아마 한동무의 아들은 그때 어렸을테니까 잘 모를거웨다.》

인혁이가 들려준 그 말을 들으며 정길의 부부는 감격의 눈물을 걷잡지 못했으며 아버지처럼 당을 헌신적으로 받들어나갈 심중의 맹세를 다지고 또 다졌다.

그때 인혁은 이제라도 당장 한정길을 지태진한테 보내고싶었지만 후에 당원이 된 다음 아버지의 입당보증인앞에 떳떳이 내세워주고싶은 마음으로 그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고있었다.

24

《가만, 이자 바깥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았소?》

대장간에서 언땅파는기계제작을 보아주고있던 인혁은 문득 귀를 강구며 이렇게 물었다.

그 말에 기술혁신조원들도 눈이 둥그래지며 일시에 일손을 멈추었다. 밤이 고즈넉이 깊어지고 바람도 잦으므로 밖은 사실 조용하였다.

인혁은 분명 비명비슷한 가느다란 외마디소리를 귀결에 들었다. 그는 움쭉 일어나 손전지를 들고 서둘러 문밖으로 나갔다. 전지불로 캄캄한 마당을 휘휘 비쳐보다가 피뜩 마당 한쪽끝에 한정길이 기척없이 꼬부리고앉아있는것을 보았다.

《한동무, 왜 그러우?》

인혁은 급히 다가갔다.

인혁의 말소리를 듣고 조원들이 마당에 뛰쳐나왔다.

《제길, 이놈의 웅뎅이에 그만…》

그는 발목을 붙잡고 신음소리를 삼키며 꼼짝을 못했다.

《아니, 웅뎅이에 발목을 접질린게구만!》

모두들 와 달라붙어 한정길을 조심히 안아들어 대장간안의 멍석우에 갓난애 다루듯 앉혔다.

인혁은 다친 발목을 손으로 주근주근 눌러보았다.

《골절은 아닌것 같은데… 지금이 몇시요?》

《새벽 2시입니다.》

《이제 의사를 부를순 없겠구… 가만, 내 등에 업히우.》

마음을 질정하지 못하고있던 인혁은 마침내 결심했는지 한정길에게 등을 돌려댔다.
《자, 어서 등에 업히라는데.》
한정길은 기급하며 앉은뒤걸음으로 한발 물러났다.
《아,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현장을 못 뜹니다. 마음놓으십시오. 얼마 지나면 저절로 낫겠는데 제발 이러지 말아주십시오.》
《무슨 소리를 하오. 지금은 당분간 뜨뜻한 방에서 안정치료를 받아야 속히 회복될수 있단 말이요. 두말말고 업히오.》
그러나 한정길은 한사코 현장을 뜨지 않겠노라고 버티였다.
《한동무, 그 심정은 충분히 리해되오. 하지만 여게 그냥 있으면 일자리도 불편해. 동무를 시중들자니 오히려 부담스러울수 있다는 생각두 좀 해야지. 어서 업히오.》
인혁은 그가 더 버티지 못하게 우정 오금을 박았다.
조원들은 저마끔 그한테 등을 대려고 하였다.
《제작이 한창인데 동무들은 붙어있소. 사람을 업는데서야 내 등이 더 나을수 있지. 여기서 1작업반선전실이 가까우니 내 제꺽 갔다오겠소.》
조원들은 그를 일궈세워 인혁의 잔등에 업혀주었다. 인혁은 저보다 키가 더 큰 그를 업고 땡땡 얼어붙은 울퉁불퉁한 길을 살얼음 밟듯 하며 멀지 않은 1작업반선전실쪽으로 향하였다. 조원 한명이 슬그머니 따라갔다.
(결국 내 잘못이야. 지내 무리했지. 너무 혹사시켰거던. 그랬으니 남들이 헛짚지 않는 웅뎅이에 발목을 접질렀지…)
인혁은 속으로 자신을 질책하였다.
쐐기형언땅파는기계의 세부제작에 이르기까지 주관하는 한정길이 현장에서 떨어지면 분초를 다투는 제작이 코코에 걸리게 될것은 뻔하였다. 그러나 사정이 아무리 급박하더라도 어수선한 현장에서 안정치료를 받게 할수는 없었다. 그래서 인혁은 무작정 옮기여 치료해주기로 결심한것이였다.
이튿날 아침 리병원 외과의사가 와서 찬찬히 진찰해보더니 골절이지만 다른 증상은 아니고 발목이 심하게 삐였다고 하면서 오전 한겻 침도 놓고 물찜질을 정성껏 해주었다.
한정길은 속에서 불이 일었다. 작업반에 나가 종자처리장현대화를 추

진하느라 지연된 기계제작을 봉창하려고 한창 열을 올릴 때 공교롭게도 기계제작에서 유리되게 되였다는 생각으로 막 미칠 지경이였다. 더구나 리당비서는 선전실을 뜨뜻이 덥히게 하고 하루 세끼식사와 바깥출입까지 시중들게 해주니 이거야 바늘방석에 앉은것 같아 배기겠는가.

이렇듯 그가 안절부절하고있을 때 마치도 그의 심정을 헤아린듯 다음날로 여러명의 돌격대원들이 마무리단계에 있던 세번째의 언땅파는기계를 목도하여 선전실마당에 날라왔다. 그리고 제창 큼직한 도람통화독도 갖다놓아주고 한 수리반원은 한정길의 쌍지팽이까지 만들어주었다.

한정길은 동무들의 성의에 눈물이 불쑥 괴여올랐다. 돌격대원들속에 섞여있던 인혁이 느슨한 웃음을 띠고 다가와 서글서글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한정길동무, 이제는 마음이 안착될것 같소?》

《비서동지, 고맙습니다. …》

《별소릴 다 하누만. 이건 공사기일이 한시도 새로와 안타까와하는 동무나 돌격대원들의 마음이 합심되여 취해진 조치요.》

《옳습니다. 이젠 아픔도 뚝 멎은것 같습니다.》

《그렇소? 하하… 명처방을 내렸으니 빨리 〈치료〉에 들어가기요.》

전투가 시작되였다. 화독에 불을 지피고 벼짚을 깐 마당에 멍석까지 펴놓아 작업장은 대장간이나 별반 다름없이 되였다.

농장원들이 듬뿍 날라온 벼짚나래로 작업장둘레에 바람막이바자를 가설해주던 정장선이 인혁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비서동지, 이미 만든 언땅파는기계들을 보고 모두들 사기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작하는 기계는 지지틀밑폭을 조금 더 넓혔으면 하는 제 개인적의견입니다.》

《밑폭을 넓히잔 말이지.》

《그래야 100키로그람도 넘는 두개의 추를 임의대로 그리고 보다 안전하게 다룰수 있을것 같습니다.》

인혁은 그 말을 들으며 한정길의 얼굴에 언뜻 스치던 난감해하는 기색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한정길의 그러한 심정을 알고도 남았다. 워낙 석대의 이 기계제작에 착수할 때 그중 바른것이 산형강이였다. 그래서 창고며 농장의 구석구석을 모조리 뒤지여 예비를 깡그리 동원했었다. 때문에 지지틀을 최소한의 안정성이 담보되게 빠듯이 제작했던것이다. 그런

만큼 농장안에서는 산형강이 더 있을데도 나올데도 없었다.
그렇다고 하여 옳은 의견을 외면할수 없었다. 인혁은 곧 모든 기술혁신조성원들이 산형강탐구에 나서도록 하였다.
《좌우간 래일은 다시한번 온 농장의 구석구석을 뒤져봅시다. 무슨 수가 나설지 알겠소.》
인혁이도 두루 생각을 짜내던 끝에 언제인가 전시에 지금의 9작업반쪽에 옥천강다리가 있었는데 적들의 폭격이 너무 심하여 고압전주마저 동강이 났다는 소리를 들은 기억을 살려냈다.
그는 지체없이 9작업반에 나가 본토배기인 곽로인을 만났다. 그는 그길로 작업반장을 데리고 곽로인이 대준대로 마을에서 퍼그나 떨어진 둔덕의 후미진 비탈에 가보았다. 마침 양지바른데여서 고압전주자리는 얼마 얼지 않았다. 곡괭이로 몇번 파헤치자 산형강끄트머리가 드러났다. 인혁은 환성을 질렀다. 작업반장은 부리나케 마을에 달려가 벼겨 몇마대 날라왔다. 그들은 그 자리에 불놓이를 하고 하루밤 새울 잡도리를 했다.
50줄에 들어선 과묵한 9작업반장은 땅의 속도 제 속내처럼 안다는 근실한 초급일군이였다. 그는 아이들마냥 벼겨마대속에 넣어가지고온 감자를 한웅큼 겨불속에 묻고는 나무꼬챙이로 슬슬 굴리며 말을 건넸다.
《요즈음은 한개 작업반을 운영하기도 어지간히 베찬데 비서동지는 그 많은 일을 안구 정말 힘들겠습니다. 노상 공사장에 붙어있으면서 말입니다.》
인혁은 빙그레 웃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감한 어조로 말하였다.
《솔직히 지금은 누구나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 일이 언제 헐한 때가 있었습니까. 모든 일이 다 그저 쉽다면야 우리가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일이 아무리 힘들다가도 이렇게 별하늘을 등에 지고 남모르게 흘리는 땀 방울방울이 우리 농장원들생활의 밑거름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피곤도 힘든것도 다 잊게 된단 말입니다.》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이군요.》
작업반장은 저으기 감심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날이 샐녘에야 흙속에 깊이 묻힌 동강이 난 여러개의 산형강토막들을 파내였다.
작업반장이 바줄로 산형강토막들의 량쪽끄트머리부분을 바싹 조

여매고 질빵을 하여 등에 지려는것을 인혁은 한사코 말리였다. 그리고 인혁은 그가 어쩔사이없이 산형강짐을 제꺽 걸머지였다. 작업반장은 여기 일이 있고 산형강은 자기가 지고가야 했던것이다.

《비서동지, 꽤 가낼것 같습니까?》

《이쯤한거야 뭘… 한정길동무랑 기술혁신조성원들이 환성 올릴 생각을 하며 날개를 펼치고 달려갈테요.》

한편 산형강을 탐구하러 기계화작업반과 리소재지에 나갔던 조원들은 수확이 매우 빈약하였다.

실망에 잠긴 한정길이 자정이 훨씬 지나도록 준비작업을 하다가 선전실에 들어와 잠간 눈을 붙인다는것이 그만 잠에 아주 곯아떨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꿈인지 생시인지 두런거리는 말소리와 누군가의 놀라와하는 큰 목소리에 한정길은 펀뜻 잠을 깨였다.

《비서동지, 이 무거운걸 지고왔단 말입니까!…》

한정길은 급히 몸을 일으켜 앉은걸음으로 문가에 다가가 나들문을 활짝 열었다.

순간 그는 소스라치듯 놀랐다.

훤히 밝아오는 하늘을 배경으로 산형강을 걸머진 인혁이 마당에 힘겨이 들어서고있지 않은가!

날씨가 찬데도 그의 얼굴엔 온통 땀이 즐펀하였다.

한정길은 반사적으로 일어서려다가 비칠하며 급히 문설주를 잡았다.

《비서동지!》 하고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한정길동무, 됐소. 이젠 막힌 고리가 풀렸단 말이요!》

한정길의 눈에는 새로운 감동의 빛이 어리였다. 려명은 빨리도 다가오고있었다.

25

날씨는 멀쩡하게 개였으나 허공에 성에꽃이 유리가시처럼 반득거리며 떠돌아 더 맵짠감을 주었다.

며칠만에 공사장에 나와본 수환은 기가 딱 막혔다. 온 공사장은 떵

떵 얼어붙은데다 양지바르거나 홈타기진 무른데를 골라 파먹느라고 노루등은 온통 벌집투성이였다. 그리고 군데군데 쌓은 흙무지는 얼어서 바위덩이가 돼버렸다.

수환은 막막한 심정으로 공사장을 돌아보았다.

(인혁이 모든 일을 떡먹듯 생각한다는 내 말을 한날 웃음으로 넘기더니…)

그런대로 50～60프로 계선에서 어물대던 하루공사실적이 요즘은 18프로까지 뚝 떨어졌다고 한다.

돌격대원들은 질통을 지거나 들것을 들고도 반달음을 하는 작업구간이지만 수환은 발걸음을 더디게 옮겨놓는데도 연방 언흙뿌리에 걸채이고 홈타기에 지치여 여러번 나자빠질번 하였다.

그때마다 밸이 곤두섰다. 《빌어먹을…》 하고 대중없이 역증을 내군 하였다.

(이런 한심한 꼴로 모내기전에 끝낸다구?)

지금에 와서보면 경험자인 자기가 인혁의 입에서 공사 말이 나올 때 눈치를 가릴것없이 결단성있게, 무자비하게 딱 잘라매지 못한것이 열백번 후회되였다.

순간 일전에 농산과장이 공사장을 한번 돌아보고 하던 말이 머리에 생생히 떠올랐다.

《아무래도 죽탕치구말것 같아.》

(그러니 결국은 엎지른 물이 된셈 아닌가.)

관리위원회로 돌아온 수환은 계획부원방에서 언몸을 녹인 다음 제창 자기 사무실로 갔다.

뒤미처 지춘이 신문을 들고 서둘러 들어오며 《위원장동지, 이걸 좀 보십시오.》 하고 기사의 한 대목을 손으로 짚어보였다.

신문에는 영천관리위원회사업에 대한 경험기사가 실려있었다.

《영천같은거야 우리와 상대나 되던 농장입니까. 이젠 제법 신문에 짱짱 소개되는 정돕니다.》

그 기사를 보고 수환의 심사는 더욱 편찮았다.

그 막막한 공사때문에 어제날의 공든 탑이 졸지에 허물어지고 쟁쟁하던 농장이 뒤전에 밀려 무색해지는듯 한 허무감이 들었다. 수환이 잠시 이와 같은 생각에 잠겨있는 사이에 지춘은 군경영위원회에서 소집한 회의에 들고갈 문건을 가져왔다.

수환은 문건을 받아 건성 번지기 시작했다.

워낙 이러루한 문건작성에서 펄쩍 나는 지춘이여서 굳이 깐깐히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

게다가 지춘은 성미도 누그럽고 착실하여 수환이 좋게 보는 아래일군의 한사람이다.

그러한 지춘에게 수환은 전적인 믿음을 주게 되였으며 따라서 수환이 어느 모임같은데서 하는 공적인 말은 지춘이 생각을 빌린것이나 다름없게 되였다.

사실 오늘 수환은 문건을 꼼꼼히 볼 기분은 없었으나 지춘의 수고를 알아주는척 하며 쭉 훑어보았으며 지춘이 역시 보나마나한건데 우정 그런다는 생각을 하며 잠자코 서있었다.

수환이 문건에서 얼굴을 들 때까지 그대로 서있던 지춘은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위원장동지, 공사실적이 겨우 18프롭니다.》

《알구있어.》

《이제 당장 발아시험, 강냉이그루소토, 모판자재준비 같은 시간 다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사가 동결된 판에 로력조절이라도 해야지…》

수환은 듣다못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자꾸 귀아프게 공사를 트집잡지 말란 말이야.》

《제가 뭐 트집잡습니까. 실적없는 공사로력이 아까와서 그러지요.》

《여보, 쏘는 이발을 다치는 식으로 공살 더 건드리지 말란 말이요. 그게 어떤 공사라는걸 모르는가. 금주리 미래건설이나 같단 말이요. 무슨 방도 찾을 궁리는 않구 꿰진 소리만 하다가 방해군딱지가 붙고싶어 그래?》

지춘은 그쯤한 책망에 뜨끔해하기는커녕 도리여 반죽좋게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방해군이라니, 제가 뭐 공살 드러내놓고 비방하는 사람같이 말씀하는군요. 계획일군으로서 전반계획집행에 영향을 주니 그러지요.》

《말이란 툭해 다르고 탁해 달라. 그래 입건사 잘하라는거야.》

《그만하십시오. 위원장동지두 그 불범같던 기상이 한풀 꺾였어요. 그전에야 위원장동지 그 확성기목소리가 한번 울리면 온 금주땅이 움찔 했드랬는데 지금은…》

《여보, 호랑이 말할 때 소린 좀 작작하오.》
그는 추어주는지 조롱하는지 모를 지춘의 말을 막으며 담배를 붙여물었다. 이때 전화종이 울렸다.
수환은 송수화기를 들었다.
《위원장동무요?》
리당비서의 목소리였는데 옆에서들 웅성웅성하는 소음이 들려왔다.
곁에 지춘이 있길래 《네, 조수환입니다.》 하고 점잖게 답변하였다.
《래일 관리위원장협의회가 있다지요. 거기서 공사문제가 론의될수 있는데 건설적인 안도 좀 제기하고 그 사람들의 경험적인 말도 듣고 오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건설적인 안… 경험적인 말…》
《위원장동무, 말이 왜 그렇게 맥이 없습니까? 신심이 없어 그러는건 아니요?》
《아, 알겠소.》
수환은 더 이야기를 나누고싶은 생각이 없어 단마디로 대답하며 전화를 끝냈다.
이건 밉다면 깨끄라더니 뭐 군협의회에 가서 경험까지 얻어가지고 오라?! 그 사람들한테 무슨 경험이 있대? 있다면 또 누가 제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도와준대?
수환은 자기보고 신심이 없다던 인혁의 말이 내려가지 않아 속으로 두덜거려보았다.
관리위원장협의회에서는 우선 모든 농장들의 영농준비정형에 대한 군경영위원회 기사장의 보고가 있었다. 이어 월중에 새해영농준비를 원만하게 추진하며 정보당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도적인 문제들이 토론되였다.
협의회도중에 경영위원장은 농장들에 직접 나가본 실태를 날카롭게 분석비판하였다.
《…저 남정관리위원장동무, 오늘 읍거리를 지나오며 뭐 좀 느낀게 없습니까?》
얼굴은 칼칼해보여도 몸가짐이 듬직한 남정관리위원장은 천천히 일어서서 말했다.
《군의 잡도리가 간단치 않다는걸 느꼈습니다.》
《뭘 보고 그걸 느꼈소?》

《읍거리중심에 인민반별루, 인민위원회마당에는 공장, 기업소별루, 여기 경영위원회앞에는 협동농장별거름생산경쟁도표들이 나붙은것만 보아두…》

《옳게 보았소. 저렇게 하나를 봐두 새겨보구 전해와 올해, 어제와 오늘,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게 무엇인가를 느끼고 래일은 또 얼마나 속도를 높여야 하겠는가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거름더미 높아야 땅의 지력을 높일게구 낟알더미도 높아질게 아니요. 그래서 올해 겨울부터 이에 더 된불을 거는겁니다.》

수환은 속이 뜨끔 찔리였다. 그는 읍소재지와 인민위원회앞에 나붙은 경쟁도표말은 듣느니 처음이였다. 경영위원회앞에 붙은 거름생산경쟁도표는 보고 들어왔다. 경쟁순위에서 아무리 내리밀린대야 네댓순위쯤에는 있으리라고 믿는 금주리가 열한번째 자리에 놓인것을 보고 소스라치듯 놀랐던 그였다. 자기 눈을 의심하여 한발 물러나 남들의 어깨너머로 눈여겨보았으나 틀림없는 11등이였다. 순간 금주협동농장 이름자체가 초라하게 느껴지기까지 하였다.

기본문제토의가 끝나자 경영위원장은 금주리부터 찾았다.

《금주리관리위원장동무.》

《예—》

수환은 육중한 몸을 엉거주춤 일으켜세우다가 도로 앉았다.

경영위원장은 좌중을 둘러보며 말하였다.

《아마 저 관리위원장동문 지난날같으면 두번째 자리에서라면 펄쩍 뛸거요. 그런데 이제와서 어떻게 된거요? 거름생산도 뒤떨어져, 공사두 크게 제끼지 못하고 뭉개는 판이요. 대체 원인이 뭐요?》

《…》

《대답을 못하누만. 내노라던 금주농장이 왜 하늘소모양 됐소? 물론 큰 공살 벌려놓았지. … 20정보 논 통짜루 얻는게 어디 쉬운 일이요? 하지만 오늘같은 때 그게 영농준비 처지는 구실로 되면 되겠는가 말이요.》

수환은 인혁의 귀띔도 있고 그냥 듣고만 배길수 없어 걸상을 삐꺽 소리나게 뒤로 밀며 일어섰다.

《위원장동지, 우린 공사를 구실로 삼지 않습니다. 갑작추위로 땅이 쇠덩이 돼서 그렇지 이제 총력량을…》

《그럼 강추위가 계속되면 어쩔셈이요? 손 싸매구 땅 녹길 기다리

겠다는거요?》 하고 그는 눈길을 돌려 영천리를 찾았다.

《영천리관리위원장동무.》

《예.》

몸집은 체소하나 뼈대 굵고 팔팔해보이는 영천관리위원장이 일어났다.

《이전엔 뒤전에 섰던 저 사람네 농장이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는 농장으로 신문에두 소개됐소. 그래 그 비결은 뭐요?》

《농장원들의 주인다운 립장을 키워주면서 년중 가장 큰 목표를 거름생산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가을부터 작업반별, 분조별, 농장원별 거름생산과제를 딱 찍어주고 그것을 에누리없이 집행하도록 면밀히 짜고들었습니다. 그래서 흙보산비료, 유기질비료, 석회질소비료를 무둑무둑 쌓아놓고 필지별토양분석표에 따라 논밭에 량껏 먹였습니다. 그와 함께 농업생산의 모든 영농공정별평가를 철저히 기술지표보장정형의 평가로 전환시킨것입니다. …》

회의장은 물뿌린듯 조용해졌다.

경영위원장은 그의 말에 깃을 달았다.

《보시오. 문제는 일군들에게 달린거란 말이요, 일군들! 저기서는 작업반별알곡생산수준차이를 분석할 때에도 기본을 어디에 두는가? 그것을 과학기술수준의 차이에 두고 분석총화합니다.

실지 저 동무들이 일을 제낍니다. 지난 가을 탈곡을 맨먼저 끝낸 비결도 뭔가. 전기가 보장되건말건 모든 작업반들에서 벼겨가스대용연료로 소형탈곡기의 만가동을 보장한것입니다. 보시오, 정신력의 강자, 과학기술, 혁신적안목, 창조성… 그런데 아직까지도 완력이나 뚝심으로 냅다 조기던 방식, 또 지난 경험과 성과를 코에 걸구 하늘소 걸음을 해가지고서는 오늘 부강조국건설대전에서 자기 담당몫을 해낼수 없습니다.》

회의는 끝났지만 순 자기를 념두에 둔것만 같은 경영위원장의 말이 수환의 뇌리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영천농장의 경험을 쓴웃음으로 대하였다. 그는 모름지기 군에서 영천농장을 주목하고 다른 단위보다 더 떠밀어주었으리라는 생각을 앞세웠다.

그리고 우리처럼 어마어마한 공사를 벌리지 않은 덕에 그렇게 떵떵거릴수 있지 않을가. …

26

누군가의 나긋나긋한 손이 차분히 이마에 얹혀지는것 같더니 이어 《아이, 아직두 열 있네. …》 하는 애잔한 목소리가 꿈결인양 어렴풋이 들려왔다. 현실은 살며시 눈을 떴다. 긴 속눈섭사이로 그린듯 쌍까풀진 한호실 처녀의 두눈이 걱정스럽게 내려다보고있었다.

현실은 펀뜻 정신이 들었다. 그는 화닥닥 자리를 차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내 늦잠을 잔게 아니야?》

《호호, 이자 다섯시예요. 너무 앓음소리를 내길래… 참, 잠귀도 밝아.》

방안은 전등빛이 환했으나 창문밖은 어둑어둑했다. 현실은 요즘 매일밤 고열에 시달렸다.

《제발 몸 좀 돌보라요. 몰래 해열제를 먹으며 앓는티를 내지 않으려는것두 내 다 알아요. 작업실을 꾸리느라 사흘밤 꼬박 새운데다가 낮에는 운전을 할래, 피곤에 몰려 운전대를 잡은채 잠들었다가 독감에 걸린거랑 내 모를줄 알아요?》

《호호, 넌 내뒤를 밟기라도 한것 같구나.》

《사람들이 나보구들 반장 그림자라나요.》 하고 말하는 그의 눈에 어느새 눈물이 글썽해졌다.

나이가 그중 어리고 사회경험도 적은 그는 현실을 친언니처럼 따랐다. 현실이 역시 자기를 따르는 그를 남달리 사랑했었다. 처녀는 현실이와 자별해진것만큼 사업상의 구실로 몇번 다녀간 정장선과의 남다른 관계도 어렴풋이 짐작하고있었다.

《걱정말어. 내 여태 그쯤한 고뿔에 져본적 없어.》

《너무 장담 말아요. 거울을 좀 보라요. 두눈이 백메터는 들어갔구 얼굴은 얼마나 핼쑥해졌는지 알기나 해요?》

《호호, 애두. 아무리 그래두 누워앓을 짬 어디 있니. 지금은 그늘밑에서 잠시 숨돌리는것도 량심에 걸리는 때야.》

사실 그는 머리며 뼈마디가 욱신욱신 쑤시여 방금 노그라질듯싶었

다. 그러나 지금 누구나가 대고조의 열풍을 안고 줄달음을 치고있는 때에 유독 자기의 걸음만이 더딘것 같아 잠시도 누워볼 생각을 할수 없는 처지이다.

그날 저녁 현실은 지령총화에 참가하려고 관리위원회에 갔다. 그가 사무실에 막 들어서는 순간 미리 와있던 몇몇 작업반장들이 무엇인가 이러쿵저러쿵하며 입심을 부리고있었다.

현실은 머리가 자꾸 지끈거려 맨 구석자리에 가 조용히 앉았다.

나이지숙한 2작업반장이 다른 작업반장들의 의견을 일축하듯 말하였다.

《아무리 이러니저러니해두 금주리사람들이 확실히 제낄손이 있어. 아, 한겨울에 드넓은 수렁판을 정리한다는게 그래 오죽 어벌이 큰 작전이요, 남들은 꿈도 못 꿀텐데…》

현실은 금주리공사가 화제였구나 하는 직감에 대뜸 신경이 예리해졌다.

이때 다른 반장이 이죽거리는투로 《여보, 아무리 어벌이 크면 뭘 한다오. 지금 뒤거두매도 못하구 닭 헤집듯 해놓은데다 강추위에 손발이 얽매운 마련없는 공사라던데…》 하고 험구를 했다.

화제가 이렇듯 험하게 번져지자 저저끔 엇갈린 주장을 내세웠다.

《그건 또 무슨 생뚱같은 소리우? 뒤거두매를 못하다니. 그 승벽이 센 관리위원장서껀 누구들이라구 해제끼지 못한단 말이요. 말은 바른대루…》

《그렇지두 않은것 같데. 듣자니 그 통이 큰 관리위원장두 이즘엔 단김이 다 빠졌다구 하데.》

《거기 계획부원의 말이 이번공사는 새 리당비서가 발기하구 1작업반장이랑 쌩쌩한축들이 주동이 돼서 나섰다누만.》

《아니, 그 1반장이라면야 정장선이구 뜨락또르운전수때부터 도적으로 소문이 쟁쟁했던 청년이 아니우?》

금주리에 대한 말에서 가뜩이나 마음이 조마조마해있던 현실은 불쑥 정장선의 이름이 그들의 입에 오르자 머리가 짜릿짜릿하고 가슴이 활랑거렸다.

《글쎄 뜨락또르운전수로서는 첫손에 꼽힐지 몰라두 공사물계에서야 관리위원장의 발뒤꿈치에나 갈것 같소? 젊은축들이 욱욱하는 바람에 리당에서두 앞채를 메였는데 그만 벼락추위에 동결됐다누만. 워

낙 사람이 형편없이 거칠고 떠박질군인데다 벽도 문이라고 우겨대는 생마같은 정장선반장의 장단에 멋모르고 춤춘것을 관리위원장두 이즘엔 후회막심해한다더군. 그러니 공사뒤거두매가 바로 될턱 있겠어?!…》

그때 좀전에 방에 들어와서 반장들의 험구를 듣던 기사장이 꽥 소리를 질렀다.

《그만들 하오! 남의 농장일이라구 아무 말이나 망탕 하면 되오? 우리가 금주리사람들의 절반만큼이라두 일을 제껴보시오.》

방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현실은 이 자리에 자기와 장선의 남다른 관계를 알 사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얼굴이 화끈해졌다.

말많은 사람들을 제지시킨 기사장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입에서 더 험한 말이 얼마만큼 흘러나올지 몰랐다.

현실은 장선이가 이웃농장 초급일군들의 비난을 받는게 저으기 놀랍고 마음에 걸리였다. 그 험담은 마치 자신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난처럼 느껴져 숨가쁜 고통을 금할수 없게 했다.

장선이 과연 그런 사람이였을가? 가령 그 말이 사실이라면 아저씨가 발기한 공사가 중도반단되고 그로 하여 복잡한 문제들이 산생되였단 말인가. 아니면 장선의 행동이 그를 덜퉁하게 여기는 몇몇 사람들의 시샘이고 곡해일가.

농장의 그중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 서슴없이 어깨를 들이미는 그가 결코 군중의 비난을 받을 대상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현실은 금주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사심없이 헌신하는 참답고 성실한 일군들이 힐난을 받는게 분하고 가슴아팠다.

아무튼 믿음과 의혹의 끊임없는 물결은 현실을 지꿎게 괴롭혔다.

장선을 한시바삐 만나고싶었다. 만나서 그의 활기어린 목소리도 듣고싶고 뒤숭숭한 공사의 진실여부를 속시원히 알고싶었다. 그랬으면 숨막힐듯 답답한 가슴도 금시 탁 트일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무렵이였다.

새 영화를 돌린다고 좋아들 하는 합숙처녀들을 먼저 리문화회관으로 보내고난 현실은 호젓한 방에 혼자 남아있었다.

문득 장선이와 어깨나란히 찍은 사진을 보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

는 장에서 손함을 꺼내였다. 자개박이로 진달래 한송이를 그린 진자주빛함뚜껑을 열고 하얀 종이로 싼 사진을 꺼냈다. 흐뭇이 웃는 장선의 훤한 얼굴이 확 안겨오는 순간 어쩐지 가슴이 아릿해지며 눈시울이 스르시 달아올랐다.

바로 그때 문밖에서 주춤거리는듯 한 누군가의 인기척이 들렸다.

현실은 황황히 사진을 손함에 넣어 장안에 얼른 감추었다.

나들문에 조심스러운 손기척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현실은 마치 잘못을 저지르고난 사람처럼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했다.

문이 열렸다. 그런데 이게 누군가.

자신의 생각에 당황감을 부어준 당사자, 바로 장선이 문앞에 서있는것이 아닌가!

범이 제 소리하면 온다더니 이자 속생각에 묻혀있던 사람이 어떻게 알고 나타났는가. 반갑기도 하고 신통하기도 하여 현실은 높뛰는 가슴을 진정할 길이 없었다.

장선은 문지방을 넘어서지도 않고 얼굴에 함뿍 웃음을 담고 서있었다.

《아이, 장선동지였군요. 그새 건강하셨어요?》

털모자에 작업복차림과 추위에 검붉어진 두리두리한 얼굴을 보니 공사장에서 곧바로 오는 길이라는것이 알렸다.

그는 문지방을 넘을 때의 기세와는 달리 몸건사를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 거북하게 서있었다.

《어서 여게 와 앉으세요.》

현실은 반반하게 다 정돈돼있는 침대우를 공연히 헛손질하며 자리를 권했다. 그러면서도 처녀의 다심한 시선은 그의 몹시 수척한 얼굴과 어딘가 모르게 지친듯 한 기색을 놓치지 않았다. 현실은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하면서도 마치 그가 자기의 안타깝던 마음을 신통히 알아맞히고 문득 찾아온것만 같아 여간만 반갑지 않았다.

사실말이지 얼마나 그리워하던 장선인가. 강쇠같이 군세면서도 불덩이같고 때로는 아이처럼 순진하고 처녀처럼 수줍음을 잘 타는 그렇듯 순결한 그 성정이 무시로 애모쁘게 현실의 마음을 파고들던 그였다.

《들어갈것없이 밖에서 잠간 만나고 가야지요. 현실동무도 회관으

로 가야겠지요?》
장선은 현실이네가 영화구경 간다는것을 안 모양 그의 옷차림에 눈길을 주며 말했다.
현실은 뒤따라 회관에 갈 차비를 다 하고있던만큼 목도리로 머리까지 둘러싸고는 인차 장선을 따라 밖에 나섰다.
큰길로는 어른, 아이들 할것없이 잔뜩 흥이 나서 웃고 떠들썩하며 문화회관쪽으로 밀려가고있었다.
오늘따라 드넓은 벌이며 그 벌을 멀리 에워싼 야산들이 온통 하얀 눈을 뒤집어쓰고있어 달빛은 유난히도 눈부시였다. 게다가 잠풍해서인지 그처럼 차겁던 달도, 하늘도 오늘은 별로 따스하게 느껴지고 분통같은 풍경도 봄밤인양 아늑한감을 주었다.
현실은 대뜸 소녀처럼 명랑한 기분에 붕 떴다.
욱신욱신하던 머리도 한순간에 개운해진듯싶었다.
이러한 밤 장선이와 나란히 눈길을 걷는것이 더없이 즐겁고 상쾌하였다. 현실은 한참동안 말없이 걷다가 이렇게 말꼭지를 떼였다.
《장선동지, 그동안 나를 잊은건 아니예요?》
그는 웃음기를 띤 밝은 얼굴로 장선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오늘 밤엔 무슨 생각이 들어 이렇게 불쑥 나타났어요?》
《여기 급히 볼일이 있어 들렸다가…》
《볼일때문이라면 나같은건 생각밖이였군요.》
《하, 이거 말이 별나게 번져간다. 그런 끔찍한 소린 오늘 밤 삼가합시다, 하하.》
장선은 호탕하게 웃으며 듣는 사람들이 없는가 살펴보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호호…》
현실은 자기도 마음이 즐거워짐을 느끼며 덩달아 웃었다. 그들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스적스적 걸었다.
현실은 공사과정에 있은 일화들을 실감있게 들려주는 름름한 장선을 쳐다보며 황홀한 심정에 휩싸여있었다.
그는 문득 눈길을 퍼그나 걸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헤여지기 전에 그동안 마음을 졸이던 안타깝던 일을 묻고싶어졌다.
《장선동지, 이 혹한에 공사가 조련치 않겠지요?》
《솔직히 공사는 어렵게 진행되지요. 얼핏 보면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 같구요. 난관앞에서 주저하는 사람들도 나타났구 시비자도 없지 않지요. 오늘 비로소 쐐기형언땅파는기계를 완성하고 시운전하게 됐는데 이제는 신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왔던김에 현실동무도 만나보고싶어 들렸습니다. 우정 왔다고 리해해도 무방합니다. 하하—》

장선의 모습은 여전히 패기에 넘치고 목소리에도 정열이 넘쳤다.

《그랬군요. 그런걸 난 또…》

현실은 마음이 밝아져 정겨운 눈으로 장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어쨌다는겁니까? 무슨 상서롭지 못한 소문이라도 들었습니까?》

현실의 반가와하면서도 뜨아해하는 목소리를 듣고 장선은 다우쳐물었다.

쐐기형기계의 제작으로 흥분하고 좀 들뜬것 같은 장선의 기분을 흐리게 할가 저어하면서도 현실은 떠도는 소문을 그대로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곳 공사를 두고 좀 험한 말들이 돌았습니다.》

《아니, 우리 공사소문이 여기까지 났습니까?》

《군적으로 소문난 공사이니까 소문나기마련이지요. 문제는 난관에 주저앉은것처럼 여기면서 장선동지랑 그곳 일군들을 말밥에 올리는거지요.》

《말밥이라니? 그 대상에 나밖에 또 누구 있겠습니까? 말밥의 내용은 뭣이구요?》

성미그대로 장선의 말투는 거칠어지고 삽시에 험한 기상이 되였다.

현실은 여기서 돌아가는 소리들을 말해주지 않을수 없었다.

지난번 지령총화모임에서 들은 말들을 그대로 되뇌이며 그때의 안타까왔던 심정을 그대로 다 말하였다.

《그래 현실동무는 그런 말이 돌아가는걸 사실로 믿었습니까? 이 장선이 그런 존재로밖에 여겨지지 않던가요?》

《아니, 그건 어떻게 하는 말씀인가요?》

《그 험구쟁이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헛소문에 귀기울이는 현실동무에 대해 섭섭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겁니다.》

《아이참, 어쩜 그런 말까지…》

현실은 분을 삭이지 못해 씩씩대는 장선이 못지 않게 자기에게서도 흥분이 일어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험구쟁이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 귀기울이는 현실이… 장선의 말마디들이 하나같이 사정을 모르고 현실의 생각을 채찍질한다.

그 험담때문에 고통겪던 생각, 안타까움에 모대기던 심정을 리해해주지는 못할망정 섭섭하다고? 헛소문에 귀기울이는 녀자라고?…

《현실동무, 잘 알아두오. 나는 난대로 사는 사람이요. 나는 누가 무어라고 비난해도 달리 될 사람은 아니란 말이요!》

《장선동지, 내가 못할 말을 했나요? 또 전혀 근거없는 말을 누가 꾸며서 돌렸겠나요. 나는 가까운 혁명동지로서 장선동지가 그런 비난이 아니라 남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일군이 되기를 바라서 힘들게 꺼낸 말인데…》

《혁명동지? 진정 혁명동지라면 그런 허무한 풍문을 동지다운 립장에서 옳게 분별해 들어야지요. 사람을 터무니없이 깎아내리는 풍문을 곧이듣는것이 그래 동지적립장이란 말이요?… 참, 회관에 갈 시간이 지났군요. 그럼 안녕히!》

그는 내쏘듯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휙 돌아서 성급히 걸어갔다.

현실은 소스라치듯 놀랐다. 장선이 그렇게도 거칠고 무례하게 나올줄은 몰랐다. 그의 예상외의 돌발적인 태도는 현실을 아연케 만들었다.

더구나 그는 자기의 마음을 리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의 안타까움도 아닌보살하지 않는가.

정장선이 저리도 도고하고 남의 의견을 귀담아들을줄 모르는 도량이 작은 사람이였는가.

27

저녁에 현장휴계실에서 당세포비서모임을 마친 인혁은 관리위원회 당세포비서인 기사장과 조용히 마주앉아 허심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혁은 군에서 있은 관리위원장협의회에서 비판받은것을 기화로 지금에 와서까지 공사를 못마땅히 여기는 수환의 거동에서 놀라운 충격을 받았다.

사실 군에서 받은 비판도 들어보면 공사와 다음해농사차비가 예상

보다 처지는게 걱정되여 경종을 울리고 채찍을 가한 마땅한 비판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환은 영농준비사업이 처지는 까닭을 공사에 귀결시키며 지어 자기의 립장을 합리화하려 하였다.

《지금 형편에서 관리위원회가 주동이 되여 농장원들을 이끌고 나가자면 일군들의 생각이 하나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것 같은데 기사장동무생각엔 어떻습니까?》

몸집은 자그마하지만 강단이 있어보이는 기사장은 전에없이 진중해진 인혁의 말을 주의깊이 듣다가 그에 인차 수긍했다.

《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리위원장동무가 눈앞의 현실을 보면서도 자기가 안된다는 일은 되리라고 좀체 믿으려 안하는것입니다. …》

기사장은 무엇인가 주저하며 더 말하기를 딱해하였다. 인혁은 그의 마음을 거들어주었다.

《솔직히 들어봅시다. 뭐 꺼려할게 있소.》

《그런데… 비서동무한테는 아무 말도 하기 쉬운데 위원장동무한테는 어쩌다 한번 의견을 말하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힘들다니?》

《무슨 의견이든 건성 듣지 않으면 끝까지 안 듣고 변명부터 앞세우니…》

기사장은 이웃농장 기사로 있다가 이곳 기사장으로 소환된지 그닥 오래지 않지만 침착하고 일처리에서 빈틈이 없는 실력있는 기술일군으로 알려져있다. 자기의 생각도 꺼리낌없이 터놓는 당돌한 사람이였다.

인혁은 심적고충이 있거나 토론할 일이 생기면 자연히 그와 마주앉게 되였다.

《그게 다 내탓인데 오늘은 나에 대한 의견을 솔직히 들어봅시다. 기사장동무생각이자 관리위원회 당원들의 생각이겠는데…》

《의견이라니요? 비서동무야 밤낮 공사장에 몸을 내대구 아글타글하는데 의견을 가질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내 사업의 전부가 아니지 않소. 내 오늘 좀 생각되는게 있어 허심한 도움을 받고싶어 그럽니다.》

기사장은 고개를 수긋하고 한참동안 생각에 잠겨있다가 말을 꺼내였다.

《구태여 내 생각을 말한다면 비서동문 너무 공사일면에만 치우치는감이 있습니다. 몸을 너무 혹사하면서까지… 비서동무야 현장책

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농장사업, 그 모든 일을 걸머지고 나가는 사람들을 발동시키는 사업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옳은 말을 해주는구나. 당비서야 수걱수걱 일하는것으로 사업을 대치할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심장에 활력을 부어주고 그들의 창조적열정을 최대한 불러일으키는것이 기본이 아닐가. 공사가 중요하다고 해서 공사장에만 붙박혀 전반사람들과의 사업에 등한하다니…)

인혁은 기사장의 말을 심중히 들었다. 그의 의견은 당일군의 큰 과실을 밝혀주는것과 다름없이 심중을 아프게 자극하였다.

《기사장동무가 옳은 비판을 주었소. 확실히 내 사업에 빈구석이 많소. 관리위원장동무에 대한 군중의 의견을 듣고도 바로잡아주지 못하고…》

《관리위원장동무야 활량이지요. 좌우간 군이나 도의 주요단위책임자들치고 안 통하는 사람이 없지요. 그뿐인줄 압니까. 아무리 초면이라두 한번 대상하기만 하면 즉석에 너나들이친구로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재간이 위원장동무 절반만큼이라도 있어봤으면 좋겠는데… 아니, 난 10년 가도 그런 포재는 못될것 같소. 허허.》

인혁이 손을 홰홰 내저으며 하는 말에 둘은 한참 웃었다. 인혁은 웃음을 거두고 정색하여 말하였다.

《기사장동무, 관리위원장동무가 군에 가서 심각한 비판을 받은 모양인데 우리 잘 도와줍시다. 사실 위원장동무는 지난날 공로가 큰 쉽지 않은 일군이지요. 그가 원기를 잃지 않고 농장을 잘 이끌어나가도록 내세워주구 힘껏 떠밀어줍시다.》

《알겠습니다.》

《군에서 포치한 새 영농법도 빨리 도입해야겠고 농사차비에 더 불을 걸자면 이제부터 기사장동무와 관리일군들은 전적으로 영농준비사업에 힘을 넣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 말은 옳습니다. 하지만 공사의 바쁜 고비에서 몸을 사릴수야 없지요.》

《허허… 역시 기사장동무다운 생각입니다. 우리가 좀더 짐을 무겁게 걸머집시다. 바로 이 공사두 결국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건데 일

군들에게야 짐이 더 무거운게 보람이 아니겠소.》
인혁은 불이 점점 사그라져가는 화독을 우두커니 보며 앉아있었다.
방금전 기사장이 한 말들이 새록새록 머리에 갈마들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리당비서가 당사업의 본도를 놓치고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며 허물없이 지내지 못한다는 소리다.
문득 어느 회의에서 도당책임비서가 한 책임일군이 수년간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래단위 부서책임자의 이름조차 모른다고 추궁하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그 말을 얼마나 놀랍게 들었던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본질상 그와 류사한 결함을 자신도 범하고있지 않는가!
한편 수환에 대한 기사장의 평가도 자못 심중한것이였다.
눈에 뜨이게 발전하는 현실을 보면서도 제가 경험하지 않았거나 일단 부정한 일은 지꿎게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
인혁은 래일을 가꾸지 않으며 엄벙덤벙 그날그날을 보내는 자취없는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사람들을 이끌어야겠다는 생각에 가슴을 불태웠다.

×

(인혁은 확실히 달라졌어. 옛정을 봐서라두 내 립장을 그렇게 랭정히 외면할수 있는가. …)
수환은 토지물계에서는 내노라 하는 농산과장마저 도리머리를 치는 공사를 두고 암초는 혹한이 아니라 흐리터분한 사상이라고 한 인혁의 말이 속에 맺히여 진종일 끙끙 앓았다.
인혁이 용단을 내려 가급적으로 기사장을 비롯한 관리위원회 일군들과 수십명의 장정로력을 전적으로 영농준비에 돌리긴 했으나 별로 탐탁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어쨌든 그만한 로력이라도 영농에 집중하도록 조치를 취해준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였다.
어느날 수환은 늦저녁쯤에 집에 들어섰다.
그는 누가 거칫거리기라도 하면 당장 한바탕 해볼것처럼 찌뿌둥한 얼굴로 나들문을 열고 씽 들어와서는 웃방 량수책상우에 사무가방을 획 내던졌다.
공사장에 밤일을 나가려고 옷걸이에서 작업솜저고리를 벗겨입던 별

옥은 큼직한 사기재털이가 나딩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어마나!》 하고 비명을 질렀다.
부엌칸에서 동자질하던 안해도 들어왔다.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있던 재털이가 배부른 가방모서리에 맞아 공중 나딩굴며 뒤집어지는통에 책상우는 담배꽁초와 담배재로 지저분하게 한벌 덮여있었다. 탁상등도 책장쪽으로 기우뚱 기울어져있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수? 오늘은 왜 또 서슬이 올라 그래요?》 하고 안해는 의아한 눈길로 딩딩한 남편을 쳐다보았다.
사실 수환은 일부러가 아니라 저도 모르게 팔에 힘이 좀 과하게 간탓에 그렇게 되였다. 그는 본의아닌 행동에 다소 멋적은 생각이 들었으나 구태여 변명하기가 싫었다. 그런데 무슨 변이나 난것처럼 이상스럽게 치떠보는 안해와 딸의 눈길이 그만 그의 부아를 돋구었다.
《딸년은 뭘하는거야, 재털이 하나 미리 가셔낼줄도 모르고.》
수환은 버럭 골을 내였다.
안해는 얼른 걸레와 쓰레박을 들고들어와 책상우의 꽁초와 재를 쓰레박에 밀어담았다.
《당신두, 종일 얼구 들어와서 또 밤일 나가는 애보구 역증은 왜 내요? 시집갈 나이 돼가는 애보구 쩍하면 이년, 저년…》
오늘은 안해도 공손치 않게 응수하였다. 그 말에 수환은 또 버럭 화를 내였다.
《그렇게 만날 역성만 드니 딸년의 버릇만 궂히지…》
《여보, 당신은 왜 말이 점점 험해져가요?》
수환은 입이 쓴듯 담배를 꺼내 붙여물었다.
수환이 잔뜩 저기압되여 들어오는 날은 집안의 화기가 싹 달아난다.
안해는 그러한 남편과 더 시비나는것이 귀찮은듯 거두매한것을 들고 서둘러 방에서 나갔다.
밤일을 나갈 차비를 마친 별옥은 말끔히 부시여낸 재털이를 들고들어와 아버지앞에 조용히 놓았다. 그리고는 무엇인가 할말이 있는듯 곧바른 자태로 잠자코 서있었다.
수환은 팔걸이의자에 자빠듬하게 앉아 두눈을 가늘게 쪼프리고 담배만 뻑뻑 빨면서 넌지시 딸의 동정을 살폈다.
수환은 평소에 쩍하면 입버릇대로 이년, 저년 하다가도 막상 사려깊고 침착한 태도를 잃는 법없는 딸이 이렇듯 담담하게 마주설 때에

는 속이 켕기고 긴장됨을 어쩌지 못했다.

별옥은 잠시후 조용하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내가 그렇게두 미워요?》

《뭐?…》

수환은 별옥의 담박한 얼굴표정과 차분한 어조에 혀가 굳어져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요새는 아버지를 자주 만나지도 못하는데 나만 보면 왜 첫마디부터 역증을 내시나요. 물론 제 잘못이 커요. 아버지의 눈에 거슬리는게 없게 집거두매를 착실히 못했어요. 아버지, 꼭 고칠래요.》

《…》

《그런데 아버지, 나를 아무렇게나 욕하고 욱박질러두 나는 관계치 않겠어요. 그게 다 사랑에서 오는거니까요. 하지만 아버지, 남들과는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그래 넌 도대체 뭘 말하자는거냐?》

《아버지, 성내지 말고 말을 들어보세요. 난 아버지가 지금처럼 계속 일하시다가는 사람들의 버림을 받을가봐 막 겁나요.》

수환은 기가 찬듯 《허.》 하며 눈알을 사납게 굴리였다.

《야가 선동원이랍시구 돌아치더니 그새 말재간만 퍽 늘었구나. 그래 네가 이 아버지앞에서까지 선동원노릇 할 차부냐, 엉?》

별옥은 짙은 눈섭을 꿈틀거리며 점점 독을 올리는 아버지의 기분상태에는 별로 개의함이 없이 말을 계속하였다.

《아버지가 아무리 큰소리를 쳐두 뒤에서는 뭐라는지 알아요? 아버지를 보구 깨진 북이래요. 나는 그런 말을 듣기 거북하구 가슴이 아파 그래요. 아버지, 자식이 제 부모에 대한 비난을 듣는게 얼마나 괴롭고 창피스러운지 알아요?》

《어떤 시러베자식들이 그따위 수작질을 해? 너두 관리위원장의 딸이면 그따위 허튼 수작질을 하는 자식들에게 면박을 줄 대신 그 쓸개빠진 소리를 그대로 들고다녀?》

수환은 더는 참아내지 못하고 울컥하여 야단을 쳤다. 수환이 야단하는 소리를 듣고 안해도 급히 방으로 들어왔다.

《여보, 애보군 왜 야단이예요. 걔가 없는 말을 지어내 하겠어요? 아무리 자식의 말이라두 참작해 들으라구요. 그래서 랑패될거야 없지 않아요.》

안해의 경우바른 말에 말문이 막힌듯 수환은 《흥.》 하고 쓴 표정

을 지으며 혼자소리로 중얼거리였다.

《뼈짬에 흙내도 배지 않은 풋내기들이 입만 잔뜩 까가지구들 간부들 흉을 망탕 보질 않나, 왜 점점 이 꼴이 돼가는지…》

별옥은 아버지가 그러거나말거나 공손한 태도로 다시 말을 이었다.

《아버지, 자식이 망설이다가 힘들게 하는 말에도 역증을 내시는 아버지가 어느 초급일군이나 농장원의 말인들 달갑게 들으시겠나요. 또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딸의 심정도 외면하는 아버지가 남들의 심정을 리해하시겠나요?》

《닥쳐라! 네년이 이 아버지를 어떻게 알고 건방지게 훈시질이야, 엉? 그래 그게 딸로서 애비한테 하는 말본새냐.》

수환의 입에서는 또 이년, 저년 소리가 거침없이 흘러나왔다. 목소리도 더 높아졌다.

안해는 급해하며 남편의 말을 막았다.

《여보, 목소리를 좀 낮추라요. 남들이 듣겠어요.》

《목소리야 남 들으라고 내는건데 뭐가 무서워 그래. 고이 길러준 덕은 모르구 애비에게 맞대놓구 시비를 걸어?》

안해는 더 말하려다가 딸의 심정이 너무나 절절하고 간곡한데다가 자기로서도 생각되는바가 있어 입을 다물었다.

수환은 잠시 얼떨떨하여 딸을 바라보았다. 처음에 아버지앞에서 별로 조심하는것도 없고 버릇없이 구는것 같아 자제력을 잃었댔지만 아무리 을러메여도 태연하고 시종 공손하게 사리를 밝히는 딸앞에서 자연 기가 눌리우는감을 어쩔수 없었다. 결국 딸에게 낸 역증은 경우에 몰려 방황하는 자신에 대한 역증같았다.

문득 수환은 딸애가 생각하는거며 문제를 식별하는것이 어딘가 모르게 인혁을 닮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 너무 노여워 마세요. 나는 다만 아버지가 남들의 존경을 받으며 남들이 따르는 아버지 되여주기를 바랄뿐이예요.》

별옥은 머리를 숙여보이고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밤작업에 나갔다.

수환은 거퍼 담배를 붙여물었다.

안해가 서름한 침묵을 깨뜨리며 안타깝게 말을 꺼냈다.

《여보,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딸애를 그렇게 욱박질러야 옳겠어요? 그 애가 어쨌다구 눈에 불심지를 달구 그러시우?》

《그래 당신까지 또 화를 돋굴셈이요?》

《별옥의 말이 어디 그른게 있어요, 사람들앞에서 아버지가 비난받는게 가슴아파하는 애를 그렇게 욱박질러야 속 편하겠소?! 작업반에서두 떠받들리구 순이 아버지도 저 애만 보면 보배처럼 떠받들어주는데 아버지란 사람이…》
안해는 설음이 북받쳤는지 눈물이 글썽해지여 부엌으로 내려갔다.

28

《현희선생, 요즘은 어떻게 된 일이요? 환자를 오래 기다리게 하고 자릴 비우지 않나? 없는 약처방을 내지 않나? 전에는 이런 일이 한번도 없지 않았소.》
현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대뜸 얼굴이 파랗게 질리였다. 말수가 적은 원장은 의아한 눈길로 고개를 다소곳하고 서있는 현희를 쳐다보며 준절하게 말하였다.
《선생한테 무슨 말 못할 복잡한 사정이 생겨 그러는지는 모르겠소만 정성이 명약이 아니요. 그런데 생명을 다루는 치료사업을 그렇게 허랑하게 해서야 되겠소?》
《…》
현희는 할말이 없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노라고 단단히 다짐을 하고 원장방을 나왔으나 화들거리는 마음을 좀처럼 진정할수 없었다.
(내 왜 이 모양 됐을가? 무슨 일 저지르려고 그럴가?)
그는 가슴이 떨리고 몸서리쳐졌다.
사실 그는 동생문제로 머리가 지내 복잡했던 나머지 요사이 일을 착실히 못했다. 당분간 동생문제에 더는 머리를 쓰지 말자.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일뿐 또다시 당장 선손을 안 쓰면 일이 다 글러지고말것 같은 조급한 생각이 불쑥불쑥 머리를 드는것이였다.
남편이 현실이와 장선의 관계를 아는 이상 동생의 혼처를 달리 정하는 일이 말썽없이 이루어지기는 틀렸다. 도대체 은밀히 슬쩍 매듭을 지으려던 일이 어떻게 돌연 드러났는지 모를 일이였다.

(춘선어머니 집에서 말이 났을가?)

현희는 이왕 일이 다 드러난 이상 장선이 스스로 현실을 단념했으면 하는 허망한 생각도 해보았다.

그러한 가운데 어느날 수환이 손기척도 없이 내과의무실 나들문을 벌컥 열고 《현희선생, 잘있소?》 하고 거쿨진 몸을 구붓하고 들어섰다.

처방을 내던 현희는 반색하며 서둘러 일어났다.

《별옥이 아버지, 참 오래간만이예요.》

방금 치료받은 녀성농장원이 약처방을 받아들고 목을 자라처럼 움츠리며 소리 안 나게 문을 여닫고 나갔다.

《순이 어머닌 점점 처녀시절루 되돌아가는것 같구만.》

수환은 익살을 부리며 큰 엉치를 쪽걸상에 갖다대였다. 의무실은 금시 좁아진듯 했다.

《호호… 진짜 그랬으면 오죽 좋게요.》

《정말 세월두 빠르지. … 현희동무두 어언간 세 아이 어머니라… 내 현희동물 그 못난 인혁에게 붙여주던 날 부끄러워 도망치려던 동무모습이 선한데, 허허…》

현희는 듣기 거북한듯 《참, 별옥 아버진 못하는 말씀 없으시네.》 하고 얼굴을 살짝 붉히였다.

《어디 편찮으세요?》

《요즘 별스레 뒤덜미가 뻣뻣하구 머리가 지끈지끈한게…》 하고 수환은 팔소매를 걷어올렸다.

현희는 웬간한 사람의 허벅다리만큼 굵직한 그의 팔에 청진기를 대고 혈압계를 살폈다.

《혈압이 좀 높습니다. 100에 160이예요. 너무 무리하지 말아야겠어요.》

현희는 처방을 뗀 후 인차 나갔다오더니 그에게 약봉투를 내밀었다.

수환은 그걸 받아 솜옷안주머니에 넣으며 별안간 목소리를 낮추어 의무실에 들리게 된 진짜용건을 말하였다.

《내 며칠전에 회의갔다가 읍에서 그 연구사를 만났댔수다.》

《아, 그래요! 박선연구사를 어떻게 군에서 만나게 됐나요?》

현희는 순간 눈빛이 확 밝아지며 혈압계를 한켠에 밀어놓고 구미가 바싹 동하여 다우쳐물었다. 동생 현실이와 붙여주려는 대상의 청년에

대한 소리다.

《허허, 벌써 이름까지 다 알아뒀군.》

《벌써가 뭐예요. 내 그때문에 얼마나 속이 바질바질 끓는지 알기나 해요. 그래서요?》

《내 군농기계작업소에 들렸을 때 남기사가 한 청년을 대학동창연구사라며 소개하는게 아니겠소.》

《남기사?…》 하고 현희는 어디서 듣던 이름같아 되뇌였다.

《아, 그 리정애 신랑 있지 않소.》

《예—에, 알겠어요.》

현희는 그제야 정애의 남편인 군농기계작업소 기사가 상기되였다.

《그래 알구보니 박국장 동생이 아니겠소. 어찌나 반가와하던지, 연구과제때문에 나왔다더군. …》

수환에게서 그에 대한 장점만 귀에 못박히게 들어온탓인지 이제는 말만 들어도 청년에 대한 표상이 머리속에 우아하게 형성되였다.

현희는 그 연구사한테 대번에 마음이 혹했으나 남편의 준절한 충고에 결심이 다소 흔들렸었다.

현희가 한번도 대면한적 없는 그한테 대뜸 마음이 기운것은 솔직히 당자도 좋은데다가 가정이 그쯘하며 따라서 현실에게 꼭 그 대상자를 붙여주고싶었던것이다.

남편은 바로 자기의 이러한 리기적인 속심을 즉시 투시해본것이였다. 그래서 재삼 남편의 마음을 흔들어볼 용기는 못 내고 넌지시 장선에 대해 두루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그에 대한 좋은 평이 많은 반면에 더러는 그가 직판내기이며 거동이 좀 거칠어 일은 남의 갑절 하면서도 가끔 욕벌이를 한다는것이였다.

언젠가 남편이 자기를 드러내놓고 난대로 사는게 좋지 오히려 그것을 탓하는 사람은 틀린 사람이라고 하던 말이 귀전에 쟁쟁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연구사를 단념하자니 마치도 그토록 아름답던 자주빛저녁노을이 빛바래며 서서히 사라져버리는 먼 하늘가를 망연히 바라볼 때처럼 못내 아수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의 애매한 태도가 현희의 간을 말렸다. 그라도 언니의 의향을 고분고분 따랐으면 남편도 달리 어쩌는수 없을것이였다.

현희는 저 혼자 속을 불심지처럼 바짝바짝 태웠다.

그럴 때 마침 수환이 느닷없이 나타나 자기 마음을 다시금 휘저어 놓고 혼약이 다 된듯이 이야기하는것이 아닌가!

추위에 시달리던 해는 서둘러 사라져버렸다. 간밤에 내린 싸락눈은 성난 바람세에 가루처럼 쓸리여 후미진 길가와 도랑을 펀펀하게 메워버렸다.

현희는 치료사업이 끝난지 오랬으나 이윽토록 창가에 그린듯 앉아 있었다.

그리도 당연한 남편의 의사를 거역할수도 없었고 그리도 극성인 수환의 진정을 외면할수도 없었다. 이 문제로 하여 어딘가 모르게 아리숭한 둘사이가 버성겨질가봐 두려웠다.

이때 누군가 손기척을 내며 문을 열었다.

원장이였다.

《현희선생은 아직두 퇴근 안했소?》

현희는 속생각을 들키기라도 한듯 황망히 일어서며 곧 퇴근하겠노라고 하였다.

순간 원장의 근엄한 충고를 받던 일이 상기되여 또 달리 보지 않을가 하는 미심한 생각에 얼굴이 화끈해졌다. 다른 일은 없었다.

집에 들어서니 뜻밖에도 순이가 와있었다.

저녁을 지어놓고 기다리던 순이는 어머니의 발소리를 가려듣고 달려나와 어머니의 목에 감겨들었다. 그는 어머니의 목도리를 벗겨준다, 큰 솜신을 신고다닌다고 나무람하며 벗겨준다, 솜저고리를 벗겨준다 부산을 피웠다.

추위에 감실감실해진 순이의 동실한 얼굴이 더 이뻐보였다.

《래일 쉬니?》

《쉬긴, 그저 엄마 보고싶어 들렸지 뭐…》

아직도 어린시절의 어리광을 버리지 못한 순이였다.

순이와 겸상한 현희는 종일 속에 품고 모대기던 생각을 순이한테라도 속시원히 터놓고싶은 마음이 불시에 동했다. 좀 별스럽기는 하지만 그와 도란도란 말이라도 주고받으면 답답증이 얼마간이라도 덜릴것 같았다.

《얘, 순이야. 내 한가지 물어볼 일 있다.》

순이는 밥을 뜨던 숟가락을 멈추었다.

《엄마, 무슨 일이게요?》

순이는 은근히 경계심을 가지고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현희는 정작 그 말을 꺼내자니 좀 거북한 생각이 들어 잠간 갑자르다가 말했다.

《가령… 네가 이 엄마의 립장에서 묻는 말에 답변해보렴.》

《호호호, 엄마두 아버지본을 따르시네. 내가 어떻게 엄마속을 알구 척척 결론하겠어요?》

《그래두 전엔 이모나 너는 아버지가 무슨 묘안이 안 떠오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구 문젤 내놓고 말해보라면 척척 답변을 잘하더구나.》

순이는 밥을 꿀꺽 삼키고 저가락으로 김치를 집으며 《엄만 참, 그하군 달라요. 그야 농장적인 문제니까 제 생각을 말했지만… 엄마속마음까지야 어떻게…》

눈치빠른 순이는 벌써 어머니의 어줍은 말투로 보아 필경 이모문제일것으로 넘겨짚고 발뺌을 하려는것이였다.

현희는 고개를 수굿하고 김치를 맛있게 아삭아삭 씹는 순이에게 직판 물었다.

《넌 장선반장을 어떻게 보니?》

아닐세라 숨가쁜 질문을 받자 순이는 얼굴을 반짝 쳐들었다. 그는 어머니의 기색을 할깃 살피고는 입을 열었다.

《저… 엄만 남의 말만 듣고 그 아저씨를 좋지 않게 보는것 같은데 난 아버지가 정확히 보신다고 생각해요. 그 아저씨의 진심을 보는분들은 칭찬하고 겉만 보는 사람들은 나무라거던요. 아까 엄만 내가 엄마라면 어떡하겠느냐고 물으셨지요? 난 그 아저씨에게 절대찬성의 박수를 보내겠어요!》

순이는 정말 박수까지 칠 자세로 거침없이 자기 소견을 이야기했다.

《이애, 됐다, 됐어. 너한테 묻는 내가 잘못이지!》

현희는 그만 혀를 내둘렀다.

(현실의 어릴 때와 어쩌면 저리도 꼭같을가.)

그는 남편이나 순이가 장선을 아무리 좋게 보아도 자기 마음에는 아무래도 연구사라는 청년이 더 크게 자리잡았다.

그래도 현희에게 한가닥의 아리숭한 기대를 남긴것은 전달에 연구사의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이윽히 뜯어보다가 말없이 돌려주는 현실의 얼굴에 얼핏 어리던 호기심과 야릇한 표정이였다.

×

공사형편은 날로 힘들어졌다. 수십년이래 처음이라고들 하는 호된 추위는 수그러들기는커녕 더 악을 썼다. 공사는 지금 가장 막다른 고비를 겪고있었다.

이 고비를 어떻게 뚫고나가는가 하는것은 공사의 운명과 관련되는 관건적인 문제였다. 만약 이 고비에서 조금이라도 주밋거리며 공사를 더 지연시켰다가는 상상외의 파국적인 결과를 빚어내게 된다. 조수환의 말대로 한해에 한번밖에 차례지지 않는 절기가 사람의 이렇듯 절박한 마음을 알아줄수 없는것이다.

인혁은 내심으로 조련치 않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마음은 황황하고 촉급하였다.

그는 휴식참이면 당세포별로 협의하고 당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도록 하였다.

군중은 이런 때 당원들을 지켜보고있다, 당원들은 누구나가 선봉이 되여 대중을 이끌되 작업실적에서만 아니라 혁신적인 방도를 찾는데서도 앞장에 서야 한다.

한편 선동원들을 준비시켜 모든 작업장들에서 전례없이 엄혹한 자연앞에 조금도 위축되지 말고 부닥친 난관을 결사전으로 과감히 뚫고나갈데 대한 힘있는 선전선동사업을 벌리도록 하였다.

이러한 격렬한 분위기에 맞게 조별옥을 위시한 선동원들과 녀성돌격대원들도 숙소를 노루등언저리에 아주 옮기고 주야 총공격전을 벌리였다.

하지만 공사실적은 마음먹은대로 별로 오르지 못했다.

인혁은 하루사업정형을 군당에 보고한 후 번거로운 생각에 잠겨 모대기였다. 머리가 아파났다.

그는 자정이 넘어서야 잠간 눈을 좀 붙여볼가 하여 현장사무실 화독옆 긴 나무등받이걸상을 바싹 끄당겨 옮겨놓고 누웠다. 덧저고리로 얼굴까지 푹 가리우고 잠을 청해보려고 애썼으나 오히려 정신은 새벽바람을 쐰것처럼 더 말똥말똥해지였다. 그래서 눈을 그저 감고있는것으로 피로를 덜어볼가 하는데 천막밖에서 빠극빠극 눈밟는 소리가 들렸다. 그 발소리는 문어구에서 주춤하는것 같더니 누군가가 풍천자락

을 슬며시 젖히며 들어왔다.
1작업반 부락당비서였다.
인혁은 솜덧저고리를 젖히고 얼른 일어나며 반겨맞았다.
《어서 오우.》
《쉬는데 방해끼친게 아닙니까?》
《아니, 일없습니다. 그놈의 공사가 잠까지 모조리 빼앗아가서 눈이 멀뚱멀뚱해있던 참이지요.》
나이지숙한 부락당비서는 중키에 체격이 다부진데다 아들이 준 스케트모자까지 푹 눌러쓰고 면도를 반반히 하여 젊은 사람 같아보였다. 그는 결걸한 성미에 늘 몸을 깨끗이 가꾸고 작업복차림도 남다르게 단정했다.
그는 인혁이 내주는 의자에 앉으며 얼굴에 사람좋은 웃음을 담고 솜저고리주머니에서 슬그머니 과자봉지를 꺼내놓았다.
《비서동지, 출출할텐데 이걸 좀 드시우.》
인혁은 희귀해하며 《이건 웬 과자요?》 하고 느슨한 웃음을 지었다.
《낮에 녀성돌격대원들이 수고한다구 상점에서랑 좀 구해보낸거랍니다.》
《그런데 나한테 차례질 몫은 없겠는데…》
인혁은 빙긋이 웃으며 과자 한개를 부락당비서에게 권하고 자기도 집었다.
부락당비서는 별옥을 쉽지 않은 처녀라고 칭찬했다.
《글쎄 방금전에 분조장, 선동원들모임을 끝내고 나오는데 누군가가 내 옆구리를 슬그머니 건드리지 않겠습니까. 돌아보니 별옥동무더군요. 그는 내 주머니에 이 과자봉지를 넣어주면서 리당비서동지가 요새 끼니를 빈번히 건느는것 같은데 이거루라도 요기를 좀 하게 해주십시오 하질 않겠습니까. 아마 제몫에서 남겨두었던것 같습니다.》
인혁은 그만 가슴이 찡해졌다.
《제몸도 반쪽 됐는데 남의 걱정까지 하다니…》
인혁은 목이 메여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우리두 방금전까지 모여 토론해봤는데 아직은 뭐 신통한 방안은 없구해서 다들 머리를 더 짜낼 과업을 단단히 주었지요.》
(공사걱정으로 모두들 밤을 새우고있구나!) 하고 인혁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부락당비서는 말을 계속하였다.

《신통한 방도는 못 찾았지만 엉뚱한 제기는 받았습니다.》

《엉뚱한 제기라니?》

《또 별옥동무지요. 글쎄 당장 태천군 토지정리전투장에 다녀오게 해달라는겁니다.》

《별옥이가?》

《예, 그 동무는 늘 그런 엉뚱한 발기루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래우지요. 신문에서 읽거나 말로 백번 듣기보다 제 눈으루 한번 보구 오는것이 선동사업을 하는데서 더 실효가 있을게 아니냐는거지요.》

인혁은 구미가 바싹 동하여 들었으나 그 수백리 먼길을 다녀온다는게 헐치 않을것 같아 도리를 흔들었다.

《생각은 좋은데 그게 어디라구 이 혹한에 다녀오겠소. 차편이 있으면 몰라라.》

《아니, 벌써 수소문해서 한드레벌에 나가있는 우리 군돌격대에 보내는 불도젤부속이며 지원물자를 싣구 자동차가 2～3일후에 떠나는것까지 미리 다 알구있수다. 아마 마음의 잡도리를 다 갖췄던것 같습니다.》

인혁은 선뜻 답변을 못하고 망설이였다. 연약한 처녀를 혼자 수백리길에 보내는게 아무래도 안심치 않았던것이다. 또 다른 사람을 달려보내려고 하여도 긴장한 로력사정을 잘 아는 그가 애당초 말을 듣지 않을것이였다.

《갈 때는 가는 차편에 붙어간다 치구 그 차가 거기에 눌러있겠는지 아니면 며칠 늦게 돌아서든지 하면 탈이 아니요.》

《비서동지, 그런 경우도 다 예상한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면 달음박질쳐서라두 무조건 3～4일만에 여기에 대인다는겁니다.》

인혁은 《하하하.》 하고 별옥의 결심이 대단하기도 하고 어딘가 동심적인데가 느껴져 한참 웃었다. 부락당비서도 따라웃었다.

《그러고보니 과자값이 꽤 비싼걸, 허허.》

《글쎄 말입니다.》

그들은 롱삼아 이렇게 주고받으며 즐겁게 웃었다.

인혁은 별옥의 각오가 자못 장했다. 공사가 가장 악조건에서 진통을 겪고있는 때에 전국적인 토지정리전투의 열풍을 직접 목격하고 와서 돌격대원들에게 그 열풍을 안겨주려는 속깊은 생각이 여간만 기특

하지 않았다.

인혁은 무엇이든지 일단 결심만 하면 무조건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별옥을 아무리 험한 곳에 내놓아도 안심할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토론해서 보냅시다. 당원인데 우려할게 있습니까! 별옥동무는 자기의 결심을 훌륭히 실행할겁니다.》

《예, 제 생각두 그렇습니다.》 하고 부락당비서는 더 보태여 말하였다. 《그리구 군대나간 동생두 장군님의 명령을 받들구 거기 토지정리전투장에 동원되였다구 합니다.》

《그래요!》

인혁은 처음 듣는 말이였다.

29

날씨는 변덕스러웠다.

인혁은 매일 기상관측소와 긴밀한 련계를 맺고 전화로 알아보군 하였다.

관측소예보실의 심동무는 인혁이 전화를 걸 때마다 예견되는 날씨, 농업기상예보 등을 친절히 알려주면서 《정말 극성입니다. 전에는 큰물이 지는 때라야 여기로 전화오는게 고작이였는데 비서동진 매일이다싶군요.》하고 감탄해하였다.

《허허, 화분의 꽃나무 한그루 가꾸는데도 품드는데 한 농장의 농작물비배관리에서 기상수문상태를 모르고서야 될법한 일입니까.》

인혁은 혹독한 이번추위가 아직도 3~4일 더 계속되리라는 기상예보를 듣고서는 스적스적 걸음을 옮겼다.

열이 잔뜩 오른 돌격대원들은 노루등변두리에 촘촘하게 전개한 천막들에서 숙식을 하며 아주 콩크리트화된 노루등을 산산쪼각낼 맹렬한 기세로 필사적인 대결전을 벌리고있었다.

언땅파는기계가 일자리를 내고있지만 그것도 정도이지 너무 굳게 얼어붙은 땅에서는 능률을 못 냈다.

동결이라는 어쩔수 없는 엄혹한 사태를 인혁은 걸음마다 새삼스럽게 절감하였다.

이때 먼발치에서 인혁을 첫눈에 알아본 한정길이 급히 다가왔다.

《비서동지, 기다렸습니다.》

《무슨 착상이 떠오른게구만.》

《예!》 하고 한정길은 저으기 흥분되여 7반 반장 진혜정의 발기라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좀전 휴식참이였다.

한바탕 일을 제끼고 돌격대원들이 모닥불가에 빙 둘러앉았을 때 자주빛목도리를 두른 진혜정이 질통을 진채 청년들에게로 다가왔다.

《하나 묻자요. 내 굉장히 요란한 발기를 하나 했는데 들어주겠어요?》

《아하, 7반 반장아주머니군요. 뭐 그렇게 요란한 발기안이 떠올라 가부부터 묻습니까? 어서 말씀하십시오.》

한 청년이 그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역시 롱으로 말을 받았다.

《사실은 웃음거리가 될가봐 그래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참작해주고 어처구니없으면 취소한다는 전제하에서 말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학위론문심사연단같다! 일없습니다. 우린 모두 반장동무의 발기를 지지할 자세가 되여있으니 걱정말고 말씀하십시오.》

여기저기서 호기넘친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서론이 심각한걸 보니 좋은 안 같구만!》

《변론은 내가 맡겠소!》

《그러다 기각되면 어쩐다? 손해보상같은것도 적용해야지.》

청년들이 이구동성으로 빨리 말하라고 하자 용기를 얻은듯 진혜정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신통한 수가 되겠는지 웃음거리가 되겠는지는 몰라요. 내 어제 부식토원천을 찾으러 갔다가 옥련봉 동굴안에 들어가보았는데 글쎄 집안처럼 훈훈하질 않겠나요. 그래 무엇인가 짚이는 생각이 들겠지요.》

《그래서요?》

《짚이는 생각이란 뭐요?》

돌격대원들은 진혜정에게 눈길을 모으며 하나같이 귀를 강구었다.

《이 노루등속에 그런 동굴을 만들면 어찌 될가 하는거지요. 그래 궁리를 짜보자는거예요.》

이 순간 한정길에게는 정말 짚이는데가 있었다.
노루등을 걸만 아니라 속으로도 파먹을 묘안! 머리에 번개치는것이 있었다. …
인혁이도 표상적으로 눈앞에 안겨오는것이 있었다.
(진혜정반장이 그런 궁리를 했단 말이지! 소박하면서도 기발한 생각을…)
이때 《리당비서동지!》 하고 장선이 움쭉 일어나 인혁을 급히 모닥불가로 이끌었다. 돌격대원들은 저마끔 자리를 내주려는데 《비서동무, 어서 이리 오시우.》하고 그들속에 섞여있던 강욱이 자기 옆자리를 권하였다. 아까 진혜정이 발기안을 내놓은 그 변론탁이다.
돌격대원들은 인혁이 오자 열이 올라 법석대던것 같지들 않게 입을 다물고있었다.
《우리 동무들이 7작업반장동무의 발기를 두고 어떤 신통한 궁리를 짜고있는가 한번 들어보시우. 글쎄 노루등을 뒤웅박처럼 파먹겠다는거지요.》
《뒤웅박이라?》
인혁은 그 표현이 신통하여 입가에 웃음을 그리였다.
장선이 슬그머니 눈짓하자 나이는 어리지만 지혜로와 팽이머리로 불리우는 청년이 《이건 7반장동지의 발기에 대장동지의 착상을 덧붙인건데.》하고 말머리를 떼였다.
《비서동지, 저 옥련봉동굴안은 여름엔 시원하지만 겨울엔 훈훈하지 않습니까. 또 량강도같은데서도 움안의 감자는 어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언땅파는기계로 그시그시 얼어드는 겉층만 두드리지 말고 만문한 속흙부터 파먹자 그 소리겠지? 한데 위험하지 않을가?》
《그래서 흙벽을 넓게 잡고 사이사이로 뚫고들어가 복판에 뒤웅박식으로 큰 공간을 낸 다음 벌집형으로 파내면 될것 같습니다.》
돌격대원들의 생각을 대변한듯 청년의 말은 확신적이였다.
강욱이도 흐뭇한 낯빛을 지었다.
인혁은 그 착안이 마음에 들었다. 뒤웅박식이란 말자체가 생동한 표상을 주었다. 그는 어린시절 어머니가 호박씨며 완두콩종자 같은것을 싸담아 추녀밑에 매달아두군 하던 뒤웅박을 늘 보았었다. 그런데 자신은 평범하게만 보아온 뒤웅박을 본따서 돌격대원들은 그런 모양새

로 굴을 뚫어 흙을 파먹을 엉뚱한 생각까지 해낸것이다. 돌격대원모두가 보배처럼 귀중하게 생각되였다.

인혁은 변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밤에 돌격대장을 비롯한 초급일군들을 지휘부에 모여놓고 잘 토론하고 구체적인 작업조직을 하게 하였다. 인혁은 언흙벽기둥으로 동발을 대신하는만치 로동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도록 단단히 못을 박았다.

노루등작업장은 더욱 활기를 띠고 흥성거리기 시작했다.

거의 절반이나 키가 낮아진 노루등양지쪽은 돌격대원들과 농장원들로 한벌 덮이였다. 그들은 군데군데 표말을 세운 곬을 따라 갱도식작업을 경쟁적으로 벌리였다.

열정의 도가니로 화한 작업장들을 돌아보고 인혁이 흥분을 걷잡지 못해하며 들것을 잡으려는데 누군가 날쌔게 뒤채를 냉큼 들었다. 얼른 돌아보니 뜻밖에도 한정길의 안해 윤옥경이였다.

《아니, 옥경선생이 어떻게?…》

《비서동지, 안녕하십니까? 학생소년예술선전대를 데리고 방금전에 나왔습니다.》

《학생소년예술선전대를? 추운 날 아이들까지 나왔군요.》

《비서동지, 공연도 중요하지만 저 학생들이야 앞날에 고향에 뿌리내릴 주인공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고향땅이 어떤 변천의 길을 걸어왔는가를 직접 체험하고 추억으로 간직하게 하고싶었습니다.》

오늘을 체험하고 추억으로 간직하게 한다! 얼마나 뜻깊고 교육자의 속깊은 결심이 담긴 말인가.

인혁은 새삼스러운 눈길로 옥경을 바라보았다.

《옥경선생, 무거운걸 들어두 일없겠소?》

《이젠 이쯤한건 얼마든지 들수 있습니다.》

《모를 소리, 또 허리병이 도지면 난 옥경선생을 업구다닐 힘이 없수다.》

인혁은 짐짓 능청스러운 말을 하였다.

《호호… 비서동지 등에 업히우지 않겠으니 맘 푹 놓으십시오. 대신 제가 비서동질 업구 달릴 준비는 다 되여있습니다.》

옥경의 그 얌전해보이던 입에서는 롱말까지 흘러나왔다.

앞채를 잡은 인혁은 그한테 짐이 덜 실리게 넌지시 흙짐쪽으로 채를 바투 들여잡고 같이 들것으로 흙을 날랐다.

오후 휴식참에 금주중학교 학생소년예술선전대의 공연이 있었다.
《경애하는 아버지장군님의 국토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마판진수렁공사에 떨쳐나 날마다 혁신적성과를 올리고있는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소개자처녀애의 또랑또랑한 목소리는 관람자들의 가슴을 울렸다.
이어 녀학생중창이 시작되였다.

4월도 봄명절 우리 장군님
초소의 병사들 찾아가는 길
야영을 떠나는 아이들 보며
차창에 손저어주시네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

인혁은 이 노래를 텔레비죤에서, 군문화회관무대에서, 교정에서, 길가에서 수없이 들어왔지만 오늘처럼 엄혹한 공사장에서 각별한 의미를 담고 감수한적은 없었다.
노래의 그윽한 선률을 타고 위대한 장군님의 야전차우에 얹힌 흰눈이며, 차창가에 핀 하얀 성에며 최전연의 굽이굽이 령길이 눈앞에 삼삼히 밟혀오는듯싶었다.
문득 꿈속에서 장군님을 만나뵈옵던 격동적인 환영이 다시금 떠오르며 공사의 진척이 너무도 굼뜬것 같은 조바심이 가슴속에서 고패를 쳤다.
이때 누군가가 슬그머니 곁에 와앉는 감촉을 느꼈다. 돌아보니 변부위원장이였다. 그는 추위에 검붉어진 너부죽한 얼굴에 흐뭇이 미소를 그리며 인혁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비서동지, 한정길동무가 또 묘한 발기를 했습니다.》
인혁은 발기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이여 반문했다.
《묘한 발기? 어떤 발기게요?》
《지금 갱도식으로 양지쪽을 파먹다보니 상차장에서 작업장이 한 100메터쯤 더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구간을 나무레루로 련

결하자는 발깁니다.》
《나무레루를 놓는다?…》
인혁은 그만 어안이 벙벙해졌다. 나무레루라는 말도 귀에 설거니와 웬간한 나무재질로는 밀차의 중량을 당해낼것 같지 못했다. 설사 놓는댔자 그 목재가 터무니없이 많이 들것이다.
《그게 가능할것 같습니까?》
《예, 아까 10메터쯤 나무레루를 놓고 시험해봤는데 될것 같습니다.》
《아니, 100메터래두 레루 두줄기니까 200메터, 가고오는 선따로 늘이려면 연장길이가 400메터나 되는데 그 많은 목재와 침목은 어떻게 보장합니까?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되지 않을가요?》
《아, 레루감으로야 문화회관이랑 지을 때 쓰던 재질 굳은 발대목들이 수둑이 보관돼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그리구 덕산골 소철레루를 철수할 때 레루없는 구간에서 걷어온 침목이면 그만한 구간은 능히 깔수 있습니다.》
인혁은 비로소 싱글거리는 그의 배심이 리해되였다.
《그렇다면 한번 해볼만 한데요. 좌우간 한동무의 머리는 쉼없이 동작하누만.》
《그 동문 한가지 일을 하면서도 두세가지 착상을 동시에 무르익히거던요.》
한정길의 발기는 곧 실행되였다.
기술혁신조는 수리반과 일부 돌격대원들과 합동하여 철야전투를 벌렸다. 나무레루가공, 레루못생산, 침목깔기 등 작업을 동시에 밀고나가 부설작업을 단 열흘안에 끝냈다.
착상도 좋았지만 시공도 아주 묘했다. 특히 상차장의 회전구간을 남아있던 소철레루를 활등처럼 구부려 나무레루와 련결시키고 언땅우에 전개한 침목우에 흙을 덮고 물을 부어 콩크리트처럼 얼구었다.
게다가 한정길의 타산은 매우 그럴듯하였다.
《비서동지, 100메터구간이 결코 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사람이 질통을 지고 왕복하는데 200메터, 다섯명의 왕복이 1키로메터, 10명으로 환산해도 5리길이나 됩니다. 그런데 숱한 사람들이 하루 몇축을 합니까. …》

인혁은 가슴이 찌릿해졌다.

(100메터구간에 비낀 그의 끝없는 헌신성! 공사를 두고 자나깨나 모색하는 깨끗한 량심!…)

생각할수록 한정길이 돋보였다.

그의 말대로 밀차들이 100메터구간을 힘차게 달리게 되자 질통과 들것으로 흙을 나를 때보다 실적이 껑충 뛰여올랐다.

30

한정길은 급한 자재와 부속품관계로 관리위원회에 왔던김에 동상처치를 받으려고 리병원에 들리였다.

복도와 잇달린 대기실에는 몇사람이 먼저 와있었다. 소독약냄새가 코를 찔렀다. 난방장치가 잘된 병원은 대기실까지 훈훈하여 언 몸이 금시에 녹았다. 그가 대기실 긴의자에 앉은지 얼마 안되여 직일탁의 전화종이 바삐 울렸다. 때마침 투약함을 들고 지나던 간호원이 송수화기를 들었다.

《네? 군경영위원회 계획과? 아이, 리정애… 맞지요? 그새 잘있었어요?》

간호원은 그와 매우 친밀한듯 즐겁게 웃으며 말을 주고받다가 《잠간 기다려주세요.》 하며 송수화기를 놓고 내과의무실문을 똑똑 두드리며 홍선생한테 전화왔다고 알렸다.

이어 현희가 나왔다. 현희는 언뜻 한정길과 눈이 마주치자 반색하였다.

《선초 아버지가 어떻게 병원엘 다 오셨어요?》

《동상처치를 좀 받으려고…》

《잠간, 내 얼른 전화받구요.》

현희는 송수화기를 들더니 무등 반가와하는 말투로 전화하였다.

《정애냐. 그렇잖아두 네 전활 기다리던중이다. … 으응 그래, 너도 찬성이란 말이지… 응, 나두 그 농대 연구사총각 꼭 맘에 들어.》

그는 힐끗 한정길의쪽에 눈을 돌렸다가 우정 목소리를 돋구었다.

《이젠 우리 현실이하구 혼약이 다 된거나 같애. 뭐? 관리위원장동지가 군에 온 그와 또 만났댔다구? 응, 나도 들었다. 그래… 정말 연분이랄가?… 축하는 뭐 벌써…》

현실의 혼약소리가 불쑥 나오자 한정길은 자기 귀를 의심했다. 별안간 가슴이 활랑거렸다. 그는 장선이와 현실의 관계를 어느 정도 알고있었던것이다.

현희는 오늘따라 친절히 한정길을 안내하여 외과처치를 받게 한 후 자기 방에 들리게 했다.

현희는 공사형편을 몇마디 묻는척 하다가 인차 방금전의 전화내용에 줄을 달아 동생문제때문에 무던히 속 썩더랬는데 요행 끌끌한 대상이 나타나 큰 시름을 놓게 됐다며 흥심이 돋쳐 그 연구사의 자랑을 한바탕 하였다.

병원문을 나서는 한정길의 생각은 사뭇 착잡하였다.

(자기 동생과 장선의 관계를 아직 몰라서일가? 아니면 혹시 알면서도 딴장을 펴는것일가?…)

장선은 뒤에서 이런 일이 꾸며지는줄 전혀 모르고있을것이다. 그는 이 사실을 장선에게 알릴것인가 말것인가 괴롭게 망설이였다. 이 사실을 숨기는것은 모든 일에 고지식한 그를 속이는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도의나 량심이 그것을 허락치 않았다.

어느날 그는 마음을 다잡고 호젓해진 대장간에서 장선이와 마주앉았다.

장선은 자기를 찾고는 정작 마주앉게 되자 주밋거리며 말을 꺼내기 주저하는 한정길을 의아하여 쳐다보았다.

이윽고 한정길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장선동무, 솔직히 말해주게. 홍현실동무를 사랑하나?…》

장선은 그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오자 대뜸 그 어떤 범상치 않은 예감이 들어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러나 에두를줄 모르는 그는 서슴지 않고 말하였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단 말이지!》

한정길은 한숨을 길게 내쉰 다음 현희의 전화내용이며 의무실에서 들은 말을 간단히 전하였다.

한순간 장선은 호흡이 멎은듯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무표정,

의혹, 분격… 한정길은 장선의 심리변화를 이렇게 감수했다.
그러나 마저 말해주어야 했다. 모르고 지내다가 더 큰 심리타격을 받는것보다 모든것을 다 알고 처신하는 편이 좋을것이다.
《장선동무, 나도 사랑의 체험을 남달리 한 사람으로서 이 사실을 더 숨길수가 없었네. 그러니 리성적으로 잘 료량해서 다루라구. 심중히 생각하고 심중히 처신하기 바라네. …》
사실 장선에게는 한정길의 말이 청천벽력이였다.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았다. 아니, 믿고싶지도 않았다. 현실이가 그와 같이 부질없는 처녀라고는 생각해본 일이 없었다. 그는 더할나위없이 도고한 처녀였지만 가식을 가지고 대한적은 없는것 같다. 불도젤때문에 허둥허둥 달려갔을 때 억실억실한 눈에 확 실리던 안타까운 불안과 걱정의 빛이, 무엇인가 더 도울 길이 없는것이 안타까운듯 불도젤을 보내고 자기도 뒤따라와 도와주던 그 모습이 그래 한갖 위선적인 행동이였단 말인가.
마치도 자기들의 관계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그 누가 심술궂게 훼방을 노느라고 헛소문을 퍼뜨린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누가, 무엇때문에, 무슨 근거를 쥐고 그런 말을 돌린단 말인가.
다음순간 그렇게도 진중한 한정길이 절대로 실없는 말을 듣고다닐수 없다는것과 그 일에 수환이 나서고 또 단정한 녀성일군으로 알려진 리정애까지 끼인것을 미루어보면 한갖 허랑한 말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 없어 속으로 연거퍼 자문자답하였다.
(사실일가? 거짓일가? 사실일수 없다! 거짓일수 없다! 그렇다면?…)
그는 속이 걷잡을수없이 후둑거렸다. 온 가슴이 갈가리 찢어지는것만 같았다.
그는 애써 내색하지 않으려고 전투지휘에서 더더욱 원기를 내고 돌격대원들과 더 자주 어울려 웃고떠들며 자기를 잊으려고 애썼다. 그러다가도 가끔 혼자 있을 때에는 가슴이 미여지는 생각이 들고 옥천리의 먼산을 바라보며 한숨짓게 되는 자신을 어쩌지 못하였다.
어느날 저녁 장선은 오래간만에 집에 들렸다.
그동안 늘 손자 생각에 옴해있던 춘선이 별안간 마음에 해빛이 흘러든듯 반색하며 장선을 맞아들였다.

그는 공사가 한창인 때부터 거의 집에 들리지 못하는 손자에게 다문 한끼라도 푸짐히 먹이고 몸보신이라도 시키고싶어 이미전에 잡아서 튀해두었던 통닭을 설설 끓는 솥에 얼른 안쳤다.

춘선은 아래목에 저녁상을 차려놓았다. 그리고는 먼저 닭고기를 들여다놓고 통통하게 살이 오른 닭의 다리를 떼내여 장선의 손에 들려주었다.

전에는 집에 들리기만 하면 공사형편은 어떠냐, 순이 아버지는 잘 있느냐, 지금도 현장에서 장참 새우느냐 하며 꼬치꼬치 물어보군 하던 할머니가 오늘은 별로 딴 말씀이 없이 자기의 기색을 슬그머니 살피다가는 닭고기를 먹이는데만 신경을 쓰는것 같아 장선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왜 저러실가? 무슨 일이 있었을가. …)

장선이 할머니가 권하는대로 고기도 들고 밥을 한그릇 다 먹은 후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나가려는것을 할머니는 굳이 말려 앉혔다.

할머니는 장선의 곁에 다가가 터슬터슬해진 손자의 손을 어루만져보고 더 헐끔해진듯 한 얼굴을 유심히 살피기도 하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온통 불은 붙었더라만 네 생각엔 이 동삼에두 계획대로 일을 해제낄것 같으냐?》

《제끼지 않구요. 군에서도 적극 도와주고있어요.》

《그래!》

할머니의 얼굴은 금시 밝아졌다. 그러나 그것도 순간일뿐 얼굴은 다시 흐려졌다.

잠시 서름서름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할머니는 뜻밖에 현실의 문제를 힘들게 꺼내였다.

《얘, 하나 묻자꾸나. 네 옥천리기계화반장하군 지금 어떤 사이냐?》

(역시 옥천리소리구나!)

장선은 예감하고있었던듯 시무룩이 웃었다.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무어라 선뜻 대답이 나가지 않았다.

《네 혹시 그 처녀의 속사정은 모르구 지내는게 아니냐? 네가 아직 그런 속내만은 할미한테 말하지 않았지만 내 들은 말 있어 그런다. …》

《할머니, 그 동무하군 사업과정에 그저 서로 잘 알고지낼뿐이예요.》

《돌아가는 말은 그렇지 않더구나!》

할머니는 장선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장선은 할머니를 서운하게 만든것이 괴로왔으나 내색을 않고 도리여 우선우선한 얼굴로 속주머니에서 늘 넣고다니는 사진을 꺼내였다.
《보시라요. 이렇게 뜨락또르운전수열성자회의때부터 알게 된 동무예요.》
춘선은 마지못해 돋보기를 끼고 손자와 현실이 나란히 찍은 사진을 한참 보았다. 눈이 류달리 억실억실한 현실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있었다. 언젠가 신문에 난 이 사진을 본 기억이 있으나 정작 성의껏 깨운것을 보니 그 사진과는 달리 처녀가 또렷하고 얼굴이 더 환해보였다. 이처럼 쑥 빠진 인물은 금주리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처녀가 남달리 뛰여나고 탐날수록 마음은 한층더 허전해지는듯 춘선은 한숨을 지으며 사진을 방바닥에 내려놓았다.
《할머니, 우리는 그저 반장들로서 사업상 서로 경쟁자일따름이예요.》
장선은 할머니를 안심시키려고 속에 없는 소리를 하였다. 만일 돌아가는 말대로 자기들 관계가 달리 될수 없는 경우를 예상해서라도 아직은 할머니에게 진속을 그대로 다 터놓을수 없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별문제다만 지금 이 처녀하구 무슨 연구사인가 하는 박국장네 동생하구 혼사소문이 돌고있다.》
《할머닌 그 소릴 누구한테서 들었어요?》
《옆집 철범 엄마가 그러더구나. 요먼저 국수칸에서 너하구 이 녀반장하구 좋아지내는 말을 드러내놓구 하는 아낙네도 있더라만 철범엄마는 학교마을 박국장의 사촌네 집에서 새나온 말이라고 하더구나!》
장선은 할머니의 말까지 듣고보니 한정길의 이야기가 사실이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헛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란 말이지.)
그는 다시금 피가 거꾸로 치솟는듯 했다.
실상 현실이한테 당의 뜻을 꽃피우기 위한 경쟁을 먼저 호소한것은 바로 자기—장선이가 아닌가. 무엇이라 표현하기 힘든 좌절감이 들었다. 마음속으로는 그리도 잊지 못해하면서도 아직 정식으로 사랑을 고백한 일도, 혼사말 오고간 일도 사실상 없지 않은가. 지금껏 둘사이

관계는 마음속에 비밀로 고이 봉해두지 않았는가.

관리위원장과 언니인 현희가 그 일에 나섰을수 있다. 그렇다면 현실이가 그들의 의향을 따랐을가. 현실이가 설마… 그가 정녕 그랬으리라고는 믿게 되지 않았다. 랭철한 리성은 사실일수 있는 그 일을 부정했다. 그는 시간이 갈수록 자기 모순의 미궁속에서 모대기였었다.

(단념하자! 더이상 그에 대한 그 어떤 미련도, 애모쁜 추억도 깨끗이 씻어버리자! 그러면 되지 않겠는가!)

그는 이렇게도 생각해보았다.

31

인혁은 공사에 줄곧 몸이 묶이다보니 한동안 축산작업반에 나가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오늘 벼종자싹트기시험을 하는 7작업반을 거쳐 축산작업반에 가려고 걸음을 서둘렀다.

원래 축산작업반은 그중 유축에 삐여져있어 농장일군들의 발길이 자주 미치지 못하였다.

그동안 새로운 집짐승먹이기지조성을 위한 계획추진정형이 어떻게 되여가고있을가 하는 생각과 함께 기백있고 담차보이던 제대군인 반장의 모습이 그려지였다.

인혁은 작년말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준비사업때문에 나왔다가 반장을 깊이 알게 되였다. 중키의 탄탄한 몸집, 두리넙적한 얼굴과 쌍까풀진 큰 눈에는 노상 자신만만한 웃음기가 어려있는, 어쩐지 믿음이 가면서도 매력적인 청년이였다.

축산작업반은 아직 설핀 구석이 많았었다. 토피로 지은 어수선한 먹이창고도 새로 지어야 했고 집짐승우리들을 현대적으로 꾸리려면 많은 골재, 자재와 로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인혁이 걱정하자 작업반장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표가 정해진 이상 무조건 수행합니다.》하고 조금도 서슴지 않고 대답하는것이였다. 그의 입에서 너무나도 쉽사리 나오는 장담에 인혁은 떨떨해졌다.

(혹시 이런 일에 부대껴보지 않아 욕망을 앞세우는것이 아닐가?)

하지만 그것은 공연한 우려였다. 그는 즉시 청년들을 발동하여 슬라크를 모아들인다, 손달구지로 혼석을 끌어들인다, 사회적로동으로 블로크를 찍는다 하며 온 작업반에 열풍을 일으키더니 계획대로 짐승우리들을 개건했을뿐아니라 돼지우리는 온돌식으로 개조하고 조리실과 먹이창고는 완전히 새로 지었다.
산기슭에는 선전실도 손색없이 꾸려놓았다. 반장자체가 기타명수여서인지 예술소조공연에서는 언제나 청년작업반과 승부를 겨루었다.
년말에 축산작업반은 마침내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했다. 그 과정에 인혁은 작업반장의 남다른 일솜씨에 반하고말았다.
인혁이 이런 생각에 골똘하여 걷는 사이에 어느덧 축산작업반어구에 당도했다.
본시 이 골은 두릅골, 삼치바위골로 불리웠다. 실은 골이라기보다 삼치모양의 분지에 가까왔다. 한가운데 오목한 삼치바위는 꽃시절이면 그 정수리에 진달래가 무더기로 피여 흡사 꽃화분대를 방불케 했다.
인혁은 소학교시절에 두릅나물 따러 종종 이 두릅골에 오군 했었다. 키가 모자라 돌멩이를 겹놓고 그우에 간신히 올라서서 송곳같은 가시에 찔리며 두릅애순을 따던 일이 감회롭게 추억되였다.
어느새 나는듯이 달려온 작업반장은 어찌나 반가와하는지 인혁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그러지 않아도 오늘 비서동지 오실것 같은 생각이 들었댔습니다.》
《그래 반장동무에게 그런 신통한 판단능력도 있었댔소?》
《지난밤 꿈에 비서동질 봤거던요.》
《허허, 내 발길이 너무 드물어지니 수태 원망했던 모양이요, 꿈에다 나타난걸 보니.》
인혁은 그저 즐거운 기분이였다.
작업반장 역시 리당비서만 오면 무슨 영문인지 성수가 나했다. 그것은 그가 여느 일군들처럼 뚝하지도, 욕설도 없고 그저 한집안의 맏형처럼 작업반 구석구석을 세심히 돌보아주고 가르쳐주면서 소탈하게 대해주기때문이였다. 그의 말마디에도, 하나의 표정과 몸가짐에도 인정미가 푸근하게 흘렀다.
야산중턱에 퍼더앉아 한참동안 삼치안을 굽어보던 인혁은 자기의 구상을 말하였다.
《반장동무, 저 좌우야산경사면에는 아카시아림을 더 조성하구

굽도리를 따라 넓은 공지에 먹이풀판을 조성하면 어떨가? 그리구 저 짐승우리쪽면은 호박밭, 단백먹이풀판으로 만들고…》

반장은 순간 섬광이 번쩍이는 눈으로 인혁을 피끗 쳐다보며 어망결에 그의 무릎을 툭 쳤다.

《옳습니다! 비서동지,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인혁은 눈치를 가리지 않는 그 성급하면서도 순박한 인간이 하는 말에 저절로 가슴이 쩌릿해지였다.

작업반장은 웃옷주머니에서 네모로 꼼꼼히 접은 종이를 급히 꺼냈다. 얼마나 오래 넣고 다녔는지 16절지의 접은 모서리가 보풀이 일어 금시라도 찢어질듯싶었다.

《제가 그린 전망계획도초안입니다. 비서동지 머리속 설계와 꼭같지 않습니까?》

인혁은 꼬밀꼬밀하게 그린 략도와 깨알같은 표식들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이건 못이 아니요?》

《개울을 막아 못을 만들고 오리를 놓아기를가 해서…》

《음, 괜찮소. 오리못이라… 허허, 이러다간 작업반이 아니라 목장성격을 띠겠다. …》 하고 인혁이 웃자 반장도 따라웃었다.

《하여튼 반장동문 꿈이 많아. 계속 새롭게, 혁신적으로 전진하려는게 내 마음에 드오.》

《비서동지를 만나면 힘이 솟습니다. 많은걸 깨우쳐주고 제 상상에 나래를 달아주지요.》

《너무 비행기태우지 마오. 내 그새 자주 못 나와본게 오히려 마음에 걸리오. 이제 공사만 끝나면 지원포를 쏴주겠소.》

《념려마십시오. 3대혁명붉은기작업반답게 냅다 달리겠습니다. 고기생산도 부쩍 늘여 공사에 참가한 전투원들의 후방사업을 할 계획도 서있습니다.》

인혁은 축산반에서 돌아오던 길에 공사의 전경을 휘둘러보고나서 가마고개에까지 올라가보았다. 그러느라니 시간이 좀 지체되였다. 7작업반선전실마당을 막 지나려는데 통계원이 달려나오며 부비서한테서 전화가 왔댔다고 알려주었다. 그는 급히 선전실에 들어가 송수화기를 들었다. 교환수는 몹시 기다린듯 《부비서동지가 몇번이나 찾았습니다.》 하고 인차 련결해주었다. 이어 부비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비서동지입니까?》
《예, 무슨 긴급한 일이 생겼습니까?》
《아, 아닙니다. 고문위원장동지와 함께 군인동무들이 공사에 쓸 작업도구와 자루감들을 가지고왔댔습니다. 군에서 마련해준 자재들이라고 합니다.》
《그렇소? 그들이 지금 어디 있소?》
《군인동무들은 여기서 흙나르는 일까지 도와주고 떠나갔습니다. 강욱위원장동지가 전투원들과 함께 있습니다.》
《알겠소!》
인혁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부리나케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강욱을 빨리 만나고싶었다. 만나서 오늘일의 자초지종을 알고싶었다. 강욱은 공사의 요긴한 대목마다 오늘처럼 말없이 도와주군 했었다.
인혁은 지휘부천막에서 강욱을 만났다.
《위원장동지, 너무 수고를 끼쳐 안됐습니다.》
강욱은 그런 말은 당초 말라는듯 손을 내저었다.
《수고는 내가 아니라 우리 군인동무들이 했지요.》
강욱은 동안을 두었다가 계속하였다.
《군당에 들려보니 군당책임비서동문 벌써 군안의 책임일군들을 모여놓구 조직사업을 다 해놓았더군, 군에 앉아서두 여기 형편을 꿰들고있으니까… 농기구공장에 가보라구 해서 급히 가보니 글쎄 작업도구와 자루감들이 쌓여있질 않겠소.》
인혁은 류순기가 말없이 뒤에서 밀어주는것이 고마와 가슴이 찡해졌다.
《그래 운반때문에 망설이는데 난데없이 한 군관동무가 앞에 와 인사를 하지 않겠소. 보니 구면인 중대장이더군. 훈련임무를 수행하고 대렬을 인솔하고 돌아가는 길이더군. 〈위원장동지, 왜 추운 날 밖에 서계십니까?〉 하길래 내 그만 어망결에 뭘 나를게 있어 그런다고 하면서 공구와 자재들을 가리켰지. 그런데 글쎄 그가 즉시 행군대렬을 돌려세우는게 아니겠소. 너무 급해 펄쩍 뛰는데두 군인들에게 메워, 지워가지군 예까지 강행군을 조직하더군. 또 여게 와선 왁 달라붙어 산더미갈던 흙도 날라주고 떠나갔지요. 번번이 느끼지만 우리 장군님께서 인민을 친부모형제처럼 도와주고 사랑하도록 키워주신 인

민군대의 소행에 가슴이 막 울렁거리오.》
강욱의 말을 듣는 인혁의 눈굽은 확 달아올랐다. …
이때 천막밖에서 《리당비서동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들렸다. 순간 너무도 귀에 익은 목소리에 가슴이 찌르르해진 인혁은 저도 모르게 입구쪽으로 걸음을 내짚었다.
《예, 어서 들어오우!》
이어 천막자락을 들며 추위에 얼굴이 빨갛게 언 별옥이 살며시 들어섰다. 그는 꽁꽁 동여맨 머리수건을 벗으며 강욱이와 인혁에게 깍듯이 인사를 했다.
인혁은 격정에 찬 목소리로 숨가쁘게 물었다.
《별옥동무! 수고했소. 그래 언제 왔소? 어떻게 왔소?…》
《지금 막 오는 길입니다. 군대차를 타구 도에까지 와서 걷다가 도중에 또 화물차를 잡아타구 읍까지…》
《용소, 정말 용소! 별옥이답거던!…》
강욱이도 그의 기특한 소행에 감동된듯 저으기 감심한 어조로 《정말 장하오. 조수환동무가 참말로 훌륭한 딸을 두었소!》 하고 칭찬하였다.
별옥은 거듭되는 칭찬이 거북한듯 고개를 숙이고 몸둘바를 몰라했다.

이른아침 돌격대원들은 일제히 가마고개에 올랐다.
인혁은 어제 축산작업반에 나왔던김에 가마고개에 올라 그동안 공사가 예상외로 놀랍게 진척된것을 보고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얻었다.
그는 돌격대원들에게도 자기들이 해놓은 일들을 제 눈으로 직접 보게 하는것이 큰 정치사업으로 되리라고 생각하였다. 게다가 한드레벌에 다녀온 별옥의 이야기에서 더더욱 감동된 인혁은 그 말을 모두에게 해주고싶어 해돋이전에 가마고개에 오르도록 긴급포치를 한것이였다.
때를 맞추기라도 하듯 옥련봉마루에 둥근 해가 벙긋 솟아올랐다. 일순 대기에 어려있던 어둠흔적이 말끔히 걷히고 옥천강버들방천에 연분홍서리꽃화원이 눈부시게 펼쳐졌다.
돌격대원들은 《히야!》 하고 일시에 환성을 질렀다. 아득한 록새벌에 반나마 메꾸어진 마판진수렁자리며 허리중둥이 뭉청 잘리운 거뭇거뭇한 노루등이 한눈에 바라보였다.
《야— 우리가 그새 저렇게 많은 일을 해놓았나!》
《그걸 모르고 괜히 제 자리에서 오무작거리는것만 같아 등이 달았

댔구만.》
《잘 봐두라구. 앞으로 마판진수렁자리를 찾기 힘들거야!》
《그건 찾아 뭘해! 그 흔적을 없애야 래일의 록새벌이 제모습을 갖추는데.》
《오, 전례없는 역경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부강조국의 직선주로를 줄달음치는 선군용사들이여!…》
돌격대원들은 제 손으로 일자리를 예상외로 큼직이 낸것이 좀처럼 믿어 안지는듯 저마끔 감탄했다.
감개무량해하는 그들의 흥분된 모습에 감심된 눈길을 주고있던 인혁이 천천히 대원들앞에 나섰다.
인혁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격대원들과 농장원들을 쭉 둘러보며 말꼭지를 떼였다.
《모두들 흥분한것 같은데 그래 어떻습니까. 제 손으로 해놓은 일을 제 눈으로 보는 감상들이…》
여기저기서 열기띤 목소리들이 튀여나왔다.
《제가 한 일인데두 놀랍습니다!》
《신심이 생깁니다!》
련달아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동무들을 이 자리에 세워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평북땅 토지정리전투장에 다녀온 선동원 조별옥동무의 이야기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대뜸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가 다녀온걸 모르는 사람들은 무척 놀라와하고 아는 사람들은 기대어린 눈빛으로 별옥을 찾았다.
저바로 진곤색솜저고리에 발이 성글성글한 흰 머리수건을 벗어 목언저리에 걸치고 그 자락을 저고리앞섶으로 드리운 별옥이가 상기된 얼굴로 그린듯 서있었다.
그는 평상시에 수집음을 잘 타지만 일단 연단에 서거나 사람들앞에 나서면 대담해지고 말도 류창하게 잘하였다.
인혁은 담담한 목소리로 그의 소행을 먼저 소개하였다.
《별옥동무는 불과 며칠사이에 왕복 천리길을 다녀왔습니다. 온 나라를 뒤흔드는 거대한 토지정리전투장의 열풍과 맥박을 직접 느끼고 와서 동무들에게 소식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짝자그르르한 박수를 받으며 별옥이 먼저 전투원들을 향해 머리숙여 인사를 하였다.

《나는 난생처음 태천땅에 가보았습니다. 거기엔 강하천만 해도 수십개나 된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태천이라고 부른답니다.

태천땅은 하나의 큰 분지로 되여있는데 그속에 한드레벌이 안겨있었습니다.》

별옥은 지형적인 표상을 주면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끌어들였다.

《저는 온벌이 불도가니로 들끓는 토지정리장에 첫발을 들여놓는순간 입을 딱 벌렸습니다. 글쎄 기계군단이 긴 횡렬을 짓고 언 논뚝이며 두렁길을 와락와락 밀어제끼는걸 보구 그저 굉장하구나! 천지개벽되는구나! 하는 감탄밖에 터져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군대와 돌격대원들이 한마음이 돼서 노닥노닥한 토스레갈던 뙈기논들을 축구경기장같이 큰 규격포전으로 만들고 울퉁불퉁하던 땅을 눈뿌리 모자라는 지평선으로 펼쳐가고있었습니다. 정말 희한하고 볼만 했습니다!

동지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토지정리를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으로 보시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주고계십니다.

장군님께서는 토지정리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려 우리의 국토를 사회주의선경답게 훌륭히 변모시킬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시면서 군인건설자들과 전투원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한없이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사람들은 감격을 머금고 별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였다.

《전투장에는 불도젤과 뜨락또르의 4부자운전수, 형제운전수, 부부운전수도 있었습니다.

밤이면 모두들 홰불을 들고 밤낮이 따로없이 결사전을 벌리고있었습니다. 눈물겨운 사연이 한두가지가 아니였어요. 정말 굉장했어요! 동지들, 군대와 인민이 하나의 마음이 되여 무쇠철마로 한뙈기 논에 명줄을 걸고 물 한드레면 땀 한드레, 눈물 한드레라던 우리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의 피로 얼룩진 력사의 마지막그루터기를 밑뿌리채 들어내고있었어요.

태천토지정리전투에는 군대에 나간 우리 동생도 참가하고있었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동생도 만나고 군인동지들도 만났댔습니다.

군인동지들은 내가 동생한테 보낸 편지를 함께 보았다고 하면서 전투마당은 서로 다르지만 토지정리의 한전호속에서 경쟁적으로 토지정리전투를 벌리자고 호소하였습니다!》

별옥의 말을 귀담아듣던 전투원들은 와 하는 환성과 함께 박수까지 쳤다.

인혁은 흐뭇한 웃음을 짓고 고개를 끄덕이였다.

별옥이 말을 마치고 자리에 가앉자 인혁은 격동에 넘친 어조로 말하였다.

《얼마나 격동적인 소식이고 가슴벅찬 현실입니까! 지금 우리 장군님의 원대한 뜻을 받들구 비단 국가적인 토지정리전투장만이 아니라 모든 단위에서 자체로 토지정리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습니다.

바로 이 마판진수렁공사장도 단순히 자연개조전투장이 아니라 장군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전선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전선의 전투원답게 한드레벌의 열풍을 안고 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저 공사를 훌륭히 완성하고 어버이장군님께 충정의 보고를 올립시다.

우리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에 바로 여기 가마고개마루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저 록새벌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잠시라도 피로를 푸실수 있게 일터와 마을을 훌륭히 꾸립시다!

그런 영광의 순간이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믿고싶습니다!》

전투원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은 그의 힘찬 목소리는 록새벌에 그대로 울려퍼지고있었다.

32

…마가을의 음산한 날, 현실은 물결 거칠고 먼지바람이 락엽을 허공에 휩쓸어올리는 망망한 호수가에 서있었다. 그는 끊임없이 밀려가고 밀려오는 물결우로 무슨 영문인지 침울한 얼굴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장선을 따라잡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를 소리쳐 불러세우려 해도 목소리가 안 나가고 따라가려고 해도 발이 움

직여지지 않았다. 안타깝게 허우적거렸지만 종시 장선을 불러세우지도 따라잡지도 못하였다.
현실은 안타깝게 모지름을 쓰다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다.
(환각인가 꿈인가.)
현실은 한숨을 내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호실처녀들은 다 잠들어 있었는데 밖은 캄캄하였다.
몇시나 되였을가. …
현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앉았다. 머리를 비다듬고 창가로 다가가 의자에 걸터앉았다.
밖은 캄캄하고 고요했으나 그너머 멀리로 보이는 금주리 노루등쪽 하늘은 불그스레한 빛을 띠고있었다.
낮에는 이 창가에서도 노루등과 잇닿은 진달래봉과 주위야산들이 어렴풋하게 바라보였으나 밤에는 화광으로 그 위치가 더 뚜렷이 밝혀지는것이였다. 요즘 노루등은 점점 더 요란스런 불천지로 화해갔다. 그것은 마치도 떠도는 여론을 불사르며 활활 타번지는 록새벌공사장의 기세처럼 느껴졌다.
현실은 그 화광을 외면하고 잠자리에 그냥 들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거세찬 시대의 숨결을 외면하는 그릇된 행위처럼 여겨졌다.
현실은 장선이 책임졌다는 그 공사의 형편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다. 또 작업반원들에게도 그들의 투쟁모습을 보여주고 그 열의를 받아안게 하고싶었다.
그는 어느날 일부러 노루등과 그중 가까이 린접한 6작업반포전에 거름운반조직을 하였다.
일을 끝마친 후 현실은 운전수들을 데리고 노루등으로 갔다. 노루등변두리에 이른 그들은 금시 눈이 뒤집힐 지경으로 놀랐다.
이 혹한에도 변두리에 천막을 규모있게 촘촘히 전개하였을뿐아니라 멀리 불빛으로만 보아오던 노루등이 이렇듯 끓어번질줄 몰랐다. 전투장은 그야말로 전혀 다른 세계, 열정의 세계였다.
처녀운전수들은 약속이나 한듯 일시에 《야—》 하고 탄성을 질렀다. 그가운데서도 내심으로 탄복한것은 현실이였다. 전투장의 정경과 거세찬 숨결은 이 공사와 관련한 장선이에 대한 뒤소리들이 얼마나 그릇된것이였는가를 그대로 증명해주고있었기때문이였다.
한편 그 시각 장선은 후진하는 뜨락또르가 갱도초입에 정확히 꽁무

니를 대도록 방향을 손짓하며 분주히 돌아치고있었다. 그러다가 그 어떤 륙감에서였는지 얼핏 뒤를 돌아보다가 흠칫하고 놀랐다. 하나같이 그쯘한 처녀들이 등성이에 몰켜서서 작업장을 주시하는 모습이 불빛으로 드러나보였던것이다.

그들은 뜻밖에도 옥천리 뜨락또르운전수들이 아닌가! 장선은 그들속에서 류달리 키가 늘씬하고 얼굴이 희멀쑥한 현실을 첫눈에 알아보았다. 머리가 멩해지면서 가슴이 후둑후둑 뛰였다.

(현실동무가 어떻게?!…)

장선은 이미 말 못할 고뇌와 쓰디쓴 모욕감으로 현실이와의 관계를 끊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해오던터였다.

관계를 끊더라도 그의 속마음은 꼭 확인하고싶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현실이 스스로 나타난것이다.

장선에게는 부지중 의분이 치밀었다. 하지만 일부러 대범해지려고 마음을 다잡으며 태연하게 그들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모두말로 인사를 건네였다.

《아니, 이 저녁에 옥천리동무들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처녀운전수들은 반색하며 깍듯이 인사를 하였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큰일을 하십니다.》

이때 현실이 물기를 머금은듯 불빛에 반짝이는 미더운 눈길로 그를 쳐다보며 《거름을 실어나르다가 돌격대원들의 기세에 그만 마음이 끌려서…》 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아니, 지금까지 거름운반을 하다 왔단 말입니까?》

《정말 기세들이 대단합니다! 정작 와보니 상상밖이군요. 그새 성과가 큰것 같습니다.》

《뭐 별로…》

장선의 대답은 심드렁하였다.

처녀들은 눈치있게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주었다.

현실은 단둘이 남게 되자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다.

《장선동지, 그새 건강은 어떠하세요?》

《보다싶이… 나야 원래 건강체니까요.》

장선의 대답은 어딘가 무정하고 심드렁한투였다. 현실은 전에 있은 일로 하여 그런다는것을 간파했지만 그에 별로 개의치 않았다.

《장선동지, 전번에 제가 너무… 지나치지 않았는가 하는 후회가 들더군요. 너그럽게 리해해주세요.》
《너그럽게 리해하구말구가 있습니까. 나야 그런 말을 들어 싸지요.》
《그런 말 들어 싸다는건?… 지금두 내가 옮긴 말이 내려가지 않아서 그러는가요?》
《내려가구말구가 있습니까. 나는 그쯤한걸 속에 그냥 새겨두는 졸장부는 아니지요.》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장선을 보면서 현실은 그가 자기가 나타난것을 달가와하지 않는다는것을 느끼였다. 이제는 현실이 모욕감을 느꼈다.
《장선동지, 왜 그래요, 웬일이예요? 나와 만나는게 그리도 반갑지 않은가요?》
장선은 자기의 마음을 즉석에 샅샅이 헤쳐보는듯 한 그의 눈길을 피하며 자신의 속심을 빙 에둘러 애매하게 말하였다.
《현실동무, 진실과 위선에 대하여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진실과 위선? 그건 무슨 의민가요? 그걸 새삼스럽게 묻는 의도는 뭔가요?》
현실이 담박한 표정으로 이렇게 따져묻자 장선은 얼어붙은듯 선뜻 대답을 못하였다. 현실의 귀에는 소란스러운 공사장의 소음도 딱 멎어버린듯 가슴만 숨막힐것처럼 답답해왔다.
《난 장선동지가 그런분인줄 몰랐어요. 우리사이에 못할 말이 뭐예요. 잴것없이 좀 속시원히 말해주세요.》
그래도 장선은 잠시 망설이였다. 내심으로 묻고싶었던 말들도 입이 열리지 않아 할수 없었다. 자신이 민망스러워졌다. 은근히 자존심이 상했다. 전번처럼 그는 또다시 분별력을 잃고말았다.
《현실동무, 여직껏 나는 동무를 잘못 알았고 동무도 나를 잘못 알았던것 같습니다.》
《어마?!… 그건 대체 어떤 의미에선가요?》
일순 현실의 얼굴은 호흡이 멎은듯 새하얗게 질렸다.
《그래서 나는 요즘에야 그때 동무한테 너무 성급히 경쟁을 호소하였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였지요. 내자신이 동무와 겨룰만 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것도 모르고…》
《이제와서 별스럽게 서로가 서로를 잘못 알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또 대상이 못된다는 말뜻은 도대체 뭐예요?》

드디여 장선의 얼굴에 울기 오르고 목소리도 더욱 거칠어졌다.
《그럼 직판 말하지요. 동무가 전날 말한것처럼 사람들이 알고있는 이 정장선은 형편없는 받개질군이고 푼수없이 날뛰는 생마지요. 하지만 동무야 신문에 거듭 소개되는 훌륭한…》
《그만하세요! 이제 보니 장선동지는 옹졸해요. 그 말은 동지가 더는 그런 가슴아픈 비난을 받지 않게 되기를 바라서 돕고싶은 마음에서 한 말인데 그쯤한걸 아직까지도 새기지 못하고있어요? 난 동지가 그런 사람인줄 여태 몰랐군요.》
장선은 극도로 흥분하였다. 좀전에 그쯤한 일을 속에 새겨둘 졸장부가 아니라고 제 입으로 한 말도 까맣게 잊고 졸렬하게 느껴질 말도 망탕 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본심—현실의 혼처문제와 관련한 말은 차마 당사자앞에서 꺼낼수 없었다. 속에서 부걱부걱 괴여오르는 심기를 어쩔수 없었지만 끙끙 갑자르기만 하고 더 말하기를 피하였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나의 뭐가 동지의 마음에 들지 않나요.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흠은 무언가요?…》
《…》
마침 그때 장선을 찾는 목소리가 들렸다. 몸을 뺄수 있는 좋은 기회다.
《현실동무, 이제부터 우리사이에 아무런 일도 없었던것으로, 그저 동지간으로 지냅시다. 그동안 내가 현실동무의 많은 도움과 신세를 입은 일만은 잊지 않겠습니다.》
장선은 이렇게 말을 내뱉고는 자기를 찾는 돌격대원을 따라 급히 달려갔다.
(?!)
순간적으로 현실의 눈굽에 눈물이 가득 괴여올랐다. 난데없는 정대에 정수리를 얻어맞은듯 눈앞이 아찔해지고 머리가 멩해졌다.
결국 그는 결별하자는 말을 선뜻 떼지 못해 몽롱한 말로 빙빙 에돌며 딴전만을 부린것이였다.
참으로 마른하늘의 벼락같은 일이였다.
현실은 자기가 그러한 불신을 사게 된 일이 무엇일가 하고 머리를 짜보아야 선뜻 잡히는것이 없었다.
내가 그 어떤 억울한 오해를 받고있는것일가? 가령 그렇다면 그 오

해는 무엇에 의한 오해란 말인가? 아무튼 그가 돌변할수 있는 그 어떤 마음의 충격을 받은것만은 의심할 여지 없었다. 하다면 그 무슨 극심한 충격적인 오해가 설사 있었더라도 서로 마음을 나누고 진심을 타진할만 한 그런 여유와 도량과 리해심이 그렇게도 없는 사람이였단 말인가!

현실은 마음을 괴롭히는 갖가지 의혹이 떼구름처럼 밀려들어 머리가 금시 빠개질듯 하였다. 자기의 마음을 독차지하고있던 장선으로부터 그처럼 진실이니 위선이니 하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마침내는 배반당한 수치감에 마음이 떨리고 가슴이 에이는 아픔을 금할수가 없었다. …

이렇듯 혹심한 괴로움을 안고 몸부림을 치던 어느날 혹시 농대연구사와의 혼담문제가 그의 귀에 들어간게 아닐가 하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찰나! 온몸의 피가 꺼꾸로 치솟았다. 가슴은 터져나올듯 화닥화닥 뛰며 호흡이 가빠졌다.

그처럼 착잡하게 엉키여 지지리 마음을 괴롭히던 온갖 의혹이 한순간에 풀리는듯싶었다. 그러고보면 장선의 말과 행동이 십분 리해되였다.

현실은 언니가 야속하고 원망스러웠다. 생각만 해도 억울하고 가슴이 찢어지는것만 같았다. 그는 너무도 분하여 마음속으로 태질을 했다.

박춘선은 이부자리솜을 타 등에 지고 느지막해서 읍을 떠났다. 길바닥은 어찌나 매끌매끌한지 한걸음을 옮겨놓기도 조마스러웠다.

오래간만에 짐을 지고나서니 장선이 어릴적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일이 문득 떠오르며 가슴이 알찌근해졌다. 춘선이 어디 갈 때면 기어코 따라나서서 할머니의 짐을 덜어준다며 자기도 무엇이든지 댕그랗게 걸머지고는 저만치 앞서걸으며 할끔할끔 돌따보던 일곱살내기가 어느덧 장가들 나이찬 장정으로 자라났다. 세월이란 얼마나 빠른가.

춘선은 장선을 장가보낼 때 쓸 이부자리를 제 손으로 꾸며주고싶었다. 그래서 한해전에 수환이한테 햇솜을 좀 부탁했다. 그때 수환은 《어머니가 부탁하기 전에 제가 먼저 그 생각을 했어야 도린데 걱정마십시오. 지난 시기 공로많은분들의 생활조건이야 우선 풀어드리는게 우리 의무지요.》 하고 당장 풀어줄듯이 시원시원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이후 길가에서 몇번 만났으나 그런 부탁을 받은 티를 조금도 내지 않았다.

(원래 사람이 대틀이여서 잔정같은건 깔리고마는것인가?!…)

남한테 구차한 부탁을 두번다시 하기 싫어하는 춘선은 얼마전에 리상점 점장한테 말했더니 제꺽 읍에 나가 구해주어 이렇게 타가지고 오는 길이였다.

춘선은 자기 어머니와 친자매간처럼 생사운명을 같이해온 옛정을 봐서도 그래서는 안될 수환이 차츰 멀어져가고있다는 생각이 가끔 들군했다. 말은 달고 대답은 시원시원하나 실지 들어주는것은 거의 없었다. 자기뿐이 아니다. 공예분조성원들은 수환이라면 머리를 기웃거렸다.

요새는 손자 장래일때문에 이래저래 어느 한시도 마음 편한적 없는 춘선이였다.

전번날은 뒤숭숭한 마음을 걷잡지 못하여 장선에게 현실이와 어떤 사이냐고 물을 때 그저 일을 통해 알게 된 경쟁자일따름이라고 천연스레 말하는 손자의 초연한 표정을 춘선은 놓치지 않았었다.

춘선은 거울같은 눈길을 걷고있다는것도 까맣게 잊고 어수선한 생각에 골똘했던 나머지 저도 모르게 걸음폭을 넓히다가 지치여 그만 뒤로 벌렁 넘어졌다. 다행히 솜짐이 그의 등을 받쳐주었다.

이때 뒤에서 누군가 《어마나!》 하는 소리와 함께 급히 달려와 일궈세워주며 《할머니, 허리 상하지 않았어요?》 하고 솜짐의 눈을 털어주었다.

춘선은 돌아보다가 그만 와뜰 놀랐다. 천만뜻밖에도 현실이 아닌가?!

현실은 깍듯이 인사를 하였다.

《장선동지 할머니였군요.》

《아니, 순이 이모 아닌가. 고맙네. 망신스럽게두… 길이 얼마나 매끈매끈한지 원…》

《할머니두… 나많으신분이 한겨울길에 짐을 지고 나다니시다니요.》

현실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걱정스럽게 말하더니 얼른 자기 가방줄을 목에 걸어 앞가슴에 돌리고 무가내로 춘선의 솜짐을 벗기였다.

《아이구, 일없네. 보긴 큰 짐같애도 솜이 돼서 가볍네. 내 지고간다는데두…》

현실의 앞에서 어망결에 이부자리솜이라는 말이 안 나간게 다행이였다.

《할머니, 제가 져요.》 하고 현실은 날쌔게 춘선의 짐을 옮겨지였다.
《순이 이몬 어데 갔다오는 길인가?》
《군농기계작업소에 갔다오는 길입니다.》
《그럼 가방이라두 인주우.》
《할머니, 일없습니다. 가벼운 가방이예요.》
깜장솜저고리에 깜장양복바지를 받쳐입고 양털처럼 부들부들하게 부푼 하얀 목도리로 머리며 목언저리를 꼼꼼히 감싸매고 끝자락을 뒤덜미에 가뜬하게 동여맨 그는 키꼴이 더 늘씬해보였다. 그의 류달리 큰 어글어글한 눈에는 미소가 방그레 어려있었다.
그는 돌아서서 여라문걸음을 옮기다가 미처 생각 못한듯 몸을 돌리며 《참…》 하더니 가방뚜껑을 열고 꽃천주머니에서 놀이감같은 사갈을 꺼내였다.
《할머니, 이 사갈을 신어보시자요.》
《사갈? 그건 뭔데…》
춘선은 현실의 손에서 깜찍하게 만든 사갈을 받아들고 호기심이 나 이모저모 뜯어보았다. 얇은 철판을 꺾어 끄부린 사갈의 바닥에는 각각 두개의 톱날이가 있고 량끝구멍에는 양말대님처럼 겹으로 된 갈색천끈이 매여져있었다.
현실은 상긋이 웃으며 사근사근 설명했다.
《할머니, 이건 눈길에 덧신는거랍니다. 저 장진에 고향을 둔 우리 수리공아버님이 솜씨껏 만들어준겁니다.》
《그럼 순이 이모가 신질 않구…》
《아니예요. 전 신지 않아요. 정 급한 밤길에 한두번 신어봤을뿐이예요.》
현실은 짐을 진채 쪼그리고앉아 춘선의 한쪽 얇은 솜신허리에 사갈을 끼워보았다. 마침 꼭 끼였다. 그는 사갈이 놀지 않게 끈을 신발등에 바싹 조여매고 다른쪽신발에도 그렇게 해주었다. 현실은 허리를 펴며 일어섰다.
《할머니, 몇걸음 옮겨보십시오.》
춘선은 사갈을 신고 몇걸음 옮겨보더니 《어이구, 신통하기두. 도무지 신은것 같지두 않구먼…》 하고 좋아했다.
《그걸 신으면 다져진 눈길이나 얼음길에서도 전혀 미끄럽지 않답니다.》

《원, 재간스럽게두 만들었네.》
춘선은 가벼운 몸으로 현실을 따라걸으면서 그의 사분사분한 인정에 가슴이 얼얼하고 눈앞이 뿌잇해졌다. 이미전에 들은 떠도는 소문도 있고 해서 서분했던 생각도 씻은듯 사라져버렸다. 더우기 아무러한 다른 티도 없이 각근히 돌보아주는 그 고운 마음에 춘선은 감동되였다.
그는 전시부터 실농군으로서 아직 정정하고 걸음도 날랜축이였으나 자기를 떨구지 않으려고 천천히 걷는것 같은 현실을 따르기 힘들었다. 현실은 한참 걷다가도 어릴 때의 장선이처럼 할끔할끔 돌따보며 걸음을 늦추거나 멈춰서있군 했다. 그럴 때마다 춘선은 어쩐지 가슴이 찌르르해졌다.
저리도 쑥 빠진 처녀를 손자며느리로 맞는다면 평생소원이 풀릴것만 같았다. 현실이가 자기 집안사람이 못된다는것이 여간만 아수하지 않았다.
현실은 좀 앞서걷다가 가마고개에 오르면서부터는 춘선의 팔을 아주 끼고 걸었다.
그의 생김새며 말씨며 행동거지가 정이 폭폭 들게 하였다.
춘선은 그와 함께 걸으면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그들서로는 장선에 대한 말이 불쑥 튀여나올가봐 저어하듯 다른 이야기들을 하였다. 춘선은 전시이야기, 현실은 작업반이야기를 오손도손 나누며 웃기도 하였다.
현실은 옛날 가마군들이 반드시 쉬여넘었다고 하는 가마고개에서 잠시 다리쉼을 한 후 춘선의 집까지 솜짐을 져다주었다.

며칠후 옥천리에 일보러 왔던 리정애가 문득 현실을 찾아왔다. 마침 점심시간이여서 그는 현실이와 합숙호실에서 만났다.
워낙 호들갑을 잘 떠는 리정애는 현실의 허리를 와락 그러안고 너무 반가와 어쩔줄을 몰라했다. 한해전에 시집을 갔다지만 처녀티그대로인 그의 발랄한 모습은 여전했다.
정애는 겉보기에는 경망스러운것 같아도 실은 일손이 깐깐하기 이를데 없었다. 그래서 농사물계에서는 군적으로도 제노라고 하던 수환이까지도 언제인가 군경영위원회에 들렸다가 정애의 눈에 걸려 거름생산실적을 종류별로 따지고드는통에 뜬금으로 얼빤한 대답을 하다가 진땀을 뽑혔다는 일화가 생겨났다. 지금도 수환은 정애부원이라면 은

근히 두려워했다.
처녀같이 몸매 호리호리한 그는 가느스름한 눈에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너 요새 꽤 바쁘겠구나.》
《그저 그렇게 일에 부대끼지 뭐. …》
《요즘은 더 분주할테지. 일도 할래, 딴장도 볼래, 호호호.》
현실은 딴장이라는 말에 돌연 마음의 탕개가 조여졌다.
《내 모를줄 알구. 너한텐 좋은 일만 차례지는것 갈더구나. 요 앙큼한것, 호호…》
《뭐, 좋은 일?》
《시침따지 말어. 말 안해도 멋들어진 총각이 차례진것두 내 다 알아…》
한순간 현실은 피가 금시 꺼꾸로 치솟았다.
《너 그건 대체 무슨 새빠진 소리니?》
《호호… 그냥 시침딸려구… 너 그 미끈한 박선연구사하구 혼약이 다 된걸 내 모를줄 알구…》
현실은 그만 속이 홱 뒤집혀 저도 모르게 왈칵 성을 내였다.
《그만해! 대체 누가 그러던, 누가 그따위 허튼 소문을 들고다니던?》
《그런데 너 왜 그러니? 네 언니가 말하더구나. 혼약이 다 되였다구… 난 축하까지 했는데…》
《뭐, 언니가?》
현실은 경솔한 언니의 망신스러운 행동에 모욕감과 분한 감정이 치받쳐올랐다. 그는 가까스로 마음을 진정했다.
《정애, 나한텐 그런 일도 없었구 그런 일이 있을수도 없어. 다시는 그따위 소리 꺼내지 말어.》
현실의 눈에는 불시에 눈물이 핑 괴여올랐다. 그는 얼른 돌아앉으며 목수건으로 눈굽을 훔치였다.
정애는 어리둥절했다. 현희의 말을 곧이듣고 옮기다가 본의아니게 아픈 마음구석을 건드렸다는것을 인차 깨달았다. 아니라면 그만이겠는데 눈물이 어리는것을 보니 필경 그 어떤 곡절이 있는것이 분명하였다.
정애는 회오에 젖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하였다.
《현실아, 미안해. 너의 심정은 모르구…》
현실은 본래의 그 시원시원한 성미답게 인차 기분을 바꾸었다.

《정애, 네가 미안할거야 뭐 있니? 들은 소리를 옮겼을뿐인데.》
현실은 정애의 말까지 듣고보니 장선의 심정이 리해되였으며 그에 대한 죄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는 오늘 말이 난김에 전문학교시절의 가장 가까운 사이였고 한시도 잊지 못해하던 정애에게 장선이와의 관계를 더 감출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현실은 그와 알게 된 경위로부터 사람됨됨에 대하여 세세히 들려주었다.
《…난 요즘 그렇게도 순결한 그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그를 실망케 한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찢기는듯 해.》
《너희들의 관계는 마치 책에 나오는 리상높은 청년들의 곡절많은 사랑담같구나. 어디 부러워 견디겠니.》
《그러나 우린 서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나눈적이 없어.》
현실은 어쩐지 애달픈 표정을 지었다.
《그게 무슨 필요야. 진실한 사랑이야말로 감정으로 통하지. 서로의 심장에 자리잡으면 되는거 아니겠니.》
《호호, 넌 사랑전문가가 된것 같구나.》
《너에 비하면야 전문가지. … 시집을 먼저 간 선배니까.》
그 말에 둘은 한참동안 웃었다.
정애는 웃음을 거두고 감복한 어조로 말하였다.
《듣고보니 정장선동문 정말 진짜배기청년이구나. 자신을 드러내놓고 사는 사람이 훌륭한거야. 미래를 안고 아름다운 꿈과 지향을 꽃피우려는 그 동무와 너는 꼭 짝이 맞을것 같애. 한데 언닌 왜 반대하니?》
현실은 언니를 굳이 말밥에 올리고싶지는 않았다.
《너도 잘 알지 않니. 날 자식처럼 키웠으니까… 그런데다 장선동무를 잘못 보는 사람들의 말만 지내 믿은탓이겠지.》
《홍현실이답지 못하구나. 사랑이야 심장이 결심하는건데 누구의 눈치를 본단 말이야. 나도 너와 나란히 신문에 난 그 동무를 좀 알아. 그런 청년을 나무라는 사람이 바로 분별없는 인간이구 버럭이야. 주저말구 사랑해라!》
마치 웅변연단에 나선것 같은 그의 말에 현실은 웃었다.
현실은 오늘 우연히 정애를 만난것이 참으로 다행스러웠다. 지금껏 억울하고 안타깝고 소심한 생각에 짓눌려 자신을 괴롭히던 일이 부끄

렵게 상기되였다.
정애는 현실이더러 그 훌륭한 청년을 마음껏 사랑하라고 거듭거듭 고무하며 떠나갔다.
헤여지기를 그리도 섭섭해하는 다감한 정애를 정작 떠나보내고나니 현실은 또다시 마음이 허전해졌다.

33

관리위원장방에 인혁이와 기사장이 말없이 마주앉아있었다. 인혁의 얼굴은 전에없이 침울하였다.
(누가 그토록 심중한 문제를 군에 제기했을가?)
인혁은 거듭 생각할수록 분기가 치밀어올랐다.
간밤에 군당 담당일군으로부터 인혁에게 영농기도 당장 눈앞에 림박한데다 공사는 모내기전까지 가망없으니 로력을 몽땅 영농에 떼돌리자는 의견이 제기됐다는데 어찌된 영문인가고 문의해왔었다.
인혁은 매우 심중한 문제인것만큼 관리위원장, 기사장과 함께 긴급히 토론하려고 현장에서 들어왔으나 관리위원장이 없었다. 그는 오전에 3작업반에 있었는데 어디에 갔는지 자리를 떴다는것이였다.
조급해난 기사장은 계획부원에게 위원장을 급히 찾으라고 불같이 독촉했다.
인혁은 그런 제기를 누가 했는지 가늠이 가지 않았다. 물론 수환이 공사에 몸을 적시지 않는건 사실이지만 그가 자기와 토론없이 일을 처리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기사장이 먼저 침묵을 깨뜨리였다.
《누가 감히 그런 의견을 제멋대로 제기했을가요?》
인혁은 무거운 목소리로 응대하였다.
《나두 너무 뜻밖이여서 물어보았는데 관리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이라구만 하더군요.》
기사장은 기가 막혀 인혁을 대하기 매우 거북해하였다. 궁극에는 관리위원회가 공사에 제동을 거는셈이 되지 않았는가.

인혁은 연방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그는 누구보다도 시간이 바쁜 사람이였다. 평상시에도 시급히 협의할 일이 생기면 먼저 관리위원장부터 찾아왔었다. 공사를 벌린 다음부터는 리당집행위원회 같은것도 현장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전화종이 귀따갑게 다급히 울렸다. 인혁은 곧 송수화기를 들었다.

《김인혁이 전화받습니다.》

《예?… 수고합니다. 그런데 리당비서동무가 어떻게… 내 경영위원회 농산과장입니다.》

수환의 방에 인혁이 있는것을 놀라와하는듯 한 그의 틀스러운 말투가 대뜸 기분에 거슬렸다.

《관리위원장동문 어디 자릴 좀 뜬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리당비서동무, 만난김이니 말하는데 지금 공사문제가 골치아프게 자꾸 제기됩니다.》

그 문제로 하여 신경이 어지간히 날카로와진 인혁은 언성을 높여 반문하였다.

《공사문제가 어떻다는겁니까?》

《아니, 비서동문 모르고있습니까. 공사를 모내기전에 준공 못할건 뻔하니 로력을 영농에 다 떼돌리자는 의견이 제기되는데… 심중히 고려해야 되지 않을가요?》

《그래 과장동무 립장은 뭡니까? 그런 의견에 동감이라는겁니까. 또 군경영위원회생각도 그렇다는겁니까?》

인혁은 그만 자제력을 잃고 과격하게 힐문했다.

《비서동무, 자중하시오. 난데없이 경영위원회는 왜 껴듭니까? 비서동무 성미가 꽤 급한것 같은데 그렇게 숨가쁘게 굴면 무슨 의견을 말할 재미가 있겠습니까.》

《뭐 성밀 론할 형편이 됩니까? 공사의 운명문젠데. 경영위원회에 속해있는 과장동무 의견이기에 위원회의 생각인가구 묻는데 뭐가 잘못되였습니까?》

농산과장은 그만 경우가 막힌듯 잠시 말이 없었다.

인혁은 다소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 말이 지나쳤다면 량해하시오. 하지만 이 공사야 웃기관들과 합의를 다 거쳐서 당위원회에서 정식 결정한것이고 군에서까지 이모저모로 도와주고있는데 이제와서 이러쿵저러쿵하는건 뭡니까?》

《비서동무,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런 의견이 제기됐길래 론의되는것이 아닙니까. 제기된 의견처럼 공사를 질질 끌다가는 올해농사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난 농산과장으로서 그게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 너무 곡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인혁은 더 시비를 캐려다 전화상이여서 그만두었다. 또 길게 말한댔자 제집안 망신을 당하는 식으로 될수 있을것 같았다.

그는 송수화기를 놓으며 기사장에게 《안됐소. 내 너무 흥분했던것 같소.》 하고 말하였다.

《비서동무도 그렇게 성날 때가 있구만요. 말마디들에 날이 섰습니다.》

기사장이 빙긋 웃으며 말하자 인혁이도 얼굴의 긴장을 풀고 웃음을 지었다.

인혁은 농산과장의 말을 정작 듣고보니 언제인가 수환이 우에서도 공사를 믿지 않는 일군들이 있다고 하던 말이 피끗 상기되였다. 농산과장도 그런 립장을 가진 사람일것이라는 짐작이 갔다. 그렇다면 농산과장과 자주 교제하는 수환이 이 문제의 장본인이 아닐가?

기사장은 방금 10작업반과 겨우 통화되여 알아보니 수환이 린접한 옥천리포전쪽으로 넘어간지 퍼그나 된다는것을 알아냈다.

…수환은 10작업반 통계원이 달려와 리당비서가 급히 찾는다고 알려서야 부득불 현실이와 헤여졌다.

인혁이 요즘 유별나게 자기가 자리를 조금만 떠도 신통히 알아맞추는것 같아 부아가 났다.

그런데다가 방금 헤여진 현실이한테서까지 자기의 진정이 무참하게 외면당하자 심사가 더더욱 틀어지였다.

현희가 너무나도 간곡히 말하길래 오늘은 벼르고 우정 시간을 내여 현실을 만났었다.

《얘, 언닌 그 혼처를 놓칠가봐 잔뜩 등이 달았는데 네 그냥 뻗대면 대체 어쩔셈이냐?…》

그래도 현실은 고개를 외로 꼬고서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수환은 속이 울컥 치밀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욱박지를수도 없었다. 그는 답답증을 가까스로 이겨내며 가쁜숨을 몰아쉬였다.

마침내 현실은 담담한 표정으로 수환을 힐끗 쳐다보더니 싸늘하게 말하였다.

《전… 관리위원장동지의 성의를 모르지 않아요. 그 성의는 고맙지

만…》
《뭐? 고맙지만… 그래 싫다는 소리냐?》 하고 별안간 수환의 확성기청이 돋구어지고 숱진 눈섭은 푸들푸들 떨었다.
《…》
《얘, 네 지금나이 몇이냐. 그 나이면 벌써 쉰거야. 너한테 그만한 대상이 두번다시 차례질것 같으냐?》
《달리 생각지 말아주세요. 전 일을 더한 다음에…》
《뭐? 그럼 네 할미될 때까지 기계화반장을 할 차비냐? 네 용모와 쟁쟁한 일솜씨에 뭐가 모자라 한구석에만 꾹 박혀있겠니?》
수환은 그의 마음이 약간 동하는듯 한 기미가 느껴졌는지 선자리에서 아퀴지을 잡도리를 했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 진정은 고마와요. 하지만 제 문젠 제가 해결하겠어요. 저를 더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하고 말하는 그의 상냥하면서도 단호한 태도에 그만 아연해졌다.
《네 그럼 떠도는 말대루 장선반장을 그냥 마음에 두고 그러는게 아니냐?》
《…》
수환은 고개를 다소곳이 숙인 그의 담담한 기색에서 더는 건드릴수 없는 결심을 느꼈다. 그는 일이 이미 기운것을 비로소 직감하면서도 막연한 여지라도 두고싶어 김빠진 소리로 말을 맺었다.
《나나 네 언니는 장선반장은 반대다. 내가 아무러면 짝기울 대상을 품을 들여 물색했겠니? 잘 생각해봐라.》
수환은 현실이가 남들이 잔뜩 추어주니 코를 너무 높인다고 생각했다.
까놓고 말해서 코를 세우려면 오히려 총각편에서 세워야 당연할것이였다. 문득 박국장한테 자기만 나서면 벌써 다 된거나 갈다고 떵떵 장담한것이 후회되였다. 그는 기분이 잡친 상태에서 10반통계원의 전달을 받았는지라 돌아서는 걸음은 무거웠다.
그는 날이 감에 따라 차츰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럽고 남들의 눈밖에 나는듯 한 허전감을 느끼였다. 전에는 어느 장소에서든 그저 작업반장, 관리위원장이 아니라 《금주리 확성기반장》, 《확성기관리위원장》으로 장하게 불리웠으며 자기의 통이 큰 일솜씨를 따라배우라고들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웬일인지 자기와 친숙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까닭없

이 등을 돌려대는듯 하였고 마치도 자신이 그들의 관심밖에 있는 존재로 느껴져 기분이 울적하였다. 더우기 오늘 현실의 외람된 거동은 더욱 자신을 실망케 했다.

수환은 시간이 걸려서야 찌뿌둥한 얼굴로 자기 방에 들어섰다.

그때까지도 기다리고있는 인혁이 눈에 뜨이자 웅근 목소리로 《찾았나?》 하고 심드렁하게 물었다.

인혁은 자기를 불러들인것을 못마땅해하는듯 한 그의 뚝한 기색을 넌지시 살피며 《찾았소. 옥천리쪽으로 갔다더군. 그래 여적 기다리고있는중이요.》 하고 선선하게 대꾸하였다.

수환은 피뜩 무슨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직감했는지 의자를 소리나게 끄당겨놓고 무겁게 몸을 실었다.

방안에는 잠시 서름서름한 공기가 흘렀다.

인혁은 마침내 친구관계의 어투를 버리고 공식적인 자세에서 말을 꺼냈다.

《관리위원장동무가 혹시 공사는 모내기전에 가망이 없으니 로력을 전부 영농에 떼돌리자구 군에 제기했습니까?》

그 말에 수환은 주머니에서 라이타를 꺼내려던 손을 뚝 멈추며 펄쩍 뛰였다.

《그게 무슨 소리요? 도대체 누가 그따위 말같지 않은 소릴 함부로 돌립니까?》

그는 오늘 심사가 저으기 사나왔던탓에 말투가 첫마디부터 거칠었다.

이때 전화받으러 계획부원방에 갔던 기사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인혁은 점잖지만 날카로운투로 말하였다.

《글쎄 나두 그 소리에 퍽 놀랬습니다만… 군당에서 리당에 그 사실을 문의하는 전화가 왔댔지요. 관리위원회에서 제기됐다는데 위원장동무나 기사장동무중에 누가 제기 안했으면 경영위원회에서 지어내여 군당에 보고할수야 없잖겠습니까? 보아하니 위원장동무도 모르는것 같은데… 심지어 아무리 악악해두 강가에 모래성 쌓기라는 말까지 했다는데 이거야말로 언어도단이 아닙니까.》

수환은 아무 응대없이 후들거리며 담배를 몇모금 빨다가 신경질적으로 재털이에 마구 비벼끄더니 무언가 짚이는것이 있는지 울뚝 일어나 나들문을 벌컥 열고 큰소리로 계획부원을 찾았다.

수환은 계획부원 렴지춘이 문지방을 채 넘어서기도 전에 확성기청

으로 꽥 소리를 질렀다.

《동무가 이 문젤 군에 제기했어?》

천둥같은 소리에 지춘은 와들짝 놀래며 안경속의 두동공이 굳어졌다. 벼락치듯 하는 밑도 끝도 없는 수환의 물음에 얼이 빠져 꺼멓게 질린 지춘의 강마른 얼굴을 보면서 인혁은 《위원장동무, 계획부원동무야 무슨 영문인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하고 귀띔해주었다.

그래서야 수환은 목소리를 다소 낮추며 따져물었다.

《그래 동무가 공사는 글러진 판이니 로력을 다 영농에 돌리자구 군경영위원회에 제기했어?》

《예? 무슨 말씀인지…》

지춘은 그제야 수환의 독이 오른 리유를 직감했는지 고개를 푹 떨구었다.

《내가 제기 안했으니 엉, 변부위원장이나 군과 수시로 련계를 갖고있는건 동문데 변부위원장이야 처음부터 공사에 발벗고나선 사람 아니우. 그러니 불보듯 뻔하지 않은가, 엉?》

《…》

《솔직히 말해보라구. 모르는 사람들은 지춘이라면 말하는 벙어리로 알구있지만 실지야 말재간이 여간 아닌데 왜 말 못하오. 오늘은 입이 얼어붙었어?》

《사실은… 제가 뭐 정면으로 제기한 일은 없습니다.》

《정면으로 제기한 일이 없다? 그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야? 그럼 측면으로 제기했다는거야?》

《군지령에서 영농기가 코앞인데 지금같은 앉은걸음으로 공살 계획대로 추진할것 같으냐구 묻길래…》

《그래서?》

수환의 목소리에서는 여전히 독기가 풍겼다.

《그래서 추위가 지내 혹독하니 당분간 일단 영농에 로력을 집중하는것이 좋을것 같다는 말을…》

《그래 동무생각으로 말했다는거야?》

《아, 그런 문젤 제 혼자생각으로야 어찌 함부로 말합니까?》

지춘은 잠자코 앉아있는 인혁의 얼굴을 흘끔 살피고는 다 꿰진바에 툭 털어놓기로 결심한듯 용기를 내여 말했다.

《솔직히 위원장동지랑 그런 의향이라구 말했습니다.》

《뭣이?》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영농기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동지가 공사때문에 속썩는다는 말도 했구요. 털어놓구 말해서 농산과장동지두 그런 의견을 지지하는 립장같았습니다.》
수환은 대뜸 얼굴이 검붉어져 말타발을 계속했다.
《동무, 그렇게 남 걸고드는 말버릇은 언제 배웠소? 그리구 아무리 악악해두 강가에 모래성쌓기라는 말두 나한테서 들은 소리요?》
《아, 아닙니다. 그런 말들이 돌기에…》
사태의 진상은 스스로 명백해졌다. 공사의 전망을 믿지 않는 수환의 견해에 동조한 지춘이 그의 립장을 대변하여 군에 제기한것이다.
기사장은 자책에 잠겨 얼굴을 들지 못했다.
(관리위원회 일부 일군들의 이러한 속내도 모르고 분별없이 뛰여다니기만 하다니…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꿈을 꾸고있는지…)
인혁은 이렇게 자신을 탓하며 잠시 무겁게 드리운 방안의 침묵을 깨뜨리였다.
《계획부원동무, 그런 의견이 돌면 정식 제길 해서 바로잡게 하든가, 필요한 조직적절차를 밟아 우에 제기해야지 제멋대로 행동하면 되겠소? 동무가, 일개인이 금주리를 대변할수 있는가! 생각해보우, 남들은 이 혹한에두 밤에 낮을 이어 총공격전을 벌리는 때에 뒤다리를 잡아채는 행동을 하면 되겠소? 앞장에서 수범이 되여 이끌고나가야 할 관리위원회 일군들속에서 이런 창피한 일이 벌어지다니…》
지춘은 사무탁에 얼굴이 닿을 정도로 고개를 숙이고 움직일줄 몰랐다.
인혁의 엄엄한 추궁에 수환이도 얼굴이 시뻘개지였다. 지춘이에 대한 추궁인즉 곧 자기에 대한 비판인것이다.

34

(정말 믿을 녀석 하나 없어.)
수환은 지춘이 그렇게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여직껏 그를 얼마나 미더워하고 내세워주었던가. 그런데 정작 바빠맞게 되자 자

기를 그처럼 궁지에 몰아넣다니. 가뜩이나 공사로 하여 신경이 곤두선 리당비서앞에서 마치도 공사의 훼방군은 다름아닌 관리위원장과 농산과장이고 자신은 한갖 대변자에 불과한듯이 천연스럽게 말할 때 속이 울컥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정말이지 그런 난처한 꼴 당해보기는 처음인것 같다.

그러지 않아도 인혁이가 자기의 일거일동을 주시하는것 같은 선입견이 앞서는 때에 자신의 리면이 낱낱이 드러나는것 같아 수치감을 금할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자바람으로 지춘을 제 방에 불렀다. 수환은 주밋거리며 들어서는 지춘을 힐끗 쳐다보고는 입이 쓰거워 잠간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앉아있다가 입을 열었다.

《내 동무를 다시 보게 되누만. … 웃사람을 그렇게 골탕먹이는 버릇이 언제 생겼소?》

《골탕먹이다니요?》

《동무가 그럴줄은 정말 몰랐소. 엉, 제 몸빼기하려고 남을 물고 늘어지다니.》

《전 그저 사실을 밝히려고…》

《여보, 사실이구 오실이구 무슨 할말이 또 있소? 그런데 농산과장은 왜 거들어? 엉, 그 사람이 한동네사람쯤 되는줄 아는가. 버르장머리란 통…》

수환은 더 할말이 없었다. 더 말한댔자 한갖 분풀이로 될것이고 계획부원을 닦아세웠다는 말이 또 새나갈것 같았다.

그는 지춘을 내보낸 후 이어 농산과장을 전화로 찾았다. 어제는 종내 전화로 못 만났었다.

인사말을 나눈 후 수환이 먼저 그 말을 꺼냈다.

《말두 마오. 그 공사때문에 끝내 불집이 일었네.》

《누가 뭐라던가?》

《뭐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계획부원이 죄다 헤쳐놓았네.》

《아니, 동무가 시비에 오를게 뭐 있소. 내가 어제 아침에 동무를 찾다가 그 방에 있는 리당비서동무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 인혁이가 지춘이 입을 열기 전부터 이미 알고있은것이였다. 결국 선불질은 농산과장이 한셈이였다.

《전화는 왜 걸며 그러우. 군당에서 전화 온데다 과장동무까지 덧

궂혀놓았으니 조용할수 있게 됐소?》
《여보, 그런 소리 마오. 나야 어디까지나 수환동무를 돕자구 그랬지 시비에 걸리게 하려구 그랬겠소. 그걸 시비하는 사람들이 글렀지.》
수환은 그가 자기를 도우려고 그랬다는 말에 그만 부아가 났다. 그와 여러 말을 더 하고싶지 않았다. 농산과장의 경망한 처사로 하여 일이 더 시끄러워졌을뿐아니라 이 사실이 남들의 귀에 들어가면 무사히 처리될것 같지 않았다.
궁극에는 농산과장이나 지춘이 자기를 함정에 빠뜨린셈이였다.
그는 농산과장한테서도 실망감을 느꼈다.
송수화기를 금방 놓았는데 전화종이 다급히 울렸다.
수환은 긴 팔을 내밀어 송수화기를 잡았다.
《나요.》 하고 짜증섞인 석쉼한 목소리로 말하던 그의 낯색이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뭣이?! 어떻게 됐다구? 한다는노릇들이… 언제? 새벽에? 그런데 왜 이제야 보고하는가, 엉?》
그는 송수화기를 팽개치듯 놓았다.
숱진 눈섭이 꿈틀거리고 담배대를 쥔 솥뚜껑같은 손이 경련일듯 후들후들 떨리였다.
(굴이 무너지다니?!)
수환은 대뜸 등골이 서늘했다. 끔찍한 참상이 떠오르며 눈앞이 아뜩했다.
공사가 가뜩이나 막다른 고비에서 헐썩거리는것 같은데 설상가상으로 참변을 당하다니, 뒤웅박식이요, 뭐요 하더니 종내…
그는 허둥지둥 바깥에 나섰다. 극도의 절망감에 사로잡혀 허탈에 빠진 사람처럼 비칠거리며 걸었다.
황황히 현장에 이른 수환은 그제야 안도의 숨이 후 나왔다. 필경 인명피해가 난줄로 짐작하고있었는데 천만다행으로 뜨락또르운전수만 머리가 좀 상했다. 운전수는 붕대를 감고 현장치료실에 누워있었다.
오늘 새벽 갱도구역경계인 능지쪽횡단길로 흙을 잔뜩 실은 련결차를 끌고 뚱기적거리며 가던 뜨락또르가 길아닌 양지쪽경사면으로 탈선하면서 미처 어쩔새없이 지치여 그중 두께 얇은 굴우에 모재비로 나넘어졌었다. 그때 굴이 풍덩 내려앉은것이였다.

로동안전원들이 《대피!》 하고 돌격대원들을 중심굴에서 긴급히 벗어나게 했으니망정이지 참변을 당할수도 있을번 한 일이였다.

그 육중한 뜨락또르가 깊은 웅뎅이에 꾸겨박히면서 련결차는 한쪽면이 못쓰게 되였다. 뜨락또르에 짓눌려 방아확모양 꺼져내린 큰 웅뎅이, 벌집형으로 곳곳에 휑 뚫린 구멍들, 나딩구는 자루따위들. 수환에게는 이 모든것이 어수선하고 막막하게만 느껴졌다. 그것이 수환의 부아를 왈칵 돋구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거야?》

어디에 대고 화풀이를 할지 몰라 서슬이 오른 수환은 꽥! 고함을 질렀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온 공사장의 모든 소음을 제압하는것 같았다.

그는 쭈그러진것 같은 뜨락또르앞머리에서 삽날을 분리하려고 안깐힘을 쓰고있는 한정길에게 분별없이 고아댔다.

《여 동무! 뜨락또르가 무슨 손달구진줄 아는가! 쩍하면 뗐다붙였다하면서… 잘한다 잘한다 하니 나중에 무슨 재구를 쳤는가 보라구.》

마치 한정길이 개조한 불도젤식삽날이 사고의 원인이기라도 한듯 트집을 걸었다.

애매하게 된욕을 먹으며 한정길은 일손을 놓고 수환을 올려다보았다.

《위원장동지, 도대체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러는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항변에 가까왔다.

돌발적인 사태에 돌격대원들이 다가들어 뜨락또르를 끌어올리려고 한창 분주히 서두르는 때에 수환이 불쑥 나타난것이다.

《가만, 위원장동무!》 하고 저력있게 부르며 강욱이 구뎅이안에서 허리를 폈다.

수환은 소스라치듯 놀랐다. 털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자기를 등지고 앉아 한정길의 일손을 거들어주는 사람이 뜻밖에 강욱이였던것이다.

돌격대원들은 멀찌감치 자리를 피하였다.

구뎅이에서 올라온 강욱은 털모자덮개를 올리고 년장자답게 근엄한 어조로 수환을 나무람했다.

《위원장동무, 이런 사고를 우정 냈겠소. 모두 오늘중에 큰 웅뎅이만이라두 다 메꾸자고들 한창 기셀 올릴 때 운전수 부주의루 그리된

거요. 그런데 한정길동무야 사고의 당사자도 아닌데 아래사람이라고 해서 무턱대구 그렇게 윽박지르면 되겠소? 기왕 저질러놓은 사태니 빨리 수습부터 해야지.》

《위원장동지, 너무 참견하지 마십시오. 관리위원장으로서 그만한 추궁도 할수 없단 말입니까?》

《뭐, 참견? 추궁?…》

《남의 말 하긴 쉬워두 한번 내 립장에 좀 서보십시오. 누군 뭐 싫은소리 안하면 좋은걸 몰라서 그러는줄 압니까. 농장의 기강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하오!》하고 그는 수환의 말을 잘랐다. 《리당비서동문 큰소리 한번 안 치구서두 변부위원장을 앞세우고 일을 내밀고있소. 그런데 동문 뭐요, 그렇게 떽떽거리면 옛날 십장하구 다른게 뭐가 있소?》

강욱의 말은 마디마디 엄엄하고 준절하였다.

《십장이라구요?》

《십장이 아니구 뭐요? 아래사람들의 심정은 제 썩살만큼두 여기지 않으면서 걸핏하면 호통치는게 십장식이 아니란 말이요? 동문 무슨 권리루 함부루 혁명동지들을 모욕하구 호령질하는 관리가 됐소? 그래 제 몸은 사리면서 권력행사나 하라구 동물 그 자리에 앉혔다고 생각하오? 확실히 동문 우리 장군님의 뜻대로 살며 일하는 일군같지 않단 말이요!》

강욱은 평상시에 느낀 생각을 그대로 내놓고 준렬하게 비판하였다.

수환은 얼굴이 시꺼멓게 질려 아무 대꾸도 못했다.

요사이 마음속이 뒤틀리는 일만 련속 꼬리를 무는데 사고까지 겹치니 자신을 자제하기 힘들었던것이다.

사고정형을 군당에 보고하고 현장에 이른 인혁은 대뜸 소나기 한바탕 퍼부은 뒤처럼 휘주근해진듯 한 이상한 공기를 느끼고 곧 변부위원장을 찾았다. 벌어진 사태의 전말을 들은 그는 몹시 분격하였다.

그는 조용한 틈을 타서 강욱에게 갈리는 목소리로 사죄부터 했다.

《위원장동지, 면목이 없습니다. 관리위원장동무가 화김에 분별을 잃은것 같은데 제 잘못이 더 큽니다. 있을수 있는 사고에 대한 사전대책이 없었지요.》

《비서동무두, 그만한걸 가지구 심각하게 자기비판할것까진 없소.

빨리 뜨락또르를 들어내고 봅시다.》
그는 대범하게 웃어넘겼다.
공사장의 하루는 빨리도 저물었다. 모두 뜨락또르에 달라붙어 들볶는 가운데 어느결에 별들이 총총히 무르익었다.
이때 멀리에서 어둠을 꿰지르며 전조등빛이 노루등변두리로 가까이 오고있었다. 승용차불빛이였다.
군당책임비서 류순기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자그마한 보꾸레미를 들고 큰걸음으로 성큼성큼 공사장으로 다가왔다. 그는 뜨락또르를 끌어내느라 그 붐비는 속에서도 몸집이 우람한 강욱을 용케 찾아보았다.
그는 강욱을 찾았다.
《위원장동지, 수고하십니다. 나 좀 만납시다!》
강욱은 땀이 질펀한 얼굴을 피끗 돌리다가 뜻밖인듯 《아니, 책임비서동무가 어떻게?!》 하고 무척 반가와하였다.
류순기는 손에 들었던 자그마한 보꾸레미를 겨드랑에 끼며 강욱의 투박한 손을 덥석 감싸쥐였다.
《위원장동지, 이 강추위에 몸이랑 일없습니까?》
강욱은 그에게 손을 맡긴채 두눈을 슴벅거리며 느슨한 미소를 지었다.
《아무 일없습니다. 원래 나야 젊은이들속에 있어야 원기왕성해지는걸요.》
그들은 모닥불곁에 마주앉았다.
류순기는 귀중품처럼 몸에 간직하고있던 그 자그마한 보꾸레미를 강욱의 무릎우에 놓아주었다.
《오던 길에 집에 들렀더니 현성이 할머니가 이걸 보내더군요.》
《이게 뭔데요?》
《아래내의입니다. 현성이 할머니가 밤에 쉴 때랑 무릎이 시릴거라구 몹시 걱정하시더군요.》
《원, 로친두…》
강욱은 가슴이 달아오른듯 말을 더 잇지 못하였다.
《아, 글쎄 고 깜찍한 손자녀석이 난딱 나서며 〈이건 우리 할머니가 털세타랑 목도리랑 다 풀어서 안경을 끼구 뜨개질한거야요.〉 이러질 않겠습니까.》
《허허허, 녀석두.》

강욱이도 애모쁜 심정으로 푸근하게 웃었다.
작업장의 열기는 한층 고조되였다. 류순기도 강욱의 뒤에서 굵은 바줄을 잡았다. 강욱이 만류하였다.
《둬두시우, 우리끼리두 얼마든지…》
《나도 젊었을 때 산판에서 통나무 다루던 사람입니다.》
《그야 나두 알지요.》
밤이 이슥해져서야 뜨락또르를 둔덕우에 끌어올렸다.
인혁이와 함께 공사장 구석구석을 깐깐하게 돌아본 류순기는 휴계실천막안에 들어섰다.
류순기는 무거운 낯빛으로 잠시 묵묵히 앉아있다가 담배를 화독불에 붙여물었다. 그리고는 길게 연기를 뿜은 다음 입을 열었다.
《가만 보면 무슨 사고든 흔히 시작이나 중간이 아니라 마지막모퉁이에 일어나군 한단 말이요. 이를테면 마음끈이 늦춰지는 때라고 할가, 눈길도 올리막은 일없어도 내리막에 지치여 넘어지기 쉽지. …》
류순기는 깊은 자책감에 사로잡혀 고개를 수긋하고있는 인혁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홀쭉해진 몸, 헐끔한 얼굴, 보풀이 인 입술, 농군처럼 커지고 터실터실해진 손… 그것은 인혁이가 얼마나 고심하며 제몸을 혹사하고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었다.
지금의 그는 처음 만났을 때의 해말쑥하고 수집음까지 타던 그 인혁이가 아니였다.
군당부원, 부부장을 하면서 단련되여가고 실천력있는 일군으로 자라는 인혁을 류순기는 남달리 사랑하였으며 진심으로 도와주었다. 리당비서로 온 후에도 말없이 뒤에서 밀어주고있었다.
(하긴 그새 많은 세월이 흘렀지. …)
류순기는 빠른 세월의 흐름을 비로소 절감하는듯싶었다.
그는 부지중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인혁의 기분이 어딘가 의기소침해진것 같아 그는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였다.
《내가 제대되여 한동안 벌목공으로 일할 때였지. 년간계획을 하루라도 앞당기려구 승세나서 일을 제낄 땐데 한번은 허리통만큼 굵은 나무를 단숨에 베여놓구는 이제야 저절로 턱 넘어지겠지 하구 휘파람을 불며 스적스적 자리를 옮기는 순간이였소. 난데없이 하늘을 째는듯 한 소리가 나 뒤돌아보니 글쎄 내가 베여놓은 그 나무가 속이 쩍 갈라지면서 돌개바람처럼 홱 돌아 나를 덮치려드는게 아니겠소. 내 기급하

여 눈깜빡할새에 몸을 날렸으니망정이지 하마트면 편포짝이 될번 했단 말이요, 허허.》

《위기일발의 순간이였군요.》

인혁은 흥미가 동하여 그 아짜아짜한 이야기를 귀가 솔깃하여 들었다.

《나두 그때까지 아름드리나무는 하나같이 그저 민출한줄만 알았지 그속에 그런 기회를 엿보는 란폭한 놈이 있을줄은 통 몰랐단 말이요.》 류순기는 제풀에 흥이 나서 빙긋이 웃으며 말하였다. 《혈기왕성한 제 주력을 믿고 년간계획을 넘쳐해야겠다는 그 열의에 잔뜩 떠서 앞만 보구 뒤를 돌아보지 않은탓이요.》

인혁은 갑자기 하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왜 웃소, 남은 진심을 말하는데.》

《책임비서동지의 비유가 신통하고 또 너무나도 생동해서 그럽니다.》

류순기라면 과묵하면서도 소탈하고 아래일군들의 사정에 매우 밝은 일군으로 알려져있었다. 그는 군에 앉아있으면서도 아래단위의 실정을 손금보듯 환히 꿰뚫고있었다. 특히 그는 일군들의 실없는 빈말치레, 실속없는 결의 같은것을 딱 질색하는 성미였다.

아래일군들의 사업보고를 받는 경우에도 과녁이 명백한 문제의 본질적핵을 잡아 간명하게 말할것을 요구하였다. 회의를 지도하면서도 걸치레토론은 당초에 들을념도 않고 명백한 실행목표만 사업수첩에 적어두었다. 그리고 다음번회의에서는 반드시 그 목표집행정형을 건별로 표식해가며 꼼꼼히 총화짓군 하였다.

언제한번 청을 돋굴줄 모르는 그의 부드러운 충고이지만 아래일군들은 남들의 청높은 비판이나 칼날같은 책망보다도 더 자극을 받고 심중에 깊이 새기게 되는것이였다.

조만해서는 롱담을 하지 않는 책임비서가 서먹한 분위기를 돌리려고 지난날이야기도 하고 롱말도 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며 인혁은 고마운 표정을 지었다.

《아마 동무들두 그 뒤웅박식이 실적을 짱짱 올리게 되자 기분들이 붕 떴을거란 말이요, 그렇찮소?》

《옳습니다. 일자리가 푹푹 나는 재미에 미처… 제가 일을 설치였습니다.》

《그런 사고가 다시는 없겠지만 한순간이라두 탕개를 늦추면 예상치 않던데서 뜻하지 않는 일이 생길수 있소. 일군은 늘 빈구석에 눈을 밝혀야 하오.》

《명심하겠습니다.》

류순기는 인혁이 어느새 활기를 얻은것을 보고 진중하게 말을 이었다.

《인혁동무, 공사전망은 내다보이지만 모내기전에 끝내려면 아직두 어려운 고비들을 많이 겪게 될거요. 일이 힘에 부칠수록 사람들 속마음에 더 눈을 밝혀야 하오. 아직까지도 뒤전에서 인혁동무가 사람들을 혹사시킨다거니, 승산없는 공사에 목매워 갈팡질팡하다가는 올해농사를 망치기 쉽다거니 하는 의견들이 제기된다구 했소.》

《알고있습니다.》

《물론 군중의 비상한 힘을 불신하는 몇몇 사람들의 횡설수설이라고 보오. 하지만 우리는 당일군들인것만큼 왜 그들이 이런 의견을 가지는가, 그토록 아글타글 애쓰는데도 왜 그런 말을 듣겠는가, 이에 마땅히 마음을 써야 하오.》

인혁은 푹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제가 구실을 못한것 같습니다. 당결정이고 또 제가 앞채만 메면 스스로 따라오리라고 생각했댔습니다.》

《그러게 어머니되기는 쉬워도 어머니구실을 하긴 힘든거요. 사람들을 위해서 속을 썩일줄 안다는게 어찌 쉽겠소.》

인혁은 그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우둔한 어머니노릇을 해온것을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일군이 일을 잘해오다가 한가지를 잘못하여 그 후과가 그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지 않는가.

《인혁이, 그렇다구 조금도 위축되지 말구 더 용기를 내여 완강하게 내밀어야 하오. 잠시라두 위축되면 일을 크게 망칠수 있소.》

《알겠습니다.》

류순기는 인혁의 손을 꽉 잡아주고는 성큼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따라나서려는 인혁을 굳이 말리고 리병원에 들려 운전수의 상태를 자세히 알아본 다음 군에 올라갔다.

사고는 즉시에 수습되였으나 빈틈없이 째여있던 련쇄작업공정들이 헝클어져 치달아오르던 공사실적이 제자리걸음을 하였다.

인혁은 선동원들을 발동하여 전투원들의 기세를 돋구기 위한 선동공세를 보다 적극적으로 벌리도록 하였다.
어느날 별옥은 빈 밀차를 대피선에 세우고 쪽널에서 삐여져나온 못을 뽑으려고 안깐힘을 썼다.
이때 뒤따르던 1작업반 3분조장이 별옥에게 다가왔다. 그는 말없이 꽁무니에 찼던 뻰찌로 못들을 손쉽게 뽑아 쪽널들을 대고 밀차를 수리해주었다.
《분조장동무, 고마와요.》
별옥은 상긋이 웃으며 말하였다. 그는 시간이 아까와 곧 밀차를 밀고 자리를 뜨려 했다.
그런데 분조장은 잠시 주밋거리다가 《별옥동무.》하고 새삼스럽게 불러세웠다. 《내 오늘 좀 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요? 무슨 이야기인지 어서 말하세요.》
그는 공연히 헛기침을 하며 갑자르다가 입을 열었다.
《나는 솔직히 별옥동무의 남다른 일욕심과 훌륭한 소행에 늘 탄복하게 되고 머리 숙어지오.》
《그런 말은 싫어요. 듣고싶지도 않아요!》
《나는 별옥동무와 함께 공부한 동무로서 허물없이 말하는건데… 내 원래 잘못된것을 보고는 참지 못하는 성미라는걸 잘 알지 않소. 그러니 내 말을 탓하지 마오.》
별옥은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려는 그의 속심을 단박에 짐작하였다. 그러나 흥분을 자제하고 잠자코있었다.
《툭 터놓고 말해서 나는 요즘에 와서야 이 공사에 장애를 노는 사람이 다름아닌 동무의 아버지라는것을 알게 됐소.》
《?!》
별옥은 미리 짐작하고있었으나 막상 그의 입에서 불쑥 튀여나오는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히여 눈앞이 아뜩해졌다.
이때 작업장을 돌아보던 정장선이 저쯤에서 다가오는것도 느끼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동무의 훌륭한 소행과 투신력에 누구나 감동하고있소. 그건 의심할바 없소. 그러나 아버지가 제동기노릇을 하는데 동무가 군중앞에 나서서 누구든 부강조국건설대전의 떳떳한 참전자, 위훈자로 되자고 아무리 선동한들 그 말이 사람들의 심장을 울릴것 같소? 사

람들의 심장에 불을 달려면 자기 아버지부터…》
《그만하라요!》
별옥은 그만 더는 참아내지 못하고 날카롭게 내쏘았다.
《이제 보니 분조장동문 정말 비겁하고 시시해요!》
《뭐가 비겁하다는거요?》
《동무는 당당한 초급일군인데 왜 본인앞에서 정정당당하게 말을 못해요. 관리위원장이라 해서 말 못하고 나보구나 그러는게 비겁한것이 아니구 뭔가요?》
분조장도 조용히 충고하려던노릇이 예상외로 사태가 날카롭게 번져지자 자연 목소리를 높였다.
《동무가 딸이니 그런 말도 해주는건데 뭐가 잘못됐소? 더구나 동무는 군중의 거울이 돼야 하구 사람들 심장에 불을 다는 도화선이 돼야 할 선동원이 아니요?…》
이때 가까이에 와 그들의 말을 듣고있던 장선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3분조장동무, 그만하오! 여기루 좀 오우!…》
별옥은 뜻밖에 작업반장의 목소리를 듣자 그만 참았던 눈물이 핑 괴여올랐다.
그는 홱 돌아서서 밀차를 잡고 길을 막은 3분조장의 밀차까지 껴밀며 자리를 피했다.
장선의 성난 목소리가 뒤따라 들려왔다.
《동무, 별옥동무앞에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오?》
《내가 못할 말을 했습니까?》
《책임일군에 대한 의견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망탕 말하면 되는가. 제동기가 뭐요, 제동기.》
그다음에 분조장이 무엇이라고 하는 말은 더 들리지 않았다.
별옥은 그 고통스러운 자리를 피할수 있게 해준 장선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그는 문득 굴함락사고가 있은 날 기계화작업반 선동원이 익살군답지 않게 심중히 하던 말이 떠올랐다.
《별옥동무, 내 같은 선동원으로서 하는 말인데 아버지를 잘 도와드리오. 전번에 공사로력을 전부 영농에 떼돌리자구 군에 제기한것두 아버지라는 말들이 도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별옥동무의 립장이 난처해지지 않겠소. …》
그날 별옥은 진정으로 일깨워주는 그 말을 깊이 새겨들으면서도 아

버지가 설마 그렇게 무리한 행동을 했으리라고는 믿지 않았었다.
별옥은 누가 볼세라 눈굽을 말끔히 닦았다.
그는 남들이 한사코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흙짐질통을 진채 흙을 넘치게 실은 밀차를 밀고 자기를 못 견디게 괴롭히는 생각들을 짓뭉개듯이 달렸다.

35

한낮이면 추위가 다소 머리를 숙인듯 했으나 밤추위는 여전히 호되였다.
모닥불빛에 전투원들의 바쁜 그림자가 얼씬얼씬하는 비탈길로 인혁은 흙짐을 지고 스적스적 걸었다.
(아무래도 무슨 대책이 서야겠군. 날자가 이렇게 빨리 갈수 있나.)
요즘은 날도 터무니없이 빨리 가고 길어보이던 밤도 짧아진것만 같았다.
날이 길고 짧음까지 불공평한것 같은 어처구니없는 생각에 그만 발이 언 돌부리에 걸채여 비칠하였다. 누군가가 그의 팔을 덥석 잡아주었다. 뒤를 바싹 따르던 1부락당비서였다.
《허허, 부락당비서동무 아니였더라면 내 그만 코방아를 찧을번 했군.》
인혁은 어줍게 웃으며 거북해하였다.
《비서동지, 그러게 좀 쉬염쉬염 하십시오. 제발 흙짐지는것 같은 일은 그만두십시오. 그러다 몸이 견디겠습니까?》
《남들은 안 걸리는 돌뿌다귀에 그만…》
《기운이 팔팔할 땐 몰라두 아래다리 휘청거릴 때쯤 되면 돌부리에 잘 걸리는 법입니다.》
《그 말두 옳은것 같소.》
스키모자를 푹 눌러쓴 그는 아직도 기력이 싱싱해보였다. 인혁은 언뜻 그의 거동에서 무엇인가 말하고싶어하는 기미를 알아챘다.
《엎어진김에 쉬여간다고 자, 우리두 좀 다리쉼을 합시다.》하고 인

혁은 한발 앞서 좀 후미질사한데 피운 우등불가에 다가가며 말을 걸었다.

《부락당비서동무의 기력이 정말 부럽소. 종일 뛰는데도 천상 지칠줄을 모르거던.》

《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비서동지의 록록치 않은 강단에 보조를 맞추자니 힘이 듭니다.》

《무슨 그렇겠소. 자, 앉은김에 제기되는 일들이나 말해보오.》

본래 성미가 걸걸한 부락당비서는 우등불가에 앉기 바쁘게 주밋거리지 않고 요즘 제기되는 당원들의 의견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였다.

《관리위원장의 속심을 턱대구 계획부원이 군에 제기한 사실이 다 알려진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행동은 전투원들의 열의에 대한 불신이고 모욕이라고 분개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혁은 이런 말을 오늘 비로소 듣는것이 아니였다. 벌써 여러 초급일군들이 이러루한 의견들을 제기해왔었다.

특히 금주리토배기중의 한사람인 5작업반 당세포비서는 사람들속에서 돌아가는 의견의 골자를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관리위원장이 이제는 능먹고 살줄 아는 요령만 터서 직무에 뼈심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열성이 대단한 일군으로 웃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는것입니다. 그러니 공사를 대하는 립장도 적극적일수 없었겠지요. 공사때문에 농사에 지장을 받는다는 말이 실제상 자기 보신과 관련되지 않는가 봅니다.》

인혁은 어느날 저녁 남은 두달반동안 립체전을 벌려 완공기일을 앞당기기 위한 당원협의회를 소집하였다. 공사장에 나와 관리일군들과 초급일군들까지 다 참가하도록 하였다.

회의에서는 예상밖에도 조수환에 대한 당원들의 신랄한 비판이 있었다.

인혁이도 당원들의 의견을 긍정하며 비판의 도수를 높여나갔다.

회의가 끝나자 맨 뒤줄 구석자리에 옹송그리고 앉아있던 별옥은 회의장을 남먼저 빠져나와 어둠속에 몸을 숨기듯 사라졌다.

그는 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은 찢기는듯 했다.

(아, 가엾은 아버지…)

그는 아버지가 그렇게도 사람들의 눈밖에 나고 그렇게도 원망을 사고있는줄 몰랐다. 사람들은 별옥이 관리위원장의 딸이라는데로부터 아

버지이야기는 극히 삼가해온듯싶었다.
그는 동무들을 볼 낯이 없어 저녁식사도, 숙소에 들리는것도 다 잊고 발길을 공사장쪽으로 옮겼다.
아버지에 대한 비판이 벌어지던 심각한 회의장, 숨가쁜 침묵, 팽팽한 분위기… 어떻게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앉아배기였는지 모르겠다.
당원들이 아버지가 공사로력을 영농에 돌리자고 제기한 사실을 비판할 때 별옥은 가슴이 털렁 내려앉는것 같았다.
(그러니 기계화작업반 선동원한테서 들은 말이 사실이였구나!)
회의장에서 듣던 때처럼 귀가 멍멍해지고 가슴이 활랑거렸다. 그중에서도 채아바이의 날이 선 비판의 말은 지끚게 뇌리에 공명되였다.
《…관리위원장동무! 이제는 자기를 툭 빠개놓구 삽시다. 말하자면 마음속의 둥지를 탁 털어버리잔 말입니다.》
별옥은 체소한 그가 어떻게 그처럼 무게있고 위엄있는 말을 하는지 놀라울 지경이였다.
《솔직하게 좀 말해봅시다. 관리위원장동무, 인제는 진펄에 발목을 잠그기 으쓸하구 험한 일에 몸을 내대기가 싫어졌지요?…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군중의 눈에 비낀 관리위원장의 모습은 그렇단 말입니다. 지난 기간의 공적과 명성은 자신을 부단히 수양할 때 빛나는것이지 맥을 놓으면 녹쓰는 법이지요.》
별옥은 얼결에 걸음을 우뚝 멈추며 손으로 두귀를 꼭 막았다. 하지만 그 말은 귀가 아니라 머리속에서 줄곧 공명되고있었다.
아, 아버지… 이러한 모진 비판들을 받으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던 가엾은 아버지, 그토록 존경하는 아버지가 이 지경에 이르다니…
아무리 철부지취급을 당하는 딸자식이라도 아버지의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깊이 관심하고 옳은 말을 해드렸으면 오늘과 같은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을수 있지 않았을가. 그러고보니 전번날 아버지의 문제에 대하여 바로 말해준 3분조장한테 발끈하여 성낸것이 후회되고 창피스럽게 느껴졌다. 아니, 아버지에 대하여 죄다 알고있는 사람들앞에 뻐젓이 나서서 선동사업을 해온것이 얼마나 철면피하고 어리석은 일이였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눈물이 저절로 두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한편 인혁은 수환의 심중한 결함을 알고있었으나 오늘 당원들의 신랄한 비판을 집중적으로 받는것을 보고 별로 마음이 괴로와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자기의 불찰로 수환이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였다는 뼈아픈 후회를 금할수 없었다. 수환이와 둘도 없는 절친한 관계라는데도 있지만 직책상의무로 보아도 그의 과실이자 곧 자신의 과실로 인정되였다.

솔직히 그와 여직껏 손잡고 일하면서 인간적으로는 허물없으면서도 사업상에서는 어쩐지 호흡이 잘 맞지 않는 기맥을 자주 느끼군 했었다.

언제인가 춘선의 집에 갔을 때 그가 하던 말이 불현듯 뇌리를 쳤다.

《수환이 그 사람 점점 더 우쭐거리는게 별나게 되여가는것 같아. 처세술이 능해서 한동안은 웃사람들의 눈에 들지 몰라두 아래사람들의 눈은 못 속이네. …》

군중의 눈은 그처럼 예리하고 정확하였다. 오늘 수환의 그러한 본심이 낱낱이 해부된셈이였다.

인혁은 온밤 뒤채이며 눈을 붙여보지 못하고 공사장에 나갔다. 저멀리 그믐달이 암초에 걸린 배처럼 옥련봉우에 외롭게 머물러있었다.

36

이튿날 오후 인혁이 현장사무실에 들어서는데 전화종이 울렸다.

그는 얼른 송수화기를 들었다.

수환의 석쉼한 목소리가 웅글게 울려왔다.

《비서동무요?》

《그렇소.》

《비서동무, 아무래도 46호를 수리소에 끌어다놓고 수리해야 할것 같소.》

인혁의 목소리를 확인하였지만 수환은 말투를 바꾸지 않고 공식적으로 말하였다.

46호란 전번 작업장붕락시 고장난 뜨락또르를 말한다.

《그 뜨락또르야 현장에서 이미 달라붙어 수리하고있지 않소?》

《그건 나도 알고있지만 더 잘 수리하자는 목적에서 내린 결심이

요.》
《그렇다면 좋소. 관리위원회의 결정대로 합시다! 그러나 수리기일을 다그쳐야 하겠소.》
수환은 더 말하지 않고 전화를 툭 끊어버렸다.
인혁은 어쩐지 그의 언행이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색없이 송수화기를 놓았다.
지난 시기엔 드물었던 공식적인 말투며 더 토론할 여지없이 먼저 송수화기를 놓는것이 다 례외적이였다. 비판받은 여파일가? 하지만 뜨락또르 46호를 집중적으로 수리하겠다는데야 굳이 탓할 리유가 없지 않은가.
인혁이 잠간 이런 생각에 잠겨있을 때 별안간 작업장에서 야단법석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노루등작업장에서 소동이 일었다.
46호를 끌어가려고 49호가 벌써 현장에 들이닥친것이였다. 작업모를 뒤통수에 삐딱하게 붙인 꺼꺼부정한 운전수가 46호에 견인바줄을 걸려다가 돌격대원들과 맞붙어 옥신각신하고있었다.
《한창 수리하는 46호를 왜 끌어가겠다는거야?》
《수리반에 끌어다놓고 수리하라는 지령을 받았단 말이요!》
《여, 동문 정말… 부속품들을 저렇게 갖다놓구 수리하는게 안 보이나, 손만 대봐라.》
한 돌격대원이 견인바줄을 와락와락 뽑아 저만치 끌어다 팽개쳤다.
《왜 나보구 야단들이요. 내 맘대로 하는 일인가. 관리위원회지령을 받았다질 않소.》
49호운전수도 만만치 않게 응수했다.
이때 장선이 숨가쁘게 달려왔다.
《문동무, 이건 뭐요? 두말말구 당장 돌아가우.
우리가 못쓰게 만들었으니 우리 손으로 원상복구해 쓰겠소!》
대뜸 서슬이 오른 장선의 기상에 운전수는 더 말을 못하고 입을 다물어버렸다.
《아무튼 못 끌구가오. 괜히 말씨름말구 당장 되돌아가우!》
운전수는 더 항변했댔자 승산이 없을것 같아서인지 운전칸에 씽 날아올랐다.
그때 《가만!》 하고 인혁이 나타났다.

운전수는 훌쩍 도로 뛰여내려 인혁에게 굽석 인사를 하였다.
《운전수동무, 끌고가시오.》
《리당비서동지?》
장선은 인혁을 놀랍게 쳐다보았다.
《됐소, 빨리 거들어주어 46호를 달아보냅시다. 빨리 수리해보내주기 위한 관리위원회지령을 받구 왔다는데 그걸 무시할수야 없지 않소. 우린 여기 일을 더 다그칩시다.》
(관리위원장이 단독결심으로 49호를 보내놓고 안심치 않아 전화를 걸어온게 아닐가?)
이때 장선은 기가 펄펄하여 인혁에게 울분을 토했다.
《비서동지, 이건 너무합니다. 한창 열이 오를 때 46호를 끌어가니 손맥이 풀려 일하겠습니까!…》
인혁이도 본체가 찌그러진 46호가 49호에 끌리워가는것을 보며 야릇한 심정을 누르기 힘들어했다.
《대장동무, 흥분하지 마오. 여기서 수리하는것 못지 않게 빨리 하도록 대책을 세웁시다.》
《하지만 46호를 우리 손으로 수리해쓴다는데두 부득부득 끌어가는거야 속심이 다른게 아닙니까?》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오. 더 잘 수리하자는건데 구태여 막을 필요가 없지 않겠소.》
인혁은 장선을 좋게 리해시켜 보내고나서 현장사무실로 들어갔다.
얼마 안되여 강욱이 어두운 기색으로 사무실에 들어섰다. 그는 인혁이와 마주앉으며 침중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아무리 생각해봐두 수환동무 처사가 못마땅하구만. 현장일군들을 무시하는것 같기도 하구… 심각한 비판을 받았으면 좀 채심할노릇이지 어쩐지 삐뚜루 나가는것 같단 말이요.》
인혁은 응답이 없었으나 어딘가 긍정되는 생각이 있어 고개를 끄덕였다.
돌격대원들이 우려하던대로 46호가 비자 작업장분위기는 떨어지는듯 했다.
어느날 청년작업반 반장이 인혁이와 함께 일하다가 무슨 중요한 비밀이기나 한듯 목소리를 죽이며 말하였다.
《비서동지, 그새 머리가 복잡할것 같아 우정 말씀 안 드렸는데 사

실 뜨락또르사고를 일으킨 그날 더 큰 일이 생길번 하였습니다.》
《뭐, 큰일?》
《그날 돌격대장동무가 뜨락또르가 지치는 순간 혼자 멍해있다가 하마트면 깔릴번 하였습니다.》
그 말에 인혁은 숨이 꺽 막히며 눈앞이 아찔해졌다.
《뭐, 장선동무가?!》
《그 동무 무슨 일엔가 신경을 많이 쓰는것 같습니다.》
(일밖에 모르는 그 동무가 다른 무슨 문제에 신경을 쓸가?)
인혁은 처음 듣는 말이여서 자기딴의 생각을 굴려보았다. 그한테 무슨 일이 있었을가, 남모르는 번민이 있는것일가? 혹 그것이 사랑의 감정에 기인된것이 아닐가. …
그렇다면 그와 현실이와의 관계에서 무슨 상서롭지 못한 일이 생긴게 아닐가?
인혁은 쉴참에 기술혁신조작업장에 들리였다. 마침 한정길이 혼자 있었다.
정길은 인혁이 들어서는것도 모르고 무슨 도면을 열심히 들여다보고있었다. 장선이와 남달리 가까운 한정길이 그의 속내를 누구보다도 잘 알리라고 짐작되였다.
《한동무, 좀 머리쉼도 해야지 않겠소.》
도면에만 옴해있던 한정길은 흠칫하며 인혁을 돌따보았다. 그는 급히 일어나 인혁을 반갑게 맞으며 화독가까이에 나무토막을 놓아주었다.
한정길은 인혁이 장선에 대하여 묻자 잠시 머밋거리다가 일전에 리병원에서 들은 사실의 전말을 차근차근 이야기하였다.
인혁은 한정길이가 현실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로 생각되였다. 하긴 그가 어찌 현실의 속마음까지 알수 있겠는가. 현실의 속마음은 순이가 잘 알수 있었다.
인혁은 청년작업반현장에 우정 찾아가 모닥불가에서 순이와 따로 조용히 만났다.
아니나다를가 순이는 현실이와 장선의 관계를 자기 일처럼 구체적으로 알고있을뿐아니라 장선을 탐탁찮아하는 어머니에 대하여서도 죄다 말하였다.
인혁은 금시 가슴이 쓰려났다.

(그렇게도 가식없고 아름다운 사랑을 모독하다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안해에게 충고를 주었으니 리해타산을 버렸으리라고 믿어왔었다. 그래서 방심했던 일이 뒤전에서 이렇듯 심각히 번져질줄은 몰랐다.

더구나 수환이 의연 이 문제에 끼여들어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었으니 분격을 누를수 없었다.

인혁은 새삼스럽게 자기 사업의 빈구석을 통절하게 느꼈다. 바로 그 빈구석에서 그렇듯 파국적인 결과가 빚어지지 않았는가.

인혁은 장선이 일을 걸싸게 제낀다고 해서 그저 평가만 해주었지 그의 감정세계에 너무나 등한했던 자신이 민망스러웠다. 그의 심리의 복잡성으로 해서 몸서리치는 일을 저지를번 하지 않았는가!

(어쨌든 화단은 그 공사때부터 시작됐지. …)

수환은 협의회에서 받은 비판들이 좀처럼 소화되지 않았다.

그는 요즘 신경을 과도하게 쓴탓인지 허리증이 더 심해졌다. 그래서 리병원 감탕치료도 받고 밤마다 안해의 부항치료를 받으면서 걸핏하면 역증을 내게 되였다.

등허리에 부항단지를 달고 누워있노라면 속이 부걱부걱 괴여오르군하였다. 수시로 마음을 헤집는 번거로운 생각에서 벗어나려 하면 오히려 더 새록새록 뇌리에 갈마들었다. 그중에서도 조수환이라는 존재를 당원들앞에서 발가벗기는 채아바이의 비판이 상기되고 더없는 모욕감을 자아내게 하였다.

평소에는 셈에도 없던 그가 관리위원장이 비판을 받는 마당이라고 하여 그렇게 생활리면까지 쫄딱 긁어낼줄은 몰랐다.

《으－음.》

저도 모르게 그의 입에서 가쁜 신음소리가 새여나왔다.

렴지춘은 또 어떤가. 그만큼 알아듣고도 남을만큼 말해주었는데도 둘사이의 내막을 아무데서나 낱낱이 까밝히다니…

렴지춘의 비판까지 되새겨보면 그들이 조수환이라는 존재의 금새를 저들대로 저울에 달아보고 하는 평가라는 생각에 기분이 잡쳐졌다.

수환은 부항단지를 잔등에 단채로 《여보, 뗄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 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좀 잠자쿠 있구려. 시간을 보고있어요.》 하고 안해는 심드렁하

게 응대하였다.

《제길, 요전날두 시간을 본다더니 턱방아만 찧다가 허리등을 개구리알집투성이로 만들더니… 이거야 어디 숨답답해서 견디겠어?》

《그럼 떼자요.》

안해는 성가심을 받는것이 귀찮은듯 잔말없이 단지엽을 손가락으로 꼭꼭 누르며 솜씨싸게 부항단지를 뗐다.

수환은 남한테 엄살로 들릴 《어쿠.》하는 소리도 내지 않고 모재비로 일어나앉았다.

오늘은 별로 안해의 말투가 곱지 않게 들렸다. 그는 안해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고는 담배를 꺼내여 붙여물었다.

원래 안해는 유순하고 말없는 녀자였다. 수환이 집에 들어와 곧잘 우둘렁거려도 그닥 반응이 없을뿐더러 거칠게 구는 남편의 언행을 조절할줄 아는 고분고분한 성미였다. 이따금 남편의 부당한 요구나 행동에 대해서는 경우바른 충고도 주군 했다.

그런데 오늘 밤 안해의 그늘진 얼굴이며 묻는 말에 대꾸질하는걸 보면 필경 무엇인가 심중한 생각을 품고있는것 같은감이 들었다.

안해편에서 먼저 후― 한숨을 내쉬며 말을 걸어왔다.

《여보, 요즘 당신은 왜 그렇게 돼가나요? 일처리도 뭔가 옳게 하지 못하는것 같더군요.》

수환은 와락 골을 내였다.

《뭐가 어떻다는거요, 일처리란건 또 뭐구?》

《신경질을 내지 말구 내 말을 좀 들어보라요. 당신이 여태 공사에 낯을 덜 돌리구 나중에 공사로력을 몽땅 농사에 떼돌리자구 군에 제기한 사실을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어요. 그런데 당신이 전투원들을 무시하고 혼자결심으로 46호까지 끌어갔다니 말을 듣지 않게 되였어요?》

안해의 말에 경우가 막혀버린 수환은 입을 열수 없었다.

《본심은 어떻든지 그렇게 속이 빤드름히 들여다보이게 일처리를 하니 사방에서 웅성웅성들 하지요.》

수환은 마뜩지 않게 안해를 힐끗 쏘아보았다.

일처리가 어쩌구저쩌구 하는 안해의 말이 수환의 부아를 불쑥 돋구었다. 그의 말이 채아바이의 말과 류사하다는 생각에 그의 신경은 더 곤두서는것이였다.

《당신이 뭘 안다구 주제넘게 농장일에 참견질이요? 그래 당신까지 가르치려들겠소.》

《나는 농장일에 참견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말밥에 오르는데 낸들 편안하고 별옥의 립장이 어떻겠는지 생각해본 일이 있어요?》

안해는 울가망이 되여 또다시 한숨을 내쉬였다.

《그 애가 아버지 비판받는게 얼마나 가슴아프고 원망스러웠으면 오늘 낮에 내 무릎에 어푸러지여 엉엉 울음을 터쳤겠나요. …》

그 정상이 가슴에 맺혀오는지 안해의 목소리는 떨리였다.

《엄마, 난 아버지가 그렇게도 사람들의 눈밖에 나고 그렇게도 남들의 말밥에 오르는줄 다는 몰랐어요. 난 이젠 어떡해요! 사람들앞에 더는 나서지 못하겠어요. 관리위원장의 딸이라는게 부끄러워요. 아,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되다니…》

별옥의 그 애절한 하소가 지금도 가슴을 저미여 안해는 저고리앞섶으로 눈물을 씻으며 하소하였다.

수환은 입이 쓰거운듯 볼편을 부들부들 떨다가 한마디 내뱉았다.

《여보, 당신두 그만큼 나살이나 건사했으면 웃사람도 모르고 아무 말이나 마구 줴치는 녀석들의 입방아에 귀기울이지 마오, 덜돼먹은 녀석들. …》

아무 말이나 줴치는 녀석들의 입방아라고 모욕적인 말까지 서슴없이 하며 씩씩거리는 남편의 거동을 보고 안해는 그만 실망하지 않을수 없었다.

한참동안 속상해 앉아있던 안해는 애써 자기 감정을 누르며 간절하게 말하였다.

《내 정말 신신당부하는데 당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농장적으로 내세워주는 별옥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제라도 좀 채심하세요. 저 순이 아버지를 좀 보세요. 사람들에게 비판줄것은 주면서도 낯을 가리지 않고 인정으로 대하니 싫다고 하는 사람이 없잖나요.》

안해의 입에서 인혁에 대한 말이 나오자 수환은 참지 못하고 툭 내쏘았다.

《여보, 그 인혁의 말까지 꺼내지 마우. 그 멀쩡한 사람의 쇠고집때문에 내가 골탕을 먹는단 말이요.》

인혁의 말이 나오자 수환은 은연중 울화가 치밀었다. 자기가 오늘

처럼 궁한 처지에 몰리게 된것도 다 인혁이때문이라고 생각되였다.
(의리심도 없는 사람, 나를 이 지경에 빠뜨리다니. …)
또다시 회의장면이 떠오르고 인혁의 비판의 목소리가 귀전을 울린다.
어쩐지 지난 기간의 막역지우관계가 허물어지고 점점 인혁이한테서 버림을 받는것 같은 생각까지 들어 수환은 괴롭기짝이 없었다.

37

그믐밤이였다.
검은 파도같은 먼 산줄기우로 펼쳐진 푸릿한 하늘엔 온통 별들이 무르익고 아득한 공사장의 무수한 홰불은 허공을 밝히였다.
잠풍한 밤추위는 아직 맵짰으나 어딘가 모르게 봄기운이 누긋이 감촉되여 아늑하게 느껴졌다.
인혁은 공사장의 이러한 전경을 등지고 곧장 관리위원회로 발길을 옮기였다.
오늘 46호뜨락또르 수리를 두고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한초한초가 새로운 때 아직도 46호수리를 끝내지 못하다니.》
《이거야 공사의 손발을 얽어매는것과 같은 행위가 아니고 뭔가.》
그리하여 알아보니 수리공 한명을 붙여 수리하기는 하나 그런 잡도리로는 며칠 잘 걸릴것 같다는것이였다.
인혁이도 그때 뜨락또르수리를 현장에서 하면 이내 끝낼수 있을것으로 예견했댔는데 수환이 부득부득 기계화반에서 수리하겠다고 끌고 갔다.
인혁은 현장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돌격대원들의 의견대로 당장 그 일을 취소하고싶었지만 금시 전화를 받고오기도 했지만 행정적으로 취해진 대책을 당비서가 뒤집어엎을수 없어 그대로 보내게 했었다. 그리고 수환이 공사보장을 위해 수리기일을 최대한 다그칠것으로 믿었다.
인혁이 관리위원회에 도착하니 위원장방에 불이 켜져있었다. 어쩐지 속이 불끈거리는것을 애써 누르며 기척도 없이 나들문을 열고 방

에 불쑥 들어섰다. 분초를 다투며 뛰고있는 때에 사무실에 들어앉아 있는 관리위원장을 보니 눈에서 불이 일었다. 지난 당원협의회때 비판받고 개심하리라고 생각했던 믿음이 삽시에 허물어지는것 같았다.

수환은 방으로 들어서는 인혁을 얼핏 돌아보고는 앉은 그대로 담배만 풀썩풀썩 피웠다.

《여보, 곰 잡겠소.》

인혁은 몸을 돌려 나들문을 반쯤 열어놓았다.

《오이 따먹는 때인줄 아는 모양이군.》

수환의 말투가 어지간히 투박하였다.

《관리위원장동무, 동문 어쩌문 그렇게 태평이요?》

《태평이라니? 자네 오늘은 또 무엇이 못마땅해서 그러나.》

수환이 너나들이로 나오니 인혁이도 격식을 차릴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몰라서 그러는가. 그래 46호를 철수시키고 왜 수리를 다그치지 않는가?》

《뭐라구? 지금 한창 수리하는걸 보지 않나. 사골 쳐놓구두 뭐 수리를 다그치지 않는다구?》

《사고를 코에 걸고 보신을 부리지 말게.》

《보신을 부린다?》

수환은 거뭇거뭇해진 큰 얼굴을 번쩍 들었다.

《그래, 46호를 끌어다놓고 수리에 한사람 붙인 후 셈평좋게 앉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나. 공사에 훼방준다는 소리까지 돌아.》

《뭐, 공사에 훼방준다?》

수환은 기가 질려 어쩔줄 몰라했다. 화김에 와락 처리한 46호건이 이렇듯 심각하게 번져질줄은 몰랐다. 욱할 때뿐인 수환은 46호수리에 수리공을 붙여 빨리 끝내라고 지시는 했지만 그다음 어떻게 추진되는가는 알아보지 않았다. 당원들의 비판에 안해의 충고까지 받은 처지라 고뇌에 시달리면서 처리한 일이기는 하지만 더 시급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것은 사실이였다.

《자네의 그 소행에 나도 처음엔 좋게 생각했지, 당원들의 비판을 받고 자신을 돌이켜본 행동으로.… 그래서 뜨락또르도 빨리 수리해줄 결심으로 끌어갔을거라고 말이네. 한데 그것이 한갖 가식에 불과한…》

《가식? 그럼 자네도 날 그렇게 훼방군으로 보는가?》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자네까지 날… 섭섭하네. 여보, 인혁이!》
자제력을 잃은듯 조수환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했다. 인혁이도 가만있지 않았다.
《조수환이란 사람의 행동이 사람들의 그런 평가를 내리게 했네. 자넨 인간적으로도 정돈되지 못했네, 아래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구 선배들을 모욕하구!》
《이젠 선배를 모욕했다는데로까지 나를 끌고가는군.》
《혁명선배인 강욱동지를 대하는 자네의 행동을 두고 하는 말이네.》
《흥, 선배면 선배답게 처신하라구 하우. 체신머리없이 아무 일에나 잔소리구 참견하려드니 이거야…》
인혁은 듣다못해 주먹으로 사무탁을 탁 쳤다. 그 벼락같은 서슬에 기염을 토하던 덩지 큰 수환도 와들짝 놀라며 인혁을 기접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인혁은 뚜벅뚜벅 문가에 다가가 나들문을 꼭 닫았다.
뚜벅거리는 인혁의 언 신발소리가 자기 가슴팍을 짓밟는것 같이 고막을 자극했다.
《뭐, 잔소리하구 참견한다구? 아바이는 동무가 밥상밑에서 기여다니기 전부터 우리 수령님의 뜻을 받들고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를 위해서 투쟁해온 오랜 혁명가야. 동무가 뜨뜻한 온돌방에서 잔등을 지지고있을 때 그는 합숙으로 오가는 시간마저 아까워 현장랭돌바닥에서 말뚝잠을 자며 공사를 돕고있소. 그런데 동무는 도대체 뭐길래 또 무슨 권리루 당에서 아끼는 전쟁로병이구 혁명선배인 그를 함부로 모욕할수 있는가?》
《…》
인혁은 한숨을 짜내듯 길게 내쉬였다.
인혁이 부임되여오는 날 류순기는 이제 내려가면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닐거라며 거기에 경험많은 일군들도 있겠으니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일하라고 했었다. 그때 인혁은 수환을 먼저 생각했고 또 그에게 큰 기대를 품고 사업을 시작했던것도 사실이다.
달라졌다. 수환이 확실히 다른 수환이 되였다. 사람이란 좋게도

변하고 나쁘게도 변한다더니 수환의 행동은 후자의 경우에 속하지 않을가.

당원들의 의견, 군중의 여론이 다 옳았다. 그에 대한 평가도 비판도 다 옳고 정당한것이다. 그런데 수환이 무엇이 못마땅하여 지금도 기를 쓰면서 그렇게 도고하게 나오는가!

인혁은 창가에 다가섰다.

창밖에는 눈이 펑펑 쏟아지고있었다. 어둠의 장막속에 자욱히 서린 눈발속으로 밤을 모르는 공사장의 불광이 환하게 바라보였다. 담배연기가 자욱하고 탁한 공기로 하여 숨막힐듯 답답한 이 방과 사정없이 퍼붓는 함박눈속에서 더 황황히 타오르는 저 불밝은 곳은 지척인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아득히 먼 세계인가!

인혁은 가슴이 쓰려들었다.

《…동무가 장선동물 얼마나 좋지 않게 보았으면 그의 사랑문제에까지 끼여들어 복잡하게 만들었는가. 동무가 우리 집사람과 맞장구치며 딴 혼처를 내세우는통에 어떤 일이 생길번 했는지 알기나 하는가. 나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막 가슴이 얼어드오.》

그는 얼마간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동무는 별옥의 앞에서도 자신을 부끄럽게 여겨야 하오. 별옥은 지금 동무보다 높이 서있소. 아들은 어머니를 잊고 살아도 손녀는 할머니가 숨진 그 포전에서 할머니의 젊은 시절처럼 살려고 애를 쓰고있소. 그 보배같은 딸에게까지 그늘을 지우다니… 사상적변질이 별다른것이겠소. 이것이 바로 동무의 사상이 병든 근원이라고 보오.》

수환은 호흡이 멎은듯 돌사람처럼 앉아있었다.

어쩐지 너나하면서 허물없이 대하던 친구사이가 아니라 당일군앞에 선 당원이라는 자기 존재를 의식하게 되는것이였다.

《똑똑히 알아두시오. 지금처럼 시대정신을 외면하고 금주리사람들의 불같은 열의에 호흡을 맞추지 않는다면 관리위원장은 고사하고 시대의 락오자로 굴러떨어질수 있다는것을 명심하시오!》

(시대정신을 외면? 시대의 락오자?…)

인혁의 철추같은 말에 수환은 숨이 꺽 막히였다. 금시 귀가 멍멍해지고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것 같았다.

인혁이 돌아간 다음에도 그는 동안이 지나도록 자신을 수습하기 어려워했다.

38

인혁은 별옥을 자기 방으로 불렀다.

1작업반 부락당비서의 보고에 의하면 그가 갑자기 선동원을 더 못하겠으니 그만두게 해달라고 제기했다는것이였다. 그 까닭은 남들로부터 혀끝으로만 선동하려들지 말고 아버지부터 교양하라는 말까지 들은데다가 당원협의회때 직접 받은 정신적충격에서 헤여날수 없기때문이라고 하였다.

인혁은 그의 심리상태가 충분히 리해되였다. 본시 말없는 그지만 요즘은 입에 빗장을 지른듯 줄창 작업에만 몰두한다고 한다. 그의 심리변화가 아버지의 일로 해서 생긴것임을 인혁이 모를수 없다.

가식을 모르고 깨끗한 량심을 지닌 인간일수록 그 량심의 시달림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곱절로 큰것이다. 결국은 잘못을 범한 당자보다 그의 딸이 오히려 더 큰 정신적고초를 겪으며 그 고초를 이겨내려고 제 몸을 사정없이 혹사하고있는것이였다.

인혁이가 이러한 생각에 골똘해있을 때 별옥이 조용히 현장사무실에 들어섰다. 그는 모자를 벗고 이마언저리에 흘러내린 머리칼을 비다듬었다.

그래도 인혁은 등뒤의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다. 별옥이가 흰 목도리를 벗어들고 《리당비서동지, 저를 찾으셨다기에…》 하고 먼저 말을 떼서야 얼른 얼굴을 돌렸다.

《음, 별옥동무요? 이 화독옆에 어서 와앉소.》

인혁은 얼결에 별옥동무라고 부른것이 별로 딱딱하게 대하는감이 들어 어줍게 웃었다.

별옥은 주밋거리며 화독옆 긴 나무걸상모서리에 조심히 앉았다. 목도리와 모자 그리고 통장갑은 쪼그리고앉은 무릎우에 얹어놓았다.

그의 해맑던 타원형얼굴의 부드러운 선은 깎이여 볼이 홀쭉해지고 무릎우의 모자를 붙잡고있는 두손은 터있었다. 요사이 갑자기 파리해진 별옥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혹심한 고뇌에 시달리고있는가를 말해

주고있었다. 다만 그 류다른 새별눈만이 정기를 잃지 않고있었다.
인혁은 심뇌 짙은 눈길로 별옥을 이윽히 뜯어보았다.
별옥은 애써 상냥한 웃음을 지어보이려 했으나 어딘가 모르게 얼굴에는 쓸쓸한 기운이 비껴있었다. 그것이 인혁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별옥이, 뭐 선동원사업을 그만두겠다구?…》
인혁은 그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걸었다.
《…》
《답변이 없는걸 보니 그게 확실하다는거겠지?》
순간 별옥의 눈구석에 맑은 물방울이 생기는것을 인혁의 눈길은 놓치지 않았다.
《비서동지, 얼굴을 들고다니기도 거북한데 제가 무슨 렴치로 사람들앞에 나섭니까. 그저 일에 푹 파묻혀 지내고싶습니다.》
별옥은 눈물이 그렁해서 자기의 안타까운 생각을 터놓았다.
인혁은 속이 답답하여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였다. 그는 별옥의 애달픈 감정을 덧내지 않으려고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별옥이 심정을 충분히 리해한다. 아버지의 잘못을 딸이 걸머질수야 없지 않니. 아버지가 말을 듣는건 네탓이 아니라 내탓이다. 내가 아버지를 진짜로 돕지 못했거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더러 다른 사람 교양에 앞서 자기 아버지 결함부터 고쳐주라는 말은 아버지의 결함이 드러났을 때니까 제기된게 아니겠니. 자기들은 관리위원장한테 직접 들이댈수 없겠으니 말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두 저는 그 아버지의 딸이 아닙니까. 제가 선동원이 아니라면 그런대로 참아낼수 있겠지만 남들의 선전교양자로서야 어찌 두번다시 군중앞에 나설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인혁은 입을 다물었다. 그가 선동원을 못하겠다는 말이 더없이 간곡하게 들려서이다.
부락당비서가 안타까와하면서 하던 말들도 다시금 상기되였다.
인혁은 진중한 표정으로 덤덤히 앉아있다가 아량이 풍기는 느슨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별옥아, 알아두어야 할것은 네가 관리위원장의 딸이래서 선동원이 된게 아니라는것이다. 당에 대한 너의 열렬한 충실성과 자질을 믿고 조직이 초급선동일군으로 내세워준것이지.》
인혁은 여기서 말을 멈추고 은근히 별옥의 기색을 살피였다. 그는

숨소리 하나 없이 긴장해 앉아있었다.

인혁은 좀 눅치면서 말을 이었다.

《아버지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을 나라구 왜 모르겠니. 또 그래서 떳떳치 못해하는 너의 갸륵한 생각도 리해된다. 그렇지만 그 손상당한 량심과 체면때문에 선동원사업을 포기한다는것은 말이 안되지. 생각해봐라. 그 일시적인 감정으로 당조직의 기대와 신임을 저버릴수야 없지 않겠냐.》

별옥은 일시적인 괴로움에 시달리여 그만 리성을 잃어버렸던 자신이 면구한듯 고개를 푹 떨구었다.

《너에 대한 분조동무들, 작업반동무들의 선의와 믿는 마음은 조금도 달라진게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부탁인즉 별옥이가 더이상 자기를 혹사하도록 내버려두지 말아달라고 당조직에 제기한것뿐이다.》

별안간 별옥의 눈에서 눈물방울이 모자우에 얹은 터실터실해진 손등우에 떨어졌다.

《별옥아, 아버지를 너무 원망하지 말어라. 아버지가 비록 지금에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지만 우리 고향땅을 지켜 피흘린 부모의 후대답게 록새벌을 뼈심들여 가꾸던 그 본심이야 달리될수 없지 않느냐. 바로 이런 때 체면따위에 못이겨 물러설것이 아니라 당당한 초급선전일군으로 더 맹렬히 활동하는것이 오히려 아버지를 개심하도록 돕는거라고 생각한다.》 인혁은 잠시 말을 끊고 자책에 젖어 몸을 더 옹송그리는 별옥을 지켜보며 웃음어린 목소리로 덧붙이였다. 《별옥이, 사상전선의 기수가 오늘같은 대고조시기에 대오를 떠나고 투항해서야 안되지, 허허…》

별옥은 그만 더 참아내지 못하고 얼굴을 싸쥔채 흐느낌소리를 냈다.

×

노루등작업장에 나가 도면의 현실성을 재삼 따져보고 돌아온 한정길은 잠시 우두머니 앉아있었다.

공사의 완공을 위하여 련일 악전고투하는 전투원들의 기세에 비하면 자신은 그들과 동떨어져 한켠변두리에서 어물대는것만 같은 조바심에 잠기게 되는것이였다.

아직도 기술혁신조앞에는 새형의 수평정지기도 만들어야 하고 능률

높은 회전식써레와 모든 모내는기계의 4마력원동기에 설치할 가스발생로도 제작해야 할 과제가 있었다.
그래도 어쩐지 성차지 않고 속이 시원치 못했다. 그저 지금 당장 도입하여 와락와락 일을 해제낄 능률높은 기계를 창안하고싶었다. 그래서 또 새로 발기한것이 미끄럼대식흙운반시설이였다. 그것을 조속히 도입하여 당장 은을 내는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아야 속이 후련해질것 같았다.
이렇듯 더 강렬해진 일욕심은 오늘 밤 진혜정으로부터 받은 새삼스러운 충동때문이였는지도 몰랐다.
좀전에 작업장에서 만난 진혜정은 오늘따라 각별히 반색하며 《조장동무가 발기한 나무레루가 굉장한 은을 내더군요. 정말 장해요. 우리 작업반에서도 조장동무에 대한 평판이 대단해요.》 하고 말하는것이였다.
한정길은 그만 몸둘바를 몰라했다. 자기가 내심으로 탄복하고 부러워하는 그로부터 오히려 뜻밖의 평가를 받게 되자 거북하기 이를데 없었다. 진혜정으로 말하면 뒤웅박식공법을 발기했고 맨선참 태양열온실 흙보산생산기지도 꾸린 초급일군이 아닌가!
또한 낮에는 포전에서 영농준비를 다그치고 밤이면 어김없이 공사장에 달려나와 늦도록 일을 도와주지 않는가.
그에게서 지난날의 울적한 표정과 상심스런 모습은 아예 자취를 감춰버렸다. 어디서 솟는지 모를 지칠줄 모르는 기력, 정력에 넘친 활기, 자유분방한 사색…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것이였다.
문득 그의 이렇듯 훌륭한 변모의 뒤에는 김인혁이 서있다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머리를 쳤다. 순간 그의 가슴은 감전된듯 찌르르해졌다.
그가 이런 생각에 골똘해있을 때 한 돌격대원처녀가 자박자박 발자국소리를 내며 들어와 알려주었다.
《조장동지, 리당비서동지가 찾습니다. 도면을 갖구 오랍니다.》
《알겠소.》
(도면은 전날 보았는데 왜 또 요구할가? 미타한 점이 있어 그럴가, 아니면 보충할 착상이 떠오른걸가. …)
천막사무실안은 훈훈하였다.
《어서 오우. 저녁에 가니 작업실이 비였더군. … 여기 와앉소.》 하고 인혁은 오늘 별로 반기였다.
그의 부드러운 표정, 친절한 목소리를 대하니 마음도 금시 방안처

럼 훈훈해졌다.

화독우에서는 눔남비가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보글보글 끓고있었다.

한정길은 엉거주춤해서 인혁에게 도면말이를 펼쳐보였다.

인혁은 히죽이 웃으며 한정길이 설명하기 전에 앞질러 말하는것이였다.

《요전에도 보았지만 이 미끄럼대아래우와 중간에 고정틀을 대고 이렇게 철판이 울지 않게 가로세로 철띠를 받쳐주고 자연비탈면우에 태우겠다는거지요?》

《예.》

《그렇게 하면 언땅 파는 기계들로 조겨대는 차제로 흙더미는 이 강판경사면을 타고 흐름식으로 상차장에 가닿겠구만. 멋있소.》

인혁은 도면을 도로 한정길에게 내밀었다. 보아하니 도면때문에 부른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이젠 빨리 자리에 앉소.》

인혁은 탁우의 책들을 한쪽에 밀어놓고 화독옆에서 보꾸레미를 거기에 올려놓더니 뜻밖에 밥그릇 두개와 수저를 꺼내였다.

한정길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뻥해 앉아있었다.

인혁은 밥그릇뚜껑을 열고 밥그릇과 수저를 먼저 한정길의 앞에 놓아주었다. 밥그릇에는 흰쌀에 당콩을 알맞추 섞은 먹음직한 밥이 소복하게 담겨있었다.

그는 곧 탁가운데에 사기접시를 놓고 화독우의 남비를 들어다 그우에 옮겨놓았다. 남비뚜껑을 열자 단김이 확 뿜어올랐다.

《자, 토끼고기남비탕이요.》 하고 그는 나중에 술 한병과 사기알잔 두개를 꺼내였다. 알잔을 한정길의 앞에 놓은 다음 술병을 기울여 한정길의 잔에 술을 부으려고 하였다.

그때까지도 어쨌으면 좋을지 몰라 벙벙해있던 한정길은 급급히 《아, 아닙니다. 제가 먼저… 전 술 마실줄 모릅니다.》 하고 술병을 잡으려고 했으나 인혁은 그의 손을 막으며 잔에 술을 부어주고 자기잔에도 부었다.

《나두 술은 못하오. 하지만 남들이 하는 본을 따를뿐이지.》

《예?!…》

한정길은 어안이 벙벙하여 인혁을 마주보았다. 당비서가 술 마시는것을 본적도 없었거니와 남들이 하는 본을 따른다는것은 무슨 말인가!

《한정길동무답지 않게 왜 그렇게 멍청이가 됐소. 그래 오늘 한동

무는 무슨 날인지 모르고있소?》
《무슨 날이기야, 아-》
한정길은 그제야 생각난듯 뒤더수기를 긁적거리며 어색해했다.
안해가 군에 강습가서 없고 자기는 또 현장에 붙박혀 기계창안에 몰두하느라고 생일이라는것조차 감감 잊고있었다.
인혁은 잔을 들며 말했다.
《자, 어서 같이 들기요. 한정길동무의 생일을 축하하오. 차린건 없지만 야전식생일축하연으로 생각하고 머리도 좀 쉬우기요.》
순간 한정길은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시울이 확 달아올랐다. 진짜 멍청이는 멍청이이다. 오늘이 자기의 생일인것도 모르고 당비서가 귀띔해서야 알아차리는 그런 모자라는 사람이 나밖에 또 있을가.
그는 잔을 내고 고기국물을 한술 떠서 입에 대는 순간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여왔다.
이어 인혁이가 20리밖에서 병원까지 들고온 김이 몰몰 나는 찰떡을 집어들고 딸과 울음을 터뜨렸다던 안해의 말이 피끗 떠올랐다.
더 술을 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겨있는 정길을 보며 인혁이 물었다.
《왜 그러우? 국이 너무 뜨거운가. …》
《아닙니다.》
《그럼 집사람이 고추가루를 지내 쳤는가. … 둘 다 술은 못하니 밥이나 들기요.》
인혁은 이렇게 권하며 자기도 수저를 들었다.
워낙 정에 주리여 지낸 사람은 인정앞에 눈물이 헤픈 법이다. 인혁이도 그를 감촉한듯 빨리 식사나 하자고 독촉했다.
《나도 출출한데 빨리 먹기요. 한동무가 주밋거리니 어디 밥이나 제대로 먹겠소.》
한정길이로서는 그야말로 뜻밖에 당하는 일이였다. 오늘 밤 그 소박한 생일음식은 진수성찬보다도 오히려 더 진심이 풍기여 종시 그를 울리고야만것이였다. 자기와 자기 가정을 위하여 얼마나 왼심을 쓰며 속썩여온 당일군이였던가.
그는 자기 가정이 그의 어깨에 너무나도 무겁게 매여달린다는 송구한 생각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매달리고싶은 심정을 어찌할수 없었다.
부드럽고 리해심이 깊은 당비서앞에서는 언제나 마음을 툭 터놓고

아무 말이든 꺼리낌없이 하게 되였다. 그래서인지 그가 하루만 안 보여도 눈으로 찾게 되고 혹 군이나 도에 회의 가게 되면 돌아올 날을 초조히 기다리게 되는것이였다.

39

장선은 오늘도 작업휴식시간에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였다.

요즘 공사실적이 부쩍 뛰여오르자 그 멋에 승세가 나서 작업장들을 채바퀴돌듯 하며 지휘에 여념이 없다가도 짬간 생기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비고 어느결에 생각은 현실에게로 달리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는 현실의 생각을 랭혹히 뿌리치려고 아무리 마음을 독하게 먹어도 한순간뿐 오히려 더 지꿎게 갈마들군 하였다. 사고난 날도 바로 그래서 멍해있다가 끔찍한 변을 당할번 한것이였다. 그러나 그 수치심도 불과 한동안뿐이였다.

그날 밤 노루등에서 그와 단호한 결별을 선포하고 씻은듯이 마음에서 지워버리려고 했으나 차츰 과격한 감정이 가라앉고 리성이 머리를 들자 또다시 그의 모습이며 잊을수 없는 지난 사연들이 가슴속에 끊임없이 소용돌이를 쳤다.

지난 겨울밤 눈덮인 옥천벌에서 그의 애타는 충고를 모욕으로 느끼고 그만 분격하여 휙 돌아설 때 얼핏 눈에 띄던 그의 눈확이 움푹 꺼지고 병색이 짙은 해쓱한 얼굴이며 가늘어진듯 한 상큼한 목이 가슴아프게 눈에 삼삼히 밟혀왔다.

그날엔 어떻게 된 일인지 그처럼 도고하고 범접하기 두려운, 그래서 늘 자기를 주눅들게 하던 현실이 아니라 그지없이 명랑한 10대의 처녀, 지성미를 갖추지 못한 녀자로 안겨왔었다. 그 까닭인지 그날의 가냘픈 그의 모습은 때없이 아릿하게 마음을 파고들며 애모쁜 동정심과 측은한 감정을 자아내게 하였다.

더우기 노루등에서 남남처럼 지내온것으로 치자고 내뱉는 순간 소스라치듯 놀랍게 쳐다보던 의혹짙은 눈에 핑 고이던 눈물은 아직도 가슴을 알알하게 하였다.

장선은 그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한 후에야 비로소 담장밖에선 자기라는 인간의 용렬성을 의식하게 되였다. 한순간의 격렬한 생각으로 리성을 잃는 단순한 인간, 상대방의 속마음을 헤아려볼만 한 여유도 도량도 없는 매정한 인간, 그의 말대로 감정이 풍부하지 못한 강마른 인간임을 절감하였다.

이렇듯 그는 현실의 마음에 모진 상처를 안기고 그를 모욕한 막심한 후회에 시달리고있었다.

어느날 오후였다.

전투장에 수수한 솜옷차림에 솜신까지 신었으나 몸매가 곧고 호리호리한 기품있는 녀성이 나타났다. 그 녀자는 한 돌격대원에게 뭔가 묻는듯 하더니 그가 가리키는쪽에 할깃 얼굴을 돌려보고는 곧장 갱도식작업장으로 사뿐히 걸어왔다.

어디서 보던 모습같기도 하여 그를 지켜보던 장선은 깜짝 놀랐다. 그는 방글방글 웃으며 《돌격대장동무, 안녕하세요?》 하고 다가왔다.

《아니, 경영위원회 계획부원동무가 어떻게 갑자기…》 하고 장선은 당황해하며 인사를 받았다.

리정애가 현실이와 자별한 사이라는 생각이 피끗 들자 장선은 더더욱 마음이 황황해지고 대하기가 어색하였다.

《관리위원회에 왔던 길에 공사장을 돌아보려고요. … 정말 굉장하군요.》

정애는 장선의 속내를 가늠한듯 공사장에 눈을 돌리며 탄복하였다.

《대장동무, 좀 걷지 않겠어요?》

《예. …》

장선은 정애와 같이 걷게 되자 어쩐지 마음이 별로 옹색하고 몸가짐이 부자연스러워졌다.

정애는 가느스름한 눈에 상긋이 웃음을 지은채 어줍어하는 장선이와 공사장을 번갈아보며 걷다가 《듣던것처럼 정말 방대하군요. 그러나 지금기세면 모내기전에 얼마든지 끝낼수 있겠어요.》 하고 신심있게 말하자 장선은 용기를 얻었다.

《그렇습니까!》

《제 모르는 소견에 어림쳐보아도 전망이 확고한데요.》

《그래요?!》 하고 장선은 성수가 나서 말하였다. 《혁신적안목이 있는 일군들은 계획부원동무처럼 신심이 확고해하는데 어떤 사람

들은 지금까지도 막연해하지요.》

《그런데 귀기울일게 있나요 뭐, 한집안의 가장집물을 옮겨놓는데도 생각이 달라 가타부타하는데 이 방대한 공사에 그런 거칫거림이 없을수 있겠나요. 짓밟고나가면 되지요.》

장선은 경영위원회적으로도 책임성높고 여무진 일솜씨로 일러주는 녀성일군의 눈이 다르다고 내심 탄복했다. 장선은 자신심이 더 생겼다.

정애는 할말이 있는듯 천천히 걷다가 능청에 가까운 표정으로 《대장동무, 내 우선 용서를 빌려구 해요. 나는 현실이와의 두 관계를 전혀 모르고있었거던요. 그래서 나도 농업대학 연구사를 내세웠댔는데 알고보니 나 역시 원망을 살만 한 훼방군이 될번 했더군요.》 하고 그처럼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던 말을 문득 시원스럽게 꺼냈다.

장선의 얼굴은 일순 빨갛게 물들었다.

《내 일전에 현실의 마음을 알고 그길로 오려댔는데 급한 사정이 있어 이렇게 늦어온걸 리해해주세요.》

《…》

장선은 그만 계면쩍은 생각에 몰리여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대장동무, 믿으세요. 현실의 마음은 조금도 변함없어요. 떠도는 말은 그가 모르게 벌어진 일들이예요. 현실을 더욱 열렬히 사랑해주세요. …》

장선은 가슴이 숨가쁘게 활랑거렸다. 정애한테서 그 말을 듣는게 열적으면서도 그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그리고 현실을 경솔하게 의심하고 그 순결한 심정을 모독한 자신이 더없이 옹졸하고 치사하게 느껴졌다.

(내 이제 무슨 체면에, 무슨 낯으로 현실을 대한단 말인가!)

며칠후 장선은 수리소마당에서 15키로그람이나 되는 쇠메로 밀차밑판용철판을 짓조겨펴다가 부지중 메질을 멈추고 옥천하늘가를 하염없이 바라보고있었다.

이때 누군가 자기의 어깨를 툭 치며 《허허, 무슨 생각에 그리 골똘해있소?》라고 하는 걸걸한 목소리에 그는 와들짝 놀래였다. 획 돌아서던 그는 느슨한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을 죄다 들여다보는것 같은 인혁의 눈길과 딱 마주쳤다.

그는 자기의 생각이 들장난것 같아 창피하고 당황해졌다. 그는 낯이 불그레해가지고 적당히 얼버무렸다.

《뭘 좀 생각하댔습니다. …》

《뭘 좀 생각하댔다?!… 사색을 많이 하는거야 좋은 일이지.》 인혁은 그답지 않게 회오의 빛이 짙은 심란한 표정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그러나 생각을 해두 무슨 생각을 하는가가 문제이지. 자, 여기 좀 앉자구.》

인혁은 이동수리소마당에 설치한 도람통화독옆에 도끼모태를 끄당겨놓고 그우에 통장갑을 깔아주었다.

굳이 사양하며 좀 떨어져 퍼더버리고앉으려는 장선을 도끼모태우에 눌러앉히고 담배도 권했다.

《비서동지야 담배를 안 피우지 않습니까.》

《허허, 피울줄은 모르지만 이렇게 기분이 좀 어색할 땐 한대 피우는척 해야 마음 터놓기 쉬워지더란 말이요.》 인혁은 은근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장선동무, 나도 체험한바 있지만 사랑은 실로 아름다운거지. 하지만 그때문에 펄펄하던 장선동무가 기를 잃어서야 되겠나.》

《비서동지, 그런게 아닙니다. …》

그는 인혁의 입에서 현실에 대한 말이 불쑥 튀여나올것만 같아 공연히 속이 조마조마했다.

《그런게 아니다?… 그 얼굴에 다 씌여있는데두. 좌우간 내 말을 참고삼아 들어보우. 사랑이란 단순히 생김새나 행실만 보구 물건 고르듯 하는게 아니지. 이를테면 하나의 의지, 아름다운 뜻의 결합이 아닐가. 그런 결합이 어찌 쉽게 이루어지겠소. 그 의미가 뭐겠소. 당을 헌신적으로 받들려는 고결한 지향이지. 그러니 외곡되여 떠도는 말에 갈팡질팡하거나 훈수하는대로 움직이는 풋장기군의 장기쪽이 돼서야 안되지. 그렇잖소? 그 누구의 눈치를 가릴것없이 심장이 가리키는대루 해야지, 어때?》

《명심하겠습니다.》

장선은 얼결에 그 말을 긍정했다.

《이제야 명심하겠다? 아직 사랑의 뿌리가 깊지 못한것 같아. 그러니 잔바람에도 흔들리는거야.》하고 그는 장선을 의미있게 살펴보다가 불쑥 이렇게 물었다.

《장선이, 우리 현실의 무엇에 반했소?》

장선의 얼굴은 삽시에 붉어졌다.

《…》

《내 대신 말하라우?… 나서자란 고향땅을 남달리 사랑하고 훌륭히

가꾸려는 아름다운 마음과 혁명임무에 대한 성실성이겠지. 그래서 서로 경쟁자로 된거구…》

장선은 경쟁자라는 말에 얼굴이 더 붉어지며 몸둘바를 몰라했다.

《내 장선동물 진짜로 돕지 못했소. 이제 비로소 사과하오.》

《무슨 그런 말씀을…》 장선은 당황하여 펄쩍 뛰며 부정했다. 《비서동지, 아닙니다.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비서동지가 그런 문제까지…》

《그게 단순한 문제요? 아차 실수에 귀중한 사람까지 잃을번 하지 않았나. 그걸 미리 모르고있은 내가 무슨 당일군이겠소.》

두세명밖에 모르는 창피한 일까지 당비서가 알다니?! 그는 당장 쥐구멍을 찾고싶었다. 그는 낯이 뜨거워 고개를 푹 떨구었다.

《장선이, 사랑도 믿음에 뿌리를 두고있소. 믿음이 든든하면 마음이 흔들릴수 없지. 사랑은 쟁취해야해. 그리구 굳건히 지켜야지.》

장선은 자기의 감정심리에 그리도 구체적인 그의 고무격려의 말에 대뜸 원기가 회복되였다. 그토록 바재이며 말 못하는 괴로움과 안타까움을 속속들이 헤아리고 풀어주는 당비서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삼키였다. 어린시절 자기를 업어주군 하던 그의 품에 몸을 와락 던지고싶었다.

그는 별안간 인혁의 두손을 우악스럽게 움켜잡으며 《비서동지는 진짜형님같습니다!》 하고 열뜬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의 돌발적인 행동에 얼떨떨해진 인혁은 그만 코허리가 시큰해졌다. 두형제의 막내로 자란 인혁은 여직껏 살아오면서 형님이라고 불리워본적이 없었다. 인혁은 저으기 감동되였다.

장선은 두눈을 슴뻑이며 움쭉 일어나 목침만 한 쇠메를 겨릅대처럼 잡아휘둘러 강판을 걸싸게 조겨대기 시작했다.

×

공사현장에 치료하러 나왔던 현희는 급급히 돌아섰다. 오늘 오전 병원에서 현실이와 만나기로 약속되여있었던것이다.

병원으로 향하던 그는 멀지 않은 곳에서 메질에 여념없는 정장선을 보았다. 현희의 가슴은 서늘해지였다.

언제인가 그의 귀에 들어가게 하려고 우정 한정길한테 보태여 한 말때문에 소름끼치는 사태가 빚어질번 하지 않았는가!

어느날 밤 집에 들린 남편은 자기를 무섭게 꾸중했었다.

《당신은 대체 제정신이요? 당신은 언제 그렇게 리기적인 인간이 됐소? 그 치졸한 사고를 왜 아직두 버리지 못하오.》

인혁은 억이 막힌듯 한숨을 돌려쉬더니 말을 계속했다.

《당신은 정말 단단히 골병들었소. 사람보다 가세와 재물에 먼저 눈길 돌리는 비렬한 속물이 돼버렸단 말이요! 농장의 대들보같이 끌끌한 청년을 나무리다니. 그래 당신은 그 지긋지긋한 리기심으로 그처럼 참답고 깨끗한 사랑을 끝끝내 모독할셈이요? 또 그때문에 어떤 끔찍한 일이 생길번 했는지 도대체 알기나 하오?》

현희는 남편의 험악한 기상에 눌리워 감히 입을 벌릴 엄두를 못내였다.

남편은 격한 심정을 누그러뜨리며 진중한 목소리로 준절하게 말하였다.

《당신은… 당원답지 않소!》

당원답지 못하다는 말에 현희는 그만 억이 막혀버렸다. 그는 너무 분수없이 행동한 수치스러운 죄의식으로 량심이 찔리여 얼굴을 들수 없었다.

그러나 리기적인 미련이란 지꿎은것이였다. 장선이와 현실의 문제때문에 그토록 경을 치고도 그는 연구사청년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오늘 동생과의 상봉에 마지막기대를 걸고있었던것이다.

현희가 병원에 막 들어서는데 간호원이 반색하며 말하였다.

《홍선생님, 옥천리동생이 왔다갔습니다.》

《언제?》

《선생님 이동치료 나가신 다음 좀 지나서…》

현희는 문득 병력서갈피에 끼운 한장의 편지에 눈길이 닿았다. 현실의 편지였다. 미리 써가지고온듯 두툼하고 봉인도 착실히 되여있었다.

《언니! 보고싶어요. 2중3대혁명붉은기판정사업도 끝났고 또 언니와의 약속도 있어서 잠간 들렸댔어요.

언니, 저는 오늘 언제인가는 언니도 어차피 알게 될 저의 마음을 솔직히 터놓기로 결심을 했어요.

언니가 그리도 호감을 갖고있는 그 연구사를 저도 직접 만난적이 있어요.》

(애두 원, 이제야 속을 헤쳐보이는구나.)

《옥천리에 남새육종문제를 도우러 왔다면서 우리 기계화반에도 들렸더군요. 생김새 미끈한 청년이더군요. 언니가 저한테 소개하려는 심

정도 어느 정도 리해되더군요. 그렇지만 언니, 아무리 미끈한 청년이라고 하여 누구나의 알맞는 대상자로 된다고 단정할수야 없지 않아요. 저는 사랑의 선택권은 심장에 있다고 봐요. 저에게는 자기의 인격을 세우고 체모를 잃지 않으려고 윈심을 쓰는 그런 세련미보다 그지없이 량심적이고 진정이 풍기는 그런 청년이 더 마음에 들어요.

언니는 왜 정장선동무를 그렇게 보지 않나요? 성미 거칠고 일군들 눈밖에 나있는 청년, 집안도 그러루한 청년이라고 했지요. 언니가 그를 알면 얼마나 깊이 아나요? 아신다면 일부 사람들의 말로만 들은거겠지요? 언니는 그를 귀로 파악했지만 저는 심장으로 파악했어요. 실지 그 동무는 꿈많고 불같은 청년이예요. 미래를 그처럼 사랑하는 그의 마음속에는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굽이치고있어요. 언니, 아저씨가 그 동무를 얼마나 장해하며 내세워주고있나요? 그래 언니는 여직껏 아저씨가 사람을 잘못 보는 경우를 본적 있나요? 만약 그 동무를 경원시한다면 구경은 아저씨를 탓하는거나 같지 않을가요?

언니, 제가 주제넘는 말을 한다고 생각지 말아주세요. 어머니의 사랑을 대신하여 저를 키워준 언니이기에 아무 꺼리낌없이 터놓는거예요.

언니! 아무런 구김도 허식도 없이 속마음이 그대로 얼굴에 내비치는 그토록 순결하고 때묻지 않은 장선동무의 마음, 부모들의 피와 넋이 어린 사랑하는 고향땅에 부강조국의 참다운 면모가 깃들게 하려는 그의 아름다운 열정이 저의 마음을 독차지한거예요.

언니, 욕하지 마세요. 철없던 그 시절 언니의 품에서 재롱부릴 때처럼 어여쁘게 여기고 꼭 웃어주세요. 그렇게 하지요?

그럼 안녕히!

동생 현실.》

(날더러 웃으라고…)

현희는 동생한테서 일장 훈계를 받은것만 같아 자존심이 상했으나 감히 반박할 마음의 여지를 찾지 못했다. 너무도 사리정연하였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단 하나의 혈육으로부터 배반당한듯 한 쓰디쓴 허전감은 금할수 없었다.

어찌보면 한갖 편지라기보다 자신의 리기적인 속심을 메스로 낱낱이 해부한 고소장같기도 했다.

며칠전에 수환은 전화로 연구사의 형수한테 현실을 단념하라고 했으니 그리 알라고 전해왔다.

당장 혼사가 이루어진것처럼 떵떵거리던 그의 입에서 그런 말이 스스럼없이 나오자 현희의 마음속 닭알낟가리는 무너지기 시작했었다.
그러나 장선이 스스로 물러서는 경우 사태가 혹시 역전될수 있으리라는 한가닥의 미련을 종시 버리지 못하고있은 현희였다.
그런데 오늘 현실의 글을 읽고 그의 마음속에 정장선이 어쩔수 없게 든든히 자리잡고있다는것을 비로소 절감하게 되였다.

40

사위가 캄캄하여 수환은 얼음버캐가 깔린 언틀먼틀한 길을 조심히 걸어갔다.
요즘 그는 매일과 같이 날이 밝을무렵 작업반들에 나가고 저녁늦게야 들어서군 하였다. 온갖 착잡한 상념에서 벗어나려고 거름도 져나르고 줄창 벼씨앗소독처리를 비롯하여 공정별에 따르는 영농준비사업에 의도적으로 몸을 잠그었다.
수환은 그사이 제 머리를 짜내여 착안한 토양분석표에 따르는 필지별거름반출작업을 부리나케 다그치느라 했지만 8작업반의 실적은 그리 높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도 8작업반에 나가 날이 저물도록 분주한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오는 길이였다.
립춘을 넘겼는데도 아직 해는 짧았다.
어지간히 지친 그는 발길이 옮겨지는대로 가마고개지름길을 타기 시작하였다. 그가 눅진눅진한 눈과 얼음버캐가 버무려진 오솔길을 톺아 고개턱에 올랐을 때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듯 보름달이 불쑥 솟아올랐다.
달빛에 대낮같이 환해진 펑퍼짐한 가마고개마루에 이르니 종일 울적하던 가슴이 금시 확 트이는것만 같았다. 그는 다리쉼도 할겸 하마잔등같이 닳아진 너럭바위우에 펄썩 걸터앉았다. 이 너럭바위우에 앉으면 금주리의 전경이 흡사 사판처럼 한눈에 안겨왔다.
어디선가 옥련봉쪽 멀리에서 밤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올뿐 사위는 고요하였다. 어쩌다 이 너럭바위에 앉고보니 그로서도 신비하리만큼 아늑한 정취에 잠겨들게 되였다.

이밤따라 유난히 깜박이는 별들과 푸릿한 달빛속에 하나의 화폭으로 안겨오는 아득한 록새벌, 그 언저리에 휘움히 늘어진 옥천강과 옥련봉기슭의 야산변두리에 즐비하게 늘어선 마을들이 류다른 정취를 자아내는것이였다.

하지만 한가롭고 평온한것 같은 이 세계와는 전혀 다른 저 멀리 공사장만이 온통 불천지로 달빛도 무색하게 만들며 환하게 안겨왔다.

수환은 문득 사연깊은 이 고개마루에서 대학으로 떠나는 자기와 인혁을 오래도록 손저어 바래주던 인혁이 어머니 리금전의 모습이 그려지였다. 달빛을 타고 우렷이 떠오르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자 눈시울이 확 달아올랐다. 무언가 모르게 애틋한 감정이 찾아들었다.

(내 왜 이럴가? 그동안 너무 마음을 써온때문일가?…)

매일같이 농장원들속에 파묻혀 분주히 돌아치면서도 마음의 고독에서는 벗어날수 없었던 그였다. 또 자신을 지지리 괴롭히던 울분을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속시원히 설분할수 없던 그였다.

그 어머니가 지금처럼 사무치게 그리워지기는 처음이였다. 어머니로 하여 추억의 실마리가 잡히자 그 실토리는 잇달아 풀리였다.

리금전은 인혁의 어머니이면서 수환의 어머니이기도 하였다.

수환의 어머니인 봉선이가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오누이를 댕그렇게 남겨두고 기총탄에 희생된 후 금전은 그들오누이를 집에 데려다 살뜰한 정으로 키웠었다. 수환의 오누이는 철이 들어 이모네한테 얹히기 전까지 금전의 품에서 고이 자랐다.

금전은 때때로 인혁이와 수환을 이 너럭바위우에 앉히고는 훌륭한 아버지들과 어머니를 평생 잊지 않도록 절절한 당부도 하였고 또 그들의 어린 눈앞에 장래의 꿈을 실어주기도 했었다.

지금도 대학으로 떠나는 날에 그리도 기뻐하고 그리도 대견해하면서 록새벌을 제 살붙이처럼 여기며 고향을 잊지 말라던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금시 들려오는듯 했다.

리금전의 눈을 감겨드린것도 수환이였다. 그때 인혁은 다른 도에 견학실습을 가있었으므로 어머니 돌아가는 순간을 보지 못하였다. 금전은 림종직전에 수환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당부했었다.

《수환아, 이담에 큰사람이 되거들랑 너희들이 쌍둥이처럼 자란 정으로 한마음돼서 금주땅을 우리 수령님의 뜻대루 훌륭히 꾸려야 한다. …》

더듬더듬 말을 잇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삼삼히 밟혀왔다.

그날 어머니가 그려보신 오늘날의 나와 인혁은 농장을 맨 앞자리에서 떠메고나가는 당당한 주인의 모습이 아니였을가.

주인이 되기는 했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고향에 돌아와 관리위원장도 되고 리당비서로도 되였다. 그럼 그 아들들이 주인구실을 하는가? 함께 보조를 맞춰 농장발전의 앞채를 메고 달리고있는가?

가슴저린 추억을 밀어내고 이번에는 채아바이의 심중한 목소리가 되살아났다.

얼마나 량심을 여지없이 후려치는 신랄한 비판이였던가. 너무한것같으면서도 엄연한 사실이기때문에 잊혀지지 않고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것이리라.

그는 당원들이 그렇게 예리한 눈길로 자기의 속내를 샅샅이 뒤져보고있는줄도 몰랐다.

여직껏 그는 익살로 사람들과 허물없이 어울리고 활량다운 처세로 사람들의 호감을 사왔었다.

그러면서도 언제한번 농장원가정에 들리여 솥뚜껑을 열어본적도 없었고 그들과 무랍없는 사이되여 그 무슨 걱정거리 같은것을 의논해준적도 없었다. 그는 요즘에야 군중의 외면을 당하는 일군의 고독과 고뇌를 절감하였다.

언젠가 인혁이 《자기만을 위해 사는 존재》라고 자기의 면모를 총평해준 말마디가 생각났다.

기가 막혔다. 가슴은 저미듯이 쓰라리였다. 그토록 가식을 모르는 가정, 인정이 슴배인 식솔과 함께 자란 인혁은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사는데 자신은 왜 이렇듯 덟어졌는가!

세월의 흐름과 함께 차츰 희미해져가는 그 시절, 그 생활이 더없이 소중함을 그는 이제 비로소 절감하게 되였다. 평생 마음속깊이에 간직하고 살았어야 했을 그 소중한 시절, 그 귀중한 생활을 너무도 쉽게 잊을번 한 그였다.

언제인가 인혁이 몹시 흥분하여 자기를 꾸짖던 말이 떠올랐다.

《우리 만약 당의 은혜를 잊고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면 어머니들의 당부를 배반한것으로 되고 부모들을 모욕한것으로 되지 않겠나.》

그때 나는 인혁의 말을 왜 깊이 새겨듣지 못했던가. 그랬더라면 내 모양새가 오늘처럼 되지는 않을수도 있지 않을가.

요즘에 와서 리당비서의 지적이 신랄해지고 가차없는 당원들의 비

판을 받으면서 은근히 고까운 생각을 품어온 수환이였지만 이 시각 생각이 달라지는 자신을 어쩔수 없었다. 인혁의 태도가 단호하고 비판이 랭혹할수록 마음은 역시 그한테로 쏠리게 되는것이였다.

그가 앞채를 멘 공사—혹한에도 주접을 모르고 돌진하는 진수렁공사도 기필코 기한전에 끝나게 되리라는것은 이제 와서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튿날 그는 거름반출이 격정되여 6작업반에 나온 강욱이와 만났다.

강욱은 거름을 한창 실어내는 퇴적장에 슬그머니 다가왔다. 그는 수환의 곁에서 삽질을 하며 우선우선한 얼굴로 허리증이 좀 어떠냐고 례사롭게 물었다.

《퍽 나아졌습니다.》

《요새 관리위원장이 이끌어주니 거름내는 실적이 올라가더구만. 더구나 필지별 토양분석표대루 거름을 내니 과학적이구 농장원들의 반영도 좋아. …》

그가 푸근한 목소리로 칭찬하자 수환은 송구스러워했다. 새롭게 보게 되는 수환의 모습이다.

강욱은 한동안 삽질만 하며 거름을 한달구지 실어보낸 다음 허리를 쭉 폈다.

《내 요즘 인혁동무나 수환동무를 대하면 자연 지난 전시가 불쑥불쑥 머리에 떠오른단 말이요. 그때 강보에 싸인 자네들은 포근한 방안이 아니라 기총탄과 파편이 날리는 포전머리가 요람이였구 자장가가 아니라 폭음속에서 어머니들의 얼굴을 익혔지. … 지금두 쉴참이면 잔등에 잔뜩 위장을 한 어머니들이 포전머리에 달려나와 자네들을 품에 안고 행복의 웃음을 짓던 일이 눈에 선하네.》

강욱은 숨을 돌리고나서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때 어머니들이 자네들의 그 맑은 눈을 들여다보며 바라고 희망한것이 무엇이였겠나. … 그걸 평생 잊지 말아야지. 인혁동무를 보게. 그 시절의 어머니마음을 소중히 간직하구 당의 뜻이라면 지체없이 실행하려구 제 한몸 바쳐 일하지 않소. 동무도 인혁이처럼 대중의 눈빛을 거울루 삼구 분발해서 일했으면 하오.》

수환은 북받치는 격정에 더 무어라고 대답을 못했다.

×

인혁은 길을 걸을 때에도 생각을 굴리며 걸었다. 지금 밤길을 걷는 그의 머리를 무겁게 하는것은 렴지춘의 문제였다.

관리위원회 당원들속에서 렴지춘에 대한 의견들이 심각히 제기되였다. 이마를 맞대고 일하면서도 실지 누구인지 알수 없는 사람, 함께 일할수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말하고있다.

제기되는 일들로 하여 가뜩이나 생각이 많은데 오늘은 현장에 나온 병원당세포비서와의 담화과정에 안해가 최근에 와서 자기 일에 성근하지 못하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환자에 대한 정성이 부족하고 오처방까지 낸적이 있다고 한다.

필경 제 동생 혼처문제에 온 정신을 팔며 그렇게 치료사업을 깐지지 못하게 했을것이다. 안해의 일이 민망스럽기 이를데 없었다.

인혁이 부지런히 걸어 리당에 이르렀을 때 부비서방에서 나오는 기사장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기사장은 반색하며 《비서동무를 마침 만났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기사장동무, 그럼 방에 들어갑시다.》

인혁은 앞서서 자기 방에 들어가 키낮은 사무탁앞에 앉으며 기사장을 자기와 마주앉도록 손짓하였다.

인혁은 오래간만에 전자벽시계의 초침소리외에는 소음 하나 없는 사무실에 들어와앉았다. 낮과 밤의 개념마저 혼탁된 요란한 공사장에서의 소음과 방금전 자기의 머리를 괴롭히던 일들도 다 꿈결이거나 먼 지난 일들처럼 아슴푸레하게 련상되였다.

인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 영농준비는 착실히 돼가고있다지요?》

《예, 계획대로 추진되고있습니다. 사실 제 오늘 밤 비서동무를 찾아 공사장에 가려던 참이였습니다.》

《왜, 무슨 일이 제기되였습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난 솔직히 요즘 비서동무를 대할 면목이 없습니다.》

《갑자기 그건 또 무슨 말이요?》

인혁은 의아한 표정으로 급히 반문하였다.

기사장은 회오에 질은 얼굴을 수굿하고 진중하게 말하였다.

《지금사태를 놓고보면 결국 관리위원회가 이끄는것이 아니라 제동기노릇 한셈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내가 기사장의 자격도, 당세포비서의 자격도 없는가 봅니다. …》

인혁은 잠자코 듣다가 푹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자격문제로 말하면 내 경우도 다를바 없다구 봅니다. 그게 어찌 기사장동무의 혼자 잘못이겠소. 다 내 잘못이지요.》

《그걸 어떻게 비서동무가 책임지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일에서 당비서가 책임지지 않을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업이 힘든거지요.》

사실 인혁은 조수환이나 렴지춘이 그렇게 된 기본책임이 리당에 있다고 보았다.

그들의 결합은 결코 우발적인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잠재하고 자라온것이였다. 그렇다면 그동안 리당은 무엇을 하였는가. 그러한 상태를 모르고있은 그자체도 엄중한것이지만 알고도 이내 바로잡지 못한것 역시 용납될수 없는것이였다.

그리하여 전날 밤 인혁은 리당부비서와 마주앉아 자정이 넘도록 심각히 자기들의 사업을 총화했었다.

부비서는 침중한 얼굴로 이번 일을 두고 한자리에 오래 고착돼있다고 하여 실정에 남달리 밝은것도 아니라는것과 문고리를 먼저 잡고 귀맛좋은 말만 하는 일군들에게 의거해버릇하면 진실과 허위가 혼돈되고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굳어질수 있다는 심중한 교훈을 찾은데 대하여 허심히 총화하였다.

인혁이도 비록 리당비서로서의 사업년한은 짧지만 일군들속에 내용없는 걸치레, 실속없는 처세, 설익은 거드름의 외피를 쓰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현상이 있는걸 알면서도 곪기 전에 미리 결패있게 바로잡지 못한 사실을 수환의 결함과 결부하여 자기 총화를 진지하게 했었다. …

인혁은 무겁게 말을 이었다.

《이번 공사가 비록 힘은 들어두 그 과정에 모르고 지내던 일군들의 뒤모습까지 숨김없이 알게 된것이 큰 교훈이라고 보우.》

《옳습니다. 시련을 헤쳐나가는 길이 사람들을 교양하는 과정으로 된셈입니다.》

《그렇단 말입니다!》

인혁은 긍정하였다.

이때 전화종이 다급하게 울렸다. 인혁은 급히 송수화기를 들었다.

《김인혁이 전화받습니다.》

《리당비서동무요? 내 류순기요.》

《책임비서동지, 안녕하십니까?》

《밤늦게 전화해서 안됐소. 현장에 전화하니 리당에 들어갔다길래… 비서동무, 계획부원 렴지춘동무와 관련한 문제를 보고받았소?》

《예. …》

인혁은 리당부비서를 통해 군당에 제기된 내용을 알고있었다.

《관리위원회 일군들은 일치하게 그를 현직에서 떼여 로동시키자는데 비서동무만은 현직에 그냥두고 책임적으로 교양하겠다면서…》 하고 류순기는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듯 말을 끊고 잠잠히 있다가 걸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긴 부원 한사람에게 책임을 지워 그를 뗀다구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따져놓고보면 근원이야 조수환동무에게 있지 않겠소.》

《아닙니다. 기본은 제 잘못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책임문제를 론하자면 군일군들의 책임두 크지. 조수환동무의 그 삐여진 허울에 반해있었단 말이요. 사람들이 그 미끈한 외모와 장대한 체구, 그럴듯한 말재주에 반했지. 실지 오늘에 와서는 일에 뼈심을 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되였는데 지금 군의 적지 않은 일군들은 금주리 하면 조수환을 먼저 생각하며 그의 본래의 모습을 리상화하고있단 말이요. 흔히 그런 일군들은 자기를 잘 치장하는것처럼 아래사람들두 겉만 보구 평가하고 아래사람들의 결함을 느끼지 못하는 법이요. 조수환동무가 계획부원도 제 본을 닮게 만들었단 말이요.》

인혁은 류순기의 분석이 심각한데 놀랐다.

《군중관을 세워야겠소. 군중을 믿지 않는 일군을 군중이 따를게 뭐요. 동무나 나나 사람들속에 열번 들어가 귀맛좋은 말을 듣기보다 한번 들어가도 그들의 속마음을 아는게 더 유익하단 말이요. 군중속에 몸만 잠그지 말구 군중과 호흡을 같이해야 참일군이 된다 그거요.》

《옳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두 그렇구 사람을 아끼는 측면에서도 그렇구 렴지춘동무를 현직에 두고 책임적으로 교양하겠다는 리당비서동무의 의견에 나도 찬성입니다.》

인혁이 노루등작업장에 이르자 온 작업장은 전에없이 흥성거리였다. 한정길이 창안한 미끄럼대식흙운반시설은 설치되자마자 당장 은을 내여 온 공사장에 파문을 일으켰다. 설비를 전개한 첫날에 벌써 숱한 로력을 절약하면서 흙운반실적을 대뜸 두배로 뛰여올렸다.

현장마이크를 통하여 별옥의 흥분된 목소리가 온 공사장에 창창하게 울려퍼졌다.

《한정길동지가 창안제작한 미끄럼대식흙운반시설의 미끄럼판으로는 지금 쐐기형기계로 들부셔낸 흙더미들이 그대로 흘러내리고있습니다. 오늘 흙운반계획도 이미 넘쳐수행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동지들! 한정길동지를 비롯한 기술혁신조성원들을 열렬히 축하해줍시다!…》

현장에 이 소식이 요란하게 울려퍼지자 돌격대원들은 한정길에게 와 달려들어 그를 제잡담 공중에 올려띄웠다.

어망결에 허공에 띄워져 기급해난 한정길은 금방 숨넘어가는 소리를 내질렀다.

《아니, 이러지들 마시오. 제발 이러지들 말아주우. …》

돌격대원들은 온 공사장이 떠나갈듯 웃어댔다.

인혁이도 공중띄움을 당하며 너무 황급해나서 어쩔줄 몰라하는 한정길의 어색한 모양을 보고 한바탕 웃었다.

그새 가슴에 서리여있던 구름은 씻은듯이 사라지고 마음은 저절로 흥겨워졌다.

41

한정길의 가슴은 터질듯 부풀어올랐다.

(내가 로동당원이 되다니?!)

꿈아닌 현실이면서도 꿈만 같았다.

당원증을 가슴에 소중히 품은 그에게는 하늘의 무수한 별들도 웃음어린 눈빛으로 축하해주는듯, 집집의 불밝은 창문들도 류달리 정겨웁고 포근하게 손저어주는듯싶었다.

한정길의 마음은 줄곧 희열에 끓어넘쳤고 두볼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눈앞에는 문득 아버지의 순직이야기를 들려주던 인혁의 인정넘치는 얼굴이 떠올랐다. 그 얼굴은 이어 과묵하던 아버지의 얼굴로 엇바뀌였다.

오늘따라 아버지가 어린 자기를 무릎우에 앉히고 들려준 이야기, 철이 들면서 새록새록 마음에 새기게 되던 그 이야기가 가슴에 사무쳐왔다.

한정길은 원래 원평태생이였다.

정길의 아버지는 전쟁시기 부모를 다 잃고 방황하댔는데 당에서 그를 한품에 안아 초등학원, 중등학원을 거쳐 대학공부까지 시켜주었고 원평제련소 기사, 책임기사, 부기사장으로까지 내세워주었다.

아버지는 그 은덕이 하도 고마와 눈물지으면서 어린 정길에게 어서 커서 대학공부도 하고 당원도 되여 많은 일을 하고 당의 은혜에 보답하라고 이야기해주군 했었다.

아버지를 여읜 후 한정길은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농업기관에 좀 근무하다가 자기 희망을 꽃피울 일념으로 금주리에 자원진출해왔다.

그는 금주리에 와서 인차 초무연탄을 연구과제로 정하고 얼마나 흥분했던지 모른다. 그는 자기 희망대로 그 중요연구과제를 기어코 실행하는것으로써 아버지몫까지 합쳐 고마운 당의 은덕에 반드시 보답하고싶었다. 그 연구과제는 현실적으로 한시도 미룰수 없는 긴절한것이였다.

허나 그때까지만 하여도 초무연탄연구문제는 사람들의 생각 밖에 있었다. 그저 결실이 막막한 연구과제로 가볍게 단정해버리고 거들떠보려고도 안했다.

한정길이 처음 왔을 때 그를 리해하는 사람도, 그 절박한 연구과제의 타당성을 인정해주는 사람도, 그의 실력을 보증해나설만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것만큼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의 창조적열정에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그후 리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과 용기를 얻어 본신임무와 더불어 연구사업에 직심스럽게 달라붙었다.

참으로 그 나날 얼마나 모진 정신적고초와 모대김인들 없었으랴!

한해동안 단 한번의 시험기회밖에 없는 계절조건에 대한 안타까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불신, 해를 거듭 넘겨도 결과묘연한 그의 연구사업에 대한 조소와 비난…

한창 젊을 때 이러한것들을 묵묵히 이겨내기란 참으로 눈물겹고 힘에 겨웠다. 하지만 그 괴로움의 중압에 눌리워 결코 그 연구과제를 포기할수는 없었다. 그것은 곧 자신의 파멸을 의미했다. 아니, 그보다도 그 연구과제는 당에서 오래전부터 내놓은 중대한 과제가 아닌가!
고심어린 나날속에 마침내 연구사업이 성공했을 때 온 농장이 놀랐고 한정길은 푸르싱싱한 벼포기들을 그러안고 눈물을 지었다.
아, 그런데 천만뜻밖에 농약건이 제기될줄이야 꿈엔들 생각했겠는가!
한정길은 금시 눈앞이 캄캄했다. 딛고 선 땅도 금방 지진에 마구 뒤흔들리며 걷잡을수없이 꺼져내리는듯 더이상 자신을 지탱할수 없을것같았다. …
로동당원!
그렇게도 꿈결에도 갈망하던 소원이 비로소 오늘에야 성취된것이다. 그는 다시금 목이 콱 메였다.
불현듯 허구한 나날 갖은 시름을 묵새기며 생활의 지레대가 되여준 안해의 얼굴이, 군당으로 떠날 때 동구밖까지 따라나서던, 눈물이 가랑가랑하던 선초의 얼굴이 번갈아 눈에 밟혀왔다.
부리나케 다그치는 발걸음도 별로 더딘것만 같아 마음이 다급해졌다.
마치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의 입당소식을 알고 기뻐하고 축복해주는것만 같았다.
그가 단숨에 령길을 오를 때 가마고개마루에서 담배불찌인지 불꽃이 번뜩이는것 같아 자세히 살피며 내처 걸음을 다우쳤다.
그것은 불꽃이 아니라 가물가물하는 불길이였다. 의혹을 품고 고개턱에 다달은 그는 어느 밤길손이 누구나 의례 그러하듯 고개마루에 올라 모닥불을 피우고 잠시 다리쉼하는거라고 짐작했다.
거리가 가까와졌을 때 그는 너울너울 춤추는 불그림자에 거인처럼 올리막길을 마주 향해 앉은 인혁을 알아보았다.
한순간 그는 눈시울이 찡 달아오르며 모닥불빛이 뿌예지고 가슴은 널뛰듯 활랑거렸다.
《비서동지!》
한정길은 목메여부르며 급히 다가갔다.
《정길동무요?》
인혁은 고개를 번쩍 들더니 초조히 기다린듯 움쭉 일어나 마주왔다. 그의 어깨에서 김이 문문 피여올랐다.

한정길은 어푸러질듯 하며 막 달려가 불온기 느껴지는 인혁의 품에 와락 안기였다. 인혁이도 한정길을 으스러지게 그러안았다. 한정길은 격정에 목메여 흐느끼였다.

인혁이 역시 목이 메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군당에서 밤중에라도 가야 한다며 떠났다고 전화로 알리더군.》

《비서동지! 고맙습니다.》

한정길은 인혁의 뜨거운 체취를 느끼며 다시금 가슴이 찌르르해졌다. 비록 2년이라는 짧은 동안이지만 자기를 그토록 진정으로 이끌어준 당비서를 그는 평생 잊을것 같지 않았다. 그가 먼 공사장으로부터 여기까지 마중나와 기다려주리라고도 생각지 못했었다.

인혁은 입당소식을 몹시 고대할 가족들한테 한시급히 달려가고싶을 그의 심정을 헤아려 인차 모닥불곁을 떠났다. 한정길은 인혁이와 나란히 걸으면서 저으기 격정어린 목소리로 말하였다.

《비서동지, 오늘 정작 당원증을 수여받고보니 저의 입당심의를 하던 당세포총회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잊어서는 안되지. 붉은 당기앞에서 다진 맹세대로 한생을 혁명가로 빛나게 살아야지.》

《알겠습니다, 비서동지!》

《한정길동무, 당원이란 오늘 부강조국건설대전의 맨 앞장에 서는 선봉투사를 의미하오. 나는 동무가 당의 뜻을 실천으로 받드는 참다운 기수가 되기를 바라오!》

《비서동지,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들은 록새벌의 야경을 한눈에 굽어보며 령을 내렸다.

밤작업이 한창이여서 우등불과 홰불이 온 록새벌을 움직이는 별무리마냥 뒤덮었다. 억세인 숨결로 파동치는 이러한 밤풍경은 오히려 낮풍경보다 더 장관이였다.

인혁은 또 한명이 당대렬에 들어선 이 뜻깊은 밤, 이 길을 한정길이와 함께 걷고싶었고 이 영광의 밤을 오래오래 가슴속에 간직해두게 하고싶어 가마고개까지 마중나온것이였다.

그지간 영농준비사업에 푹 파묻혀 공사장에 미처 얼굴을 내밀지 못했던 수환은 공사형편이 어지간히 궁금하였다. 공사형편이자 곧 농사형편인것만큼 그의 마음은 자못 불안했다. 그래서 그는 오늘은 먼저

공사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른아침이였으나 벌써 쌀쌀한 기운이 덜해지고 날씨는 한결 푸근하였다.
그는 머리를 수긋하고 느릿느릿 걸었다. 본시 장대한 몸집에 뻣뻣하던 그에게 머리를 수긋하고 걷는 버릇도 요즘에 붙은것이였다.
어느덧 공사장초입에 이르러 무심결에 얼굴을 들고 먼눈으로 공사장을 살펴보던 그는 흠칫하고 걸음을 멈추었다.
(아니, 이렇게 될수 있나?!…)
그는 두눈이 화등잔같이 휘둥그래졌다.
(내 길을 헷갈린걸가, 아니면 환각일가?…)
며칠전까지만 하여도 노루등이 절반정도로 잘리웠댔는데 지금은 밑둥만 봉긋하게 남아있는게 아닌가! 그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머리가 뗑하여 사방을 두리번두리번 가늠해보았다.
확실히 얼마전에도 노루등에 반쯤이나 가리웠던 먼 진달래봉의 전모가 분명 지척에 우뚝 안겨오는것이였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처럼 방대하기 이를데 없던 난공사가 벼락같이 마무리단계에 이르렀단 말인가?!…)
그는 소스라치듯 놀라며 혀를 내둘렀다. 선자리에 굳어진채 움직일줄을 몰랐다.
솔직히 그는 당원협의회에서 당원들의 심각한 비판과 인혁의 랭혹한 비판을 받으면서까지도 또 자기의 한생을 검토총화하면서도 공사는 지금의 형세로 보아 4월 중순까지 준공하기가 바쁠거라고 생각했었다. 아무리 숨가삐 다몰아댄대도 모내기대목까지는 걸릴것으로 타산했었다.
그러나 돌격대원들은 맨주먹으로 엄혹한 시련을 극복하고 보란듯이 자기의 예상을 뒤집어엎은것이였다.
(인혁이! 역시 자네답군!)
수환은 코마루가 찡해지였다.
그는 인혁의 기세에 기가 질리고 그 기세가 자랑스럽기도 했다! 마음속에 검질기게 남아있던 의혹의 구름부스레기도 날려가버렸다.
인혁이가 정장선, 한정길, 진혜정 등 아래사람들을 이끌고 진심으로 떠밀어준 비결도 새삼스럽게 절감되였다.
얼마전 수환은 당세포비서인 기사장과 조용히 마주앉아 처음으로 자

기의 흉금을 터놓았었다.
본래 자존심이 강한 수환은 사업에서 빈구석이 없이 철저하고 여무진 기사장을 허투루 대하지는 못하면서도 그를 나이가 젊고 경력도 어리다고 하여 속으로 은근히 눈아래로 보는터였다.
요즘 너무나도 베찬 심적고통에서 헤매고 자신을 타매하는 생각도 짙어져 지난날 실무적인 상종밖에 안해오던 기사장의 허심없는 충고라도 받고싶어 스스로 찾아가 만났다. 정작 그앞에 자기의 속내를 말끔히 털어놓고나니 속이 후련해지고 지어 미리 그랬더라면 오늘과 같은 지경에 이르지 않을것이라는 생각까지 들게 했다.
기사장은 그날 자기가 우환거리로 따돌렸던 진혜정의 속생각과 인혁이가 그것을 알고 그의 언 마음을 풀어준 사실의 전말도 상세하게 들려주었다.
《나는 우리 일군들이 리당비서동지처럼 사람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감정과의 사업에 사심없는 진심을 바칠 때 대중의 무한대한 힘을 최대한 발동시킬수 있고 그들모두를 우리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킬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였습니다. 자신을 부단히 수양하지 못할 때 시대의 선각자는 고사하고 전진의 훼방군이 될수도 있지요.》
기사장은 진중한 목소리로 차근차근 이야기해주었다.
그 말을 놀랍게 들으며 수환은 바로 그 힘, 자기에게는 없었던 그 막강한 정신적힘의 폭발이 마판진수렁을 옥토로 전변시킬수 있는 원동력으로 되였다는것을 통감하게 되였다.
그는 이러한 비약적인 현실을 외면하고 오랜 경력자, 상당한 능력자연 하며 으시대온 자신이 과연 얼마나 용렬한 인간이였던가를 통절히 느끼게 되였다.
이때 공사장쪽에서 건드러진 무도곡이 요란스럽게 울려왔다.
신바람난 돌격대원들이 멋들어진 손풍금반주에 맞추어 덩실덩실 춤판을 벌린것이였다.
(이제라도 내가 공사의 한몫을 맡아해야 한다!)
그는 결연히 돌따서서 기계화작업반쪽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수환은 이내 기계화작업반에 가닿았다.
수리공들은 거의 모두 46호에 달라붙어있었다.
46호는 예상보다 고장이 심하였다. 그래서 기계화반에서는 그사이 다른 뜨락또르를 공사에 동원시키고 46호를 아예 새 차처럼 수리

해서 내보내기로 토론했었다.
수리공들은 이미 조직사업을 한대로 46호에 달라붙어 용접을 한다, 부속품을 갈아 조립한다 하며 온통 기름투성이되여 볶아치고있었다.
그들의 작업모습을 잠간 살펴보던 수환은 제잡담 팔을 걷어붙이고 수리작업에 착수했다.
나이지숙한 수리공이 《아니 관리위원장동지, 그만두십시오. 옷을 마치겠습니다.》하고 손을 못 대게 말리자 다른 수리공들도 한마디씩 하였다.
《위원장동지, 념려마십시오.》
《우리끼리라도 얼마든지 해놓겠습니다.》
수환은 그들이 그러거나말거나 히뭇이 웃으며 곧 축물개, 후교부 등 동력전달장치부분에 손을 대였다.
《동무들, 좀 서두르기요. 조금이라도 어물대다간 46호를 공사장에 들여세워보지도 못할것 같소.》
수환이 채근하는 말에 코잔등에 기름때 묻은 애젊은 수리공이 눈이 올롱하여 되물었다.
《왜 말입니까?》
《왜라니? 지금 돌격대원들이 번개불에 콩닦아먹듯 일을 해제끼는 판이란 말이요. 조금만 늦잡아보라구, 46호는 퉁퉁거리며 준공식에나 참가하게 될거란 말이요.》
수환의 말에 수리공들은 와― 하고 웃었다.
손에 잡히는대로 제꺽제꺽 해제끼는 수환의 펄쩍나는 일솜씨에 수리공들은 눈이 휘둥그래졌다. 한시가 급했다. 잠시도 일손을 늦추지 않는 수환의 말없는 독촉에 수리공들도 바싹 긴장하여 일손을 부리나케 다그쳤다. 이렇게 달라붙어 다음날에 46호는 생생한 원래의 모양을 도로 갖추게 되였다. 부속들도 다 새것으로 갈아맞추거나 원상대로 수리했다.
밤이 퍽 깊어서 시동을 걸었다. 그때까지도 기계화반을 뜨지 않은 수환은 시운전을 한사코 자기가 한다며 운전수를 옆에 앉히고 운전대를 잡았다.
한편 노루등밑등을 마지막으로 들어낸다는 소식은 삽시에 온 농장을 흥분의 도가니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이 소식에 그중 반응이 빠르고 강렬한것은 진혜정이였다. 그는 이

소식이 전해지기 바쁘게 작업반의 모든 농장원들을 이끌고 공사장으로 달려왔다.

그들은 한사람같이 새 질통을 일매지게 지고 기계 움직이듯 흙운반작업에 열을 올렸다. 7작업반 농장원들의 걸싼 일솜씨는 돌격대원들의 기세를 더한층 북돋아주었다.

날이 저물자 진혜정은 홰불방망이를 들고 맨 앞장에 서서 농장원들을 줄기차게 고무했다.

《동무들, 좀더 힘을 내자요. 우리 7반의 본때를 보이자요!》

7작업반 농장원들은 《여이싸!》의 합창을 서로 주고받으며 흙운반을 부리나케 다그치였다. 진혜정은 번열이 나는듯 머리에 쓴 목도리를 훌 벗어 목에 걸치고 씨엉씨엉 흙짐을 날랐다.

오늘 밤 역시 흙운반작업에 뛰여든 한정길은 진혜정의 야심이 슴배인 빈틈없는 일솜씨에 탄복하였다. 땀에 젖은 갸름한 얼굴, 작업반원들을 이끄는 힘찬 호소, 탄력있는 몸움직임… 정말 그의 열정과 힘은 끝이 없을것 같았다.

혜정은 질통을 지고 마주오는 한정길을 보고 반색하였다.

《한정길동무, 입당을 축하합니다!》

한정길은 뜻밖의 축하에 어떻게 응답할지 몰라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정말 기뻐요. 윤선생은 또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고맙습니다. 진혜정동지랑 다른 동지들의 따뜻한 믿음과 기대를 평생 명심하고 살겠습니다.》

한정길은 가슴이 뭉클하여 목메인 소리로 대답하였다.

별안간 전투장의 온갖 소음을 압도하며 별옥의 창창한 목소리가 높이 울렸다.

《전투원동무들!— 우리는 드디여 노루등밑둥을 결딴내는 최후돌파전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이 돌파전의 맨 앞장에서 달리는 진혜정동지를 비롯한 7작업반 전투원들의 과감한 기세에 모두 발을 맞춥시다.

승리는 바로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엄혹한 겨울을 길들인 그 억척의 기세로 총공격하여 승리의 함성으로 새아침을 맞이합시다!…》

별옥의 선동과 구호의 웨침은 확성기에 대고 하는것만큼 온 전투장을 쩌렁쩌렁 울리였다.

전에없이 원기왕성하고 결패있게 흙운반도 도우며 진행하는 그의 선동에 돌격대원들은 가일층 기세를 높여 와와 노루등밑둥을 허물어냈다.

수환은 별옥의 창창한 목소리를 들으며 감개무량한 표정을 짓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가슴이 찌르르해지고 눈시울이 화끈거렸다.

야밤의 공사장정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였다.

홰불방망이와 모닥불빛이 온 공사장을 한벌 뒤덮었다. 뜨락또르의 동음속에 밀차가 지심을 울리며 살같이 달리고 삭도는 너울거리는 줄을 타고 허공으로 흘렀다. 질통을 지고 들것을 든 사람들로 백열전을 이룬 이렇듯 줄기찬 흐름은 마치도 끊임없이 밀려가고 밀려오는 파도를 방불케 했다.

바로 그 한복판으로 46호가 발동소리 요란히 기세차게 달려오자 돌격대원들은 또다시 환성을 올렸다.

《동무들, 46호요! 46호도 살아났소!》

그 환성은 기름에 불달리듯 삽시에 온 공사장을 울렸다.

빈 밀차를 밀고 노루등밀둥어방에 들어서던 별옥은 46호라는 웨침소리에 무춤하고 걸음을 멈추었다. 46호라는 말에 그는 가슴이 활랑활랑하였다.

어제 공사장에 로력지원을 나왔던 어머니는 아버지가 46호에 붙어서 집에 얼씬하지 않는다고 했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특별히 좋아하는 잎담배 썬것이라고 하면서 자그마한 봉지를 주고갔다.

별옥은 그 담배봉지를 안주머니에 깊이 간수하고 다녔다.

(아버지는 안 오셨을가?…)

그의 눈에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운전수를 옆에 앉히고 운전대를 잡은 조수환을 아직은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다.

별옥은 돌격대원들이 46호의 느닷없는 출현을 그리도 기뻐하는것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건설장에 펼쳐진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며 자꾸 가슴이 벅차올라 뜨거운것을 삼켰다.

46호는 그간의 밑진 봉창이라도 하려는듯이 곧 작업에 착수하였다. 불빛에 삽날을 번뜩이며 기운차게 노루등흙을 뭉청뭉청 깎아내였다.

수환은 간단없이 요동치는 뜨락또르의 진동에 등허리가 시큰거렸으나 그런것쯤에 신경쓸 경황이 없었다. 순 자체의 힘, 우리 로력으로 노루등을 허문다는것을 푼수없는 허망한 일로 단정해버렸던 자신의 그릇된 생각을 노루등밀둥과 함께 마구 짓이기는 후련한 심정으로 운전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잡았다.

동녘이 푸름푸름 밝아올무렵에야 46호를 걸싸게 운전하는 사람

이 다름아닌 조수환이라는것을 먼저 알아본 누군가가 온 벌이 쩡 울리게 소리를 질렀다.

《동무들! 우리 관리위원장동지요! 관리위원장동지가 46호를 몰고 있소!》

그 소리에 누구보다도 놀란것은 별옥이였다.

(46호가까이에서 일하면서도 아버지를 몰라보았구나!)

어느 사이에 정장선이 나는듯이 46호가까이로 달려왔다.

46호에서 내린 조수환의 앞에 헐떡거리며 다가온 정장선은 숨을 톺으며 《관리위원장동지! 돌격대는 현재 노루등을 허무는 마지막전투에 돌입했습니다! 돌격대장 정장선.》하고 군대식으로 쩌렁쩌렁하게 보고하였다.

수환은 그가 자기를 원망할 대신 오히려 밝은 얼굴로 기운차게 보고하는것이 고맙게 여겨졌다. 한편 둥싯하던 그의 얼굴이 눈에 뜨이게 꺼칠꺼칠해진것을 보자 가슴이 아릿했다.

수환은 억한 마음을 걷잡지 못하며 그의 험해진 손을 그러잡았다.

별옥은 한쪽에서 감동을 담고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모두들 작업에 달라붙은 조용해진 틈을 타서 아버지곁에 다가갔다.

《아버지!》

아버지를 찾는 별옥의 표정은 웃고있었다.

《응, 별옥이냐.》

어쩐지 수환의 목소리는 전에없이 갈려있었다. 그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을 슴벅거리였다.

별옥은 솜저고리 안주머니에서 담배봉지를 꺼내였다.

《아버지, 엄마가 보낸거예요!》

수환은 담배봉지를 얼른 받으며 《고맙다.》 하고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동안에 더 가냘파진듯 한 딸의 모습이며 속눈섭에 가랑가랑 맺힌 반짝이는 물기가 왜 그런지 전에없이 애틋한 감정을 자아냈다.

《별옥아, 그새 아버지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지. …》

《그래요!》

별옥은 얼굴을 번쩍 들고 기쁨의 눈물어린 새별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보며 조용히 말하였다.

《아버지때문에 선동원을 그만두겠다는 저에게 리당비서동지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별옥아, 아버지를 너무 원망하지 말어라. 아버지가 비록 말은 좀 듣지만 우리 고향땅을 지켜 피흘린 부모의 후대답게 록새벌을 뼈심들여 가꾸던 그 본심이야 달리될수 없지 않느냐. …〉》

수환은 목이 꺽 메여올랐다.

그는 딸의 눈길을 피해 먼 하늘가를 바라보았다.

새벽빛에 별들이 희바래여지다가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겨우내 버티던 노루등은 마치 거대한 검에 뭉텅 밑둥을 잘리운듯 없어지고말았다. 전투원들은 나머지흙을 진수렁터에 날라가느라 법석하였다.

바로 이 이른새벽이, 바로 이 순간이 얼마나 숭엄하고 길이 전해질 위대한 력사의 순간이였는지 돌격대원들도 농장원들도 그때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동녘하늘에 눈부신 해가 솟아오르는 청청한 아침, 뜻밖에 온 록새벌을 진감시키며 군방송차가 공사장으로 살같이 달려왔다. 방송차가 삐—익 하고 멎기 바쁘게 군당책임비서 류순기가 훌쩍 뛰여내렸다.

키가 후리후리한 그는 들끓는 공사장의 정경을 휘둘러보며 누군가를 눈으로 찾았다.

그때 돌격대원들속에 섞이여 마감전투를 지휘하던 인혁이 어느결에 류순기한테로 반달음해왔다.

류순기는 희색이 만면한 얼굴로 인혁의 두손을 덥석 감싸쥐였다. 그리고 격정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인혁동무! 기뻐하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늘 새벽 현지지도의 길에 저 가마고개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동무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친히 보아주시였습니다!》

《네?!…》

한순간 인혁은 격정으로 하여 귀가 멍멍해지고 온몸의 피가 끓어번지는듯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들의 작업모습을 친히 보아주시다니?!)

정녕 현실아닌 꿈만 같은 격동적인 사실앞에 인혁의 가슴은 한없이 들먹이였다.

돌격대원들과 농장원들은 군당책임비서가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최후돌격전을 벌리는 전투원들을 고무격려해주기 위하여 나온것으

로 여기고 일손을 더 빨리 다그쳤다.
류순기는 방송마이크를 잡았다.
《동무들!》
격정에 넘친 그의 목소리가 온 공사장에 쩌렁쩌렁 울려퍼졌다.
《동무들! 위대한 장군님께서 동무들의 작업모습을 친히 보아주시였습니다!》
순간 온 공사장은 물뿌린듯, 온 천지가 숨죽인듯 일체 소음이 딱 멎었다.
질통을 진채로, 들것을 든채로, 손삭도와 밀차도 멎은채로 방송차의 바로 옆 흙더미우에 올라선 류순기에게로 일시에 눈길을 모았다.
군당책임비서는 크나큰 격정과 흥분으로 하여 목소리가 떨리는모양 잠시 말을 잇지 못하였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오늘 새벽 저 가마고개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동무들의 작업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 어려운 때 자체의 힘으로 큰 진수렁을 메우고 알곡생산면적을 늘이며 자기 고향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려는 동무들의 꿈과 기세가 얼마나 훌륭한가, 강성부흥할 래일에 대한 희망을 안고 밤을 새우며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동무들의 모습이 정말 장하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뒤이어 천지를 진감하는 《만세!》의 함성이 터져올랐다.
인혁의 격동된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북받치는 감격과 기쁨에 젖은 진혜정의 얼굴에도, 한정길의 얼굴에도, 정장선이와 조별옥의 얼굴에도 아니, 모든 전투원들의 얼굴에 격정의 눈물이 흘렀다. 인혁은 심장이 숨가쁘게 들뛰였다.
(꿈이 바로 현실로 되였구나!)
참으로 천만뜻밖이였다.
고향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려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이의 피로를 잠시라도 덜어드리고싶은것이 간절한 소원이였는데 오히려 우리들을 평가하여주시다니!
인혁은 이미전에 금주땅을 훌륭하게 꾸려 장군님께 일신된 고향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아쉬움을 금할수 없었다.
이때 인혁의 손을 슬그머니 잡는 사람이 있었다. 조수환이였다.
《인혁이!》
《수환이!》
눈물이 글썽한채 마주보며 서로 잡은 손들에 더 힘을 주기만 했다.

격정으로 울렁이는 두 마음속에 어머니들의 정겨운 목소리며 두사람사이의 천만사연도 뜨겁게 굽이치고있었다. …

수환의 가슴은 한없이 부풀어올랐다.

장군님께서 46호를 운전하는 자기의 모습도 친히 보아주신것만 같이 느껴졌다.

장군님께서 그렇게도 장하게 보아주신 무수한 전투원들속에 자기도 서있었다는 영광과 긍지와 행복감을 금할수 없었다.

영광의 록새벌은 온통 열정의 불도가니로 화했다.

×

록새벌의 봄은 때이르게 찾아들었다.

모진 혹한뒤에는 봄도 서두르는듯 옥련봉의 눈은 녹아 얼룩소잔등처럼 얼룩얼룩해지고 한낮의 록새벌에는 땅김이 모락모락 피여올랐다.

바야흐로 봄기운이 풍기자 인혁은 더욱 바빠났다. 한시가 새로와 한정길이 10대째의 수평정지기를 만들고있는 작업장에 들리기도 하고 변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수시로 도상사와 전화련계를 가지여 공사에 필요한 마감자재 같은것도 해결받게 하였다.

원래 상사에는 부위원장이 가게 되여있으나 수환은 한사코 자기가 가겠노라고 나섰다.

인혁은 딱 잘라맸다. 그는 요즘 수환이 허리증을 가까스로 이겨내며 영농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공사장에 나와 몸을 혹사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렇지만 수환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는 인혁의 팔을 잡아 마당옆으로 끌며 통사정하듯 말했다.

《비서동무가 굳이 막는 심정은 내 알구두 남소. 하지만 이 조수환이두 제발 한몫 기여하게 해주오. 기껏 하루길인데 설마 내 허리가 부러지기야 하겠소. …》

인혁은 그의 간곡한 심정이 리해되여 가슴이 뭉클해졌다.

짙은 안개에 휘감긴 옥련봉은 차창밖으로 멀리 흘러가고있었다. 자동차가 마을을 벗어날 때까지 길가에 그린듯 서있던 인혁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수환은 가슴이 저릿하였다. 그는 마치도 최근 얼마동안에 지난

10여년과도 대비할수 없는 인생체험을 한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지금껏 자기 아닌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것 같기도 했다. 내가 나를 얼마나 모르고 살아왔는가. 자기를 모르니 남도 모르기마련 아닌가.

그래서인지 정장선이나 한정길 같은 사람들이 더없이 귀중한 존재로 안겨왔다. 그들속에서 인혁의 모습은 더더욱 부각되였다.

언제인가 인혁은 롱담처럼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를 한적이 있었다.

《메마른 심장에는 꿈이 깃들수 없고 꿈이 없으면 미래를 안고사는 사람들과 발걸음을 맞출수 없는거야.》

그때 수환은 《자넨 당일군이라기보다 마치 시인이 된것 갈군. 하지만 심장이요, 미래요 하는 시적인 감정세계보다 든든한 팔다리루 일을 냅다 조겨대는 근력이 필요하지 않을가.》하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주었다.

돌이켜보면 인혁은 사람들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민감한 인간이였다. 그것이 뭇사람의 마음을 끄당기는 견인력이 아닐가.

수환이 도상사에서 자재와 부속품들을 싣고 급히 돌아선것은 오후 3시경이였다.

날씨는 내내 찌뿌둥해있더니 오후부터는 함박눈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올해따라 내리는 때늦은 눈이였다.

조바심이 난 수환은 운전사를 독촉했다.

《계속 냅다 밟으라구!》

도에서 군까지의 구간에만도 험한 령을 두개나 넘어야 한다. 그까짓 할딱고개 넘는것쯤은 별문제이지만 물매 급하고 굽이굽이 휘감아오르는 팽돌이고개만은 운전사도 이런 사나운 날 운전하기 힘들어했다.

막상 하나의 고개를 넘고 팽돌이고개에 접어들자 수환은 사뭇 불안하고 초조해졌다. 게다가 날이 별안간 캄캄해지며 눈보라까지 일었다.

운전사는 잔뜩 긴장하여 입을 꾹 다문채 전조등빛을 따라 어릿어릿 다가드는 수북한 눈길을 달렸다.

이따금 차바퀴가 눈무지에 박혀 수환이 삽으로 눈을 말끔히 파내서야 빠져나오군 했는데 그 일이 잦아들자 운전사는 점점 불안해했다.

차가 팽돌이고개턱밑에 이르렀을 때였다. 누구들인가가 흙바닥이 드러나게 눈을 말끔히 쓸어낸것이 알렸다. 온통 눈천지인 령을 시꺼먼 길만이 넓다란 띠처럼 올리휘감고있었다.

혹시 도로관리원의 소행일가 하여 어둠속을 휘휘 둘러보았으나 기승부리는 눈보라에 수림의 소음만 들릴뿐 인적기라군 전혀 없었다.
그들은 의문의 구름에 싸여 차를 령길을 따라 서서히 몰기 시작하였다. 물매가 급한 구배에 새 흙을 깔아놓은것도 알렸다.
《위원장동지, 도대체 어떤 고마운 사람들이 이 밤중에 무인지경의 눈을 쳐주었을가요?》
《글쎄 말이야, 고마운 사람들도 있군.》
수환도 감탄조로 대꾸하며 줄곧 사위를 두리번거리였다.
운전사가 다급한 소리를 질렀다.
《아니, 저길 좀 보십시오! 저 산꼭대기를…》
《어디?》
수환은 운전칸문밖으로 상반신을 쑥 내밀고 올려다보았다.
아닌게아니라 고개마루에 어둠을 태우는 불빛과 얼른거리는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였다. 수환은 운전칸문을 꽝 닫았다.
《밟으라구, 빨리 올라가보자구.》
자동차가 손쉽게 고개마루에 오르는 순간, 수환은 놀라 입을 벌리며 제 눈을 의심했다. 천만뜻밖에도 밝은 전조등앞에 털모자를 꾹 박아쓴 인혁이가 우뚝 서있지 않는가! 그뒤에는 몇명의 돌격대원들이 반가와하며 마주 달려왔다.
《사람들두!》
수환은 목이 꺽 메여 말을 더 잇지 못했다.
(지척도 아닌 수십리길을 눈치러 나오다니?!…)
가슴속에서 뜨거운것을 삼키며 수환은 차에서 내렸다. 인혁이 다가와 수환의 찬 손을 잡아주었다.
《위원장동무, 그 먼길에 수고했습니다. 이놈의 눈이 철도 모르고 내리더라니…》
진정이 풍기는 푸근한 그 말이 수환의 마음을 쩡 울리였다.
인혁은 모두에게 서두를것을 요구했다.
《자, 서있지들 말구 빨리 몸을 녹이구 떠납시다!》
인혁은 수환을 모닥불가로 이끌었다.
인혁은 모닥불에 묻어두었던 새까맣게 탄 감자알들을 나무꼬챙이로 골라낸 다음 어서 하나씩 들라고 독촉했다. 그것 또한 별식같이 느껴져 수환은 뜨거운것을 함께 삼켰다.

자정이 되여 리에 도착하자 운전사는 리식당앞에 차를 삑 세웠다.
그때까지 기다리고있던 나이지긋한 식모아주머니가 반색하며 그들을 맞아주었다. 얼른 솥안에서 뜨거운 국과 밥을 꺼내여 챙기였다.
그런데 인혁이 식당안에 들어오지 않아 수환은 움쭉 일어나 문을 삐걱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차도 인혁이도 온데간데 없었다. 그제야 운전사가 어리둥절해하는 그에게 리당비서가 자기의 등을 떠밀어 식당에 들여보내고는 곧바로 공사장으로 떠났다고 알려주었다.
(원, 사람두!… 나보다 자기가 더 지쳤을텐데 그길로 공사장에 나가다니…)
수환은 김이 문문 피여오르는 구수한 장국을 후후 불며 먹었다. 그러나 더운 국보다 더 뜨거운것이 가슴에 들이켜졌다.
수환은 일군으로서 아직 그 누구에게도 이렇듯 인정을 베푼적 없었고 이와 같은 뜨거움을 준 일도 없었다. 이토록 진실하고 뜨거운 인간미가 어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할수 있으며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부어주지 않을수 있으랴.
수환은 격정을 머금고 (바로 이것이였구나! 그에게는 있으나 나한테는 없는것이 바로 이것이였구나!) 하고 속으로 되뇌였다. 이제와서 수환의 마음은 송두리채 인혁의 곁에 가있었다.
충천하는 공사장의 화광이 오늘은 류달리 그의 마음을 휘감아 끄당기였다.

42

그처럼 광대하고 그처럼 어마어마하던 자연함정을 마지막으로 영영 메꾸어버리던 날 《만세!―》 함성이 우뢰되여 온 록새벌을 진감하였다.
모두들 너무나 기뻐 얼싸안고 빙빙 돌기도 하고 한길두길 뛰기도 하였다.
수수천년 조상대대로 버림을 받아온 그토록 징그럽고 허물처럼 남아있던 수렁터, 금주리사람들의 힘으로는 감히 어쩔수 없다던 마판진수렁은 온갖 비화와 함께 록새벌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고말았다!
마판진수렁구역은 하루가 다르게 옥답으로 변모되여 이제는 그 구

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던지 분간할수 없게 되였다.
요즈음은 렴지춘이도 한몫 단단히 하였다.
인혁의 진심에 넘친 교양과 당원들의 사심없는 방조에 의해 자기 과오를 깨달은 그는 활기를 얻고 돌격대원들과 함께 논두렁짓기든 거름펴기작업이든 닥치는대로 몸을 내대였다.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 농장일에도 적극 몸적시였다.
봄, 희망넘치는 화창한 봄!
마침내 새로운 논벌의 수평고루기작업을 마감짓는 날이 왔다.
장선은 이 소식을 첫새벽에 달려와 할머니에게 알리였다. 그는 금시 날개라도 돋힌 기분이였다.
《할머니, 오늘 아침일찍 꼭 나와보셔야 해요.》
《암, 가구말구. 모두가 온 동삼 술한 고비를 겪은 공산데 이 할미가 안 가겠니?…》
장선은 성수나서 설레발을 치며 아침밥을 게눈감추듯 하고는 급히 문밖에 나섰다. 그는 안심치 않은듯 문밖에 나가서도 또 다짐을 두었다.
《할머니, 바빠서 내 먼저 가는데 뒤따라 늦지 말구 오세요.》
《그러마. 원, 녀석두…》
춘선이 역시 손자의 얼뜬 기분을 그대로 옮은듯 젊은 녀자처럼 흥분되여 부엌거두매를 황황히 서둘렀다.
그는 오늘은 농장의 경사인데 나들이차림을 할가 하다 형세로 보아 손이 딸리면 일판에 뛰여들 작정을 하고 작업솜저고리에 솜신까지 신었다. 벌써 바깥에서 웅성웅성하는 소음이 들려 기분이 더 떴다.
춘선이 서둘러 큰길에 나섰다. 윤옥경과 딸도 걸어오고있었다.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선초가 깍듯이 인사를 하고 옥경이도 고개를 숙여보였다.
《오냐, 참 기특두 하지. 우리 선초가 농업대학에 간다면서?》
《네, 인차 떠납니다.》
옥경이 대신 대답하였다.
《정말 반갑네. 장참 공사장에 붙어사는 애아버지랑 얼마나 기뻐하겠나.》
《돌격대장동무가 정말 많은 일을 했지요. 할머닌 얼마나 대견하시겠어요.》
《뭐, 그 녀석 혼자 한 일이라구. 든든한 선초 아버지가 곁에 있구

군이 도와주구 온 농장이 달라붙은건데…》 하면서도 춘선은 자못 자랑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오늘 농장은 명절처럼 흥성거리였다.

마침 일요일이여서 아이들도 공연히 성수나서 마구 뛰여다녔다.

늙은이, 아이 할것없이 모두 떨쳐나 길이 미여지게 룩새벌로 꾸역꾸역 밀려갔다. 그들속에 진로인의 환한 얼굴도 보였다. 한쪽다리를 약간 살룩거리기는 했지만 지팽이없이 걸었다.

공사현장에는 벌써 도일보사 기자들도 내려와있었다. 그중에 사진기자는 몇해전 도뜨락또르운전수열성자회의때 정장선과 홍현실을 촬영하여 신문에 내준 기자였다.

그는 사람들속에서도 장선을 용케 알아보고 달려와 《정장선동무! 나요. 알아보겠습니까?》 하고 장선을 그러안았다.

《안녕하십니까? 내 알아 못 볼리 있나요. 일찍 오셨군요.》

장선은 바로 이 기자한테 부탁하여 신문에 난 사진을 더 크게 정성껏 깨웠던것이다. 어찌보면 그 사진이 실마리가 되여 현실이와 연분을 맺게 되였다고 할수 있지 않을가?

《그간 돌격대장사업을 맡구 큰일 했구만요. 이 방대한 공사를 단 여섯달동안에 끝냈으니.》

《저야 뭐 별로…》

《아니요. 완공된 이 공사를 보니 정말 여기 사람들의 투쟁모습이 짐작됩니다.》

청년작업반 젊은이들은 저발치에서 예술소조공연 출연준비하느라고 순이의 손풍금반주에 맞추어 노래련습에 열을 올렸다.

이때였다.

누군가 《옥천리쪽에서 저건 무슨 행렬이요?》 하고 놀라운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에 사람들의 눈길은 일제히 그리로 돌려졌다.

공사장길목에 강욱, 조수환과 함께 인혁이 서있었는데 그 앞길을 따라 뜨락또르를 앞세우고 삽을 멘 청년들의 행렬이 이쪽으로 오고있었다.

《저게 무슨 대렬시위하는것 같구만!》

《아니, 우리한테 경제선동하러 오는것 아니요?》

《그렇기도 하군, 우리쪽으로 오는걸 보니…》

장선이도 멍하여 행렬을 지켜보았다.

아니나다를가 그 행렬은 곧바로 공사장을 향해 다가오는것이였다.

행렬은 마판진수렁자리를 꿰질러 활주로처럼 쭉 뻗은 길 복판까지 와서 멎었다.

이미 조직사업이 이루어진듯 처녀들이 꽃다발을 한묶음씩 들고 서있었다. 인혁이 그중 한 처녀의 꽃다발을 빼어 장선에게 주며 그걸 뜨락또르운전수에게 직접 안기라고 하였다.

장선은 멋모르고 꽃다발을 든채 씨엉씨엉 걸어갔다.

뒤미처 처녀들이 와하고 달려나가 옥천리지원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박수소리가 요란하게 터졌다.

뜨락또르에 다가간 장선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래지였다. 뜻밖에도 운전칸에는 홍현실이 앉아있었던것이다.

《현실동무, 반갑소!》

장선은 가슴이 찌르르해졌다. 어망결에 튀여나간 《반갑소!》라는 말에는 그들만이 통하는 의미가 함축되여있었다. 그러나 그 애모쁜 의미를 새겨볼 경황이 없었다.

그는 운전칸에서 가볍게 뛰여내리는 현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할듯 입술을 실룩이다가 꽃다발을 든 현실의 손을 덥석 잡아 우로 쳐들었다.

《어마나!》

홍현실은 당황하여 황급히 손을 내렸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오늘 여기서 마감전투를 한다는 소식을 듣구 우리 농장에서 지원왔지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장선은 기쁘고 흥분했던 나머지 고맙소라는 말만 거듭하였다. 온몸에 새힘이 솟구쳐오르는것 같았다!

잠시후 마판진수렁터를 논으로 만드는 마감작업이 일제히 시작되였다.

휴식시간에 공사장의 한복판에서 청년작업반예술소조소품공연이 있었다.

옥천리지원자들은 금주리돌격대원들과 농장원들속에 뒤섞이여 빼곡이 원을 그리고 모여앉았다.

뜨락또르를 공연장소가까이에 멈춰세운 현실은 운전칸에 앉은채 손풍금반주를 멋들어지게 하고있는 순이를 바라보며 방그레 웃음을 짓고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예쁘장한 미소가 어려있으나 억실억실한 눈은 하염없는 생각에 젖어있었다.
워낙 청년작업반은 태반이 재간둥이들이여서 예술소품의 매 종목마다 사람들의 절찬을 받았다.
다음종목은 한선초의 독창이라는 소개자의 말에 농장원들은 웅성웅성하였다. 그가 이내 농대로 떠난다는것을 아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선초가 상글상글 웃으며 나서자 일제히 박수를 쳤다.
노래로써 정든 고향사람들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려는것일가? 사람들의 애무의 눈길이 쏠리는 가운데 순이의 건드러진 손풍금전주가 끝나자 선초는 노래를 불렀다.

버들꽃 곱게 핀 고향집에서
첫걸음 떼여준 어머니런가
당이여 그대는 이 몸을 안아
사랑의 손길로 키워주었네
아 당은 우리의 어머니
그 품에 영원한 행복이 있네

남몰래 싹트는 이내 희망도
살틀히 꽃펴준 어머니런가
당이여 그대는 행복의 요람
기쁨의 노래를 안겨준다네
…

청아하게 노래부르는 한선초의 눈에도, 농장원들의 눈에도 격정의 물기가 어리였다.
옥경은 선초가 나설 때부터 몰래 눈물을 훔치였다. 그는 누구인가를 살며시 눈길로 더듬어찾았다. 마침내 그의 눈길은 춘선의 곁에 앉은, 그 무슨 추억에 잠겨있는듯 한 인혁의 얼굴에 가멎었다.
한선초의 뜻깊은 노래를 듣는 수환의 가슴도 유별나게 울렁거렸다. 왜 한정길을 대하는 립장이 인혁이와 나는 그리도 판이했던가, 지금 보면 그것이 곧 그와 자기의 인간적풍모를 가르는 시금석같기도 했다.
수환은 짜그르르 터지는 박수소리에 흠칫하며 얼굴을 들었다.

청년작업반예술소품공연이 끝나고 오락회로 넘어갔다.
이미 오락회책임자로 내정돼있던 축산작업반 반장은 인혁이 미리 귀띔을 해준대로 《처음으로 옥천협동농장 2중3대혁명붉은기 기계화작업반 반장 홍현실동무와 금주협동농장 1작업반 반장이며 돌격대대장인 정장선동지의 혼성2중창이 있겠습니다. 자, 박수…》 하고 천연스럽게 소개하였다.
《거 소개가 요란하구만!》
《오늘 오락회의미가 새롭소.》
《그런데 왜 장선반장의 이름을 뒤에 놓소? 주인이야 금주리사람인데.》
《아, 모르는 소리 작작하오. 거 휘거 쌍경기때두 녀자이름을 먼저 부르지 않습데. 문화상식이 영 없군.》
즐거움속에 별소리들이 다 나왔다.
흥성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순이가 손풍금을 멘채로 이모한테 뽀르르 달려갔다.
푸접좋은 정장선은 그래주기를 바라기라도 한것처럼 홍현실의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농장원들은 와ㅡ 하고 웃음보를 터치였다.
정장선과 홍현실이 나란히 서자 금방 온 록새벌이 환해진것 같았다.
수환은 덩달아 박수를 치다가 문득 그들의 관계를 한사코 반대했던 자기의 체신머리를 모두 비웃는것만 같아 슬그머니 두손을 움츠리였다. 그 누가 자기의 어줍은 모양새를 지켜보고있지 않을가 하는 게면쩍은 생각이 없지 않아 넌지시 주위를 휘둘러보았으나 자기에게 눈길을 돌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는 정면으로 정장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정작 홍현실이와 짝을 지어 정면에 나선것을 보니 정장선은 나무랄데없이 끼끗하고 훤칠했다. 과연 사람을 보는 인혁의 눈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었다.
정장선과 홍현실은 귀속말로 무슨 약속을 하는듯 하더니 순이의 손풍금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따사론 그 품에 안기여 행복을 알았고
은혜론 그 빛발아래서 청춘은 빛나네
당의 뜻을 꽃피우는 한길에
아 한마음 바쳐가리라
…

오락회에서 첫 순서의 격에 맞게 둘은 노래를 잘 불렀다.

금주리청년들은 제풀에 흥이 나서 어깨를 들썩거렸다. 저렇게 눈매 억실억실하고 키꼴이 늘씬한 색시감을 점찍어두었기에 장선이 금주리 처녀들을 본척도 안했다고 롱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인혁의 곁에 앉은 박춘선은 홍현실을 넋잃고 바라보았다. 그가 도어느 연구사와 혼약이 됐다는 풍문을 듣고 락심천만해있을 때 길에서 우연히 만났건만 내색 한점없이 손짐도 져다주고 사갈도 신겨주면서 그리도 부드럽고 인정있게 굴던 일이 떠올랐다. 그사이 풍문으로 해서 손자에 대한 애잡짤한 심정을 금치 못해온것도 사실이였다. 그런데 저렇듯 보름달같이 환한 옥천리처녀가 장선이만을 마음속에 두고 있다는것을 알게 된 춘선은 막 날듯이 기뻤다. 지금은 사진으로가 아니라 실지로 현실이를 손자와 나란히 세워놓고 보게 된것이다!

《순이 아버지, 고맙네!》

춘선은 곁에 앉은 인혁의 손을 꾹 그러쥐였다. 그것은 천백마디의 말보다도 더 웅심깊은 심정의 표시였다.

오늘 정장선과 홍현실의 2중창을 들으며 어느 누구보다도 생각을 깊이한 사람은 현희였다. 동생과 어깨나란히 선 정장선이 전혀 다른 청년처럼 보였다.

여직껏 그의 집안을 두고 탐탁찮아한건 두말할것도 없고 거기에다 무슨 연구사청년이 끼여들어 그를 보면 도리질만 해온 현희였다. 기실 오늘처럼 장선을 마주세워놓고 똑바로 뜯어보기는 처음이였다.

얼마나 끼끗한 젊은이인가! 용모도 쑥 빠졌지만 대대로 버림받아온 마판진수렁을 기어코 정복하는데서 발휘된 그의 일솜씨는 또 얼마나 뛰여난것인가!

이 순간 전광을 번쩍이며 사진기자가 정열적으로 노래부르는 정장선과 홍현실을 그대로 사진기에 담았다.

추억깊은 촬영을 끝내고 기자는 더없이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

마판진수렁논정리까지 끝나 룩새벌은 한점의 티도 흠도 없이 바둑판같은 면모를 갖추고 눈뿌리 모자라게 펼쳐지게 되였다.

인혁은 어버이장군님께서 서계시였던 가마고개마루에 올랐다.

그는 한없이 절절한 마음을 안고 장군님을 그리며 룍새벌을 이윽토록 부감하였다.

바쁘신 현지지도길에 몸소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들이 하는 일을 그토록 높이 평가해주시고 장한 일을 한다고 고무의 말씀까지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

장군님의 그 신임과 은정에 보답할 일념으로 전투를 벌려 진수렁지대를 이렇게 일매진 벌로 펼쳐놓았는데 아, 언제면 장군님을 또다시 금주리에 모시고 변모된 룍새벌을 보여드릴수 있을가!

머지않아 푸르러 설레일 벼바다와 밋밋한 등성이에 자리잡은 열매주렁질 과일동산, 물고기 욱실거리는 양어장이며 즐비하게 늘어선 문화주택…

가슴속에서 움터자란 꿈은 현실로 펼쳐진다.

온 룍새벌이 설레이고 모두의 가슴을 격정으로 끓게 하던 그 리상이 아름답게 꽃펴난다.

문득 지난 일들이 떠올랐다. 뒤떨어진 사람들을 이끌고 고난을 헤치고 마음을 합심하여 걸어온 보람차고도 힘겨웠던 나날들이 돌이켜진다.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된 조국땅에서 살며 일해갈 인간들의 새로운 변모가 보인다. 고향을 가꾸는 일, 국토를 아름답게 변모시키는 일은 곧 사람들의 마음도 한껏 아름답게 정화시키는 길이였다.

(언제면, 과연 언제면 변모된 룍새벌의 새라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수 있을가. 언제면 장군님께서 우리의 미래가 담긴 룍새벌을 바라보시며 잠시라도 피로를 푸시게 될가. …)

룍새벌의 변모되는 모습의 증견자인듯 유유히 흐르는 옥천강을 바라보는 인혁의 얼굴에서는 행복의 미소가 흘러넘쳤다.